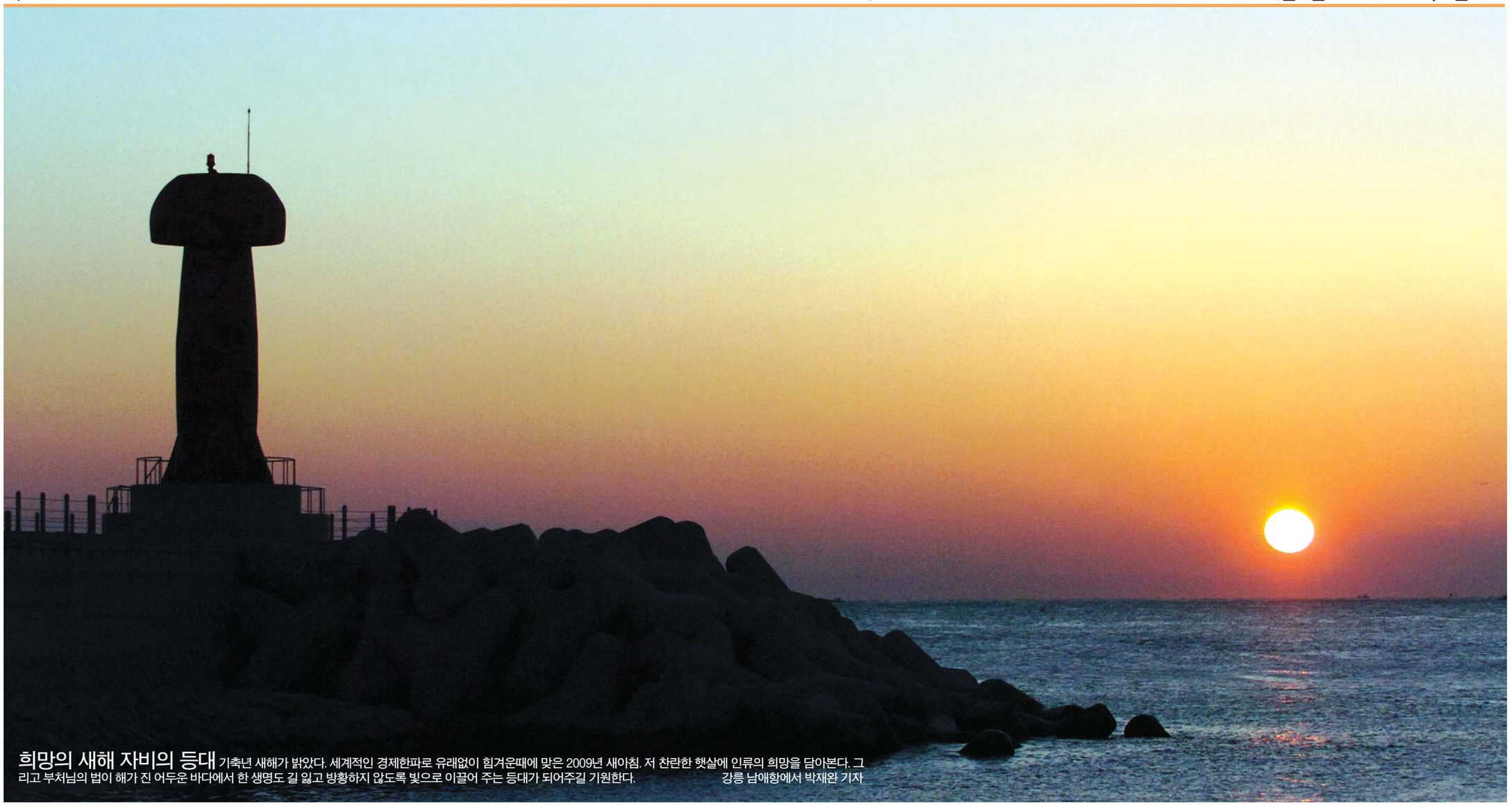

올곧은 마음으로 참된 공양물만을 만드는
능 인 향 당
향 · 조각 · 공양물
본사 02)3663-6777
(조계사 맞은편 02-730-6888 직영매장)

현대불교

신상품 LED인등 · LED전구
찬덕연등 031)792-6288/794-4055

제 712 호 구독신청 02)2004-8200 Buddhanews.com 불기 2553년 1월 1일(음력 12월 6일) 목요일(주간)



희망의 새해 자비의 등대 기축년 새해가 밝았다. 세계적인 경제한파로 유래없이 힘겨운때에 맞은 2009년 새아침. 저 찬란한 햇살에 인류의 희망을 담아본다. 그리고 부처님의 법이 해가 진 어두운 바다에서 한 생명도 길 잃고 방황하지 않도록 빛으로 이끌어 주는 등대가 되어주길 기원한다. 강릉 남애항에서 박재완 기자

행복을 원하는가? 일체를 공경하라

本紙 2009년 캠페인 '부처인 당신을 공경합니다' 전개
공경 실천으로 '갈등의 격랑' 헤치는 빠른 길 찾아야

소설가 남지심의
새아침 제안

"부처인 당신을 공경합니다."

상불경보살이 한 말이다. 상불경보살을 이해하기 위해 <법화경>의 '상불경보살품' 일부를 읽어보자.

위음왕 부처님께서 멸도하시고 그 부처님의 정법도 멸한 뒤인 상법시대에 증상만(增上慢), 즉 깨달음을 얻지 못했으면서도 얻었다고 생각하며 아만심에 빠진 비구들이 큰 세력을 지니고 있었다. 그 때 상불경이라고 하는 보살비구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상불경인 것은 그가 비구든 비구니든 우바이든 우바새든 자신의 눈에 띄기만 하면 그들을 향해 예배하고 찬탄하며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나는 당신들을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당신들도 다 보살도를 닦아서 부처님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불경보살은 가르침을 읽거나 외우지 않고 항상 이렇게 예경만을 하였다.

그러자 사부대중 가운데 일부 무리들은 상불경보살을 향해 화를 내며 욕을 하기도 하고, 심하면 몽둥이로 때리거나 돌이나 기왓장을 던지기도 했다. 그럴 때면 상불경보살은 멀리 도망을 가면서도 다시 큰 소리로 외쳤다.

"나는 당신들을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은 다 보살도를 닦아서 부처님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을 공경하고 예배하던 상불경보살이 마침내 열반에 들게 되었다. 그러자 허공에서 위음왕 부처님이 설하신 법화의 모든 게송이 울려오면서 육근이 모두 청정해졌다. 그리고 이어 큰 신통력을 얻게 되고 수 천 수 만 수 억의 중생들에게 법화의 가르침을 자유자재로 설할 수 있게 되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득대세에게 상불경보살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신 후 놀랍게도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신다.

"득대세야, 그대 생각은 어떠하냐? 그때의 상불경보살이 어찌 다른 사람이겠느냐? 내가 곧 그이다."

〈3면에 계속〉



2009년 신년특집 48면 발행

A 새아침 발원

기자들의 새해소망	4면
'희망'으로보는 불교계	5면
단체장 새해설계	7면
종단지도자 신년법어	12~13면
2009 기대상품	15면

새아침 맞이 B

발원과 기도	2~3면
새아침에 만난 불자-강부자	5면
새아침에만난 선지식	12~13면
새아침에 읽는 동화	15면
종교편향없는 해	18면

새해 독자님 가정에 부처님 가피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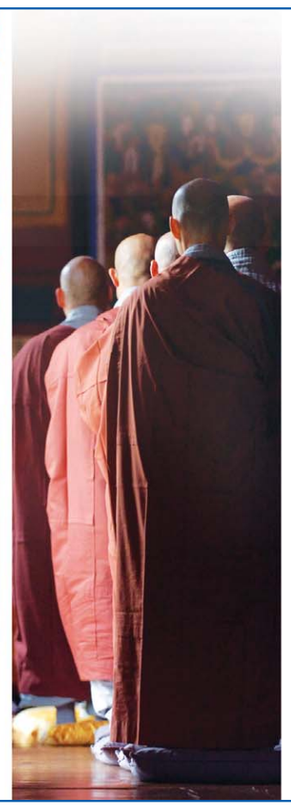
첫서리 맞은
금강선원 뽕잎차
현대 불교 신문 연재 | 초중스님의 뽕잎차 이야기
당뇨병, 고혈압, 혈액순환
주소창에 치세요
주소(D) 뽕잎차

뽕잎차 주 문 TEL 055) 931-9590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 통도사말사 금강선원

"숲 향산화 원액 100%"
청 다 향
덕유산 청다향 문의 055)941-1083
부처님 제일공양
한국최초 식품과학
연구분석(동국대)
51가지 향기판명







2009年 己丑年 모든 불자와 국민들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수행과 전법으로 정진하는 조계종

종정 도림 법전

원로회의의장 종 산
중앙종회의장 보 선
호 계 원 장 법 등
총무원장 지 관
교육원장 청 화
포교원장 혜 총

대한불교조계종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전통사찰 보존에 최선 다하겠다"

이회창 총재, 조계사 참배 후 지관스님 예방



지관 스님이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에게 <반야심경> 경판을 선물하고 있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가 구랍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 전통사찰보존법 개정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날 환담에서 지관 스님은 "자연보호를 위해선 관련법이 까다로워야 하지만 (현재의 법으로는) 전통사찰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회창 총재는 "전통사찰은 우리나라 문화 그 자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전통사찰이 바람직한 방향에서 보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지관 스님은 환담 후 이회창 총재와 심대평 자유선진당 대표에게 <반야심경> 경판을 선물하고 "국민과 국가를 생각하는 정치인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환담에는 이회창 총재의 부인 한인옥 여사와 총무원 기획실장 장적 스님, 재무부장 정념 스님, 조계사 주지 세민 스님, 자유선진당 박상돈 사무총장, 이명수 대변인 등이 동석했다.

한편 이회창 총재 내외는 지관 스님 예방에 앞서 조계사 대웅전에서 부처님 전에 헌화하고, 삼배의 예를 올렸다. 김진성 기자

현대불교 영상사업 안내

본사는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영상광고는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생생한 메시지 전달로 이미지 형성 및 설득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영상사업 분야**: 사찰홍보, 행사, 개인다큐(자서전), 단체 사찰순례, 강의, 법문, 기업 성지순례, 기업동영상홍보제작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장/감독**:김봉환 (前 KBS/동아TV촬영감독, 강원대 영상학 강사)

문의 : 02-2004-8279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 ·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김송호**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5199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부처님 말씀없이 佛法도 없어"

조계종 불학연구소, '간경수행 입문' 등 발간



서산 대사는 "교는 부처의 말씀이요 선은 부처의 마음(敎是佛語 禪是佛心)"이라 했다. 선종 중심의 한국 불교를 오해한 사람 가운데는 마음 닦기가 중요하다며 부처님 말씀을 소홀히 하는 이들이 많다. 경전은 고해(苦海)를 건너는 뗏목이며,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는 말씀에 대한 무지 때문이다. 무엇을 타고 강을 건널지, 달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어리석음 탓에 '팔만대장경'은 '장경각'에 보관된 유물 취급을 받으며 제대로 읽혀지지 못했다. 경전을 읽지 않는 분위기는 불교출판 시장 위축은 물론 포교에도 어려움을 초래한 자충수가 된 것이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소장 현종)가 <간경수행 입문>(조계종출판사 刊 · 사진)을 발간했다. 불학연구소의 수행입문시리즈 5번째로 발간된 이 책은 '경이란 무엇인가' '경전과 수행' '간경수행의 목적' '간경수행의 방법' '간경수행시 주의할 점' '간경수행의 효과와 공덕' 등을 본격적으로 다뤘다.

책은 "자기를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으라(自燈明法燈明)"는 부처님 유훈을 소개하며, 간경은 부처님 말씀에 비춰 자기를 바로 세우는 수행법이라고 소개했다. "경을 읽고 경의 내용을 깊이 사유하는 일은 바른 믿음을 위한 가장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수행"이란 설명이다.

간경수행은 바른 믿음, 바른 앎과 깨달음, 삼매의 궁극적 지혜의 성취는 물론 소원성취를 위한 기도, 영가천도와 극락왕생을 기원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간경수행은 언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지도하는 스님의 권유에 따라 경전을 정하는 것이 좋지만 이 책의 5장에는 어떤 경전을 읽을지에 대해서도 적었다. 경전은 정해진 시간 없이 자신이 편리한 시간에 읽어도 무방하다. 생활이 불규칙하다면 시간을 정하는 대신 경을 읽는 횟수나 소요시간을 정해 읽는다.

한 경전을 얼마나 읽어야 할까?

책은 기도하는 기간에 따라 소의 경전을 읽되, 경의 내용을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그 경을 놓지 말라고 설명했다. 또 간경수행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몇번이고 되풀이해서 읽고 △소리 내어 읽고 △의심을 하고 질문을 만들 것이며 △궁금하면 해설서를 참조하고 △수시로 메모할 것 등을 권했다.

한편 불학연구소는 이번에 강원교과서 가운데 하나인 <사집(四集)>의 참고서라 할 수 있는 <사집사기(四集私記)>도 발간했다. <사집>은 <선원제전집도서> <화엄절요> <서장> <선요>를 모은 강원 교재다. 연구자를 위한 최초의 참고교재로 발간된 <사집사기>는 <사집(四集)>의 난해한 내용을 대강백들이 각자의 견해로 내용을 심화 연구한 저술이다. 불학연구소는 동국대 도서관에 보관된 필사본을 바탕으로 동국역경원 등과 함께 5년여 동안 불사를 회향했다.

현종 스님은 "월운 스님(봉선사 조실)을 비롯해 정인 스님(은해사 승가대학장), 각성 스님(부산 화엄사 회주)의 교정 및 현토와 감수 덕분에 출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사찰 전기 안전점검하세요"

조계종, '사찰 전기안전 진단·현황보고서' 발간

매년 일어나는 화재는 3만여 건. 이 가운데 전기로 인한 화재는 1만1000여 건으로 화재의 30%를 넘는다. 사찰 화재 역시 전체 416건 중 171건이 전기합선 및 누전에 의해 발생됐지만 그동안 기초조사가 돼 있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부장 수경)가 구랍 24일 문화재를 보유한 사찰 중 법주사, 개심사, 불국사 등 33곳을 대상으로 현황조사 및 안전점검을 실시해 <주요사찰 전기안전 진단 및 현황보고서>를 발간했다.

조사 결과 사찰 전기시설 점검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수 사찰에서 건물 내 · 외부 배선과 전선 재질 등이 노후한 것이 발견됐고, 누전이 발생했을시 이를 차단하는 시설이 미비했다. 특히 소규모 사찰의 경우 문어발식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전기화재의 위험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계획을 수립했던 이분희 문화부 행정관은 "문화재청과 소방방재청, 전기안전공사 등 관련기관의 정책이 혼선을 빚고 있는 가운데 대개의 사찰도 전기시설을 관리하는 전담인력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정기적으로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사찰의 능동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행정관은 "문화재 건축물의 전기 · 소방 설비가 일반건축물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며 "문화재보호법 상 문화재건축물은 설계와 시공 등에 전기분야 기술자 참여 등 전문 시방서와 지침에 의한 기술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동섭 기자

초발심으로 기축년 포교원력 다진다

포교원, 17일 속리산에서 포교신도단체임원대회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은 1월 17~18일 속리산 유스호스텔에서 포교신도단체임원대회를 개최한다.이번 포교대회는 포교활동가의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새로운 신년 포교원력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대상으로는 포교원장 혜총스님을 비롯해 포교원 교역직 · 일반직 종무원, 교구본사 주지 스님 및 포교국장, 중앙종회 포교분과위원, 불교대학 소임자 등 포교신도 관계자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2008년 한해 활동을 되짚어 보고, 신행단체 2009년 사업계획서 및 새해 슬로건을 담은 서원을 발표한다.

한해동안 포교활동에 힘쓴 동로자와 단체에 감사패와 격려금도 전달된다.

포교원 관계자는 "포교현장에서 활동가들간의 우호를 다지고 구체적인 실천을 독려해 부처님 가르침을 보다 폭넓게 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포교신도단체임원대회'는 2005년부터 진행돼 포교교류의 장이 되어 온 '포교전진대회'의 명칭을 바꾼 것이다. 노덕현 기자

조계종 행자교육원 개원

김천 직지사서

조계종 교육원(원장 청화)은 구랍 19일 제4기 4차 행자교육원 운영회의를 개최하고 제36기 행자교육원 개원 일정을 확정했다.

행자교육원은 2008년 9월 5일 이전 입산해 12일까지 교육원에 행자등록 후 교구본사행자교육을 필한 255명(남행자 179명, 여행자 76명)을 대상으로 2009년 2월 14일~3월 8일 김천 직지사(주지 성웅)에서 열린다. 접수는 1월 6일까지 해당교구본사에 하면된다. 입교시에는 <행해입문> Ⅰ · Ⅱ <행해독송집><승가의범>등 행자교육 교재를 필히 지참해야 한다.(02)2011-1801 조동섭 기자

진전사·복천사·내원정사 전통사찰 지정

전통사찰 933개로 늘어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광부)는 구랍 19일 양양 진전사(주지 홍구), 부산 복천사(주지 경호), 부산 내원정사(주지 정련)를 전통사찰로 추가 지정했다.

진전사는 도의 국사가 창건해 선종을 개창한 사찰로 조계종 선종의 근원지로 중요한 사찰이다. '진전사지 3층석탑(국보 제122호 · 사진)'과 '진전사지 부도(보물 제439호)' 등 중요문화재 다수를 보유하고 있다.

복천사는 약사전, 명부전, 칠성각 등 전각들이 전통 건축양식을 갖췄다. 부산시 유형문화재 7점(불화) 외에도 다수의 불경을 소장하고 있다.

내원정사도 대적광전 등이 불교 전통 건축양식에 의해 건립됐다. 문광부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경내지 전각 등 가람배치가 전통사찰의 품격에 어울린다"고 말했다.

진전사 등 3개 사찰이 신규로 지정돼 전국의 전통사찰은 모두 933개로 늘어났다. 신규로 지정된 사찰들은 지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 · 도에 등록해야 전통사찰로서의 법적인 자격을 갖게 된다. 전통사찰로 지정되면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해 보호 및 예산지원을 받게 되나, 매도 허가 등 일정한 제한이 따른다. 조동섭 기자

사 령

命: 김진성, 이나은, 이상언
편집국 취재부 취재기자 2009년 1월 1일

불기 2553(2009)년 기 축 년

"대승보살의 서원과 실천으로"



선학원에서 열린 조선불교선종 제 1회 수좌대회(1931년 3월 14일).

한국의 청정 전통 선맥을 계승합니다.

선의 현대적 계승을 통해 21세기 정신문명을 선도합니다.

재단법인 선학원 임원 일동

재단법인 선학원

우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40번지 I 전화 (02)734-9654~6 I 전송 (02)734-3410

“이웃 위해 살며 성불하자”

〈1면에서 계속〉

부처님 가르침을 최상의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는 불자들은 성불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 그럼 어떻게 성불에 이를 수 있는가?

부처님은 자기 자신이 전생에 상불경보살이었음을 밝히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상불경 보살마하살은 이와 같이 많은 부처님들을 공양하고 공경하며 존중하고 찬탄하며 갖가지 선근을 심었다. 그리고 그 뒤 다시 수 천 수 만 수억의 부처님들을 만나 그 부처님들 법 가운데에서 이 가르침을 설하였기에 공덕을 다 이루어 성불하게 되었다.”

부처님이 하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은 수많은 부처님들을 공양하고 공경하며 존중하고 찬탄하여 갖가지 선근을 심는 것과, 수 천 수 만 수억의 부처님들을 만나 법화의 가르침을 설하는 것이 성불에 이르는 길임을 알게 된다. 그렇다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수 천 수 만 수 억의 부처님이란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상불경보살품’ 뿐 아니라 <법화경>을 읽다보면 부처님의 수가 한량없이 많음을 묘사한 내용이 수없이 나온다. 우주 전체로 본다면 부처님의 수가 그렇게 많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구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고개가 갸웃해지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경전을 찬찬히 정독하면 이런 의구심은 저절로 사라진다. 상불경보살이 공양하고 공경하며 존중하고 찬탄했던 부처님이 바로 우리들 중생이며, 상불경보살이 법화의 가르침을 설했던 부처님이 바로 우리들 중생임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이건 얼마나 놀라운 발견인가!

지금까지 우리들은 성불을 한 부처님만을 부처님이라고 생각해 왔다. 그래서 그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공경하며, 존경하고, 찬탄해 왔다. 그런데 상불경보살은 우리 곁에 있는 모순투성이며, 사악하고, 그래서 혐오스럽기까지 한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부처님께 올렸던 예경을 그대로 올리고 있다.

어떻게 그런 인식의 전환이 가능할까? 물론 이론적으로 말한다면 모든 생명에는 부처님과 동일한 불성이 있으므로 그 불성을 키우고 지키면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말은 내 것이 되지 못하고 있다. 내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상대방 속에 내재해 있는 불성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말과 같다.

그렇다면 상불경보살은 모든 사람에게 내재된 불성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예경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일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예경을 올리다 보니 자연스럽게 상대방에게 내재된 불성이 보여 진 것일까? 이 물음에 대한 정확한 답을 나로서는 알 수가 없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상불경보살은 일체 중생에게 예경을 올림으로 해서 아뇩다라삼막삼보리를 얻어 성불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 말을 바꿔서 하면 일체 생명에게 예경을 올리는 마음을 가지지 않고는 성불에 이를 수 없다는 말이 될 것이다.

새해가 밝았다. 그러나 주위는 침울하다. 생존해 있는 것이 힘들 만큼 모든 것이 어렵다. 그러다 보니 마음도 각박해지고 주위를 둘러 볼 겨를도 없어진다. 이런 속에서 이해관계라도 얽히다 보면 상대방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기가 십상이다.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순간 내가 우주 속의 작은 행성인 지구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경이로운가. 그리고 내 주위에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수많은 생명이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이 또 얼마나 경이로운가. 내가 행복해지고 싶듯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 하나하나도 행복해 지고 싶어 하고, 내가 내 가족과 더불어 평화롭게 살고 싶어 하듯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하나하나도 그들 가족과 더불어 평화스럽게 살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생명에 대해 말할 수 없는 연민이 차오르면서 가슴속이 따뜻해져 온다.

“부처인 당신을 공경합니다”라는 상불경보살의 말이 조금 멀게 느껴진다면 “당신도 나처럼 가족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살아가시도록 작은 힘으로나마 돕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어떨까?

만나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서로서로가 서로를 향해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세상은 좀 더 밝아질 것이다.

우리는 지금 갈등의 격랑 속에서 살고 있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정치인들끼리,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학자들끼리,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예술인들끼리,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업인들 끼리, 종교인들은 종교인들끼리…. 뿐만 아니라 이념으로 갈리고, 생활수준으로 갈리고, 지역으로 갈리고, 연령으로 갈려서 서로 증오하고 있다.

그러나 잠시 마음을 접고 상대방을 바라보면 그 사람도 나처럼 가족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음을 알게 된다. 동병상린, 눈시울이 뜨거워지지 않을 수 없다.

상불경보살은, 아니 석가모니 부처님은 우리처럼 못나고 볼품없는 중생에게 예경을 드림으로써 성불에 이르렀다. 우리도 우리 이웃이 행복에 이르기를 비는 마음으로 새로운 상불경보살이 되어 볼 수는 없을까? 2009년을 밝히는 태양과 더불어서 말이다.

“당신도 나처럼 가족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살아가시도록 작은 힘으로나마 돕고 싶습니다.”



■ 소설가
남지심

성도절, “우리도 부처님처럼…”

전국 사찰서 성불 발원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날을 기념한 성도절(음력 12월 8일). 불교의 4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성도절에는 전통적으로 부처님의 고행과 깨달음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는 참선과 절 수행 등 참회 정진행사가 주를 이뤘다. 그러나 올해는 전국 각 사찰에서 ‘지혜의 등 밝히기’ ‘부처님 되신 날 신년 음악회’ ‘성도기(成道記) 영화감상’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성도재일’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성불을 발원하는 자리가 마련돼 관심을 모은다.

남양주 봉선사(주지 인묵)는 성도재일을 맞아 대중 전체가 수행으로 새해를 맞이하고 한 해의 원력을 세우는 철야정진법회를 마련했다. 1월 2일 오후 6시 부처님 탄생부터 깨달음을 얻기까지의 과정을 그린 영화를 상영하고 명상, 인묵 스님 법문, 철야정진, 법계도발원 등의 프로그램을 3일 새벽 5시까지 진행한다.

고양 흥국사(주지 대오)는 1월 2일부터 새해 소망의 등불을 밝히며 철야기도와 참선법회를 봉행한다. 2일 오후 10시부터 3일 새벽 5시까지 신묘장구대다라니 108독송 철야기도법회, 철야참선법회, 108대참회, 새벽 기도를 진행한다.

수원 수원사(주지 성관)는 음악회로 ‘부처님 되신 날’을 맞이하며 구랍 27일부터 8일간 봉축기도를 봉행한다. 또 1월 2일 오후 7시 불교문화원 3층 만불보전에서 마술사 김민형, 소프라노 김윤형, 안산시립국악관현악단 등을 초청해 ‘부처님 되신 날 신년음악회’를 개최하고 3일 새벽 5시까지 철야정진으로 불심을 다진다.

거제 금강사(주지 성원)는 1월 3일 오전 10시 금강사 법당에서 금강사 부설 자비어린이집 어린이와 지역주민이 동참한 가운데 성도절 축제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어린이들의 찬불가 합창과 주민이 직접 준비한 먹거리로 성도절을 축하할 계획이다.

부천 석왕사(주지 영담)는 성도절을 맞아 구랍 27일 연등을 점등하고 3000배 정진기도에 들어갔다. 1월 2일 오후 8시부터 1월 3일 새벽 4시까지는 철야정진으로 성도절의 의미를 되새긴다.

서울 조계사(주지 세민)는 1월 2일 오후 9시부터 3일 새벽 4시까지, 화성 용주사(주지 정호)는 1월 2일 오후 7시부터 대웅보전과 효행교육원에서 성도재일 봉축 점등식을 갖고 철야정진을 하며 성불의 의지를 다진다. 대전 청림회(회장 효경)는 1월 3일 오후 2시 충남대 정심화 국제문화회관에서 기념법회를 열고 자랑스러운 불자상 시상식과 장학금 전달 및 군법사 공로패 수여식을 봉행한다. 공주 동학사(주지 견성)는 구랍 27일부터 1월 3일까지 성도재일 7일 기도를 봉행하는 등 전국 사찰에서 다양한 성도절 행사가 준비중이다.

이상언 기자 un82@buddhapia.com

소녀시대, “자비로 나눔시대를 만들어요”

JTS 연말 거리모금 캠페인, 연예인 대거 동참



소녀시대 수영(좌), 유리가 JTS거리모금 캠페인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150원이면 세계 빈곤국 어린이가 한 끼를 먹을 수 있습니다.”

연말연시 부처님의 자비로 이웃을 돕는 일에 방송 · 연예인들이 대거 동참해 눈길을 끈다. 국제구호단체 JTS(이사장 법륜)는 구랍 20일 서울 명동 우리은행 앞에서 ‘모두 우리 아이입니다’를 슬로건으로 세계어린이 빈곤퇴치 모금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행사에는 탤런트 배종옥 · 김여진 씨(JTS홍보대사)와 소녀시대, MBC방송연예인협회 소속 작가, 모델 등 50여 명의 자원봉사자와 김영사, 한마음혈액원 직원들이 참가해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추운 날씨에도 소녀시대를 비롯한 참가 연예인의 호소에 구름같은 인파가 몰렸다. 거리 모금행사는 명동역에서 우리은행 앞, 을지로입구역까지 명동 전 일대에 걸쳐 펼쳐졌고, 짜이차 보시, 제3세계 사진 거리전시회도 열렸다. 한편, JTS는 이날 시작한 ‘모두 우리 아이입니다’ 캠페인을 구랍 24일 전국 13개 도시에서 동시에 전개했다.

노덕현 기자





심신수행으로 좋은 성적거둔 불자체육인 한자리에

조계종 체육인불자연합회(회장 이기흥)는 구랍 22일 총무원 2층 회의실에서 2008 베이징올림픽과 패럴림픽(장애인올림픽)에서 선전한 불자선수와 지도자 등 3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송년법회를 개최했다. 체육인불자연합회는 선수촌 법당 주지 현종 스님(조계종 불학연구소장), 운영위원장 법장 스님(조계종 교육부장), 권칠현 감독(보치아), 문창주 코치(탁구)등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패럴림픽 금메달리스트 이화숙(양궁 여자 개인), 윤영배(양궁 남자 단체), 정은창(탁구 남자 단체) 선수 등에게 격려금을 전달했다.

이상언 기자

교과부, 대학 내 종교시설 건립 등 자유화 조치

내년부터 대학 캠퍼스 안에 종교시설 건립이 가능해져 ‘대학 복음화’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구랍 22일 ‘대학 설립 · 운영 규정 개정안’을 발표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내년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 및 기관이 사립대학 안에 사찰 · 교회 등 종교시설을 비롯해 쇼핑몰, 헬스클럽 등 각종 판매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을 직접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구내식당, 은행 등 교육지원시설만 가능했다.

조동섭 기자

2009년에도 바라시는 모든일 잘 되길 바랍니다

'긍정'의 힘으로 둘이 아닌 세상을

힘들다는 말을 많이 하면 정말 힘들어진다. 어렵다는 말을 많이 하면 진짜 어려워진다.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에는 인위를 뛰어넘는 힘이 있다. 그러므로 새해에는 힘들다는 말과 어렵다는 말을 하지 않으며 살고 싶다. 힘들고 어려워도 "괜찮아. 금방 좋아질거야" 하면서 살고 싶다. 긍정적인 사람에게는 부정적인 사람보다 좋은 일이 더 많이 생긴다. 사람들아, 세상 사람들아. 좋은 생각 좋은 말로 한해를 따뜻하게 살자.

경제 위기도, 종교편향도, 종교 내부의 갈등도 모두 부정적인 견해에서 비롯된다. 남을 먼저 배려하고 인정하기보다는 나를 먼저 내세우고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세상의 혼란이 오는 것이다. 새 해에는 나를 긍정하고 너를 긍정하는 마음으로 나와 너가 일체임을 알아가자.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부처인 당신을 공경합니다"라고 말하자. **임연태 부국장**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염원

새해에는 부모님을 비롯한 가족 모두 건강했으면 합니다. 중학교와 초등학교에 진학하는 영은 · 영웅이가 더욱 밝고 착하게 자랐으면 합니다.

현대불교는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직원들이 먼저 마음의 평안을 얻어 독자들에게 행복을 전할 것입니다. 기존의 수행 · 신행 전문지에서 건전하고 균형잡힌 비판 기사와 불교를 외호하는 기사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교계는 서로 화합해서 인재양성과 포교에 심혈을 쏟았으면 합니다. 더이상 분규와 상호 비방, 갈등 없이 국민에게 안심을 주고 존경받는 종교가 되리라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념 · 지역 · 세대갈등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이뤄 경제난을 극복하고 남북간의 평화가 정착되길 염원합니다. 나아가 지구촌의 모든 전쟁이 종식되고 모두가 평등하게 잘 살면서 진리를 찾는 일에도 관심을 갖게 되길 기원합니다.

저는 이와 같은 모든 일을 성취하기 위해 보살의 마음으로 모든 이를 공경하면서 쉼 없이 정진하겠습니다. **김성우 취재부장**

내셔널지오그래픽에 나의 사진을

세계적인 잡지 내셔널지오그래픽에 나의 사진이 실린다면….

내셔널지오그래픽은 미국 국립지리학회가 1888년 창간한 잡지로, 처음에는 지리에 관계된 지식을 보급하기 위해 발간되었으나 현재는 지구에 관한 모든 것을 전하는 잡지로 발전했다. 발행부수는 약 1000만 부, 전 세계적으로 3000만 이상의 인구가 읽고 있으며 한국판도 발행되고 있다.

특히 컬러사진을 풍부하게 싣는 것이 특징이어서 사진가들에게는 '꿈의 무대'라 할 수 있다. 2009년, 한국의 사찰풍경을 내셔널지오그래픽에 싣고 싶다. 본지에 연재하고 있는 '박재완 기자의 사찰풍경'을 내셔널지오그래픽에도 싣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잡지를 통해 한국불교의 우수성을 알리고 이를 통해 불법(佛法)의 가치 또한 널리 알리고 싶다. **박재완 사진부 차장**

"일과 재미, 둘 다 잡는 한해를"

대외적으로 자꾸 위축돼가는 것만 같은 불교 교세가 확장됐으면 좋겠다. 경제위기와 더불어 불교도 위기의 백척간두에 선 듯하다. 위축된 모습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불자들이, 사부대중이 초심으로 돌아가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초심을 많이 잃었다. 어떤 방법으로 수행하든 부처님 말씀을 따르고 실천하는 불자가 되고 싶다. 수행한답시고 아만 아상만 높아서야 부처님 말씀을 배척하는 것일 뿐이다.

대내적으로 보다 나은 나를 위해, 보다 발전된 회사를 위해 내 마음도 다지고 내 능력도 키우는 한해이고 싶다. 나이를 먹는 것만큼이나 회사에서 연차가 많아지면 그 역할이 권한보단 의무가 커진다. 의무라 무겁게 생각하기 보다 발전이라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할 것이다. 평생 보다 나은 인생을 위해 삶을, 세상을 배우는 그리고 그것을 즐기는 한해를 만들어갈 것이다. 세상이 힘들다 해도 부처님법 안에서 재밌게 일 하는 사람만큼 더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내가 가진 일과 재미 둘 다 잡아버릴테다! **강지연 편집 차장**

"구독중단 만은 말아주세요"

얼마 전 한 독자의 전화를 받았다. 기사를 보고 한 수행단체를 찾았다는 독자 분은 기사에 적힌 것과 달랐다며 언성을 높였다. 이런 전화를 받으면 일단은 독자 분의 노여움부터 달래고 자초지종을 설명하려 하지만 참 쉽지 않다. 기사 쓰는 것보다 뿔난 독자 달래기가 더 어렵다. 내 마음이든, 남의 마음이든 '마음' 얻기가 그 만큼 힘들기 때문이리라.

지난 해, 우리는 미친 소가 휩쓴 광우(狂牛)의 한해를 보냈다. 이제는 남 아닌 내 자신과 싸워 이기는 멱우(覓牛)의 한해를 보낼 때가 아닐까? 2009년은 모두가 '마음의 소'를 찾아 정진하는 심우(尋牛)의 해가 되길 바란다.

기자는 전화주신 독자의 채찍은 물론, 묵묵히 '현대불교신문'을 지켜보는 분들의 애정을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다. 기자가 올해도 뚝심을 갖고 정진하는 우심(牛心)과 우력(牛力)으로 '정론직필(正論直筆)'을 위한 우행(牛行)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홧김에라도 구독중단 하지 않는 독자 분들의 한결같은 성원을 기대한다. **조동섭 기자**

포교사 같은 마음으로…

지난 날을 돌이켜 보면 불교는 나에게 나를 움직이는 '힘'이었던 것 같다. 불교는 내가 힘들었던 일들을 극복할 수 있게 했고, 마음을 좀 더 넓게 쓸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준듯하다.

그래서인지 자연스럽게 불교와 관련된 일을 시작하게 됐고, 지금은 불교를 바르게 알릴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하는 편집기자가 된 것에 매우 감사한다.

2008년엔 불교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새해에는 어떤 종교든 편애가 없길 바라며 좋은 일, 바른 일들을 정확하게 불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바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포교사가 된 마음으로 편집할 것이다.

2009년에도 우리 독자님들과 불자들이 건강하고 힘찬 한해가 되기를 바란다. **석정희 편집기자**

제1회 불교국제영화제 발족!'

유명인과 일반인, 남녀노소를 아우르는 불교문화 콘텐츠 시장이 불교국제영화제에 있다. 불교국제영화제가 한국에서 개최되길 기원한다. 그렇게 되면 전 세계 영화시장을 순방, 불교영화를 발굴하는 '프로그래머(programmer)'로 활동하고 싶다. 대형 극장상영과 함께 천년 고찰에 야외 스크린을 설치해 별빛 조명삼아 부처님 말씀을 감상한다면 연등축제와 또 다른 묘미를 민끽할 것이다. 물론 영화제 풍경이 담긴 데일리뉴스는 현대불교신문이 맡는다.

고승의 흔적을 쫓는 역사물, 수행자의 고행을 조명한 인물 다큐멘터리 섹션, 어린이를 위한 애니메이션, 사랑을 다룬 드라마 장르도 있어야 한다. 불교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양한 종교를 주제로 한 영화도 비교 상영한다. 단순 볼거리에만 그치지 않고 불교문화를 주제로 한 세미나와 배우, 감독과의 대화를 마련하고 불교영화를 일상에 응용한 제품들도 전시 판매한다. **가연숙 기자**

장자로, 기자로, 불자로 3UP! 정진!

2009년은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한 가정의 장자로서, 한 신문사의 기자로서, 한 사람의 불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기자로서 힘든 경제난 속에도 구독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행복을 전달하는 기사를 쓰고 싶다. 날카로운 비판 속에도,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닌 행복을 위한 비판 기사를 쓰고 싶다.

불자로서 불교계 이슈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불자들이 행복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궁구하고, 또 공부하겠다. 불자의 눈과 귀로서 나부터 내 역할에 충실해 2009년에는 불법이 융성한, 모두가 행복해지는 한해가 되길 기대한다. '행복'을 주는 신문. 현대불교신문 파이팅! **노덕현 기자**

"우물쭈물 살다가 내 끝내 이렇게 될 줄 알았지."

아일랜드 극작가 버나드 쇼의 묘비에 새겨진 글이다. 뜨끔하다. 오늘이 마감인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제 난 잠시의 안일을 위해 눈감아버렸다. 지금 난 죽을 지경이다. 그동안 내 삶은 이렇게 어영부영하는 하루하루였고, 그러다 보니 어느 덧 나이는 서른 즈음이 됐다. 언제까지 살 것인가? 2009년 새해는 현대불교 독자들의 이름을 걸고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기자가 될 것을 다짐한다. '후회 없는 삶을 살았네' 라는 유언을 남길 것을 약속하며. **이상언 기자**

어려워도 책 잡은 손 놓지 않기를

경제가 어려워 책을 사서 읽어볼 여유가 없을지라도 새해에는 내 자신을 포함해 많은 이들이 불교 도서를 빌려서 보든 구입해서 보든 많이 읽고 마음을 다잡는 시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많은 청년들이 무늬만 불교신자가 아닌 적극적인 수행자로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불교가 기복신앙이 아닌 얼마나 세련되고 과학적인 종교인지 많은 이들이 현대불교를 통해 알았으면 좋겠고, 그들을 위한 다양한 기획기사를 내기위해 아이디어도 제시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외국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달라이 라마 같이 해외의 정신적 지도자들을 만나 인터뷰를 하는 기회를 갖고, 경력이 쌓이면 해외의 불교서적들을 번역해 출판 하고 싶다. **이나은 기자**

불교계 힘 얻는 2009년 되길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다니는 선원에서 매주 금요일 마다 경전법회를 하는데 정말 많은 사람이 모여서요. 혹시 취재 오실 수 있으세요?"

본지 독자라는 한 불자에게 취재요청 전화를 받았다. 독자는 "개신교의 공격적인 종교 표현으로 불교가 위축된 요즘, 평일 오전 시작하는 경전공부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독자의 지적처럼 2008년은 '불교계 수난의 해'였다. 이는 특정인의 종교적 신념 또는 편향적 자세 때문이기도 하지만, 불자 스스로 '행동'하지 않은 데에도 한 원인이 있다. 현대불교신문은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를 기치로 내실 있는 문서포교에 앞장서왔다. 작금의 위축된 불교계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현대불교신문 기자인 나는 발로 뛰어 만든 생생한 기사로써 독자들에게 한층 더 다가서리라 다짐한다.

독자여러분! 2009년도 현대불교신문의 발로 뛴 기사와 함께 힘찬 한해 되시길 기원합니다. **김진성 기자**

佛紀 2553年 己丑年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사단법인 대한불교 금강종

대승정 덕인당 석성제 예하
종 정 무학당 석송천 예하

승정원장 법선당 석무중 / 부원장 석무상 원로원장 월서당 석성묵 / 부원장 석법진

중앙종회의장 법화당 석일타 중앙종회 부의장 학성당 석정인 / 학철당 석정암
중앙종회 사무총장 석현우 법사

총무원장 법산당 석영봉
사정원장 법천당 석지산
포교원장 학산당 석정대 / 포교원부원장 석정산
교육원장 법성당 석지덕
문화원장 일현당 석덕일 / 문화원부원장 석보성
고시원장 법일당 석일각
수선원장 선재당 석도공
복지원장 법영당 석정도 법사
비구니원장 효경당 석지명 / 비구니부원장 석정명. 석정연
종정예하 예경실장 학림당 석정묵
총무원장 사서실장 겸 총무부장 아함당 석정행

서울교구원장 서원암 반야지 부산교구원장 반야사 일도 대구교구원장 범룡사 정산
정산대전교구원장 원광사 정 인 울산교구원장 도성암 덕 일 강원교구원장 지명정사 지 명
경기교구원장 홍련암 홍 련 충북교구원장 관음사 정 명 충남교구원장 구암사 무 중
무중전북교구원장 삼불사 정 안 경북교구원장 정암사 정 암 경남교구원장 금강암 정 행

입종안내

귀의 삼보하옵고, 본 종단은 정부로부터 서기 2007년 11월 29일자로 종교 사단법인 인가를 정식으로 받은 종단으로써, 법인등록 고유번호는 (314-82-12041)이며, 종교법인으로 활동하는데 전혀 하자가 없는 종단임을 자부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전국에 승려, 법사, 창건주, 재가불자로서 부처님의 정법을 수호, 전법하며 본 종 종단행사에 적극 협조 할 수 있는 애종심(愛宗心)을 갖고 계신 분을 찾습니다.

1. 입종자격
- 사찰을 운영하시는 참신한 승려, 법사, 포교사, 창건주, 불문에 뜻이 있는 분.
- 불교대학 또는 일반대학교 졸업자는 본 종에 특별대우로 입종함.

2. 구비서류
- 법복(가사 + 장삼) 착용한 사진 ..... 3매 (반명함판)
- 주민등록등본 1통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 총무원에 비치한 입종원서 1통

3. 교부서류
- 사찰 운영자는 주지 임명장, 사찰 등록증, 승려증, 법사증, 본 종 사단법인 등록허가증, 년말 기부증서 (승려로써 출가를 원하는 분은 소정의 서류심사와 총무원장의 인가에 의해서 출가가 가능합니다)

총본산(총무원) : 대전시 유성구 송강동 294-4 (일성사) 전화 : 042)524-2149, 935-2279, 011-406-8538 (사)대한불교 금강종 총무원장 석법산

2009년 소의 해가 밝았다. 사상 유래없는 경제위기로 힘든 독자들을 위해 희망으로 보는 '2009 가상뉴스'를 설정했다. 기존 사실을 바탕으로 충분히 가능성 있는 미래는 물론 '꿈'과 같은 희망 뉴스들도 포함돼 있으니 '희망'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마음을 모아보자.

조계종 총무원장 단일 후보 종회 양원제 제도개혁

조계종은 2009년 11월 제33대 총무원장 선거를 추대법회로 대신했다. 24개 교구별로 10명씩, 중앙종회의원 80명 등 360여명의 선거인단은 선거 일주일전 단일후보를 추대하기로 결의했으며, 향후 총무원장 · 교구본사 · 종회의원 등 각종 선거제도를 개혁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1994년 개혁의 상징이었던 각종 조계종 선거제도가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판단아래 스님들은 선거제와 만장일치 추대제 등의 장점을 결합한 새 제도 마련을 위해 지혜를 모으기로 했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2009년 12월 사부대중의 일원인 우바새 · 우바이의 오랜 염원을 받아들여 출가대중으로 구성된 상원과, 재가대중으로 구성된 하원 양원제로 제도를 개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상원 54명, 하원 54명 등 108명의 사부대중 종회의원을 2010년 3월 선출하기로 결의했다.

봉축위원회는 부처님오신날을 앞둔 4월 26일 동국대와 종로-조계사 일원에서 시민 200만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연등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CNN, BBC등 해외 방송과 KBS, MBC 등이 생중계한 가운데 봉행된 연등축제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전통불교문화를 알리는 대표적인 축제로 깊이 각인됐다. 해외로 연등축제가 소개된 후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3배로 폭등해 정부에서도 연등축제 예산을 대폭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김성우 기자

동국대 전국 대학평가 1위 해외반출문화재 환수 줄이어

한 해 동안 진통을 겪던 동국대가 2009년 대학평가에서 1위를 차지해 교계 안팎에 놀라움을 선사하고 있다.

5월 열린 동국대 이사회에서 총장에 임명된 동국 스님은 '화합'을 화두로 원융살림을 펼쳐 개교 103년 만에 학교를 일류대학으로 탈바꿈시키는데 성공했다.

총장스님은 이사스님들을 설득해 재단전입금부터 확충했다. 장학과 취업제도 등 실효성 있는 인재불사가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자 교수 · 교직원은 임금을 동결하며 개혁에 힘을 보탰다. 교수들의 연구 성과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 저명학술지에 논문 한편 게재 안 된 교수가 없을 정도다.

2008년 말 일방적인 역경원장 해임으로 불자들을 경악케 했던 역경원도 종단협의체로 원만히 재편돼 <한글대장경> 개역 완간 및 전산화 회향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한편 국립중앙박물관 등은 때 아닌 호황을 맞았다. 9월 프랑스 정부가 '직지'를 반환한데 이어 11월에는 일본정부가 '조선왕실의궤'를 반환하는 등 해외반출 문화재환수가 이어지면서 이를 관람하려는 인파가 몰렸기 때문.

조계종 관계자는 "정부와 협의해 7만여 점에 달하는 해외반출문화재 전부를 찾아올 때까지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영산재 세계문화유산 등재 할리우드 배우들 한국으로

한국불교 문화유산의 정수 '영산재(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가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 2009년 10월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총회에서 회원국 193개국 4000여 참석자 전원이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전 세계를 돌며 평화의 법석을 열어 온 영산재는 평등한 만법유심(萬法唯心) 사상이 인류를 위한 최선의 문화이념을 농축해 보존 가치가 충분하다는 점이 인정됐다.

제1회 서울 국제불교영화제 개최 중에 들려온 반가운 소식에 온 국민은 축제의 분위기에 휩싸였다. 전 세계 지도자 · 문화인들로부터 축하 서신도 속속 들어오고 있다.

리차드 기어를 위시한 헐리웃예술인협회 소속 배우 100여 명은 한국불교문화를 깊이 체험하고 싶다며 한국영화에 출연 의사를 밝히고 있다. 더불어 미국 아카데미영화제는 외국어영화상 수상에 원효 스님을 주인공으로 한 구도영화 '무애가'가 유력하다고 전해왔다.

국제적으로 한국의 위상을 드높인 이번 경사를 계기로 중국의 압력으로 인해 미뤄왔던 달라이라마 초청을 공식적으로 진행, 11월 중순경 한국어 통역으로 '티베트 사자의 서' 축하법문을 49일 간 제주시청광장에서 봉행했다. 내외신을 비롯한 각국 언론사의 열띤 취재 경쟁 속에 국민들의 불교에 대한 관심도 고조됐다. 이에 따라 대형 서점에서는 달라이라마 관련 서적 등 불서 판매가 급증했으며, 사찰에 신도 등록하는 사람들도 3배나 늘었다.

가연숙 기자

종교화합 종교인대회 열려 대운하 대신 환경에너지 개발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종교인들은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종교화합을 위한 범종교인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를 비롯한 종교인 1만여 명과 신도 50만 명이 참가해 화합을 노래했다. 세계 각국 지도자들은 직접 참가와 축전을 보내 역사상 유례없는 종교인의 대축제에 축하를 보냈다. 범종교도대회를 계기로 상대종교를 더 알고자 하는 열망에 각종 불교 · 신학 대학과 교리강좌는 수강생으로 넘쳐났다.

남북불교교류도 화합의 물결을 타고 다시금 활성화됐다. 경색된 남북관계에서 불교교류는 나무심기와 문화재발굴 및 교류, 해외 불교사업 공동추진 등으로 민족의 희망으로 자리 잡았다.

환경단체와 불교계가 반대하는 대운하 추진과 국립공원 케이블카 문제 등 反환경 정책은 전면 금지로 일단락됐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4대강 정비사업 예산 14조를 환경에너지 및 산업 지원예산으로 재편성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대운하 추진은 임기 내 없으며, 친환경 녹색성장으로 환경 · 바이오에너지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군포교는 그 중요성을 인식한 스님 및 사부대중의 후원 증가로 5000명 수용인원의 논산훈련소 군법당 증축 등을 성료하고 일선 군부대 법당 개 · 보수 사업을 시작했다. 아울러 군법사 처우도 개선돼 취업난으로 인한 구직자에 맞물려 1:108이라는 기록적인 경쟁률을 기록했다.

노덕현 기자

사찰 소유권 분쟁 일단락 위덕대 세계 대학순위 43위

신촌 봉원사 소유권 분쟁이 조계종과 태고종의 원만 합의로 일단락 됐다. 특히 이번 합의는 2008년 제기된 '양 종단이 봉원사 토지를 매각해 대금을 나눠 갖는 데 합의했다'는 의혹을 불식시키며 합의를 이뤄내 갈채를 받았다. 봉원사는 이를 계기로 박물관 · 교육시설 등을 갖춘 교육문화도량으로 발돋움할 계획이다.

전남 순천시청이 대리관리 했던 선암사도 태고종의 품으로 돌아왔다. 그동안 대리관리자의 재량권 문제 등 많은 어려움을 겪는 상황 속에서 불교발전을 위해 양 종단이 극적 합의했기 때문이다.



한편, 주기적으로 재가불자안거를 진행한 천태종이 10년간 안거에 꾸준히 참석했던 10여 명의 재가불자가 "동시에 깨달음을 얻었다"고 발표해 화제가 됐다.

천태종의 한 관계자는 "상월원각 대조사의 가르침을 따라 수행에 매진하던 재가불자들이 득도하게 됐다"며 "이는 수행 생활화의 중요성을 증명하는 한 예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각종은 종립 위덕대가 2009 타임즈 세계 대학순위에서 43위에 올라, 한국대학 최고 순위(2008년 서울대 50위)를 갱신하는 기쁨을 맞이했다. 이번 결과는 세계 각 국가 교육학자들이 '불법을 통한 체계적인 교육이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 과정' 등을 연구하는 붐을 조성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많은 종단들이 계율을 체계화하고, 종도 교육을 정기화 하는 등 종단 내실을 다지는 시스템을 구축해 전반적인 불교계의 안정을 도모했다.

김진성 기자

아름다운동행 기부문화 정착 템플스테이 전 세계인 주목

2008년 아름다운동행이 설립된 후 2009 한해에는 소액기부와 더불어 기부문화의 정착을 가져왔다. '아름다운 동행 제2 · 3호 홍보대사' 홍명보 · 박지성 선수와 불자 연예인들이 참여하면서 기부액이 200% 증가했다.

또한 외국인들의 국내 관광증가에 가장 큰 공헌을 한 템플스테이는 문화체육관광부 설문조사 결과 '한국에서 반드시 해봐야 할 것 1위'로 선정되는 영광을 얻었다. 올 7월에 세계적인 축구선수 베컴 가족이, 10월에는 브래드피트와 안젤리나졸리 가족이 전국 사찰 템플스테이에 참가하면서 CNN을 비롯한 전 세계 방송에 소개됐다. 한편 템플스테이가 초 · 중 · 고등학생심신 단련 프로그램으로 인정돼 정부의 지원을 받아 청소년 템플스테이 수행 전문센터 착공식을 갖기도 했다.

불교여성개발원은 5월 시청 앞 광장에서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해 '600만 여성불자 대법회'를 열어 여성 불자의 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또 웰다잉 운동은 현대인들에게 삶과 죽음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라는 평가를 받으며 새로운 문화운동으로 자리 잡았다.

파라미타는 전국 16개 광역시도에 지역협회 결성을 완결하는 동시에 내실을 기하면서 가장 강력한 청소년포교단체로 자리매김하는 한 해가 됐다.

공무원불자연합회는 올해 1만여 명의 회원이 각 지역 사찰에서 동시에 '종교화합대법회'를 열어 화제가 됐다. 또 국내외에서 일어난 재난 및 사고현장에 앞장서 종교화합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선행을 실천했다.

이상언 기자

불교서적 줄줄이 베스트셀러 불교복합점 '니르바나' 탄생

2009년 불교출판업계는 2008년의 침체기를 한 번에 반전 시킨 다양한 기획 · 마케팅 기법이 시도돼 경제 불황에 시름하는 불자들에게 행복을 전했다. 참신한 기획력으로 밀리언셀러를 기록하고 법정 스님에 필적하는 신인 작가도 등장했으며, 대형 불교유통업체가 탄생돼 불자들이 환호를 보냈다.

경기 침체의 여파로 경제와 관련된 자기계발과 마음공부 관련 서적이 기획 · 출판되면서 높은 인기를 누렸다. <佛과 弗($)은 다름이 아니다>를 비롯한 10여개 불교서적이 교보문고 베스트셀러에 10주 연속 선정되는 등 사랑을 받았다. 특히 <위대한 스승 붓다를 말하다>는 "불교를 가장 쉽게 설명했다"고 평가받으며 밀리언셀러를 기록했으며, 영문으로 번역돼 뉴욕타임즈와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를 12주 연속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뛰어난 작가들도 등단해 불교출판계의 미래를 밝게 했다. 대박 스님은 제2의 법정스님으로 평가받으며 각종 출판관련 법회시 대중을 끌어 모았다.

또한 불서총판 운주사에 이어 불교 서적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불교전문 복합공간인 '니르바나'도 탄생했다. 서울을 포함한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인천, 울산 등 6개 광역시에 오픈한 지점은 불자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불교관련 상품을 접할 수 있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서울 본점 1층에는 전문서점이, 2층에는 채식위주의 레스토랑, 전통 찻집, 불교 용품점이 3층에는 선(禪)체험관 및 교육관이 마련됐다.

이나은 기자

—— 자비로우신 부처님의 가피로 모든 불자님들의 서원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

phytoncare™



◉ 다음의 분들에게 사용을 권합니다.

- 향을 많이 쓰시는 법당의 스님과 불자님
- 정진하시는 불자님
- 장기요양을 하시는 분
- 갱년기 증상을 겪고 계시는 분
- 집먼지 진드기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
- 새집에 입주하신 분
- 스트레스가 심하신 분
- 집중력을 요구하는 일을 하시는 분
- 기타 실내 정화가 필요하신 분

숲의 싱그러운 에너지를 그대로!

국내산 편백나무 추출,
인체에 유익한 천연 자연성분 피톤치드 - 중외 피톤케어 휘산기

중외피톤케어 휘산기능
- 산림욕물질(전남 화순군 편백나무에서 채취한 피톤치드) 이므로 방 안에서 산림욕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실내의 모든 악취가 제거되고 숲속 향이 은은히 퍼집니다.
- 사람의 각질을 먹고 사는 집먼지 진드기가 97% 기피되어 알레르기 환자에게 좋습니다.
- 호흡을 통하여 몸에 흡수되므로 별도의 장치가 필요없습니다.

피톤치드의 효능
- 환경유해물질을 분해합니다.
- 스트레스를 저감시켜 줍니다.
- 악취를 제거합니다.
- 학습능력을 높여줍니다.
- 애완동물의 진드기를 없애줍니다.
- 불자님의 정신 집중을 도와 드립니다.

• 제품구성 : 중외 피톤케어 휘산기 1대, 휘산기 리필 3개입 4박스(약 4개월분) / 정가 40만원

** 모든 불자님께 20% 할인된 가격으로 모십니다.

선불사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곡동 10
종무소 053-638-6162 / 053-643-4771
팩 스 053-643-4772

(주)지앤지 G&G
무료주문전화 080-200-1800
http://www.gngpia.com

일주문



불광장학회 장학생 선발 모집

잠실 불광사 회주 지홍 스님은 1월 11일까지 총장학금 2500만원의 '불광장학회' 2009년 1학기 장학생을 선발한다. 불광교육원 (02)417-2551



불교NGO활동가 송년법회

시국법회추진위 공동추진위원장 수경 스님은 12월 30일 조계사에서 대불청, 불교환경연대 등이 참가한 불교NGO활동가 송년법회를 봉행했다.



봉원사 신임주지 일운 스님

옥천범음대학 학장 일운 스님은 12월 24일 태고종 봉원사 설법전에서 거행된 40세 주지선거에서 봉원사 신임주지로 선출됐다.



강북장애인복지관 장학금 전달식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장 진화 스님은 구랍 17일 봉은사 서산 · 사명 장학생으로 선정된 중 · 고등학생과 장애인 15명에게 총 585만 원을 전달했다.



동대 연극실기전문석사 학위 개설

동국대 오영교 총장은 2009학년도 1학기부터 국내 최초로 연극(공연예술) 실기전문석사학위(MFA) 과정을 개설한다.



옥천유래 출판기념회 및 송년의밤

충북 옥천군 한용택 군수는 구랍 23일 옥천 다이아몬드홀에서 <옥천역사유래집>과 <옥천문화> 23집 출판기념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인사

BBS신임이사 선임



불교방송 이사회는 구랍 18일 제 67차 재단이사회에서 이사임기가 만료된 종상 스님과 송석구, 명호근 이사의 연임을 결의했다. 또한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보선 스님, 대현실업 손준석 사장, 대한불교진흥원이 추천한 이용부(前 문광부 종무관 · 사진), 전경두 이사를 신임 이사로 선임했다.

원우회 15대 김한일 위원장



원우회는 12월 23일 정기총회를 열고 제15대 조계종 종무원조합 원우회 위원장에 김한일 행정관(총무원 기획실 · 사진)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김 위원장은 2000년 조계종 포교원에 입사해, 현재 기획실 기획팀에서 종단 예산·종무 계획을 담당하고 있다.

"어머니 절 한 번에 버디 하나 각오로…"

아름다운동행 홍보대사 1호 배상문 프로골퍼 1000만원 기부

무심타법(無心打法)으로 한국 골프계 샛별로 떠오른 불자골퍼 배상문 선수가 불법홍포와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12월 22일 불교계 최초 공익법인인 아름다운동행의 홍보대사 1호로 위촉돼 1000만원을 기부한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배상문 선수(22 · 사진)는 "프로골프 선수로 자리 잡는데 불교가 큰 도움이 됐다. 지금 상황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열심히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배 선수는 올 시즌 11개 대회에 출전해 개막전 KEB 한중투어 1차전과 한국오픈에서 정상에 올라 시즌 총상금 4억7065만 4286원을 획득, 생애 첫 상금왕에 등극했다. 데뷔 첫해인 2005년 상금랭킹 22위, 2006년 11위, 2007년 4위, 2008년 1위로 차곡차곡 오르는 순위에서 보이듯 현재보다 미래가 더욱 촉망받는 기대주다.

배 선수가 있기까지는 독실한 불자인 어머니 시옥희 여사의 역할이 지대했다. 배 선수는 생후 5개월부터 홀어머니 시옥희 여사 슬하에 외아들로 자라며,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유명프로에게 레슨도 받지 못했다. 현재 한국골프 대표선수가 된 배 선수 뒤에는 직접 무거운 캐디백을 메고 다니며 뒷바라지한 시옥희 여사가 있었다.

운동선수를 뒷바라지하는 힘든 생활에도 시 여사를 지탱한 것은 바로 불심.

배 선수는 "어머니께서 어렸을 때부터 해인사 홍제암 등에 아예 살다시피 하며 기도해주셨다. 어릴 때 홍제암에 가면 볼을 쓰다듬어주던 스님이 생각난다"고 일화를 밝혔다. 이어 "지금도 은해사 중앙암 등에서 경기가 있는 달이면 매일 기도정진하고 계신다"고 어머니를 소개했다.



이번 홍보대사 위촉도 불교TV 공익광고를 접한 시 여사가 아들을 대신해 기부의사를 밝혀 추진됐다. 당시 해외경기 중이었던 배 선수는 기부사실을 대외에 알리지말 것을 부탁했지만, 아름다운동행 측이 홍보대사 위촉과 선행사례 홍보가 또 다른 기부문화 확산을 이끌 수 있다고 제안해 흔쾌히 수락했다. 위촉식에는 배 선수와 함께 시 여사가 목 수술로 몸이 불편한 가운데 참석해 불심을 느끼게 했다.

시 여사의 아들을 위한 불심에 배 선수는 어머니 절 한배에 버디 하나라는 각오로 경기에 임했다. 배 선수는 "어머니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떠올리면 마음이 편해지고 경기도 잘풀린다"며 "명상 등으로 컨디션 조절을 하고 있다. 주의가 많이 산만한 성격이라 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배 선수는 "시즌 후에는 조용한 산에 가 기도도 하고 스트레스도 줄이는 마음 수행을 하고 싶다"며 더욱 활발한 신행활동도 다짐했다. 노덕현 기자

"신행에 도움되도록 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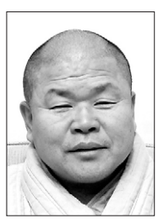
제주불교신문 발행인 원종 스님

"앞으로 다양한 지면 구성을 통해 제주불교신문이 불자들의 바른 신행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월 22일 제주불교신문사 임시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신임 발행인에 추대된 원종 스님(제주 관음사 주지 · 사진)은 이와 같이 활동계획을 밝혔다.

원종 스님은 "불자들의 사랑으로 제주불교신문이 내년이면 창간 20주년을 맞아 성년이 된다"며 "그동안 받아온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부처님 정법 전달에 더욱 매진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신임 발행인 추대는 前 발행인 시몽 스님이 지난해 10월 장성 백양사 주지로 임명, 사의를 밝힘에 따라 이뤄졌다. 제주불교신문은 19년간 지면을 통해 불법을 전달한 제주지역 유일 불교홍포지로, 제주도 내 불자들이 일불제자라는 공동체 의식을 공유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원종 스님은 "신문 발전을 위해 어떠한 질책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며 "앞으로도 독자 여러분과 불자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또 스님은 "제주불교연합회장으로서 제주불교신문의 도약과 역량 강화를 위해 연합회 차원에서도 후원자 역할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원종 스님은 1980년과 1982년 범어사에서 덕명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고암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한 후 범어사승가대학과 중앙승가대학을 졸업했다. 이 후 창원 성주사 · 강화 보문사 주지와 중앙승가대학 총동문회장을 역임했다. 김진성 기자

본각 스님·반영규 거사 대상

제6회 대원상 시상식



제6회 대원상 수상자들. 왼쪽부터 문자영, 이지선, 김형근씨, 반영규 거사, 본각 · 성행 스님, 윤소희, 정일훈씨.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민병천, 이하 진흥원)은 12월 24일 마포 불교방송 대법당에서 <불교와문화> 제100호 발간 기념 테마음악회 및 제6회 대원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대원상 대상은 본각 스님(중앙승가대)과 불교음악가 반영규 거사가 수상했다. 비구니 최초로 대원상 대상을 수상한 본각 스님은 30여 년간 불교학 발전과 후학양성에 기여한 학승이다. 반영규 거사는 <빛깔 있는 책> 시리즈(대원사 刊)를 통한 불교출판 활성화와 창작 찬불가 보급을 통해 불모지였던 한국 불교음악을 개척하는데 앞장서 왔다.

특별상은 좋은벗풍경소리(대표 성행)와 김형근(미주현대불교 발행인), 윤소희(부산대 국악학과 강사)씨가 받았다. 불교 콘텐츠를 통한 미디어 포교를 진흥하고자 올해 처음 시상한 불교진흥 프로그램 아이디어 공모상은 이지선(프로젝트 활동가)씨, 문자영 작가, 정일훈 · 안태성씨(동련/앤츠)가 수상했다.

본각 스님은 "앞으로도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는(知恩報恩) 삶이 가장 숭고한 삶이라는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겠다"고 말했다.

반영규 거사는 "부처님 말씀 전하는 일에 더욱 더 정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동섭 기자

파라미타청소년협회 인도국제구호활동



파라미타청소년협회(회장 도후)는 구랍 24일 인도 부다가야, 바라나시, 녹야원, 아그라, 자이뿌르, 델리 일대로 인도국제구호활동을 떠났다. 봉사단 28명은 의료봉사, 문화교류 활동을 하고 1월 4일 귀국할 예정이다. 이상언기자

지구촌공생회 캄보디아 라오스서 자원봉사



지구촌공생회(이사장 월주)는 구랍 21~31일 캄보디아와 라오스 일대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했다. 동국대 108리더스 해외연수봉사단 66명이 참가해 현지NGO활동으로 견문을 넓혔다. 노덕현기자

아름다운동행 '네모의 꿈…' 저금통전달식



아름다운동행은 구랍 24일 제3호 아름다운집으로 선정된 내곡어린이집(원장 이정현)에서 '네모의 꿈 만들기' 저금통 전달식을 개최했다. 소림사 부설 내곡어린이집 어린이 47명은 2달간 모금한 15만원을 전달했다. 이상언기자

영등포장애인복지관 연예인 축제한마당



영등포장애인복지관(관장 지거)은 구랍 23일 영등포장애인복지관 대강당 부루나홀에서 개관기념 연예인 축제한마당을 개최했다. 연예인 현철, 혜은이 등 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료했다. 이상언기자

원효사 동지죽 나눔행사 개최



무등사 원효사(주지 현지)는 구랍 21일 광주공원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동지죽 나눔행사'를 개최했다. 행사는 신도회가 준비한 동지죽을 어르신들에게 대접하고 새해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는 취지에서 진행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아주 특별한 영치유의 세계!!

미국최면전문대학(Hypnosis Career College)과 학술교류 협정

제38기 최면 「전생요법 · 빙의 치유법」



"한마디 말"로 三生을 꿰뚫고, 영혼의 아픔을 치유한다.

수련과정 1월 8일 목요일 개강
매주 목요일 본원 출석 7회과정
(오전 10시 ~ 오후 5시 까지)

▶과정별 교재 및 수련 테잎 제공
▶수련비 : 200만원
▶특전 : 전생상담 이수증 발급 및 한국최면지도사협회 가입시 정기적 보충교육 실시

국제 공인 최면전문가 자격증 취득 可

한국최면과학원장 임재형 박사 직강
커버넌트대학교 상담학 박사
미국 최면전문대학 객원교수
국제 공인 임상 최면치료사(ICHT)
한국최면지도사협회장
미국 국제최면 치유학회 이사
일본 최면의학심리학회 회원

인천교대, 충남대, 청주대 에서 최면학 강의
공무원 연수원, 군부대, 기업체 등 에서 생활최면 특강

KBS, MBC ,SBS 등 각종 TV방송에 다수 출연

저서 : 자기최면학, 타인최면학, 생활최면, 최면학 총론, 최면요법 등

tvN 심령솔루션 엑소시스트 출연 화제 집중!!

전생(前生), 사주팔자(四柱八字), 빙의(憑依)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전생의 성적표인 사주팔자는 빙의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본 강좌는 사례중심의 시청각 교육 등 많은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한 실기위주로 지도하여 그 해답을 통쾌히 풀어 드립니다.

빙 의 치유법	빙의 영가를 직접 불러내어 누구인지? 왜 들어왔는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를 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빙의된 본인은 물론 가족들도 영가와 대화를 할 수 있으며 영가가 떠나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도 있다.
전생요법	전생체험을 통한 인과응보의 핵심원인을 찾아 전생 업장을 해소하고 현세에 얽힌 인간관계와 원인모를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내어 스스로 지혜로운 미래의 삶을 찾게한다.
명리학	사주로 조상영가 보는법... 귀문관살은 정신병이 오기쉽고, 백호대살은 횡사, 악사로 저승사자가 따라다니며 허약한 사주는 빙의되기 쉽다..... 사주팔자 전생의 업보로 정해지는데.....전생에 남의 것을 많이 빼앗은 자는 이생에 재물도 마누라도 빼앗기는 팔자이니 이런 사주는 군겁쟁재요....
최면학	최신최면기법, 심리요법, 명상 자율훈련법, 잠재능력 개발(ESP), 불면해소법, 통증해소법, 공포증 소거법, 금연, 금주, 대인공포, 자신감 고취, 열등감 극복, 집중력 기억력 초증강, 알레르기, 자연치유력 활성법 등

안내자료 전생, 빙의 치유 및 명리학 공개특강 비디오 테잎을 보내드립니다.(1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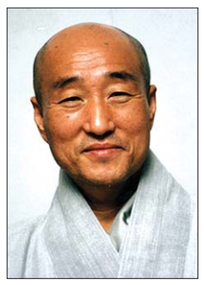
www.hypnos114.com
한국최면과학원
대전시 중구 대사동 248-301(청운빌딩2층) 042)255-0734~5

지혜·자비로 아름다운 세상 만들어요



"아쉬움 없는 30년 내다보는 발걸음 시작"

(사)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



지나간 시간은 얼마간의 아쉬움을 남기는 법인가 봅니다. 저희 단체도 지난 한 해 동안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여 성과를 낸 부분도 많았지만, 하나하나의 사업을 결산하다보니 아쉬운 부분도 많습니다. 올 해는 창립된 지 15주년이 되는 해이니 만큼 30년을 내다보는 발걸음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본부의 기본사업인 장기기증 등록사업과 환자돕기 사업, 그리고 헌혈은행 사업들을 보다 확대해 나감으로써 부처님의 자비가 온 세상에 두루 미치도록 하고, 더불어 불교계 명실상부한 의료복지 분야의 NGO 단체로 발돋움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에 어려움이 많을 거라는 주변의 우려들이 있지만, 불자들의 앞날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두려움을 능히 물리치신 분이며, 고통이 없는 세계에 살도록 불자들의 삶을 이끌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비실천을 모든 계층·세대로 넓힐터"

사단법인 파라미타청소년협회 **회장 도후 스님**



청소년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바른 심성과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해 설립된 파라미타가 올해로 14년째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 16개 광역시도에 지역협회 결성을 완결하여 명실상부한 전국조직으로서 위상을 확고히 해나갈 것입니다. 그간 파라미타는 청소년들이 내면의 성찰을 통해 진정한 자아를 찾아 가고, 민족의 훌륭한 전통문화를 바르게 이해하여 이에 대한 소중한 의식을 키워나가는데 주력해 왔습니다. 파라미타는 생명의 존중, 나눔과 봉사를 통한 자비실천을 통해 모든 계층, 세대로 넓혀가겠습니다. 파라미타의 정신을 나누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 파라미타는 개방되어 있습니다. 파라미타는 세대를 관통하여 이 시대를 향도할 정신문화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파라미타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지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매화꽃의 맑은 향기 사바에 뿌리자"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총동문회 **전보삼 회장**



기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 대불련 총동문회 여름대회를 통해 결집력과 소속감을 강화할 것입니다. 홀수 달마다 53명찰 대순례법회를 개최해 전국 각지 명찰을 둘러보며 자신의 불성을 되찾는 구도의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춘계수련대회와 자비실천의 밤 등 활발한 활동을 준비했습니다.

매화꽃은 추운 엄동설한을 지나야지 맑은 향기를 토한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매화꽃의 정절을 닮아서 맑은 향기를 사바의 온 세상에 뿌립시다.

"국제사회 통한 한국불교 세계화에 주력"

조계종 중앙신도회 **김의정 회장**



국·내외 경제난이 새해를 맞는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자기 성찰과 자비심이 요구되며, 주위의 사람들에게는 어머니 같은 온유한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겠습니다.

중앙신도회는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과 정책역량강화, 사회기반확대를 통한 10대 종교사회단체로의 진입, 국제사회참여를 통한 한국불교 세계화에 주력할 것입니다. 또 문화재 환수운동, 불교관련 산업분야의 개척, 전통문화 계승보급 등 15가지 주요전략과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마음에서 부는 바람'이 대지의 생명을 움트게 하고, 불자들이 희구하는 모든 발원이 기쁨과 즐거움으로(喜無量心) 모두에게 행복을 주는(慈無量心) 새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 정법 널리 펴는 기축년 되길"

참여불교재가연대 **김동건 상임대표**



우리 불자들은 작년 8월 27일 범불교도대회의 감동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불자들의 노력이 이 땅의 불법을 수호하는 밑거름으로 승화돼 '정법수호 광주전남불교협의회'를 만들어냈습니다. 올해 우리는 이러한 정법수호 조직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공직자의 종교중립 법제도화'를 이뤄내 우리 사회의 종교간 평화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집은 목수가 짓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짓는 것이요, 주인의 돈이 짓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인품이 짓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불자들이 우리 사회의 어두운 곳을 살피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살피는 실천으로 이 땅의 종교평화와 부처님의 정법을 널리 펴야할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 슬기롭게 극복토록 도울 터"

불교인재개발원 **허경만 이사장**



미국발 세계 경제 위기가 내년에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 합니다. 물질에 대한 욕망이 제동 걸리지 않은 상태로 무한정의 팽창만을 추구해온 당연한 결과라는 석학들의 분석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자못 큽니다.

이럴때일수록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욱 분명하게 다가옵니다. 탐내는 마음, 어리석음, 분노의 마음을 잘 다스려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자비롭고 당당한 불자로서 살아갑시다.

불교인재개발원은 아직은 2년 반의 새내기이지만 내년에도 불자님들의 마음에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심기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보람되고 실효성 있는 재가불자 운동을 강력하게 전개하여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고 당당하게 극복하도록 열심히 돕겠습니다.

"600만 여성 불자들 조직화 되길"

불교여성개발원 **이은영 원장**



지난 한해 한국불교계는 많이 어려웠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결집의 기회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동안 불교는 숫적으로는 많지만 조직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인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교여성개발원이 여성불자들의 중심에 서서 600만 여성불자들의 전국적인 조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쏟을 것입니다.

또한 웰다잉운동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대화시켜서 질병과 늙음으로 고통 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불교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끝으로 불교여성개발원은 (사)지혜로운여성을 통해 여성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 새해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소걸음 걷듯 불교상담개발 위해 힘쓸 터"

불교상담개발원 **원장 정덕 스님**



새해 기축년은 소를 닮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소는 근면하고 성실합니다. 특히 소걸음(牛步)은 뚜벅뚜벅 느린 것 같지만, 결국은 앞서갑니다. 그래서 십이지(十二支)를 상징하는 동물들이 달리기 경주를 할 때 가장 먼저 결승점에 도착했다고 하지요.

현대불교신문의 역사도 돌이켜보면 우보(牛步)처럼 성실한 걸음이었습니다. 짧지 않은 역사 속에 고난도 있었지만, 소처럼 우직하게 인내하며 정론직필을 지켜 불자들의 신뢰를 한 몸에 받는 언론이 되었습니다.

우리 불교상담개발원은 올해로 설립 19년을 맞이합니다. 불교상담개발원 역시 눈에 띄는 일회성의 화려한 행사보다, 불교상담의 개념과 이론을 정립하고 불교상담 전문 인력을 양성 하는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올해도 소걸음 걷듯 천천히, 성실하게 불교상담 개발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무아의 지혜로 어려움 극복하자"

공무원불자연합회 **하복동 회장**



오늘날 지구촌 전체에 불어 닥친 경제위기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해는 우리에게 있어 여전히 희망과 설레임입니다. 그간 '나'에 집착하여 상대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분별심으로 많은 갈등과 불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대립과 반목에서 벗어나 오늘의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로의 같음과 다름을 인정하면서 분별심과 아집을 내려놓는 무아(無我)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불자들부터 남을 탓하기 앞서 주변을 돌아보고, 자리이타(自利利他)의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 나갑시다.

"대북정책이 변화할 수 있는 한 해 되길"

대한불교청년회 중앙회 **정웅정 회장**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남북관계가 장기간 경색돼 다시 10년 전 냉전시대의 대결적인 남북관계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북한문제에 정통한 NGO 단체인 (사)좋은벗들에 의하면 지금 북한의 식량상황은 지난 1996년 북한 대홍수 시 발생한 대규모 아사사태이후 가장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의 참상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우선 이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시급히 줘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하루 빨리 6·15선언과 10·4선언의 이행의지를 표명하고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그리고 인도적 차원에서 우선 무조건적인 대북식량지원을 단행하고 대북특사를 파견해서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 남북관계를 복원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 불교도들은 부처님의 자비와 평화의 정신에 입각해 남북화해협력의 새로운 물꼬를 트는 방향으로 대북정책이 변화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정진하는 한해가 되길 희망합니다.

5대 적멸보궁 대참회 순례기도

(양산 통도사→ 태백 정암사→ 영월 법흥사→ 오대산 상원사→ 설악산 봉정암)

※총 750km를 십보일배로 5개월간 순례기도 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희망과 용기로 극복을…
부처님의 가피가 온 누리에…

그동안 설악산 봉정암 십보일배 참회기도를 13차례 원만회향하신 부산 초읍동 불광사 주지 보광 스님의 이번 5대 적멸보궁 대참회 순례기도가 어려운 시기에, 모든 국민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되는 마음으로… 기도가 원만성취되시길 후원합니다.

정진 선우회 도량 정 도 합장 051)637-4466 (성전선원)



■ 출발일시 : 불기 2553년(2009년) 양력 1월 1일 목요일 오전 9시
■ 출발장소 : 부산 초읍동 불광사 (☎ 809-1420)

대한불교조계종 정진 선우회 일동

성전선원 정 도 스님　정종사 양 현 스님　금강선원 안 도 스님
금선선원 현 담 스님　불광사 효 천 스님

생활불교 법구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장사흥왕과 사업성공 축원 불공 마치고 보급



개업 선물로도 품격!
사업 성공의 선물로도 품격!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생활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장사 성공을 기원하는영험의 법구로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수 있다. 경제대국 일본의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 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수있다. 불광사에서 장사흥왕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가로8cm 세로3.5cm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금니로 제작해 품위도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린다. 보시가격: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문의(02)741-4488**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부처님 제1의 비방법구!

경기가 너무없어, 장사가 너무안되, 문을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않좋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풍수학적으로 보면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다.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 건물 한지붕 밑에서도 좋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 것을 볼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타,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곡상,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2009년 가는 삼재조심 소띠,뱀띠,닭띠

제일힘든 떠나는 삼재소멸과 365일 무탈 발원 금강저



2008년 11월 28일 부터 나가는 삼재시작!
나가는 삼재화를 소멸하고 승리하는 비방!

2007년 드는삼재 2008년 묵는삼재 2008년 동지달부터나가는 삼재가 시작된 **소띠,뱀띠,닭띠**는 앞으로 2009년말까지 제일 어렵다는 나가는 마지막 삼재해로 각별히 조심하고 자중자애하며 근신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지내야 한다. 드는해와 묵는해에 소띠,뱀띠,닭띠생들이 삼재화로 건강으로 고통받고, 삼재관재수로 법적인 문제에 휘말려 고통받고, 삼재액운으로 사업이 실패하고 재산을 소진하며, 가정이 파탄되고, 하는일마다 뜻대로 되는일이 없으며 갖가지 어려운 고통속에 삼재화를 당하는 중생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남은 2009년말까지 나가는 삼재가 제일 어려운 시기이므로 완벽한 비방을 하는것이 안전합니다. 불가에서는 삼재기간중 삼재화를 막아 액란을 모면하는 비방으로 중생들에게 부처님법구인 금강저를 몸에지니고 다니게 하고 나가는 삼재해에는 365일간 삼재소멸 불공과 무탈기원을 합니다.

또한 삼재기간중 삼재소멸비방을 잘하고 자중자애하며 공덕을 쌓으면 삼재기간에도 크게 성공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삼재소멸금강저는 제일 어렵다는 나가는 삼재소멸 축원불공을 마치고 불광사에서 전화로 신청하면 금강저를 보내드립니다.
금액45,000원 문의(02)741-4488
입금 :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1929년생 뱀띠	1957년생 닭띠	1985년생 소띠
1933년생 닭띠	1961년생 소띠	1989년생 뱀띠
1937년생 소띠	1965년생 뱀띠	
1941년생 뱀띠	1969년생 닭띠	※적색글씨에 해
1945년생 닭띠	1973년생 소띠	당되는 분은 악
1949년생 소띠	1977년생 뱀띠	삼재입니다.
1953년생 뱀띠	1981년생 닭띠	

자동차용 호신불

세상에서 평생 아름다운 선물



호신불규격직경3.5cm, 세로4.5cm



운전하는 가족친지에게 사고예방의 선물
신차출고시 사고예방과 생명보호의 선물

자동차사고 예방 점안식과 축원불공마쳐!

자동차를 타고가다보면 운전석위에 염주를 고정시켜 걸고 다니는 차를 종종 보게된다.
염주는 부처님께 예불을 드리는 공양법구로 차에 고정시키는 것은 잘못된것이다. 부처님 법구중에는 중생들이 사는동안 액운과 화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각종 비방의 법구들이 있다. 그중에서 달리는 자동차에 꼭 맞는 법구가 반가사유상 호신불이다.

우리나라 호신불의 역사는 삼국시대 신라부터 전쟁에 나가는 장수들과 귀족들이 지니고 다녔다. 신라가 통일전쟁을 벌일때에 화랑장수와 화랑장수의 말에 왕이 직접 전장에서 죽지말고 승리하고 돌아오라는 뜻에서 목각으로 만든 반가사유상호신불을 하사 했으며 호신불을 몸에 지니고 전장에 나간 장수와 말은 죽지 않고 승리하고 왔다고 전해진다. 한치 앞도 모르는 험한세상 하루에도 교통사고로 수백명씩 사망 또는 중경상으로 편한날이 없는 오늘도 안녕을 지키는 수호신인 반가사유상 호신불을 운전하는 아내와 자녀에게, 운전하는 남편께, 존경하는 친지에게, 사고예방과 생명안전을 기원하는 선물을 한다면 평생 이름다운 선물이 될것입니다. 신라 화랑장수와 귀족들이 수호신으로 사용했던 호신불을 재현한, 반가사유상 호신불 뒷면에는 운전하고 가는곳마다 계획한 일들이 성공되게 비방의 "반장"과 백연화를 넣었다. 생명보호와 자동차사고 예방 축원불공을 마친 금동호신불을 자동차 운전석 위 룸밀러에 걸고 다니면 안전하고 품위가 있다.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이 있으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45,000원
신청전화: (02)741-4488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천연백수정108 염주

인연의 귀인을 만나 성공하는 인연염주!
건강 장수와 행운이 함께하는 평생염주!



영원히 살아 숨쉬는 천연백수정 108법륜 염주가 수입되어 시판하고 있어 화제다. 천연백수정은 미륵 부처님 이마에 점안을 하는 보석으로 어둠과 고통속에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고 밝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영원히 점안해 있는 것이다. 인도에서는 천연백수정을 불멸의 부처님 보석으로 간직하고만 있어도 사업이 망하지 않으며, 병든 중생은 건강장수하고, 인연의 짝과 인연의 귀인을 만나 근심 걱정이 해결되고 그 인연의 만남으로 원하는 계획이 성공되는 행운의 보석이라 해. 인도 부유층 사람들이 천연백수정을 염주로 만들어 예불법구로 사용하고 있다. 고대 인도 부유층 인사들과 아라비아 거상들의 전통모자에는 행운을 안겨주는 불멸의 천연백수정을 부착하고 다니는 것을 영화에서 종종 볼 수 있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것이 인연법이다. 한사람의 인연의 귀인을 만남으로 인생이 바뀌는 것을 볼수 있다. 환자는 인연의 의사를 만나면 고통이 살아지고, 사업가는 한사람의 인연으로 사업이 성공되고, 원대한 불사도 한사람의 인연으로 불사가 완성 되는것을 볼수있다. 불멸의 평생염주인 천연백수정 108염주는 사용하실 분의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시면 100일 축원불공을 올려드리며108염주의 시판기념으로 항상 가지고 다니는 천연백수정 단주 또는 합장주를 특별선물로 드립니다. 가격:95,000원 **신청전화: (02)741-4488** (신용카드 분할가)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평생부자지갑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불공 마쳐



남성용금나노반지갑



여성용은나노장지갑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소중한 남편과 자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법구에는 세상사는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닿지 못하고 법구가 무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요시 한다. **돈의 집인 지갑역시 연이되면 돈이 동서 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은 들어오지 않고 고통만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통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평생 부자가되게 축원불공을 마친 다라니복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돈이 들어오게 하는 비방의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 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고급소가죽에 금나노, 은나노 처리 까지한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불광사에서 지갑 사용하실 분의 물질의 소원과 원대한 계획이 성공되게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일 축원불공을 해드린다. 남성용 금나노 반지갑65,000원 여성용은나노장지갑95,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문의(02)741-4488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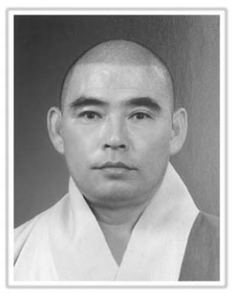
빙의 퇴마 최면을 전수합니다

빙의 치유
- 영을 직접불러 누구인지? 무슨 원한인지? 소원이 무엇인지? 천도

전생체험
- 원통한 인간의 인과 응보와 원인을 찾아 업장을 소멸하고 사업자 상업자에게 사업성취를, 기도자는 기도성취를, 원인모를 악질증상 등을 좋은 운으로 돌릴수 있습니다.

치유가능한 증상들
- 빙의(귀신병), 퇴마, 우울증, 공황장애, 대인공포, 불안공포, 불면증, 만성두통, 게임중독, 약물중독, 급한성격, 집중력, 성적향상 등등
- 빙의,퇴마,최면을 배우실분
- 자기최면,타인최면을 배우실분
- 자녀들의 성적향상을 위한 부모님
- 포교활동에 꼭 필요하신분(성직자 특별우대,종교불문)

- 전수를 받고자 하는 분들은 대체의학, 최면, 빙의,퇴마 등을 한곳에서 전수가능하며 전수 후에 각 시도 지사도 가능함.
- 최단기간 실전교육
- 최면시술 누구나 가능합니다.
- 어디 아프세요. 불치병 몽땅 상담하세요.
- 하는 일마다 안풀리세요. 당신의 사주를 바꾸세요
- 빙의(귀신병) 퇴마,최면? 100% 전수 - 치유
- 우울증, 공황장애, 산소수맥
- 비염, 발기부전 특효



한국 빙의 퇴마 최면 연합회 본부
HTTP://WWW.JIJANGSA24.ORG
지 장 사 현오 합장

서울지사 :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251번지 연세빌딩 후문앞 지장사
☎ 02)796-7579 / H·P 010-3056-3315
●서울교육 : 목, 금, 토, 일 (숙식가능)

부산지사 :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1388-8
(부산 지하철 2호선 화명역 2번출구 전자랜드 후문 앞)
☎ 051)364-5586 / H·P 010-3056-3315
●부산교육 : 연중무휴

65세이상 승려 연금 지급 종단
불교 조계종 삼화불교

◆ **중앙율원장** : 성민 ◆ **원 로 원** : 법종, 성민, 혜일, 혜정, 백공, 일봉, 해남, 혜경,월산
◆ **부 종 정** : 혜일 ◆ **총 무 원 장** : 혜인 ◆ **종 회 의 장** : 백공 정봉 ◆ **중앙선원장** : 도일

총무부장 : 동산
재무부장 : 도불
교무부장 : 정덕
문화부장 : 지우
비구니부장 : 보현

총무국장 : 남산
재무국장 : 대도
교무국장 : 해인
문화국장 : 지운
비구니국장 : 법련, 덕산
문화재관리국장 : 운하

기획실장 : 정금옥(불이성)
총무과장 : 조 일
조사과장 : 문희만
서무대리 : 염정재 (금강성)

교육원장 : 일봉
교육부장 : 보선
교육국장 : 지원

감찰원장 : 상산
감찰부장 : 지오
감찰국장 : 지호
감찰제2국장 : 운산

호계원장 : 대풍
호법부장 : 태산
규정부장 : 월성
호법국장 : 다정

포교원장 : 정산
교육부장 : 보선
교육국장 : 지원

★ 지방교구 종무원장

서울남부교구종무원장 : **상산**
경기남부교구종무원장 : **도불**
경기북부교구종무원장 : **수원**
인 천 교 구 종 무 원 장 : **혜정**
강 원 교 구 종 무 원 장 : **광덕**
충 남 교 구 종 무 원 장 : **무광**
충 북 교 구 종 무 원 장 : **백공**
경 남 교 구 종 무 원 장 : **도홍**
대 구 교 구 종 무 원 장 : **원명**
경 북 교 구 종 무 원 장 : **도오**
부산동부교구종무원장 : **봉선**
전 북 교 구 종 무 원 장 : **정산**
광주,전남교구종무원장 : **지각**
제 주 교 구 종 무 원 장 : **덕산**
일 본 동 경 종 무 원 장 : **정대**
미국뉴욕주종무원장 : **성산**
중 국 남 경 종 무 원 장 : **해산**

★ 학교법인 삼화학원

◆삼화불교학림
학 장 : 법종 부학장 : 해운
교 수 : 법종, 백공, 해운, 봉선, 혜정, 정산, 박수구, 김수정, 김동균
조 교 : 정금옥
운 영 이 사 : 무불, 성산, 원명, 본각, 도우, 일현, 정현, 지각, 탄공, 해남, 덕운, 청호, 현덕, 도오, 일행, 동명, 무진, 만공, 무공, 가산, 법해, 진법, 용산, 여연, 도원, 대각, 법신, 혜능, 대산, 운하

◆삼화불교대학림
원 장 : 혜인
교 수 : 법종, 일봉, 정수, 송암 성민
운 영 이 사 : 광운, 도의, 영봉, 도홍, 성해, 성하, 지원, 혜법, 성공, 수원, 법우, 혜현, 지운, 지해, 도각, 동덕, 무량, 혜월, 혜철, 정현, 철산, 덕산, 덕송, 진평, 진제, 연각, 성묵, 청산, 동안

◆중국남경중의약대학
총 장 : 오 멘화 유학생처장 : 손영진
학 생 주 임 : 예정호 조 교 : 심미, 유위

◆**총림**
- 삼화총림 **백화사**
- 부산총림 **흥국사**
- 경남총림 **백천사**
- 강원총림 **조주선관**
- 충북총림 **청룡사**

◆**종단 법인**
- 학교법인 : **삼화학원**
- 사단법인 : **본국검도 협회**, **천지무예도 협회**, **행복한 사회**
- 의료법인 : **효성**
- 재단법인 : **가평 그린 공원**
- 사회복지법인 : **정향 인주**

◆**삼화불교신문사**
발 행 인 : **조일**
논설위원 : **동산**
편집국장 : **신석**
이 사 : **혜원, 정산, 혜은, 각원, 덕산, 관불, 해인, 중비, 정금옥**

◆**총무원 사업부**
사무총장 : **노사나**

◆**전국신도회**
고 문 : 김윤주
대 표 회 장 : 허정석
상 임 회 장 : 인권식
사 무 처 장 : 이상훈
부산신도회장 : 박해식
강원신도회장 : 김현재

◆**청년신도회**
고 문 : 안창열
회 장 : 현성환
홍보처장 : 유창렬
사무차장 : 허승국
기획실장 : 현성진

총무원 : 서울 강남구 신사동 511-5
02)511-2026 / 총무부 02)511-2027 / 총무원장실 02)511-1080
조계종삼화불교신문 02)3445-7375 / 전송 02)511-2028

인터넷 주소 삼화불교종단 : www.shbuddhism.or.kr 남경중의약대학 : www.njutcm.co.kr
삼화불교신문사 : www.jogaejong.co.kr E-MAIL주소 : samhwade@hanmail.net

아름다운 등
'동해 독도는 한국 땅'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대구 장성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서울 화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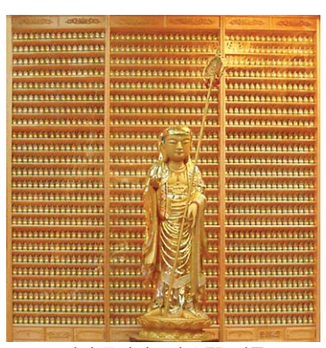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천안 동심사


마산 금강정토사 LED 인등


오색공단등

팔각봉축접등




칼라(보카시)연등

주름등




공 단 등


영 가 등

종 등



찬덕연등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부처님 자비로 훈훈한 겨울나기

사찰·단체들 전국서 이웃위한 행사 개최해



구랍 13일 경남 고성 보리수동산에서 열린 송년음악회 현장. 불교계 사찰과 단체 등은 연말연시를 맞아 이웃을 위한 자비의 손길 담은 행사를 연이어 펼쳤다.

차가운 겨울바람만큼 모진 경제 한파에 모두가 움츠리는 때 전국의 불교계 사회복지시설과 사찰 등에서 이웃을 위한 자비의 행사가 잇따라 열렸다.

경남 고성의 아동복지시설 보리수동산(원장 승욱)은 구랍 13일 '아름다운 세상! 하나 되는 우리'를 주제로 송년음악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이학렬 고성군수를 비롯한 지역관계자, 봉사자 및 어르신들 300여 명이 참석했다.

승욱 스님은 인사말씀에서 "경제불황으로 어려운데도 후원과 자원봉사를 이어온 소중한 분들의 훈훈한 사랑과 정성에 감사하다"며 "여러분의 관심으로 21세기의 꿈나무인 보리수동산 아이들은 오늘도 밝고 건강하게 희망찬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고 말했다.

이학렬 군수는 "내자식은 누구나 사랑할 수 있지만 나 아닌 다른사람을 사랑하기는 쉽지 않다"며 "남을 내 자식 같이 대할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축사했다.

고창군 종합사회복지관(관장 무공)은 구랍 19일 복지관 대강당에서 이강수 고창군수, 문상용 고창군보건소장과 지역 어르신 5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2008 복운 문화행사 및 후원자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2008년 한 해 복지관 발전을 도운 자원봉사자와 후원자에 대한 표창장 수여식과 강연도 있었다. 이준범 공중보건의(고창군보건소)가 '우울증 예방 건강강좌', 유종국 교수(전북과학대학)가 '농어촌 복지관 자원봉사자의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초청강연했다. 이어 복운 노래자랑과 국악공연, 레크리에이션, 품바공연을 즐기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무공 스님은 "2008년 한 해 동안 복지관 발전을 위해 노력한 자원봉사자와 후원자 여러분에게 감사한다"며 "새해에도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불교회관 룸비니어린이집(원장 이연희)은 구랍 19일 룸비니어린이집 유희실에서 '불우이웃돕기 온리 원'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어린이들이 직접 판매해 얻어진 수익금은 지구촌 공생회 전북지부에 미얀마 초등학교 건립기금으로 기탁됐다.

부산에서는 자비의 쌀 나눔 행사가 줄이었다. 선찰대본산 범어사(주지 정여)는 구랍 23일 사회복지단체를 위한 '제1회 자비의 쌀 나누기 행사'를 열었다. 소외된 이웃을 돌보자는 취지로 진행된 행사에는 범어사 신도들이 직접 기금을 마련해, 불교 사회복지단체 13곳과 개신교 부설 노숙자사회복지관 1곳 등 14개 복지기관에 쌀 20kg들이 130포를 전달했다.

정여 스님은 "이번 쌀 나눔 행사를 계기로 부산의 모든 사찰들이 이웃과 훈훈한 정을 나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천태종 삼광사(주지 영제) 구랍 17일 월남참전유공자 가정을 대상으로 '자비의 쌀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는 어려운 시기에 국가를 위해 몸 바친 분들에게 감사를 전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쌀 40kg들이 60포를 유공자 가정 60가구에 전달한 삼광사 신도들은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며 다가올 새해를 준비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생명나눔실천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현지, 이하 '광주전남생명나눔')는 구랍 21일 무등산 문빈정사 앞마당에서 '2008년 생명나눔의 날' 행사를 갖고 지난 1년의 성과를 회향했다.

이날 행사에는 광주전남생명나눔 회원의 집인 광주콜럼버스영화관에서 1년간 모은 헌혈증서 4000매와 사랑의 돼지 저금통 55개 전달식도 진행됐다. 상무미르치과병원에서 치료비를 전달했고, 지역 사찰에서 후원한 희망의 쌀 50포대를 환우가족 10여 가정에게 50kg씩 전달하는 행사도 열렸다.

광주전남생명나눔 회원에 대한 표창도 이어졌다. 500여 자원봉사자들 중에서 98시간을 자원봉사한 송명선(조선대)씨가 자원봉사 대상을 수상했다. 자원봉사상에는 김선화(전남대), 정재화(동일전자정보고) 박한솔(조대여중) 김도희(첨단중) 김형식(원각사 청년회) 범정택(원각사 청년회) 오현이(송원대) 정희원(송원대) 김인숙씨 등이 수상했다. 동지 나눔행사와 함께 진행된 행사에는 가수 류상호씨와 주권기씨의 문화공연도 펼쳐져 눈길을 끌었다.

혜철 충청지사장 /청운 경남남부지사장 /조동제 전북지사장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박지원 기자

종교 벽 허물고 '메리 크리스마스'

구랍 24일 옥천지역 3개 종교단체 모여



구랍 25일 성탄절을 맞아 천주교 옥천성당에서는 혜철 스님, 김진구 목사 등 불교, 개신교, 천주교 성직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성탄미사를 가졌다.

구랍 25일 성탄절에 불교, 천주교, 가정교회 성직자가 한자리에서 화합의 성탄미사를 개최해 눈길을 끈다.

혜철 스님(옥천불교연합회장)과 김진구 목사(가정성폭력상담소)는 24일 천주교 옥천성당 (신순근 비오신부)을 방문해 성탄미사에 참석했다.

혜철 스님은 "올해 종교 편향 문제와 관련해 분열됐던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종교 간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며 "이웃의 어려움을 치료하고 갈등을 상생으로 발전시키는 인연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옥천의 3개 종교 단체는 5년 전부터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 마다 부처님과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는 플래카드를 서로의 사찰과 교회, 성당 앞에 내거는 등 종교의 벽을 허무는데 노력해 왔다. **혜철 충청지사장**

수영구노인복지관 24일 개관식

사회복지법인 불국토(이사장 혜총)의 18번째 복지기관으로 '수영구노인복지관'이 개관했다.

수영구노인복지관(관장 윤기혁, 이하 복지관)은 구랍 24일 복지관 4층 강당에서 개관식을 갖고 관내 노인의 복지 향상과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시작했다. 행사에는 범산 스님(불국토 상임이사), 박현욱 수영구청장 등 불교계와 지역기관을 대표한 3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해 복지관 개관을 축하했다.

복지관 개관준비위원장인 범산 스님은 인사말에서 "어르신은 현재의 풍요가 있기까지 이 땅을 일군 주인공으로 대우받아 마땅하다"며 "소외계층에게 더욱 더 관심을 갖고 지역주민과 협력해 가장 모범적인 복지시설로 운영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복지관은 불국토가 수영구로부터 위탁받아 총 공사비 30억 원을 투입해 건립됐다. 지역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된 복지관은 향후 건강증진, 교양, 오락, 기타 복지증진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박지원 기자**

광주 대원정사 대웅전 상량식 봉행

광주 대원정사(주지 일화)는 구랍 21일 대웅전 상량식을 봉행했다.

2007년 6월 8일 원인 모를 화재로 대웅전과 주변요사체가 전소됐던 대원정사는 2008년 5월 건립을 시작해 대웅전을 연건평 60평, 내5포외7포의 PC공법으로 건축해 상량식을 봉행했다.

완공식은 부처님오신날에 봉행할 예정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신심·원력으로 이국생활 잘하길"

혜인 스님, 남태평양 괌 불자 교민 위한 법문

남태평양 괌의 한국사찰 보타산 낙가사(주지 도휘)는 구랍 21일 혜인 스님(제주 약천사 회주)을 초청해 특별한 법석을 마련했다. 괌 거주 한국교민들을 위해 마련된 법회는 1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여법하게 봉행됐다.

혜인 스님은 "타지생활이 때때로 힘들겠지만, 늘 관세음보살을 염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신심과 원력으로 극복해나가길 바란다"고 법문했다.

한편 보타산 낙가사는 관음기도 도량으로, 불자 어학연수생 및 괌을 찾는 여행자라면 누구나 머물다 갈 수 있는 세계적인 포교도량이다. (1671)477-6351 **박지원 기자**



혜인 스님은 구랍 21일 괌 보타산 낙가사에서 한국교민들을 상대로 초청 법문을 했다.

부산 해동중 수계법회 중학생 120여 명

중학생 천진불 120여 명이 졸업을 앞두고 수계를 받았다.

부산 해동중학교(이사장 흥교)는 구랍 24일 범어사 설법전에서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졸업을 앞둔 3학년 120명은 정여 스님(범어사 주지)을 계사로 수계를 받았다. 정여 스님은 "수계의 '계'는 울타리가 지켜주는 형상이다. 계를 받는다는 것은 '혼자 걷는 어두운 밤길을 비춰주는 등불'을 만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 법회에서 정여 스님은 5가지 계율을 청소년 불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관련 설화와 월남전참전 당시의 경험담 등을 통해 재미있게 풀어내 학생들의 집중도가 높았다. **박지원 기자**

전북 지역 교도소 불자회 무자년 송년대법회

순간의 실수로 참회의 길을 살고 있는 불자 재소자들이 올 한 해를 마감하는 무자년 송년법회를 봉행했다.

군산교도소는 구랍 17일 재곤 스님(군산 관음사)을 법사로 초청해 송년법회를 봉행했다.

행사에는 관음사 재곤 스님, 동국사 종걸 스님, 성광문 前 전북포교사단장 등 500여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재곤 스님은 법어에서 "여러분들의 실수로 인해 가족까지 함께 고통 받고 있다"며 "내가 먼저 참회하면 모든 이들의 마음이 편안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법회를 주관한 성광문 전 단장은 "영어의 몸이지만 한해 마무리를 잘 해 한시바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자"고 권했다.

전주교도소도 구랍 18일 송년법회를 봉행했다. 정읍 일광사 승천 스님, 전북불교회관 이원일 사무국장 등 200여 사부대중이 동참한 법회에는 전북공무원불자 가족들도 참석해 불자 재소자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佛記2553年 己丑年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사단법인 대한불교종단진흥총연합회
법인등록번호 134671-0002921호

총 재 혜 정 (사단법인 대한불교일승종 총무원장)
부총재 무 송 (사단법인 대한불교화엄선종 총무원장)
혜 안 (사단법인 대한불교무량종 종정)
우 담 (중앙조계종 총무원장)

회 장 송 산 (사단법인 대한불교해동종 총무원장) 부회장 마 정 (임제선학원 종무총리) 정 림 (사단법인 수미산문 조동정종 총무원장)

사무총장 법 봉 (사단법인 대한불교승가종 총무원장)

이 사 법 인 (한국불교원각종 총무원장)
이 사 대 명 (대한불교천지종 총무원장)
이 사 정 일 (한국불교근본해동종 총무원장)
이 사(감사) 향 운 (세계불교법사종 총무원장)
이 사 지 고 (세계불교법사종 종회의장)
이 사 법 성 (국제불교선덕종 총무원장)
이 사 대 일 (대한불교법륜종 총무원장)
이 사 구 화 (대한불교구화종 총무원장)
이 사(감사) 법 천 (대한정토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이 사 일 초 (사단법인 대한불교삼계종 총무원장)
이 사 무 각 (사단법인 대한불교정토종 총무원장)
이 사 해 운 (대한불교정토조계종 총무원장)
이 사 덕 진 (호국불교원각종 종회의장)

◆ 사무실 : 경기 안성시 보개면 신장리 산 44번지 영평사 전화 : 031)676-3960 / 사무총장 011-9330-6210



佛記2553年 己丑年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韓國佛教 太古宗

宗　　正　崔慧草
宗正禮敬室長　趙常虛

僧正院 院長　柳南坡
副 院 長　李寶峰
副 院 長　金法藏

元老會議 議長　金一宇
副 議 長　權德化
副 議 長　姜慧宗

總務院長　李雲山
副 院 長　金越海
副 院 長　文普經
副 院 長　曺幻宇

■ 敎務企劃室長 高東佑
■ 交流協力室長 閔法顯
■ 文化宗務特補 石禪岩

中央宗會 議長　朴印空
副議長 鄭大隱
副議長 成圓峰

中央司正院長　金月雲
副院長 柳雲潭

中央初審院長　姜靑峰

■ 한국불교 전통문화 전승관 : 서울시 종로구 사간동 112번지 / TEL 02)739-3450 FAX 02)739-3470

대한불교 천태종

종 정 김도영

총무원　총무원장 주정산
총무부장 김무원　교무부장 김유정　교육부장 김세운　재무부장 김용암
사회부장 김경천　규정부장 김영제　종정사서실장 정장호

원로원
원로원장 윤덕산

종의회
종의회의장 장도정
종의회부의장 용월산
박노승

감사원
감사원장 변춘광
감사위원 이월장

참의원
참의원장 권무원
중앙신도회장 권영철　금강대학교 총장 성낙승　원각불교사상연구원장 권기종

■ 총본산 구인사 : 충북 단양군 영춘면 백자리 132-1번지 TEL043)423-7100 / FAX043)420-7399 www.chentae.org

근하신년

생활불교 실천불교 진각종

대한불교진각문화전승원 건립불사의 원만추진을 서원합니다



總　印　道　欣
統理院長　悔　淨

대한불교 진각종 JIN-GAK BUDDHIST ORDER　136-865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2동 22번지　전화 : (02)913-0751~4　팩스 : (02)913-0755　http://www.jingak.or.kr

생활불교 실천불교의 대도

불교 총지종

謹賀新年

종　령 효강 대종사
통리원장 원송

중앙종의회 의장 대원
사 감 원 장 지성
법 장 원 장 법공
중앙교육원장 화령
동해중학교 이사장 의강

총무부장 경원　서울경인교구 교구장 법등　서울경인교구 신정회 지회장 만득장
재무부장 시정　부산경남구교 교구장 대원　부산경남교구 신정회 지회장 신인록
교정부장 선도원　대구경북교구교구장 지공　대구경북교구 신정회 지회장 권오남
사회부장 인선　충청전라교구교구장 밀공정　충청전라교구 신정회 지회장 민순분
통리원 임직원 일동　각 사원주교 일동　각 사원 신정회 회장과 임원 일동

■ 사회복지재단
- 종보 통신원
- 미타회
- 장기요양센타
- 바라밀공부방

서울시 강남구 역삼 2동 776-2 ☎ 02)552-1080~3, 전송 : 02)552-1082 www.chongji.or.kr

새해 교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법신비로자나부처님의 가지력이 충만하시기를 서원합니다.

총지종은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상임이사. 불교텔레비젼 이사. 불교방송 이사. 한일 불교문화교류협의회 상임이사. 한중일 불교문화교류협의회 상임이사 종단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새해 기축년에도 교도 여러분들과 함께 더욱 발전하는 종단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기축년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온 누리에
함께하시길 합장 기원합니다!!

대한불교관음종

www.kwanum.kr

사단법인 대한불교 원융원(종)

宗　正 靈山 一空
總務院長 원정성관

부 종 정 유념법신. 천호천호
고　　문 신수
원 로 원 선명. 성인. 정각
승정원원장 체운

■ 중앙종의회
종의회 의장 체의
종의회 의원
송운. 체각. 보각. 보운. 체선. 체명
종정사서실장 해주

규정원장 진허
교육원장 해안
문화원장 혜광
포교원장 해송
중앙비구니회장 선덕
총무부장 진호
포교부장 보정
종무원장
혜인. 각우. 보정
혜명. 도경. 정안

■ 총본산 : 서울 구로구 구로2동 704-39호 / 전화 02)853-0531~2 전송 02)853-0533

종단 지도자 신년 법어〈요약〉

법어 전문 : buddhanews.com

"번뇌 일깨우는 심지 법등 밝혀"

■ 법전 스님

조계종 종정



시방세계가 새 역사를 맞습니다.
하늘은 새 빛을 빚어 이 땅의 어둠을 씻어내고
산빛 물빛이 한결 같이 지혜광명을 이루어
사바의 번뇌를 일깨우는 심지(心地)의 법등을 밝힙니다.

오랫동안 가슴에 담아온 비원(悲願)의 숨결이
오늘 아침 장강으로 열려서 비옥한 산하를 이루니
집집마다 향상(向上)의 가풍은 하늘 높이 드날리고
만유(萬有)는 본분소식(本分消息)을 드러내어 얽매임에서 벗어납니다.

온 누리는 혜일(慧日)이 충만하여 교화를 입지 않는 이가 없고
세계는 보리가 널리 퍼져 군생(群生)이 도업을 이루니
눈앞에 다가서는 모든 장악(障嶽)은 무너지고
대지 위에 되풀이 되는 전도(顚倒)의 고통이 그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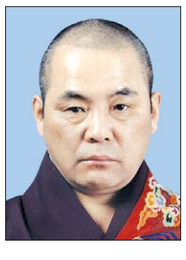
만물은 이택(利澤)을 베푸는 대시문(大施門)을 열고
사람들은 근기에 따라 무생법인(無生法忍)의 기틀을 얻으니
목인(木人)은 봉황을 타고 하늘 밖으로 날아가고
철우(鐵牛)는 걸림 없는 법륜을 굴려 모든 중생을 평등케 합니다.

탐하는 이는 장애의 풍운이 높아질 것이고
베푼 자는 오늘의 화택(火宅)을 벗어나는 길을 열 것이니
치우친 곳에서 만나지 못하고(偏徧處不逢)
현현한 가운데에서는 잃지 않을 것입니다.(玄玄不失)

"삼세가 일념이고 일념이 삼세"

■ 도용 스님

천태종 종정



모든 아픔은 희망의 등불이 켜지는 과정이요,
불행은 행복의 동반자다.
바위틈에서 살아가는 저 소나무
모진 시련 이겨내며
비바람에 꺾이지 않는 뿌리를 가꾸나니.
동업대중이여, 백 길 절벽에서 한 발 더 나아가라.
그제야 알게 되리라. 자신이 날 수 있다는 사실을.

一念普觀無量劫(일념보관무량겁)/無去無來亦無住(무거무래역무주)
如是了知三世事(여시료지삼세사)/超諸方便成十力(초제방편성십력)

한 생각에 무량세월 널리 살펴보니
가는 것도 없고 오는 것도 없으며, 또한 머무는 것도 없구나.
삼세가 일념이고 일념이 삼세이니
지혜로써 밝게 보아 연꽃행을 펼쳐보라.

"새해의 복된 문은 반드시 열립니다"

■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신년사



한해의 매듭은 새로운 각성의 기회입니다.
삶과 죽음, 속박과 자유, 전쟁과 평화, 부처와 중생 등은 서로가 등을 대고 붙어 있는 한 몸의 두 얼굴인 것입니다. 부처가 되고 싶으면 중생을 품에 감싸 안으면 되고, 평화를 얻고자 하면 투쟁을 그치면 되며, 자유를 얻고 싶으면 자타를 향한 속박을 멈추면 되고, 희망이 그리우면 절망과 동행하면서 그늘을 지워가야만 합니다.
검박함으로 품위 있는 인류를 몸소 실천하는 부처를 닮은 국민들에게,
절망을 품에 안고 함께 견디는 진정 예수님을 닮은 지도자들에게,
속박의 고통과 동행하며 공부하는 원효의 후예다운 지식인들에게,
무리들의 권세와 영광에 열망하기 보다는, 고통 받는 모든 중생들을 위해 소리 없이 기도하는 종교인들에게,
새해의 복된 문은 반드시 열릴 것입니다.

"희망과 열의로 재도약하는 한해 되기를…"

■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 신년사



기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세월의 무상함은 변할 수 없는 진리라고 말하지만, 그래도 다시 한 해를 맞는 새해 벽두에 마음가짐을 새롭게 가다듬고 힘찬 도약을 기약하는 일은 우리의 보편적인 정서일 것입니다.
새해에는 국민과 정부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지난 갈등의 역사를 극복하고 지혜와 힘을 모아 화합과 상생으로 경제가 회복되고, 사회가 안정돼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희망을 가져야 일을 하고, 일을 해야 성취를 누릴 수 있습니다. 새해에는 하면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일일시호일(日日是好日)의 한해가 되기를 바라며 부처님 자비광명이 시방에 두루 하여 국운이 융창하고 국민이 행복하며 각자 소원이 성취되는 새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분노·증오 끊고 자비 가꿔 웃음 가득한 세상 만들자"

■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 신년사



기축년 새해에도 변함없이 국내외 동포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이어지고, 온 겨레가 한마음으로 화합과 상생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게 되기 바랍니다.
국민여러분! 새롭게 맞이하는 기축년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온 세상에 기쁨을 선사하는 훌륭한 보시를 많이 베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덕분에 세상 사람들 모두 환희작약(歡喜雀躍)하고, 우주 법계에 가득 찬 유무정의 일체 존재들이 더불어 행복을 누리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갈등과 분쟁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이웃과 화합하고 세상 모든 존재와 화합하는 것은 곧 나 자신과 화합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위하는 일이 곧 세상을 위하는 일입니다.
동포 여러분! 새해에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정에 행복의 웃음이 넘쳐나고, 갈등과 분쟁이 사라지며, 세상의 모든 존재가 자기 자리를 찾아 조화로운 세상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마음의 힘 긍정하면 참된 주인이 됩니다"

■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 정사 신년사



마음은 모든 일의 근본이 되어(心爲法本)
주인으로 모든 일을 시키나니(心尊心使)
마음 속에 착한 일 생각하면(中心念善)
말과 행동 또한 그러하리라(卽言卽行)
<법구경>

내 마음을 거울에 비춤이 바로 내 행위가 되는 것처럼 내 생명에 깃든 마음의 힘을 긍정해 내어쓰면, 참된 주인 자리가 계속되고 무지 · 나태로 방치하면, 내 안의 무한 보고도 제 구실을 못하게 됩니다.
이 마음을 긍정하고, 바로 지키는 일이 정진입니다. 정진은 이 세상을 새로움으로 채우는 우리 삶입니다. 기축년 한해, 정진으로 우리의 삶을 열고 그 공덕으로 복과 지혜가 넘치는 세상이 되길 합장 서원합니다.

"집착 벗어나 나누는 지혜 필요해"

■ 혜초 스님

태고종 종정



기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일체중생 이고득락(離苦得樂)하시기를 심축(心祝)합니다.
요즘 경제사정으로 서민들이 실의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간 삶의 태도부터 바꾸어야 합니다. 한걸음 뒤로 물러서 마음을 쉬고, 강한 집착에서 벗어나 가진 것을 나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인간의 욕망은 아무리 채워도 채울 수 없는 허공과 같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속성이 불신과 갈등으로 얼룩진 중생세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물질이 지배하는 인간상실의 시대에 인류가 추구하는 대명제는 인본과 평화, 생명가치를 실현하는 일입니다. 상존과 협화는 생문의 길이요, 분석과 이반은 멸문의 길입니다. 자비와 구원은 부처의 본회요, 오만과 독선은 중생지병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너그러우면 복이 두터워지고 생각이 좁으면 하는 일이 옹색해지는 까닭에 어려울 때일수록 마음을 열고 분수를 지키며 주어진 인연을 소중히 하여,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바위처럼 본성을 잃지 않는다면 멀지 않는 장래에 반드시 제자리를 되찾게 될 것입니다.
常有欲以觀其徼(상유욕이관기요)/常無欲以觀其妙(상무욕이관기묘)
己丑新年心淸淨(기축신년심청정)/自他共成普賢道(자타공성보현도)
욕심이 지나치면 부분 밖에 볼 수 없고/욕심을 여의면 전체가 보인다네.
기축년 새해에는 청정심을 잃지 말고/너와 나 모두 같이 큰 소원 이루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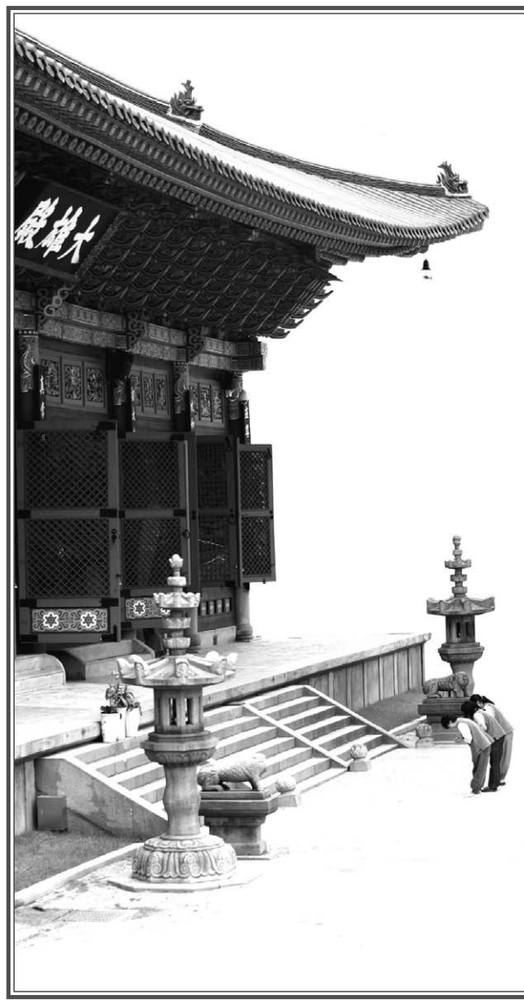
"부처님 말씀 실천에 심혈 기울여야"

■ 도흔 정사

진각종 총인



귀명삼보하옵고 기축년 새해를 맞이해 종단 스승님 여러분과 불교계 각 종단 고승 대덕스님 제위의 법체가 만안(萬安)하시고, 각계각층 불자 제현님의 생활 속에 항상 불은의 가피가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서원합니다.
밝아오는 기축년 새해에는 모든 불자님이 다함께 부처님 말씀과 진각성존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부처님의 가지력과 우리들이 실천한 자심선행(慈心善行)의 공덕으로 국가적 어려움을 해결해야 할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말씀 드립니다.
첫째, 정국과 민생의 안정을 위해 갈등과 대립을 없애고 화합과 상생의 자세로 국민총화를 이뤄야 하겠습니다.
둘째,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직장을 얻어야 할 사람들의 구직난까지 극심해지고 있으니 이러한 난제도 조속하게 해결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남과 북이 이해증진할 수 있는 대화를 통해 서로가 사랑하고 협조하며 평화통일의 소원도 기필코 성취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와 같은 난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곧 생활철학과 함께 한 부처님의 교법을 실천하는데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부처님 정법을 진실하게 수행 실천해 국운을 융성하게 하도록 정진합시다. 그리해 이 공덕이 전 세계로 미쳐져서 평화와 안정으로 불국정토를 이룩하는데 다같이 한 마음이 되시기를 서원합니다.



365일 24시간 열린 신행공간 조계사

새해에는 불자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하여
바라는 모든 소원을 이루시고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조계사 주지 세민 합장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45번지
Tel. 02-732-2183~4 Fax. 02-720-1391
http://www.jogyesa.org

佛記2553年 己丑年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대한불교 조계종 제2교구 본사
효찰대본산
용 주 사

주 지 정 호
특 보 성 로
부주지 성 직

총무국장 성 무 기획국장 남 전 교무국장 연 담
재무국장 응 진 사회국장 덕 조 포교국장 덕 본
박물관장 보 승

■ 부설 : 효행박물관 경기불교대학 효행교육원 용주사 템플스데이

경기도 화성시 송산동 188 ☎ 031)234-0040 / 팩스 031)234-2818
www.yongjoosa.or.kr

종단 지도자 신년 법어〈요약〉

법어 전문 : buddhanews.com

"하심 · 방하착 수행하라"

■ (사)대한불교원융종 종정 일공 스님



"나라가 어렵고 백성이 고통에 빠져 괴로움을 받고 있을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어려운 세파를 헤쳐 나아가야 합니까?"라고 묻는다면 하심(下心), 사심(捨心), 수심(修心)을 갖고 생활하라 하셨습니다.

이는 각각 지혜로운 삶은 희생을 위해 자기마음을 낮추는 것, 중생을 해롭게 하는 악의 근원이 되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놓아 버리는 것, 탐욕 노여움 이기심 교만심 따위를 멸해서 괴로움이 없는 안온의 세계로 가기 위한 것을 의미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좋은 만남, 좋은 인연은 중생 스스로가 여기서 얻는 결과의 인연입니다.

아무쪼록 기축년에는 좋은 만남 이루고, 지혜와 인내로서 전 세계적으로 힘들어하는 이 시점을 잘 헤쳐 나아갑시다.

"온 세상이 모두 청정법신"

■ 대한불교관음종 종정 죽산 스님



己丑無雲 日上朝(기축무운 일상조)/乾坤暗色 日時曉(건곤암색 일시효)//不法法皆 知平等(불법법개 지평등)/自然物物 非長短(자연물물 비장단)//法界盡是 毘盧師(법계진시 비노사)/誰道賢愚 貴與賤(수도현우 귀여천)//旣心淸淨 世界和(기심청정 세계화)/譬水虛名 日月彰(비수허명 일월창)

기축년에 구름이 개고 햇살이 비추니
온 누리에 어둠이 일시에 없어져 밝아지고
법과 법이 모두 평등함을 알게 되면
있는 그대로의 모든 것에 옳고 그름이 없네.
온 세상이 모두 청정한 법신인데
잘잘못 시비함은 중생의 분별이라.
마음이 맑고 깨끗하면 세계가 평화스럽고
물이 맑고 밝으면 해와 달이 밝게 비추느니라.

"번뇌에서 벗어나 밝은 사회 만들자"

■ (재)일붕선교종 종정 붕해 스님



금강불괴(金剛不壞)/여시불법(如是佛法)
단의인력(但依人力)/괴불괴야(壞不壞也)
무너짐이 없구나, 금강이여!/부처님 법 또한 이와 같아라.
다만 사람에 의해서/무너지고 말고 하네.

새해에는 더욱 더 분별하고 차별하는 번뇌 망집에서 벗어나 밝고 맑은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섭시다.

"참회하고 회향하는 삶 되기를…"

■ 대한불교삼론종 종정 혜공 스님



10년보다 긴 한해였습니다. 위정자들의 당리당략에 따른 이전투구를 보면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2009년에는 남의 허물을 보기 이전에 자신의 허물을 참회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화합하며 그 빛을 세상에 다시 회향하는 삶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마치 묵묵히 일하고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나 마지막 남은 가죽까지도 세상을 위해 남기는 저 침묵하는 황소와 같이.

"정도 받들어 사회의 등대 되자"

■ 불교총지종 종령 효강 정사



온 세계가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는 때일수록 우리는 부처님 가르침에 더욱 충실해야 합니다. 불자들이 항상 정도를 받들어 사회의 등대가 된다는 생각으로 무연대자 동체대비(無緣大慈 同體大悲) 정신을 펼친다면 지금의 어려움은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기축년을 맞아 건강하고 청정한 삶을 영위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서로 돕고 사는 복된 사회"

■ 대한불교불입종 종정 면철 스님



"이제 이곳에 모든 환란 있다 해도 오직 나(佛) 만이 능히 구호 하리라." <법화경>

부처님이 중생을 구제한다는 것은 자비의 위대한 힘을 가르쳐 서로 돕고 사는 복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함입니다. 부처님 자비정신을 배운다면 중생계에 화목한 삶은 반드시 이뤄질 것입니다. 모두에게 부처님 구호가 있어 성불의 길을 닦는데 장애 없기를 바랍니다.

"서로 용서하고 베풀자"

■ 대한불교무량종 종정 혜안 스님



하루에도 한량없이 찾아드는 망념 속에 사로잡혀 무시습숙(無始習熟)한 숙업의 선율은 여지없이 본래 진면목을 수시로 흔들어 놓아도 언제 어디로 갈 곳 하나 모르고 살아가는 뜬구름 같은 인생입니다.

새해 아침 힘차게 솟아오르는 태양에 허망된 욕망과 아집을 버리고 서로 용서하고 베풀면서 적덕 쌓아 복되고 희망찬 새해 됩시다.

"부처님 말씀 법대로 살아갑시다"

■ (사)대한불교해동종 종정 혜봉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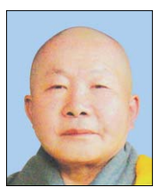


무자년 한해 국내 · 외적으로 지구촌은 이념과 갈등의 테두리 속에서 공생과 공존의 집단들이 상존했습니다.

보수와 진보, 부자와 가난, 지위고하 등 복잡다난한 생활 속에서 부처님 말씀은 늘 평등을 논하셨습니다. 우리 중생들이 부처님 말씀과 법대로 살아간다면 기축년에는 좋은 한해가 될 것입니다.

"오직 한몸만 제도해 적멸에 나갈 뿐"

■ 대한불교법상종 종정 자봉 스님



모든 맑은 도에 의해 청정한 자는 오직 이 하나에만 의할 뿐 둘째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그 안에서 일승을 세웠건만 유정들의 성품은 차별 없지 않더라. 중생계 속의 차별 없지 않더라. 중생계 속 무량의 삶은 오직 한몸만을 제도해 적멸에 나아갈 뿐. 그러나 여래는 대비와 용맹으로 열반을 증득해 중생을 버리지 않음, 심히 얻기 어렵느니라.

"환골탈태하는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 대한불교대원종 종정 신풍 스님



떠오르는 광휘의 태양처럼 우리 불자님들은 환골탈태하는 마음가짐으로 살아 나가야 할 시점입니다. 마음 한번 잘 쓰면 고대광실이 필요 없습니다. 오직 바로 그 자리가 부처님 세계요 불국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마음을 잘 사용하여 어떠한 마구니라도 물리칠 수 있게끔 참다운 법을 굴려서 기축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 화합해 성불합시다.

"어려운 어둠은 지나가는 것일뿐"

■ (재)대한불교미타종 종정 청연 스님



오늘 내일만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아침 해는 또 다시 동쪽에서 높이 떠 비추는데.

다만 어렵고 어지러운 어둠은 지나가는 것이다.

신년 기축년에는 부처님과 보살님들의 자비광명이 온누리에 충만할 것이다.

나무 아미타불.

"종단 단합에 총력을 경주하라"

■ 대한불교총화종 종정 동광 스님



희망과 광명에 찬 기축년 새해를 맞이해 종단에 혁신이 있어야만 하겠으며 말없이 묵묵히 성심을 다하면 이것이 곧 불법성삼보(不法城三甫)의 진면목이니라.

신체의 살이 썩으면 수술이 필요하고 반석에 바람이 들면 석돌보다 못하다.

종단 단합에 총력을 경주하라.

"서로 화합하고 허물 다독이세요"

■ 대한불교원효종 임시종정 향운 스님



다시 태어나는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합시다.

지난해의 혼란과 어려움을 거울삼아, 기축년 새해에는 소의 걸음으로 묵묵히 나아갑시다.

서로 화합하고 허물은 다독이며 우리가 향하는 곳으로 정진해 갑시다.

"초발심 잊지 말고 수행하라"

■ (사)대한불교일광종 종정 일광 스님



우주만물의 모든 생명체는 생이지지(生而知之) 이니라.
어머님 뱃속에 태어남도 처음이요,
지금 이 순간도 처음이라,
현재 살아감도 처음인지라,
죽음을 맞이하는 것도 처음이듯이
모든 수행자들은 처음 수행하듯 초발심을 잊지 말거라.

"화합하고 양보하고 격려합시다"

■ (재)한국불교중흥교원 한국불교조계종 종정대행 총무원장 보현 스님



정치 경제 사회 종교가 아만과 편견, 대립을 버리고 화합과 상생으로 어려움을 이겨내야 할 때입니다. 배우고 배우는 마음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아낍시다.

석가세존의 동체대비심이 간절합니다. 모두가 화합하고 양보하는 새해가 되기를 발원합니다.

"자신의 본성품과 대화합시다"

■ 대한불교삼보조계종 종정대행 총무원장 법장 스님



기축년 새해 칠천만 민족, 삼천만 불자 가정과 일터에 불보살님의 가피력과 천지신명의 신통묘력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서원합니다. 우리는 고귀한 한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숨어있는 나의 부처, 나의 예수, 나의 보살을 속히 찾는 자신의 본 성품과 대화합시다.

"행복과 건강 기원합니다"

■ 대한불교화엄조계종 종정 법정 스님



무자년은 백운 청풍가이가고
기축신년은 광명 득도내라

각 사암 종도 여러 스님네 건강하시고 전국 불자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을 기원 봉축합니다.

"불법이 임제종에 넘쳐 흐르네"

■ 대한불교임제종 종정대행 총무원장 지암 스님



부처님의 바람을 한번 일으킬 때 불법의 바다가 임제종에 넘쳐 흐르고

부처님의 바람이 한번 고요할 때 불법의 바다가 임제종에 넘쳐 흐르네.

먹구름 하늘에 천둥 번개가 치며 망망한 바다에 큰 파도가 일듯이 부처님의 불법이 하늘과 바다, 임제종에 넘쳐 흐른다.

"산중 수도 못해도 선행 버리지 마라"

■ 대한불교종단진흥총연합회장 회암 스님



누군들 산에 들어가 수도하고자 하지 않겠냐마는, 이에 나가지 못함은 애욕에 얽매인 탓이니. 그러나 산중 숲속에 들어가 마음 닦지 못하여도 자신의 힘껏 선행을 버리지 말라. 제 욕락을 능히 버리면 공경하기를 성인과 같이 하고 어려운 행을 능히 행하면 존중하기를 부처님 같이 하느니.

"부처님 가르침대로 정진합시다"

■ 대한불교대승종 종정 천광 스님



마음을 바르게 해 지난 일을 돌아보고 새로 다가올 일들을 맞이합시다.

항상 바르게 업을 닦아 정진하면 어떠한 혼란과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 다함께 정진합시다.

나로부터의 맑음이 모두의 맑음으로 번져나간다면 기축년 새해에도 온 누리에 자비가 가득할 것입니다.

"편 갈라 다투지 말고 화합하자"

■ 대한불교조동종 종정 지명 스님



한 생각이 청정하면, 그 육체가 깨끗하고 신령스럽다.

나는 옳고 너는 잘못이다 분별하다 보면 곧 갖가지 시비가 생겨 그 논쟁과 의문은 끝이 없도다.

너와 나를 편 갈라 다투지 말고, 국가나 사회나 가정이 편안하고, 희망 넘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고통 · 허상 없는 세상 이룩하자"

■ 한국생활불교조계종 종정 정관 스님



불나비는 제 죽는 줄 모르고 불만 보고 뛰어 듭니다.

만법의 근원을 알고 진여불성(眞如佛性)인 생명의 실상을 깨쳐 고통과 허상이 없는 세상을 자비광명으로 이룩합시다.

생사와 열반은 차이가 없음을 부처님 가르침에 귀의해 증득하고 함께 불국정토를 이뤄 나갑시다.

"계율 청정하면 마음도 법도 없다"

■ 불교조계종삼화불교 종정대행 총무원장 혜인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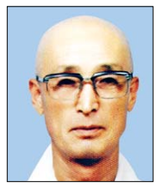


持戒淸淨心(지계청정심)/心法亦如比(심법역여비)
證得虛空時(증득허공시)/無心亦無法(무심역무법)

계율을 청정히 지키면/ 마음법도 또한 이와 같도다.
허공을 증득하게 될 때/ 마음도 없고 또한 법도 없다.

"위기의 도래는 일취월장 기회"

■ 한국불교여래종 종정 인왕 스님



위기환경(危機環境)의 도래(到來)는
위기극복(危機克服)의 기회(幾回)이니
불방일퇴(不放逸退)의 실천(實踐)으로
정도정법(正道正法)의 정진(精進)하면
여일월광(如日月光)에 안주(安住)하여
득성취장(得成就將)을 성취(成就)하니라.



매일경제신문 인체경영학 연재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은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감량이 된다는 20년간의 임상 경험!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해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 록 원 02)523-0708 www.chorokwon.com

佛記2553年 己丑年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대한불교 무량종

원로원 **지은 정해 혜운 법해 지산**

종 정 **정혜안**

사서실장 : **보 인**
기획실장 : **종 성**

총무원장 **보 경** 감찰원장 **오 현**
교육원장 **보 산** 포교원장 **다 정**

총무부장 **서 안** 재무부장 **보 광**
교무부장 **무 공** 사회부장 **원 정**

기획부장 **법 장** 기획국장 **법 공** 총무국장 **정 향**
재무국장 **보 혜** 포교국장 **명 운** 조직국장 **정 은**
교무국장 **정 심** 포교국장 **보 정**

중앙종회의장 **법 우** 부 의 장 **법장 보월**
사무총장 **보 성**

고시위원장 **현 장** 상벌위원장 **보 각**

■ 총무원 : 경남 하동군 옥종면 병천리 442-3 보경사 055) 882-1599
■ 총본산 : 경남 하동군 적령면 서리 550 칠보정사 055) 883-7771.7790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종 정 **현붕해** 총무원장

재단이사장 **경원**

명예이사장 붕해 원로의장 금봉 종회의장 경원 호계원장 용암 총무원부원장
상임이사 혜광 원로부의장 명종 사무처장 삼주 포교원장 도안 총무부장
이사 혜운 원로위원 무찰 종회의원 덕봉 감사원장 석성 교무부장
이사 도기 수암 재성 정일 재무부장
이사 화엄 청송 자명 무상 사회부장
이사 일명 송은 도정 만성 규정부장
이사 법광 원각 선행 자견 홍보부장
이사 담화 혜운 지연 지허 선거관리위원장 해동 교육부장
감사 혜천 원경 도허 경담 포교부장
감사 혜원 승원 법안 총무국장
법경 일운 교육국장
진허 혜원 홍보국장

■ 총무원 : 서울시 강북구 인수동 440-27 엄지빌딩 4층 www. llbung.org TEL 02)998-816

불기 2553(2009)년 새해를 맞이하여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온누리에 가득하시길 발원 합니다

대한불교 불입종

종 정 면철

원로원장 정 관

총무원장 경 암

사부대중 일동 합장

■ 총본산 : 충북 제천시 봉양읍 옥전리 271-3번지 송화사 전화 043)653-4800. 4848 / 팩스 653-5858
■ 총무원 : 충북 제천시 청전동 86-4번지 전화 043)653-4848. 1234 / 팩스 642-6660

佛紀 2553年 己丑年 謹賀新年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 미

종정 청연 월정 재단이사장, 법인원장 권

총무원장 정회암
총무부장 하동산
재무부장 김법제
사회부장 주만석
문화부장 최혜원
감찰부장 한지관
조사부장 전법하

중앙종의회
의 장 서법전

감찰원
원 장 임은주

법인원
총무국장 양재언
사회국장 김보덕
문화국장 이지법
포교국장 노연화
홍보국장 박혜명

교육원
원 장 남석진
교육부장 한영각

포교원
원 장 김진표
포교부장 조명각

종무원
부산종무원장 나석진
인천종무원장 지보덕
대전종무원장
경기남부종무원장 허지월
강원종무원장 허금성
충북종무원장 고월공
전북종무원장 김태신
전남종무원장 유진법
경남동부종무원장 김신진
경남서부종무원장 권성

비구니회장 강지명
벽암문도회장 나석진
자비회회장 이혜동
경기북부지부장 최
경북지부장 주한성
인천시지부장 정해철

미타종 종도일동

■ 총무원 : 서울 동대문구 휘경1동 112-39 진영빌딩 301-나호 전화 02)2242-1049

해동불교 임제종

종정대행 총무원장 **석지암**

종정사서실장 **혜관**

원로원장 **석지륜** 원로위원 **법성. 법공. 제공**
종회의장 **지언**

총무부장 **무오** 호법부장 **혜인** 사정부장 **제도** 사회부장 **혜주**
교무부장 **지웅** 포교부장 **혜정** 조직부장 **묘화** 외교부장 **정행**

총무국장 **지관** 호법국장 **정관** 사회국장 **후관** 교무국장 **묘순**
포교국장 **법관** 조직국장 **묘환** 외교국장 **혜관**

서울북부종무원장 혜광 서울중부종무원장 제현 경기중부종무원장 보우
경기남부종무원장 지우 경기북부종무원 지공 부산중부종무원장 법연
부산동부종무원장 혜일 강원종무원장 금화 대구종무원장 혜인
전남종무원장 보경 전북종무원장 법성 경남종무원장 자범
경북종무원장 지명 충남종무원장 혜용 충북종무원장 지명

■ 해동불교임제종 총무원 : 전남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1033-4번지 청암사
전화 061)644-7273 팩스 061)644-7274 휴대폰 010-4166-8428 / 010-3807-8428

대한불교 총화

종 정 **이동광**
부종정 **이정송**
총무원장 **전남정**

종회의장 **최만재** 종회부의장 **기혜성. 김운산**

교육원장 이남은 **포교원장 정일광** **호계원장 김혜각** 감
문화원장 백만우 **선 원 장 황혜광** **상벌위원장 이만오** 선거

총무부장 **박현오** 재무부장 **이지혜** 사회부장 **윤대암** 호
조직부장 **이지우** 교무부장 **황해월** 감찰부장 **김일봉** 조
교육부장 **최일광** 포교부장 **박지혁** 포교기획부장 **전신오** 문화
문화부장 **박보광**

서울(북)제1교구종무원장 이혜인 서울(북)제2교구종무원장 박현오 서울(남)
경기(성남)종무원장 정법연 경기(서부)종무원장 김혜암 대 전
충청종무원장 김법현 경북종무원장 정일광 울산교
경남서부교구종무원장 김만월 경남중부교구종무원장 박심공 부 산
강원제1교구종무원장 정혜산 강원제2교구종무원장 허승효 광주, 전
제주종무원장 김청해

■ 총무원 : 경기 남양주시 호평동 342-1호 수진사 전화 031)592

福

불황 터널 길어도 名作은 빛을 본다



'히트(hit)'라는 말은 야구에서 유래했다. 방망이에 맞아 쭉쭉 뻗어가는 야구공처럼 상품이 날개 돋친 듯 팔리는 것을 상징한다. 히트 상품을 위해서는 시장·품질·가격 삼박자가 맞아야 한다. 시장(고객)이 원하는 상품이어야 하고 품질이 뒷받침돼야 한다. 가격도 빼놓을 수 없다. 경기침체로 그 어느 때보다 지갑들이 굳게 닫힐 2009년이다. 하지만 소비자가 원하는 그것을 시원하게 풀어주며 애정을 한 몸에 받을 2009 HIT예감 기대상품을 소개한다. 노덕현 기자

1 60℃참숯으로 집안에서 숲속 효과 느끼세요

참숯발열액자



참숯은 나쁜 냄새와 유해물질을 빨아들이는 공기청정기능과 습기를 빨아들이고 내보내는 가습기능이 있다. 옛고방(명성INC)은 참숯의 이러한 기능을 극대화 시킨 제품을 선보였다. 굴참나무압축 참숯판(특허 제20-0421935호)에 하이카본면상발열체(특허 10-0668052호)를 사용해 항시 60℃를 유지한다. 월넛 액자로 인테리어 기능과 3중 안전장치로 전기용품 안전인증서를 취득해 안전성 또한 뛰어나다. 탈취효과와 항균, 항곰팡이, 원적외선 발산으로 숲속 효과, 간접난방효과를 낼 수 있어 수험생이나 어린이방, 냄새가 많이 나는 독서실, 환자 및 어르신 방에 설치하면 좋다.

■ 제품가격: 21만 8000원

■ 옛 고 방 : (031)555-0845 www.kobang.com

2 기혈 소통과 방향제 역할을 동시에

능인향당의 허브향 2종 (능인라벤더, 능인로즈마리)



우리 불가의 고유한 향의 법제로 향의 역사를 다시 쓰는 능인향당에서 개발한 천연 허브향은 고 기능성 향으로 기혈의 소통에 효력을 발휘하는 원향으로 법제했다. 향을 피우면 가슴이 시원해지는 청량감과 기혈의 소통이 원활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담배나 생선 냄새 등 악취를 제거하는 능력이 그 어떤 방향제나 탈취제보다 훨씬 우수한 것으로 판명된 신제품이다.

–능인 라벤더

심신을 안정시켜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 우울하거나 답답한 가슴을 진정시키고 기도시 법당의 보이지 않는 먼지나 일상의 담배연기 등을 흡착해 제거하는 기능이 뛰어난 향이다.

–능인 로즈마리

집중력과 기억력을 좋게해 공부하는 학생이나 머리를 많이 쓰는 분에게 권하는 제품이다. 또 생활 속의 음식이나 생선 냄새 등을 제거하는 기능이 뛰어나다

■ 제품가격 : 장 · 단 각 1만 5000원

■ 능인향당 : (02)3663-6777 www.nihwa.com

3 생명의돌, 희담석으로 수행과 건강 도움

희담석 찜질기(1인용 온열매트) - 大



희담석(稀潭石)은 화산 폭발시 지구 속 무기물들이 용암과 함께 불출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단해진 화산석의 일종이다. 옥(玉)보다 상온에서 파장의 투과력이 높아 침대 커버나 두꺼운 요를 그대로 투과한다. 40° C ~ 60° C의 온도로 찜질 또한 가능하다.

희담석 온열 찜질기는 에너지 방사력과 투과력이 탁월하며 수면시 세포의 활력을 높이고 각종 지병 등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제작한 제품이다.

■ 제품가격: 48만원

■ 자 원 넷: (02)3476-2335 www.jawonet.com

4 발이 편해야 만사가 편하다

만행화



발은 체중의 80%를 지탱해 딱딱한 지면에 매일 1만번 이상 부딪치며, 하루 약 70만kg을 들어 올리는 역할을 한다. 발의 건강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맨발일 때가 가장 좋은 상태지만, 맨발로 생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만행화는 무명, 삼베 등 천연재료를 손염색 등 100% 수작업으로 만들었다. 특히 풍산동 99%를 사용한 바이오실리콘 깔창으로 지압효과를 더했고, 내부통풍을 위한 에어매쉬와 천연코르크 중창으로 발냄새와 무좀 제거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 또한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해 우레탄창으로 밑창을 마감했다. 제품은 조각천, 무명천, 감천, 털신 등 다양하다. 불편한 발을 위한 키높이식 맞춤 제작도 가능하다. 발명특허(0553383호)

■ 제품가격: 12만원

■ 만 행 화: (02)733-5715 www.manhaenghwa.co.kr

5 청량한 목탁소리 백마디 말보다 낫다

칠기 장미목 목탁



목어를 원형으로 하는 목탁은 일체중생에게 부처님의 법음을 일깨워주고 이고득락(離苦得樂)과 열반해탈을 성취하라는 뜻에서 사용되는 의식구다. 칠기 장미목 목탁은 아름다운 질감과 강한 내구성을 겸비한 탁월한 목재인 장미목에 전통칠기의 도장방법으로 표면처리를 마감한 목탁으로 아름답고 중후한 범음을 들려준다. 장미목은 특성상 목탁으로 제작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다. 하지만 선우불교는 2년간 연구로 개발에 성공했다. 공명과 벗겨짐을 방지하기 위해 생옻칠을 나무속까지 먹여 나무결이 그대로 살아있고 벗겨지지 않는 반영구성을 보인다.

■ 제품가격: 1호~5호 38만원~15만원

■ 선우불교: (02)998-7940 www.swbud.com

6 피로회복 · 숙면 · 체질개선에 탁월

아마따차



아마따는 감로(甘露)의 빨리어로 남미 아열대 지역 사람들이 즐겨마시는 '허브 마떼(Yerba Mate)'를 주원료로 한다. '마떼'는 파라과이와 아르헨티나 지역 과라니족이 피로회복과 숙면을 취할 때 주로 사용한다.

녹차의 지방분해 성분인 카테인을 2배 넘게 함유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목축업을 하는 남미사람들이 비만이 적은 이유는 고기와 함께 '마떼'를 함께 마시기 때문이다. 비타민과 미네랄도 다량 함유하고 있어, 등산이나 장시간 운전시 스트레스 해소 등에 큰 도움을 준다. 갈증해소는 물론이고 건강까지 생각하는 기능성음료로 재가불자 수행 및 체질개선에도 큰 도움이 된다.

■ 제 품 가 격: 24개 4만 8000원

■ 대자연산업: (02)1566-6289 www.amata.co.kr

7 언제 어디서든 자연의 맑은 향기를…

법당 상단용 청다향 다향기(실용신안특허 제0164576호)



청다향은 덕유산 사람 발길 없는 천혜의 자연지대에 자생하는 차(茶)나무, 잎, 열매 속에서 추출한 극소량의 향이며 나무가 천적을 물리치는 황금 빛 에센스 원액 100% 향 성분을 말한다.

맑은 수행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온 청다향 청오 스님은 '향기도 제대로 된 향로를 만나야 참 향을 만들어 낼 수 있다'라는 원력을 갖고 도자기 장인으로 하여금 수작업으로 최고가치의 투각 청자 향로를 만들었다. 이번에 새로 개발된 법당 상단용 청다향 다향기는 건강에 좋은 무공해 청자 다향기로 최적의 온도에서 피어나게 되는 공법이 특허 받은 기술이다.

상단용 청다향(사진)은 인연 있는 분들에 한해 청오 스님이 직접 방문, 향을 시연해 준다. 이 밖에도 중단 청다향, 개인용, 차량용 등도 함께 개발되어 언제 어디서든 자연의 맑은 향기를 체험할 수 있다.

■ 높이 : 370cm

■ 구성 : 향로+코끼리향로+주전자향로+향 5mg 2개

■ 우리 숲 청다향 : (055)941-1083 / (010)4595-0017

대한불교 조계종 제3교구 본사

설악산 新興寺



회 주 설악무산
운영위원장 도 후
부 주 지 법검우송

총무 동선 기획 홍구 교무 현담 재무 일음
포교 지상 사회 일도 호법 일해

- 신흥사 향성선원
- 신흥사 신도회
- 신흥사 불교대학
- 재단법인 만해사상 실천 선양회
- 재단법인 신흥사 성준장학회

◇사회복지법인 신흥사 복지법인
· 반야노인요양원
· 반야어린이집
· 룸비니어린이집
· 춘천실비노인요양원(연화마을)
· 속초종합사회복지관
· 속초시노인복지회관
· 금강장애인보호소

www.sinhungsa.or.kr

신흥사 대중일동

■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170번지 TEL 033)636-7044,7393 FAX 033)636-7556

佛記2553年 己丑年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수산지종
주지 시몽

전남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26번지 TEL 061)392-7502
홈페이지 : www.baekyangsa.org



佛記2553年 己丑年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대한불교 원효종

총본산 금수사 주지 명 운

서울교구종무원장 **진산**
부산교구종무원장
충남대전교구종무원장 **일륜**
인천경기교구종무원장 **인담**
대구교구종무원장 **법웅**
울산교구종무원장 **운오**
강원교구종무원장 **청암**
충북교구종무원장 **석암**
광주교구종무원장 **원각**
전남교구종무원장 **마명**
경북교구종무원장 **명석**
경북남교구종무원장 **태일**
경남교구종무원장 **도암**
제주교구종무원장 **강설**
전국비구니회장 **명관**

원로위원 **벽송, 무진, 정향, 청은, 고산, 일휴, 혜봉, 대운, 도경 경운, 범산, 창해**

상벌위원장 **태운**
포교원장 **불인**
교육원장 **수혜**
종학원장 **영운**
문화원장 **효산**
의전실장 **대련**

대한불교원효종 임시사무총장 **도봉** 종도회장 **금봉**
임시총무원장 **용일**
임 시 종 정 **향운**

중앙선거관리위원 **원봉, 도봉 운오, 혜담**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도천**

■ 전화 02)735-0501~2

대한불교 삼론종

종 정 석혜공

부종정 **석 혜 승**

총무원장 석진봉

종회의장 **석지경**
사정원장 **석지운**
포교원장 **석인봉**
교육원장 **석명산**
수선원장 **석지심**
문화원장 **석승봉**

종도 일동

■ 총무원 : 서울시 노원구 상계5동 169-539번지 인광빌딩 5층 TEL 02)937-0343 FAX 02)937-0344

佛紀 2553年 己丑年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사단법인 대한불교 일광종

종 도 일 동

■ 총무원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2동 468-18 / 전화 02)2207-7198 / 팩스 02)433-1666

대한불교 법상종

종 정 방원 자봉

총무원장 **심지 해월** 부 원 장 **현암 도일**

종회의장 **익주 천웅** 사정원장 **혜명** 참선원장 **도선**
부 의 장 **경천** 사정위원 **지안** 교육원장 **교덕**
사정위원 **성원** 포교원장 **지우**
연구원장 **원상**

총무부장 **해 명**
교무부장 **법 산**
재무부장 **선 혜**
사회부장 **법 공**
문화부장 **대 화**
호법부장 **대 광**
교육부장 **법 정**
포교부장 **법 륜**
홍보부장 **성 운**
연구부장 **보 월**
역경위원 **지 천**
경남종무원장 **일 공**

부산종무원장 **진 광**
대구종무원장 **강 명**
울산종무원장 **석 천**
강원종무원장 **대 광**
경북종무원장 **도 선**
광주종무원장 **성 운**
충북종무원장 **강 월**

충남종무원장 **경 천**
자 문 위 원 **청 원.법 경.인 산. 성 산.설 봉.덕 봉**
총무국장 **선 우** 문화국장 **법 연**
교무국장 **법 령** 호법국장 **선 경**
재무국장 **선 명** 홍보국장 **인 명**
사회국장 **관 덕**

■ 총무원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동천1리 631-1 무봉사 / 전화 031)665-0355. 653-1250-1 팩스 031)-653-1253

(재)한국불교중흥교원 한 국 불 교 조 계 종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2009년은 종단 교육의 해입니다"

종정대행 총무원장 보 현 총무부원장 **현철**

중앙종회의장 **청 원** 사서실장 **청 의** 호법국장 **청 해**

종 도 일 동

■ 총무원 : 인천 계양구 오류동 155-2 보현선원 / 전화 : 032)518-1588

사단법인 대한불교 해동종
사단법인 해 동 자 비 원

원로원원장 석봉 대종사(청용사) 부 원 장 **백담 대종사**(백용사)
위 원 **법준**(월성사) **정화**(용광사) **법성**(화엄사) **승전**(상원사) **원심**(통일사)
종 정 **혜봉 대종사**(용정사)

총무원장 **송산**(대원사) 총무부장 **덕광**(봉덕사) 교무부장 **무연**(법령사)
부 원 장 **도현**(관음사) 재무부장 **도은**(연령사) 사회부장 **혜산**(성불사)

중앙종회의장 **보장**(장안사) 부 의 장 **수운**(소원사)
중앙종회의원 **청산**(청산선원) **지선**(천수정사) **연각**(수도암) **백파**(동서양사)
혜정(광음사) **이타**(학산사) **수진**(지장암) **송연**(보원사)

중앙사정원원장 **대원**(극락사)
부 원 장 **옥용**(벽송사)

중앙포교원원장 **정화**(용광사)
부 원 장 **보담**(상주사)
교 포 부 장 **진아**(광명사)

중앙교육원원장 **공덕**(국제교화원)
부 원 장 **현법**(청학사)
부 장 **성암**(무우정사)

중앙복지봉사원장 **무량**(각원사)
부 원 장 **무봉**(무법정사)
부 장 **지연**(법화사)

부산교구종무원장 **삼자**(삼자선원)
경기교구종무원장 **벽송**(화엄정사)
경북(대구)교구종무원장 **혜봉**(지장선원)
경남동교구종무원장 **지성**(약왕사)

경남서교구종무원장 **혜광**(승원사)
전남(광주)교구종무원장 **청림**(삼각사)
충남(대전)교구종무원장 **무기**(봉선사)

사단법인해동자비원 원장 **덕광**(봉덕사)
국제교화원 원장 **공덕**(국제교화원)
용인소년의집 원장 **무봉**(무법정사)

종 도 일 동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392-5 ☎ 031)262-1577 FAX 031)263-1353



佛記2553年 己丑年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非營利宗教法人 대한불교 대원종

종정(총무원장) 정허당 신풍

원로원장 태허 부원장 청량범왕 위원 대월 지성 수인
연수원장 지성 부원장 보각
감찰원장 법왕 부원장 청암
포교원장 혜조 부원장 혜연
호법원장 정봉 부원장 법경
중앙종회의장 법정 부의장 혜도 청량범왕
불교예술원장 박종도 원 장 도영 소현 도이
비구니회장 대광 비구니부회장 연아 성화
대원신풍불교(승가)대학학장 신풍 부학장 정법 대광
사무처장 현도 종정사서실장 법수 종정큰스님시봉 연아

총무원장 신풍 총무부장 정법 재무부장 대광
교육부장 연아 포교부장 혜정
기획실장 대각 홍보부장 법경
중앙종회의원 정법 대광 연아 혜정 도언 혜연
법정 혜도 각오 법왕 법주 청암
보각 법경 능혜 백경 연제 다연 혜인

서울교구 종무원장 능혜 경북교구 종무원장 혜정
대구교구 종무원장 대각 경남서부교구종무원장 법정
경남동부교구종무원장 보각 부산교구 종무원장 정법
포항교구 종무원장 혜도 목포교구 종무원장 법주
전남광주교구종무원장 법정 경기교구 종무원장 일연
김해교구 종무원장 대광 통영교구 종무원장 도언
강원교구 종무원장 각오 예술위원 박종도 도영 소현



총무원 : 경남 김해시 한림면 병동 20 대한불교대원종 총무원 신풍사
기도원 : 경남 창녕군 창녕읍 옥천리 931번지 오세암 055)521-1878
한국역술철학 협회 회장 시인 철학박사 종정(총무원장) 정허당 신풍
총무원 055)346-2910 / 무료전화 080-3030-5959 / 팩스 055)346-2909
큰스님 直 055)346-2908 / 휴대폰 011-869-8608 / 평생전화 1577-0408
한글 홈페이지 대원불교조계종 또는 http://cbc108.tv:9004 / e-mail: asp8990@hanmail.net

◆신규사암 등록하실 스님 항상 환영합니다. 행자승 모집 합니다. 무료숙식제공 나골당 양로원 역학(철학) 대원승가(불교)대학 및 불교의식 교육생 모집함
◆지역교구 종무원장 하실 분 초빙 환영합니다. ◆역학 철학 풍수지리 속성 개인지도 ◆신규사찰 등록 환영 사찰이나 포교당 하실 분 연락 바랍니다.

사단법인 대한불교 수미산문 조동정종

佛紀 2553年 己丑年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총무원장 **석정림(안성 영평사 주지)**

종도 일동

■ 경기 안성시 보개면 신장리 산44 영평사 / 전화 031)676-3960

종교법인 대한불교삼보조계종

◇大僧(皇) **멸공 大宗師(초대종정)**
◇宗正직대 **비담 大宗師(4대종정)**
◇元老院長 **금산 大禪師**

◇僧正 **태화 大宗師(2대종정)**

◇副宗正 총무원장 代行
◇호법원장 **법천 禪師**
◇고시원장 **현각 宗師**

• 법조고문 김인수 변호사. 백경석 변호사.(전직 판. 검사) 법조위원 주신식 법무사. 박명준 법무사.(전직 법원주사)
• **총무원장 법장** 부원장 공석 사무총장 법경
• **종회의장 청법** 부의장 지우 사 무 장 청암

• **감찰원장 법도. 부: 성안** • **교육원장 홍인. 부: 진묵** • **중선원장 석장. 부: 화륜**
• **문화원장 정수. 부: 자혜** • **염불원장 원명. 부: 청산** • **복지원장 원각. 부: 경보**
• **포교원장 우암. 부: 자공** • **국제원장 남산. 부: 보성**
• **무술원장 청도. 부: 보원** • **건설원장 성담. 부: 보각**

• 교구현황 서울교구원장 **석원현** 경기교구원장 **석마조** 광주교구원장 **석관조** 강원교구원장 **석보산** 부산교구원장 **석법호**
대구교구원장 **석각원** 경북교구원장 **석취운** 경남교구원장 **석서암** 울산교부원장 **석도연** 충남교구원장 **석태륜**
충북교구원장 **석지원** 전남교구원장 **공석** 전북교구원장 **석일도** 대전교구원장 **공석** 인천교구원장 **석법영**
중국교구원장 **석정륵** 일본교구원장 **석수원** 제주교구원장 **공석**

종무위원 종단임원 및 종도일도

• 종단총림 : 천년고찰 천명대중 귀수행장 유학산 위봉사 • 총무원 : ☎ 055)338-0089 • 경남 김해시 삼정동17-10 삼보사
• 승가대학 제2기 학인모집 : 전문 교수진 – 핵심교육. 단기교육. 실전교육

■ 총무원 : 경남 김해시 삼정동 17-10 / TEL 055)338-0089

대한불교 본원종

종 정 강무구 사서실장 심 지 연
부종정 김동광 유법용

원로의원 이송파 김용담 박보명 김대심
이관곤 이대봉 박대월

총무원장 이대화 사서실장 강정오
종회의장 김대운 종회부의장 방일봉 정지명
감찰원장 김대원 복지원장 박대성
교육원장 김대천 연수원장 김현담
의전원장 이두산 문화원장 김송담
포교원장 정대련 부산경남종무원장 박지우
염불원장 최대황 경북종무원장 윤자광

총무부장 김만혁 교무부장 손혜원
교화부장 정대능 포교부장 한법성
규정부장 강만공 재무부장 정법성
사회부장 허지광 전국신도회장 신대광

■ 총무원 :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417-3 TEL 02)391-4376 FAX 02)379-2746

〔등록번호 206-82-65359〕

대한불교 종단진흥총연합회

대표회장 **회 암** (재단법인미타종 총무원장)
부 회 장 **현 산** (대선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산 수 (대한불교사암종 총무원장)

사무총장 **성 일** (대한미타조계종 총무원장)

이 사 **혜 상** (대한불교화엄조계종 총무원장) **법 광** (세계불교법륜종 총무원장) **융 호** (대한불교인왕종 총무원장)
운 공 (대한불교홍제종 총무원장) **일 원** (대한불교법화여래종 총무원장) **동 선** (대한불교법왕종 총무원장)
혜 일 (대한불교미륵선종 총무원장) **정 산** (세계불교해동원효종 총무원장) **법 열** (세계불교대각총연합)
법 달 (대한불교용화종 총무원장) **법 우** (조계종정토불교 총무원장) **탄 공** (한국불교법륜종 총무원장)
회 범 (대한불교선종 총무원장) **도 선** (한국생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청 원** (대한불교불광종 총무원장)
성 우 (세계불교법왕종 총무원장) **청 호** (대한불교연화종 총무원장) **상 일** (불교임제종 총무원장)
혜 공 (대한불교대승연화종 총무원장)

감 사 **기 산** (한국불교조계선종 총무원장) **성 수** (한국종교예술방송)

■ 총무원 :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동 112-39 진영빌딩 4층 전화 02)3436-0796 팩스 02)2201-1163
서울시 종로구 무악동 산 2-13 인왕사 / 전화 02)3436-0797

韓國佛教 如來宗

宗 正 **釋仁旺**

사서실장 **석해륜**

원로원장 **석법수**(함양도선암주지)
원로위원 **범오**(횡성명불암주지) 원로위원 **관조**(제천백운정사주지)
원로위원 **능엄**(안양천관사주지) 원로위원 **연화**(안양약사사주지)

총무원장 **석명안**(총본산 대약사사주지)
사무총장 **석혜안**(성남약사사주지)
총무부장 **송화**(제천보현암주지) 재무부장 **보혜**(부산화엄사주지)
문화부장 **묘수**(원주문선암주지) 교육부장 **도혜**(원주여래사주지)
호법부장 **보성**(산청약사사주지) 포교부장 **반야**(원주약사암주지)
여래종종도회장 **혜륜**(청주황용사주지)
비구니회장 **해광**(제천불정사주지)

■ 총본산 : 충북 옥천군 동이면 우산리 산71 대약사사 / 전화 043)731-2261



함영의 **밥맛 나는 세상**

❾ 낙원동 방앗간 2

시어터진 김치찌개 맛의 비결

입맛이 도통 없다. 그래도 밥 때가 지났으니 무언가를 먹어줘야 될 것 같은 의무감에 부엌으로 가본다. 싱크대 한쪽엔 이틀 전에 삶아놓은 고구마가 굴러다니고, 냉장고에는 달걀 두 개가 남아있다. 계란찜을 해볼 요량으로 계란 두 개를 뚝배기에 깨 넣고 젓가락을 부지런히 돌리는데, 옆에서 굴러다니는 고구마가 눈에 걸린다. 저놈을 그대로 방치해두었다가는 쓰레기통 신세가 될게 뻔하다. 모잡지에 공양주할머니들의 이야기를 연재한 지가 해를 넘기다보니, 나도 이젠 한산대첩 빰치는 할매들의 음식재활용작전에 익숙해진 모양이다. 게다가 '요리는 창작'이라는 나름의 음식철학도 있으니, 묘안이 떠올라 고구마를 집어든다. 껍질을 벗겨 뚝뚝 잘게 썰어 계란에 미련 없이 넣는다. '그렇지, 요리도 무유정법(無有定法)이야. 법이 어디 있어' 하면서 내 머리가 아주 대견하듯 말한다. 소금과 잔새우로 간을 맞춘 뒤 불 위에 올리니, 그 맛의 궁합이 궁금할 지경이다.

잠시 후, 입맛이 돌아올 법도 해 기대를 하고 동실동실 보드랍게 부풀어 오른 계란찜을 한술 가득 떠서 입에 넣는데, 이게 웬걸. 내 맛도 네 맛도 아니다. 사람으로 치면 원진살에 상충살에 오만 살이 다 낀 맛이다. 왕초보 요리사에게 요리는 아무래도 창작이기 이전에 법도를 따르는 것이 중한 듯싶다.

입맛이 더욱 멀찍이 달아났으니, 볼일도 볼 겸 외식으로 한 끼 해결하려고 밖으로 나간다. 저녁때가 되니, 불현듯 꽁치통조림을 넣고 설렁설렁 끓여주던 큰언니의 김치찌개가 그리워져 낙원동 방앗간으로 향한다. 꽁치통조림이나 사가려고 슈퍼에 들르는데, 김치찌개에는 꽁치보다 참치가 더욱 제격인 것 같아 참치통조림을 하나 사고 본다.

"큰언니, 김치찌개나 끓여주라."

김치찌개를 맡겨놓기라도 한 냥 통조림까지 건네주니, 꾀 많은 큰언니도 어쩔 도리가 없다. "언니가 끓인 김치찌개는 대충 끓이는 것 같은데도 희한하게 맛있더라"라며 한껏 띄워주니, "김치찌개엔 꽁치가 좋은데, 왜 참치를 사왔어"라며 바로 소매를 걷어붙인다. 그런데 문제는 실온에 오래 두어 김치가 너무 곰삭은 것이 문제. "김치찌개는 이렇게 폭삭 익어야 맛나"라며 요리에 돌입한 큰언니, 김치찌개 비법은 오로지 김치만 맛나면 그만이란다. 박 언니는 "김치찌개는 이런데 끓여야 맛나는겨"라며 몇 년을 썼는지 기억도 가물가물한 찌그러진 양은냄비를 건넨다. 낡디 낡은 자태가 보기만도 정겹다. 그런데 어느 사이 나타난 단골 이 화백님, "꼭 우리 집에서 행주 삶을 때 쓰는 냄비 같네"라며 딴죽을 건다. 그래도 암투병 중인 부인을 위해 요리배우기에 열성인 화백님도 김치찌개 끓이는 법이 궁금한 모양이다.



노란 양은냄비에 잔소리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다.

"어떻게 끓이는 거여? 우리 마누라가 김치찌개를 좋아하는데."

"이건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자기가 알아서 손끝으로 맛을 내는 거지."

만나기만하면 실없이 옥신각신인 큰 언니와 이 화백님이 오늘도 어김없이 폭폭한 정을 쌓아간다.

"언니, 다시다는 쬐금만 넣어. 참치는 통조림 기름 좀 따라내고 넣어라. 고춧가루도 좀 넣어야 되는 거 아니유. 김치가 너무 시니까 설탕도 좀 넣어봐."

아무리 봐도 맛이 나려야 날 수 없을 것 같아 못미더운 참견이 절로 나오고, 큰언니 반격의 잔소리에 "그 찌개는 제목을 '보글보글 잔소리 찌개'라고 해야겠다"며 화백님의 잔소리까지 보태져 오만 잔소리가 양념으로 듬뿍 첨가된다.

드디어 찌개가 완성되고, 방앗간의 가족들이 양은냄비 앞에 모처럼 모여 앉았다. 잠시 후 이구동성 연발하는 소리들, "아구 시어~"라며 얼굴이 하나같이 노오란 양은냄비처럼 일그러진다.

"거봐, 설탕 좀 넣으라고 했잖아."

"일부러 식초도 먹는 판에 설탕을 넣긴 왜 넣어. 신 게 몸에 좋은 거야. 알지도 못하면서."

"야, 그런데 참치도 비렁내가 나는 것 같어. 그냥 끓이는 게 더 낳겠다."

'보글보글 잔소리표 김치찌개'의 곰삭은 내가 방앗간에 가득하고, 내 배는 어느새 밥이 두 공기째다. 밥이란 자고로 여럿이 먹어야 맛나는 모양이다.

자유기고가
blog.naver.com/owisdom

행복한 삶을 위한, 선과 禪 심신건강 心身健康 ⓰ 기축년 건강자세

박지숙 소장 한·양방 의료센터 salm 마인드힐링연구소

기축년엔 울화병 소화기 · 순환기 질병 주의

 # 기축(己丑)년을 맞이하며…

무자(戊子)년이 가고 기축(己丑)년이 왔다. 사실 간다 온다 하는 것은 우리가 지어낸 생각일 뿐 우주의 입장에서 본다면 무슨 가고 오는 것이 있을까 싶다. 우주의 모든 삼라만상은 에너지와 규칙적 주기를 지니고 있다 했다. 크게는 생과 멸, 성장, 사계절, 낮과 밤 등의 주기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데, 정확하게 말한다면 가고 오는 개념이 아닌 순환의 개념으로 봐야 한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순환이 이 세상에 존재하듯이 한해 한해도 순환과정의 하나 일 뿐이다. 단지 주기의 흐름과, 순환과 변화를 계기로 우리는 새 각오도 다져보고 거창한 계획도 다시 세워보며 재충전의 기회를 삼는 것이 아닐까싶다.

 # 인체건강 핵심은 규칙적 주기와 원활한 순환

새해를 맞이하며, 우주 에너지의 주기의 흐름과 순환에 대한 얘기를 하며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역(易)이다. 주기와 순환에 대해 과학적으로 풀이해 놓은 학문 자체를 우리는 부정할 수 없는데. 변환과 순환의 흐름을 읽어 우주 만물의 이치와 우리가 살아가야 할 도리에 대해 알려주는 근본이라 할 수 있다. 역(易)은 날일(日)과 달월(月)이 함께 조합된 글자이다. 해와 달은 항상 뜨고 지며 변화한다. 그러므로 역이란 바뀌고 변화한다는 뜻이다. 동양의학 의서도 근원은 주역의 원리에서 나온 것이므로 사람의 심신도 적절한 때에 맞추어 주기와 순환을 규칙적이고 편안하게 조절해주는 것이 소우주인 우리 인체 건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 기축년의 건강자세

그렇다면 올해 기축년은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한 심신건강을 위한 지름길일까? 일단 기축년을 한의학에서 말하는 오운육기(五運六氣)적 입장에서 본다면 토(土)의 에너지와 더불어 습기(濕氣)가 함께 형성돼 들어오는 한해이다. 그러므로 토기(土氣)와 습기(濕氣)가 강하다는 것은 곧 약간의 열이 있고 축축하고 습하다는 것이며 감정으로 따져본다면 욕심, 소유욕, 넉넉함, 포용 등을 들 수 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마르고 건조한 사람들은 컨디션이 좋아질 수 있지만, 몸이 습하고 뚱뚱한 사람들은 좀 더 건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생각과 사려가 많아지므로 울체(鬱滯)되는 울화병, 소화기병, 몸이 붓고 순환이 안되는 질병 등에 각별히 주의한다.

 # 인심은 천기(天氣) 천운(天運)에도 작용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과 인성을 어떻게 가져야 건강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치를 알아야 한다. 심신(心身)과 인심(人心), 천기(天氣) 다 둘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니고 있는 품성이, 마음가짐이 천지(天地)의 기운(氣運)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소유욕과 욕심이 더욱 발동하고 생각과 사려가 많아져 갈등할 일이 많이 생겨도 반대로 이럴 때일수록 더 많이 베풀어 사회적으로도 기부문화가 많이 늘어나도록 한다. 넉넉하고 푸근한 마음으로 새롭게 태어나 토(土)의 기운을 응용하여 어려워진 우리 사회의 변화와 개혁을 도모하여 기반을 다져야만 할 때다. 우리가 너무 열을 내어 흥분하고 화내고 하다보면 천지의 기운도 화탕지옥으로 변하는 것이요, 우리가 온유하고 평화롭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지내다 보면 세상의 기운도 화평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승찬감지(僧璨鑑智) 선사(禪師)의 <신심명(信心銘)>에서는 "미워하고 좋아하는 생각만 없으면 훤하게 밝아지리라. 비위에 거슬리고 비위에 맞는다 함은 서로 다투니 이는 마음의 병이 된다. 두 견해에 머물지 말고 분별심이 일어나지 않으면 만상에 허물이 없게 된다"고 하셨다. 이는 우리 인간의 고질병인 이분법적인 분별심으로 인한 갈등과 사고에 대한 경계인데, 기축년은 어느 때보다 이 구절의 이해와 실천이 필요한 한해가 될 것 같다.

(02)576 -7575 (계속)



능인향당 이완로 처사의 침향 이야기 ⓫



약성이나 향 중요… 약성 등급 세분화

침향을 <본초강목>에 의해 생성 원인별로 살펴봤지만 사실 침향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약성과 그 기운, 그리고 향에 있다. 이 부분은 같은 침향일지라도 침향나무의 생장환경이나 생성위치 숙성도 등에 따라서 천차만별의 차이가 나기에, 침향은 그 숙성도와 향의 품질, 약성에 따라 등급을 매기게 된다. 결국 만들어진 원인도 중요하지만 약성이나 향이 더욱 중요하다는 이야기이다.

베트남의 전설에, 애초에 하늘에서 세상을 구제할 약으로 침향을 세상에 보내주었는데 사람들이 그 용도를 모르고 있어 천녀와 천신의 하나인 호랑이를 내려 보냈다고 한다. 호랑이가 세상에 내려와 그 용도를 알려줘 그때부터 약으로 사용했다는 전설이다.

조금은 황당할 수 있지만 실제 베트남에서는 버마, 캄보디아, 베트남 등이 속한 인도차이나 반도를 캄푸치아 반도라고 부른다. 이것은 지금은 사라진 왕국인 앙코르와트인 캄푸치아국을 높여 부르는 말이다. 예전에는 베트남에서 생산된 침향은 모두 앙코르와트로 조공을 보냈다고 한다.

당시에 좋은 침향을 구하기 위한 방법으로 호랑이를 사냥해 상처를 낸 후 풀어주면 호랑이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침향을 찾아 핥아먹는 것을 뺏는 방법으로 침향을 구해 조공을 보냈다고 전해진다. 그렇게 상처난 호랑이를 통해 구해진 침향은 아마 제일 좋은 등급의 침향이었을 것이다.

이런 침향을 베트남에서는 16등급으로 나누는데 등급 기준은 침향의 향기와 약성으로 구분하고 각 등급의 침향은 그 용도별로 사용방법이 정해져있다. 등급별로 그 용도별 사용방법은 다음과 같다.

1~6등급은 약재나 불상의 복장물로 사용하게 되고, 7~10등급은 향의 재료로 사용된다. 11~16등급은 일반적으로 공예품 등급이라 해 불상을 조성하거나 조각품으로 가공 하는데 약재로 사용하는 1~6등급을 제외한 7~16등급은 공예품 등급으로 형편에 따라 불상을 조성하거나 호신부등으로 만들어 착용한다. 이중에 약재로 사용되는 침향의 1~6등급은 등급 간에서도 등급을 또 한번 세분해 3등급으로 나눈다. 이것의 척도는 수지의 무게비중과 숙성도, 약성과 향으로의 품질 등에 따라서 달라진다. (02)3663-6777 (계속)



'숙결' 등급이 생산되는 희귀한 자연산 침향을 밀림에서 발견했다.

바로잡습니다.

711호 향제조시 접착제에 관한 내용을 '후박나무나 느릅나무 뿌리의 껍질인 유근피, 타부노키와 검 파우더 등을 주 접착제로 쓰는 기존의 유수한 향 회사들과 차별된 기술이다'로 정정합니다.

우리 '화계사' 대중은 삼가 부처님 전에 두 손 모으고 기축년에는 이렇게 살 것을 서원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三角山 華溪寺

"나라 안팎이 어렵습니다.
차분히 반조하는 마음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모든 이웃과 함께 하겠습니다."

회 주 송원 설 정
주 지 수 경
국제선원 입승 보 화
신도회장 차호법행 외
사부대중일동

일요 가족법회	일요일 오전 11시
어린이 학생회 법회	일요일 오전 10시, 11시
청년회 법회	토요일 오후 4시
국제선원 영어참선	일요일 오후 1시 ~ 4시(내,외국인)
참선법회(수선회)	일요일 오후 1시 30분 ~ 3시 30분
합창단 음성공양	목요일 오후 1시 30분
철야정진(선우회)	토요일 오후 9시 ~ 새벽 3시
수요 시민선방	수요일 오후 7시 ~ 9시
삼천배 정진	매월 마지막주(토) 오후 9시 ~ 새벽 3시
일요 영어교실	일요일 오전 8시 30분

- 신도교육 -

기본교육과정		화요일 오후 1시 ~ 3시	3개월과정
교 양 과 정		토요일 오후 2시 ~ 4시	3개월과정
불교 대학	주간반	수요일 오후 1시 ~ 4시	2년과정
	주말반	토요일 오후 5시 ~ 7시	
불교 대학원		화요일 오후 1시 ~ 3시	1년과정

대한불교조계종 三角山 華溪寺 서울시 강북구 수유1동 487번지전화 02)997-6469, 992-1073 / 전송 02)990-1885 www.hwagyesa.org

謹賀新年
불기 2553 / 기축년

새해 복 많이 나누세요
함께가요, 부처님세상으로

삼각산 도선사

조 실 보광 혜정 회 주 진불장 혜성 부조실 경하 현성
주 지 선묵 혜자 청담장학문화재단 이사장 동광

청담문도회, 청담장학문화재단, 복지법인 혜명복지원
학교법인 청담학원, 강북청소년수련관 사부대중 일동

서울특별시 강북구 우이동 264번지
전화 : (02) 993-3161~3 팩스 : (02) 993-3164
홈페이지 www.dosunsa.or.kr

佛記2553年 己丑年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사단법인 한국불교미륵종

총무원장 (종정대행) **송 정**

감찰원장 보성　교육원장 경보　포교원장 마하　비구니회장 혜연

사회부장 영운　규정국장 혜권　호법국장 일해
총무부장 도연　문화국장 진관　교육부장 법정　사회국장 일송
문화부장 영민　조사국장 영인

경기종무원장 혜능　충청종무원장 혜초　부산종무원장 혜민　대구종무원장 혜운

■ 미륵종 총무원 :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산동 211-11번지 02)351-3679
법 인 사 무 실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신안리 900번지 총본산 관음정사 055)345-4741 팩스 055)345-4743 홈페이지 www.mireuk.org

사단법인 한국불교미륵종 중앙종회

중앙종회의장 혜 월 (구운사)

종 회 의 원
혜 연 (불곡사)　혜 묵 (보타사)
연 하 (금선사)　지 운 (용화사)
법 공 (연해사)　혜 민 (수월사)
혜 담 (원각사)　혜 정 (보광정사)

사단법인 **한국불교미륵종 친목회**

미 륵 법 우 회

회 장 혜 초 (목련사)
총 무 법 천 (불연사)
등반대장 영 인 (법웅사)

■ 연락처 : 불연사 043)233-5447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305-2번지

사단법인 **한국불교미륵종 친목회**

비 구 니 회

회 장 혜 연 (불곡사)
총 무 법 천 (불연사)
등반대장 주 연 (연화사)

■ 연락처 : 연화사 043)286-023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1동 86-28번지

사단법인 **한국불교미륵종 호법국장 주석사찰**

불 광 사　일 해

삼사백팔순례단

단 장 유광선
부단장 김정임
총 무 김금남
감 사 이도유

■ 연락처 : 대구시 동구 도동 44번지 053)986-1080

사단법인 **한국불교미륵종 교육원장 주석사찰**

칠 보 사

경보 스님

■ 부산시 서구 남부민 1동 93번지
연락처 : 051)248-6646

사단법인 **한국불교미륵종 부산종무원장 주석사찰**

수 월 사

혜 민

지장회 회장 이영숙
총무 손성옥

■ 부산시 연제구 연산8동 363-25
연락처 : 051)852-8048

사단법인 **한국불교미륵종 문화부장**

현대불교신문 서부경남지사장

금오암 영 민

■ 밀양시 부북면 월산리 151번지
연락처 : 055)355-7472



佛記2553年 己丑年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경국사



사부대중일동

서울 성북구 정릉 3동 75-3
TEL 02)914-5447, 2828
FAX 02)914-4326

대한불교조계종 제3교구 신흥사 말사
관음성지 휴휴암

신묘장구대다라니
천일철야기도 정진도량

주 지 不二 弘法

대중일동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광진리 1번지
TEL 033)671-0093~5,0526
FAX 033)671-0525

대한불교조계종
승 가 사

주 지 정호

신도회
사부대중일동

서울 종로구 구기동 산1번지
TEL 02)379-2996

한국불교태고종
무 량 사

주 지 무공무상

태고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사단법인 대륜불교문화
(태고)연구원 이사장

서울시 강북구 수유 4동 584-12호
TEL 02)904-0016,0081

중부제일 독성기도영험도량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삼 성 암

회주 수봉 세민
주 지 만월현종

사부대중일동

진실한 기도가
알고싶거나 해보고 싶은분
[매주 토요일 대다라니 가행정진]

서울시 강북구 수유1동 488
TEL 02)988-9300,1996
www.samsungam.org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
옥천범음대학

학 인 일 동

120-150 서울 서대문구 봉원동 1번지 봉원사
TEL 02)392-3234 / FAX 02)392-3239
http://www.okchunbud.kr

대한불교조계종
천 자 암

조 실 활 안
주 지 대 겸

문보덕화

사부대중일동

전남 순천시 송광면 이읍상리 산1번지
TEL 061)754-3708
H·P 011-657-3785
FAX 061)754-4347

公益法人 大韓佛教 華嚴宗
大本山 藥師寺
(약사 추모관 운영中)

회 주 화 담
주 지 화 응
부주지 대 휴

신 도 일 동

財團法人 華嚴僧伽漿學財團
公益法人 大韓佛教華嚴宗漿學會

이사장 한상호(화응)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3동 산 21
☎ 032) 422-2066

서울사무소 소장 양 위 찬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11-6번지 삼선빌딩 412호
TEL 02)730-0798~9 / FAX 722-3205

세계일화를 꽃피우는 수행전법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회 장 명성

사부대중일동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744번지
종무실 02)3411-8103 / FAX 3411-8108
홈페이지 www.kbiguni.org

대한불교조계종
봉녕사 승가대학 금강율원

학 장 묘 엄
율 주 묘 엄
율원장 적 연

대 중 일 동

거사림회 · 관음회 · 승만회 · 청년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248번지
TEL 031)256-4127 / FAX 031)254-3371

대한불교조계종
내 원 정 사

주 지 현 문

사부대중일동

■ 서울 동작구 상도1동 788번지
TEL 02)814-5502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진관사

회 주 진 관
주 지 계 호

사부대중일동

부설코끼리유치원 · 진관무위원

■ 서울 은평구 진관동 354번지
TEL 02)359-8410

대한불교조계종
백 화 사

주 지 일 법

사부대중일동

■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318-2
TEL 02)381-9103~4 / FAX 02)381-9105

대한불교조계종
관 음 사

주 지 박종하

신 도 일 동

■ 서울시 관악구 남현동 519-3
TEL 02)582-8609 / FAX 02)597-3510

대한불교조계종
수 안 사

회 주 세 민

사부대중일동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38-12
TEL 02)587-4677 / FAX 02)522-5666

대한불교조계종
봉 국 사

주 지 김월서
신도회장 구광명화

대중일동

■ 서울시 성북구 정릉2동 637번지
TEL 02)919-0211~2 / FAX 02)919-0216

대한불교조계종
등명낙가사

주 지 이청우
가섭회장 최종명
금강회회장 이상숙

신 도 일 동

■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 1리
TEL 033)644-5337

대한불교조계종
청 계 사

회 주 대궁 종상
주 지 성 행
신도회장 김무량화

사부대중일동

부설 : 정신지체장애인 복지시설 녹향원

■ 경기도 의왕시 청계동 11번지
TEL 031)426-2348, 2221
FAX 031)426-3666

대한불교조계종
아차산 영 화 사

부설 영화유치원

회주 송월주 스님 外
사부대중 일동

■ 서울 광진구 구의동 9번지
TEL 02)444-4321, 7215

대한불교본원종 총무원장 주석사찰
삼각산 연화정사

주 지 대 화

사부대중일동

■ 서울 종로구 평창동 417-6
TEL 02)379-1965

북한산 노 적 사

주 지 종 후

사부대중일동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331번지
TEL 02)353-5016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 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자기 중심에 아주 그냥 심봉을 꽂아라!

(지난 호에 이어서)

여러분이 살아나가면서 밖에서 다가오고 안에서 일어나고 하는 모든 것을 내가 어떻게 이루 말로 다 합니까? 그러니까 남이 해 주는 게 없어요. 남이 대신 살아 주면서 대치를 합니까,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누가 아무리 친절하다고 그러더라도 똥 누는 거 대신 눠 줄 수도 없고, 먹는 것도 그렇고, 또 죽는 것도 그렇고, 아픈 것도 그렇고, 자는 것도 그렇고 대신 해 줄 놈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애틋하고, 자기가 행하고, 자기가 괴로운 거를 그냥 '거기서 또 나오는구나! 하하, 나 공부시키느라고 참 잘 나온다. 이렇게 괴롭게 하지 마라. 내일은 생각지도 않아. 그저 오늘 모든 걸…. 너를 믿으니까. 다 네 몸이니까. 그리고 네가 끌고 다니니까. 네가 형성시켰으니까.' 하고 그 모든 걸 거기다가 입력해서 믿고 놓는 거죠.

그런데 대치를 해서 바꿔 놔야만이 바뀌져서 나오지, '너 할 대로 해라' 하고 그냥 놓으면 아무것도 입력되는 게 없어요. '너 할 대로 해라' 그것만 입력이 되는 거죠. 음식을 하더라도 양념이 제대로 들어가고 간이 맞아야 되죠. 간이 맞지 않으면 덤덤하고 맛이 없죠, 똑같은 거라도. 그래서 사람들이 태어나도 간이 맞게 태어나야 된다 이런 거죠. 인생이 간이 맞게 태어나면 간이 맞게 살거든요. 넘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말입니다.

난 그래서요, 옷 한 가지가 더 들어오면 거북해요. 거북한 것도 사실 알고 보면 그것도 착이죠. 그러나 번뇌가 바로 부처님 법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가는 데 번뇌 아닌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생각하는 거, 잘한다 못한다 하는 것도 전부가 번뇌입니다. 번뇌라고 이름을 했기 때문에 번뇌지, 그것이 도를 이루어 나가는 도법에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대로 그 도리를 알아서만 한다면 여여하게, 그냥 참 가지런히 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중세계에서 한번 이런 공부를 해서 공부에 종지부를 찍는다면 그냥 세세생생입니다. 그래서 '한 생 좀 어려우면 어떻고 한 생 좀 고달프면 어떠냐?' 하는 거죠. 어저께도 합창단 후원회에서 참 많이 도와주시고,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신 거에 대해서 '참, 고맙구나.' 하면서 생각한 겁니다. '아하, 좀 고달프면 어떠냐. 더불어 같이 고달팠지 여러분만 고달프라고 한 거는 아니잖느냐.'

자나 깨나 나도 여러분 못지않게 하고 있어요. 편안하게 사는 사람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리리만큼 말입니다. 그건 눈물이 아니라 뼛속에서는 피가 흐를 겁니다, 아마. 그러면서 그것을 즐겁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부처가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사람답게 사는 것이 근본이 아니겠느냐는 얘기죠. 그럼으로써 우리가 사람을 또 리드해 나갈 수 있는 상세계의 자유인이 된다면, 마음으로써 마음껏 건질 수 있고, 마음껏 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세상은 좁은데 우주 세상은 넓다고 생각지도 마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나 하세계에서 사는 것들이나 또 상세계에, 즉 말하자면 우주에서 사는 세상이나 똑같아요. 크고 작을 뿐이죠. 우리가 인구가 많아지면 줄이고, 또 늘어나면 또 줄이고 또 솎아 내고, 이렇게 하듯이 별성도 역시 그렇거든요.

지금 지구가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가듯이 우리도 지금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가는 건데, 우리가 초월해서 돌아가는 걸 모르고 살고 있는 거죠. 부처님이 "색(色)이 공(空)이고 공이 색이니 그대로 여여하구나." 하신 것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내가 항상 듣는 거, 보는 거, 말하는 거, 만나는 거, 가고 오는 거, 자는 거 할 거 없이 뭐 전체가 다 고정되어 있지 않다. 그냥 찰나찰나 바뀌어서 자꾸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 생각들 해 보세요, 안 그런가! 멍청하게 이것만 (컵을 들어 보이시며) 보고 있으면 '저 사람, 갓 돌았는데….' 이럴 겁니다, 아마. 한 가지만 듣고 있는 사람 어디 보셨어요? 이 사람 만나면 이 소리 듣고, 저 사람 만나면 저 소리 듣고, 이거 보면 이렇게 생각되고, 저거 보면 저렇게 생각되고…. 아니, 고정되게 한 생각만 하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미쳤든 성했든 말입니다. 그러니 시공을 초월해서 그대로 여여하게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왜 거기에 연연하고 그렇게 애쓰고 사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죠. "하늘이 무너져서 다 깨진다 하더라도 너만 깨지는 게 아니니 걱정하지 마라." 하하하…. 이 모습은 세상에 한 번 죽지 두 번도 죽지 않는다. 그런데 죽는다고 해도 그게 아주 죽는 게 아니라 씨앗은 남아요. 그 씨앗이 또 심어지면 그게 또 모두를 먹이고 또 되남아요. 그런데 이 공부를 하면 그 씨앗이, 종자가 달라진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씨이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형체가 있는 씨앗이 아니라 형체 없는 씨앗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화해서 달라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비행기 모습으로 물체가 보였지만 그건 물체 아닌 물체죠.

부처님께서도 그런 말씀 하신 게 생각납니다. '십 리 안팎으로 모든 거를 지켜 주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전에 산에서 공부할 때의 얘기죠. 먹을 걸 생각할 수도 없었죠. 그런데 그믐밤에 수풀을 깔고 앉아 있는데 "얘야, 십 리 안팎으로는 다 주둔을 하고 있고, 위에서는 다 비춰서 지켜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빵도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이러는 겁니다. 이런 것이 뭐, 한두 번이 아닙니다. 빵! 사실은 떡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지금 빵이라고 그럽니다마는, 하하하…. 그런데 미련해서 말입니다, 이 떡이 어디서 떨어지나 하고 밤새도록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대중 웃음) 아, 이거 웃을…, 아이! 지금 웃죠? 나도 그 후에 너무나 기가 막혀서 껄껄대고 하늘을 쳐다보고 웃었다니까요. 떡이 떨어질 줄 알고, 어디서 나올 줄 알고 그렇게 기다렸는데 허탕이에요. 그랬는데 말입니다, 한 가지 얘기할 게, 배가 고프질 않아요. 허기가 지는 법도 없고, 배가 고픈 일도 없고 말입니다. 참, 이건 말로 형용할 수 없습니다.

물을 마시는데도, 내가 학자가 아니고 글을 잘 모르니까 뭘로 가르쳤느냐 하면 물 한 모금 먹는 걸로도 가르쳤어요. 몸이 다 지친 상태니까 엉금엉금 기어가서 그걸 먹는데 말입니다, 한 모금 먹고 두 모금 먹고 세 모금 먹으니까, "네가 그렇게 여러 모금 먹어도 소용없다. 한 모금을 먹어도 아홉 모금이고, 아홉 모금을 먹어도 한 모금이니라."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고정됨이 없어서 아홉 모금이 따로 없고, 한 모금이 따로 없고, 하루가 따로 없고, 삼천 년이 따로 없다. 이 세상은 모두가 수레바퀴 돌아가듯 돌아가느니라. 그러니까 네 마음에 따라서 한 모금에도 목을 축일 수가 있고, 아홉 모금 먹어도 몸이 부증이 나고 다루어진다 이거죠. 그 뜻을 알면 한 모금을 먹어도 아홉 모금 먹은 몫이 된다 이런 뜻이고, 둘째는 삼천 년 전도 지금 현실이고, 하나도 셋이 되고 셋도 하나가 되고, 그래서 그거를 알게 되니까 삼천대천세계를 둘 아니게 알게 되더란 얘기죠.

여러분이 질문한다고 뭘 자꾸 적어 가지고 나오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난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가 그냥 평소대로 살아가다가 지금 이 자리에서 문득 생각나서 '아, 요런 건 좀 모르겠는데, 이게 뭘까?' 할 때, 질문을 허심탄회하게 그냥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게 무슨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살아가면서 자기 형제들한테 "형! 이거 이런데 이게 뭐야?"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내가 높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얕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높은 것도 아니고 내가 얕은 것도 아니에요. 평등한 가운데에서, 단지 내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먼저 다녀왔고 여러분은 안 갔다 왔기 때문에, 내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가면 갔다 올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할 뿐이에요. 자유스럽게 과거를 드나들고, 과거로 갈 수도 있고, 미래로 갈 수도 있고, 현실로 올 수도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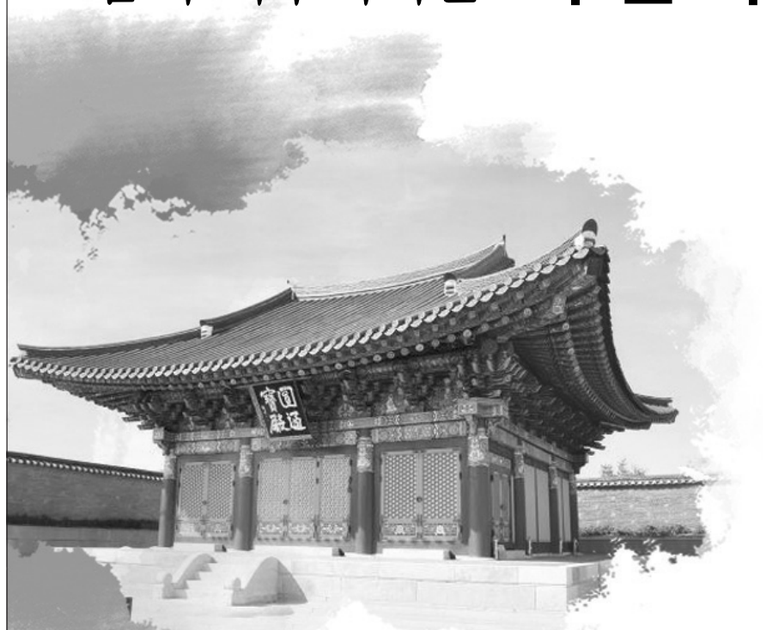
또 이 도리를 알면, 바른 대로 얘기하는 거지만,

☞26면으로 계속



그림 · 최주현

꿈이 이루어지는 **낙 산 사** (홍련암)



무자년 한해에 낙산사 복원불사에 관심과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과
제방의 원로대덕 큰스님과 사부대중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낙산사
· 낙산포교당
· 불교대학
· 관음회
· 보현회
· 의상회
· 바라밀회
· 합창단

■ 낙산사 복지재단
· 낙산 상락원
· 낙산 노인복지센타
· 낙산 노인전문 요양원
· 무료급식소
· 무산 지역아동센타
· 낙산 유치원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전진리 55번지 ☎ 033)672-2447~8 www.naksansa.or.kr

뿌리깊은 종단 보람여는 교구

제25교구 본사 **奉 先 寺**

조 실 **월운 해룡** 회 주 **밀운 부림**
주 지 **인묵** 부주지 **해송**

총무국장 **보인** 기획국장 **장산** 교무국장 **지환** 재무국장 **보관** 사회국장 **법원**
포교국장 **지견** 호법국장 **환적** 종책실장 **혜림** 문화원장 **왕산** 문화국장 **지학**



■ 부설기관
· 연꽃유치원
· 장자어린이집
· 남양주시 노인복지관
· 남양주시 청소년 일시쉼터
· 남양주시 지역아동보호센터
· 구리시 인창경로식당

http://www.bongsunsa.net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255번지 전화 031)527-1956 팩스 031)527-1958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니 그대로 여여하구나!

☞25면에서 계속

이 몸 하나가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하나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 몸 하나가 수천 수만으로 늘어나서, 즉 입자로 화해 가지고 딴 모습으로 자꾸 행동을 하게 되죠. 지장도 되고 뭐, 관세음도 되고 여러 가지로 다 나투니까 부처님이 말씀해 놓으신 그대로죠. 그래서 '만불(萬佛)이다 하더라도 일불(一佛)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진리가 두 개, 세 개가 되는 게 아니니까요. 어디서든 똑같이 그 공부를 했다면 똑같아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무엇을 따지고 그러는데, 이게 따지게 되면 벌써 그르게 돌아가는 거죠. '돈오(頓悟)다. 돈오가 옳다. 금방 그냥 깨치는 거다.'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애를 낳아 놓으면 금방 어른이 돼서 사회에 나갑니까? 그건 언어도단이죠. 그래서 점수(漸修)를 넣은 겁니다. 그런데 이 점수와 돈오가 어떻게 둘이냐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이 지금 그 정신계, 영원한 자기의 정신이 없다면 자긴 송장이 될 텐데 어떻게 그게 둘입니까? 그와 같은 거죠. 병원에 가서 마취하면 정신이 없어서, 다리를 잘라 내든, 구워 먹든 삶아 먹든 아무것도 모르시죠? 그런데 어떻게 자기 몸뚱이만 자기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몸뚱이 속에 생명들이 무수하게 들어 있는데 그거는 자기 과거를 알고 인정하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속에 천차만별로 모습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미생물에서부터 인간이 되어 온 그 자체의 모습들이 다 있어요. 누구나가 똑같이 말입니다. 그래서 '미생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들을 귀하게 생각해라. 너의 생명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지금 미생물의 모습도 네가 예전에 그렇게 해 왔던 것이니라. 그렇게 거쳐 왔느니라. 그러니 업신여기지 말고 전자의 모자랐을 때 나로 보라. 내 생명같이 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분향만 잘 알면 오계를 받은 뜻이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오분향을 알면 오계는 다 그냥 저절로 되는 거니까. 나는 오계를 여러분한테 전할 때 좀 달리 했죠. 원래는 술 먹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간통하지 마라, 살생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난 하나같이 그랬거든요. 네 생명같이 생각해라, 또 거짓말을 하더라도 남을 이익하게 하는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다, 이렇게요. 술을 먹어도 식구들 괴롭게 하지 말고 내가 괴롭지 않게, 망주로 하지 말고 약주로 해라 하고요.

그리고 남을 안팎으로 어렵게 만들고, 죽을 때까지 이미지를 흐리게 해 놓고 가면 자식들까지도 언짢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부부로 맺어졌으면 잘났든 못났든 서로 사랑하라, 서로 화목해라. 서로 그저 요 모습으로 요 한 생 살 거를 그 뭐, 천년만년 살 거라고 그러느냐? 그 한 생, 예쁜 거 미운 거 좀 놓고, 그저 어차피 만났으니 인연이다 하고 그냥 살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귀찮아요? 생각해 보세요. 다 이렇게 털고 살 거를 오히려 하나를 더 붙여 가지고는 고생을 죽도록 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끝까지 그냥, 자식까지도 그렇게 만들어요, 이게. 그게 물이 들거든요. 그러니 자기가 죽을 때까지 그 이미지를 그렇게 남겨 놓고 간다면 요다음엔 뭐가 또 좋겠습니까? 또 자기가 그 지경을 당해야 할 테니 그것 참 문제가 크죠. 그게 일심이 천심이라고 안 그랬습니까? 내가 예전에 그 얘기 했죠.

마부가 당나귀에게 얼마나 심하게 굴었던지 맞은 당나귀는 남편이 되고 때린 마부는 아내가 됐어요. 그래 가지고 그냥 술 한 잔 먹었다 하면 마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부처가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사람답게 사는 것이
근본이 아니겠는가!

부가 당나귀 때리듯, "야!" 하곤 들어와서 아무거나 집어서 팽개치고, 치고 박고 이러니 멍들은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죠. 아! 그렇게 자기 한 대로 받는데, 이거는 지금 같으면 뭐 이혼했죠. 그러나 예전에는 이혼도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스님이 지나가시는 걸 보고 "이렇게 살아서 뭐 합니까? 이렇게 하면서도 살아야 합니까?" 하고 그냥 대성통곡을 하고 우니까 "그건 인과응보니라. 네가 전자에 마부로서 얼마나 그 사람을 때렸느냐? 네 남편이 바로 그 당나귀였고, 그 당나귀를 때린 네가 바로 그 아내가 됐느니라. 그렇게 해서 받는 것을 내 어찌 하겠느냐마는 이제 마음을 고쳤으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돗자리를 쫙 말아서 꼭 매 가지고선, 술에 취해 들어왔을 때 손쉽게 집어 가지고 때릴 수 있게끔 해 놔라. 그런다면 돗자리 엮은 줄기마다 몽둥이가 되니까 그 마부가 당나귀를 때린 그 수효를 곧 채울 수 있게 되느니라." 그래서 정말 돗자리를 그렇게 만들어서 놔두었더니 한 이틀인가 사흘, 아, 그걸 그냥 집어서 치고 치고 그러더니만 어느 날은 술을 먹고 들어오더니 떡 하는 소리가, "내가 오늘 왜 이렇게 술을 먹었지?" 하면서 "그런데 자네를 내가 왜 그렇게 때렸지? 이상하게, 그 약한 몸을 내가 왜 그렇게 때렸지?" 하면서 그렇게 울더랍니다, 인생을 한탄하고. 그러더니만 그날부터 싹 없어졌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억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그래요. "야! 당신 남편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야! 속의 업식들이 자꾸 충동질을 해서 그렇게 되는 거지, 당신 남편은 참 착해." 허허허…, 그러죠. 그러니까 그 업식을 제거하기 위해서 자꾸 관(觀)하고, 남편도 관하게끔 자꾸 좀 관해라. 관하는 데 돈이 드니 못하느냐, 재산이 없어져서 못하느냐? 자기 나무가 자기 뿌리를 믿지 누굴 믿느냐 이거야, 지금. 이 세상에 어디를 믿을 데가 있어? 그런데도 왜 안 믿느냐? 그러니까 관하라고 해라. 그러면 그게 다 없어지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새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돌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죠.

할 말은 많은데요, 만날 이렇게 여러분한테 말씀 들려 드리다 보면 반갑고 즐겁고 이런 것이 딱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춥거나 덥거나 그걸 가리지 않고, 아무렇게나 생긴 조막댕이만한 이 모습을 싫다고 안 하고, 얕보지도 않고, 그다지 높이 보지도 않고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그 여러분의 마음이 좋을 뿐이에요. 내가 누구한테든지 떳떳이 말할 수 있는 것은, 나는요, 내 모습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뛰어넘어 보세요. 그러면 내 뜻을 다 아실 겁니다. 왜 내가 이렇게 안달복달을 하고 그러는지를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그럽디다. 그 사람 지금은 외국에 가서 잘 살고 있지만요. "스님, 스님!" "왜 그래?" "글쎄 꿈에요, 천야만야한 데를 그냥 발을 떼어 놓으래요. 그냥 뛰래요." 그런데 그 아래를 내려다보니까 길은 두 갈래로 있는데 해골이 그냥 뭐 막 널려 있더랍니다. 그런데 그 천야만야한 데를 그냥 뛰어 내리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네가 죽는다고 생각을 하걸랑은 뛰지 말고 네가 산다고 생각을 하걸랑은 뛰어라." 했더니, "뛰어라! 뛰어라!" 하더랍니다, 내가요. 그래서 에이, 눈을 꽉 감고 그냥 다리를 턱 떼어 놓으니까, 발이 끈적끈적한 무엇에 묻은 것처럼 착 붙더랍니다. 그래서 그냥 착 붙어서 내려가니까 그냥 내려가지더라는 거예요. 내려가서 보니까 두 갈래로 길이 있는데 한 길은 아주 험한데 지름길이라고 하고, 한 길은 아주 가기 좋더랍니다.

그래서 지름길이라니까 험한 데로 들어섰대요. 무엇이 그렇게 급한지 아이구, 그냥 시간이 급하니까 그냥 간다고 가다가 해골바가지가 쪽들 늘어서 있는 곳에 당도를 했는데, '죽든지 살든지에이, 그까짓 놈의 거, 이 세상에서 살면 뭘 하고 죽으면 뭘 하느냐.' 하고 그냥 하염없이 가다 보니까, 이상하게 왕이 사는 큰 대궐 같은 데가 턱 나오는데, 보니까 "아무개 왔느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머리카락 한 가닥을 요렇게 들고는 "이게 네 머리카락이니라." 그러면서 "요 머리카락 하나에 네 인생 전체가 달려 있느니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머리카락을 쥐고선 "아무개지?" 하고선 이름을 부르는데 자기 이름이더라는 거죠. 그런데 "죽거나 살거나 그저 길을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왔습니다." 하고 말하는데 아, 그냥 별안간에 내가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 아래가 큰 바다로 그냥 화했는데, 그 바다 가운데서 왕관을 쓰고, 법륜 마크가 그냥 번쩍번쩍 번쩍 금으로 됐는데 거기서 나와서는 "너무 상심말고 떳떳하고 여여하게 살라. 너는 부처님께서 인정을 했느니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 그런 꿈을 꾸었다고 그러기에 그랬죠. "그런 꿈 꿨다고

우리가 지금 중세계에서
바로 이런 공부를 해서
공부에 종지부를
찍는다면
그냥 세세생생입니다!

자만하지 마라. 하하하…. 올라가다 떨어져." 그랬더니 그저 항상 든든하게만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는 데에 어떤 것도 그다지 지장이 없고, 자기에게 어떤 게 닥쳐도 공부로 생각을 하니까 그냥 금방 돌아가고 돌아가고, 한 찰나에 돌아가고 돌아가고 그러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참 잘 살고, 4개국 말을 하면서, 또 외국으로 간다고 합디다마는 하여튼, 요점은 자기를 자기가 우습게보지 말라는 얘기죠. 자기가 자기를 우습게 보지도 말고, 또 높이지도 말고, 아주 그냥 중심에 심봉을 꽂고, 아까 오분향 얘기했듯이 그렇게 다지고 나간다면 그건 뭐 100% 성공이다라는 얘기죠.

아, 재미있는 얘기도 못해 드리고, 만날 만나면 이런 얘기만 해서 죄송합니다만 어쩔 수 있나요? 요다음에 또 다시 만날 텐데…. (대중 스님들을 보시며) 그리고 참, 뭔 얘기를 하라고 그랬지? (대중 스님들 중 '연예인 불자 법당'이라고 대답함) 응! 불교방송국에, 참, 그 여러분한테 거둬서 하기가 너무나…. 여러분 괴로움이 내 괴로움이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조금조금 용돈 쓰라고 주기도 하고 이러는 걸 모아서 갖다가 줬어요. 저는 요만한 거 하나도, 가슴 아프게 벌어서 가져오는 거 조금도 허탈히 쓰는 법 없습니다.

그랬는데 또 부산에서도 도왔답니다. 그런데 또 지난번에도 도와 달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지원 스님네들이 알아서 단돈 10만 원씩이라도 모아서 하기로 했죠. 또 지금 동국대학교에서는 병원도 그렇고 탑지도 그렇고 운영을 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그거는 내가 법회를 해서 도와드릴 처지도 못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그냥 우리 스님네들이 주머니를 다 털어서라도 모아서 하기로 하고, 난 얘기를 다 해야 재밌을 것 같아서요.

그랬는데 또 정신대 노인분들의 집을 짓는데 도와 달라고 자꾸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탤런트 되시는 분들이 연예인 불자 법당을 짓는다고 하면서 한마음선원이 어딘데, 한마음선원이 이런 거를 안 하면 어떡하느냐고 이 한마음선원이 아주 큰 부자나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서는 또 "이 집을 못 짓는 거 보니까, 아주 쫄딱 망해 가는구나." 하하하…, (대중 웃음) 이러기도 하거든요. 어쨌거나 우리는 누가 어떤 생각을 하든지 어떤 마음이든지 무슨 말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고 꿋꿋이 가지만, 그저 우리가 할 거는 해야 되겠다 이래서 그러는 거죠.

안양회관에서 1월 셋째 주에 법회 할 때…, (사무장님이 '소년소녀 가장돕기'라고 말을 함) 아니요, 그건 못하죠. 지금 앞에 닥친 게 이렇게 많은데 어떡합니까? (대중 웃음) 저 연예인 불자법당 짓는 데 하고요, 또 정신대 분들 집 짓는 거 하고요, 두 가지를 가지고 해야 돼요. 아, 그럼 어떡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기만 하다면 그냥 턱턱 내주고 말아 버리겠지만 그래도, 힘 닿는 대로는 해야죠. 어떡합니까?

그러니 이리 끼우고 저리 끼우고, 이리 끼우고 저리 끼우고 참, 그거 심부름꾼 노릇 하기도 참 힘드는데요, 힘든다고 생각 안 해요. 그것도 그렇고, 어저께도 보니까 여러분이 추울 때도 더울 때도 그냥 저 바깥에 서서 듣고 그러는 걸 보니까요, "참, 저 양반들이 부처지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랬죠. "저렇게, 저런 부처님들이 세상에 어디 계시냐?" 이러고요. 그러면 너무나 흐뭇해서요, 괴롭고 뭐, 분잡하고 그런 것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합장하시며) 나 하고 싶은 말 다 했는데요. 하하하….

※위 법문은 1995년 12월 3일 국내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佛紀 2553年 己丑年 謹賀新年

(공) 대한불교 범종단연합회

귀의 삼보하옵고,
생활불교계 각 종단 고승 대덕 큰스님, 그리고 2천 5백만 불자 사부대중께 아뢰옵니다.
존경받는 수행자로 거듭나기 위하여 각 종단 종정, 종정대행 단체가 화합하여
'공익법인 대한불교 범종단연합회'가 창립되었음을 제방에 선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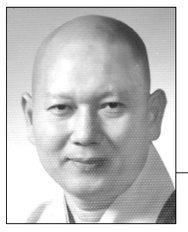
생활불교계의 뜻을 같이 하고자 하시는 종단 대표자, 대덕 큰스님 동참을 바라옵니다.

◆공익법인 : 등록번호 36121-00226 / 비영리단체 : 417-82-63460
행정연락처 : 010-3807-8428

공익법인 대한불교 범종단연합회 대표자 합장

(사)대한불교법화종
북한산 무량사
전통사찰 경기등록 제 1호
전통사찰 북한산 무량사 주지 무 량
신도회장 김영애 부회장 송경자 · 서상임
총 무 이영숙 재 무 송순남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464-1호 TEL 02)385-7777,351-3789





불자 세상보기

현각 스님
동국대 선학과 교수

흐르는 물은 웅덩이 피하지 않아

아쉬운 한 해를 보내고 새해 새날이 밝았다. 희망찬 한 해의 시작이다. 국민 모두가 힘들어 하며 장탄식을 하던 지난해였다. 결과에는 필연의 과정들이 있기 마련이다. 누구의 탓이라기보다 모두가 감내할 공업(共業)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학교에 가면 급훈이 걸려있다. 대부분 정직, 성실, 노력을 적고 있다. 그 가르침 속에서 배우고 익혀 세상살이를 하는 우리들은 진정으로 그러한가. 나는 정직한지, 성실한지, 노력하고 있는지 스스로 반문해 볼 문제다.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짓의 탈을 쓰고 살며, 서로 불신의 장벽만 높여 왔다. 차용증서를 주고받지만 상대를 불신해 약속을 어기기 일쑤 아니였는가?

인류의 성장을 이끈 지혜의 결정체는 도덕율이다. 성실도 별반 다를 바 없다. 걷기 전 기거나 걸음마 시기가 있었듯이 날기 위해서는 열심히 걷고 뛰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기고 걷는 과정이 지루하고 따분하다고 생각한 나머지 날려고만 하지 않았던가?

그러다보니 우리는 붕괴를 경험하게 됐다. 붕괴는 누가 가져다 준 재앙이 아니라 스스로 불러들인 괴물이다. 노력 또한 그렇다. 요즘 사람들은 땀 흘리려 하지 않는다. 삶의 현장에서 땀방울을 씻으며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는 이들의 모습은 성스럽기까지 하다. 우리는 노력보다는 불로소득에 익숙해져가고 있지 않은가.

오늘날 자주 접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오염이다. 오염은 인류가 살고 있는 지구환경은 물론 인류의 생존 자체마저도 위협하고 있다. 인간을 행복의 요람에서 살게 하는 지혜도 잘못 쓰면 오염이라는 재앙을 불러와 우리 자신을 상처내고 마침내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아무리 뜨거운 열정이 있다고 해도 생각이 바르지 않고 그것을 고양시키려는 노력이 따르지 않는다면 지구에는 재앙이 따를 수 밖에 없다. 오염과 환경파괴는 외계인이 안겨준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만들고 저지른 행위의 소산이다. 이는 이기심이 발동돼 야기된 문제이다. 그러기에 부처님은 마음 닦기를 중요히 여겼다.

마치 마음은 원숭이와 같다. 한 가지에 차분히 있지 못하고 이 가지 저 가지로 한 시도 쉼없이 오르락내리락 하기 때문이다.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분간하기는 아주 쉽다. 그러나 이 기심이 발동하는 순간 변별력은 그 척도를 잃고 만다. 욕심은 시력을 떨어뜨리고 청력을 잃게 한다. 탐욕은 방향감각을 잃게 만든다. 탐욕은 인간이 감내하기 어려운 괴물이다.

"모든 일은 마음이 만들어낸다(一切唯心造)"는 부처님 가르침은 인간의 운명이 정해진 법칙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에 따라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누구나 생각을 도구로 인생이란 캔버스에 그리는 자신 만의 그림대로 살기 마련이다. 매일매일 생활하면서 꽃을 생각하고 행복과 아름다움을 생각하는 사람의 삶은 그렇게 수놓이지만 불안, 초조, 악몽에 시달린다면 그만그만한 일로 주저앉게 된다. 운명을 바꾸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 마음이다.

올 해는 지난 해 겪던 마음의 짐을 벗어 버리자. 고통스럽다는 것도 영혼을 닦기 위한 수행과정이라 생각하면 훨씬 마음이 홀가분해 진다. 지금 겪는 고통의 순간이 우리 삶을 성숙시키는 과정이라고 보면 숨이 고르게 되고 마음의 안정을 취하게 된다.

정진바라밀은 수행자는 물론 우리 모두가 터득하고 실천해야 할 덕목이다. 정진 없는 수행자에게는 공허만이 메아리칠 것이고 정진 없는 삶은 허탈만이 엄습하게 된다. 정진은 승속을 아우르는 묘약이다. 좌절을 이기는 묘약이며 안정된 내일을 기약하는 안내자인 것이다. 정진 없이 이룩된 일이 그 무엇이 있던가. 건반 위를 휘감는 피아니스트의 손놀림, 뮤지컬 배우의 무대에서의 발놀림, 성악가의 신 내린 음성도 정진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는가.

인생은 스키프(skip)를 허용하지 않는다. 점핑은 부실을 초래한다. 사고의 점핑은 오해와 불신을 낳기도 한다. 흐르는 물은 웅덩이를 만나면 피해가지 않는다. 지루하고 힘들어도 웅덩이에 물을 채운 후 앞을 향해 달린다. 이러한 자연의 이치에서 삶의 예지를 터득해야 한다.

본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갖기 보다 베풀기에 더 풍요로운 사람이 되라"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96 일주일을 선물합니다.

직장 다니기 싫다는 어떤 청년이 "하루하루를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빨리빨리 늙어 죽었으면 해요"하며 답답한 현실을 절망적으로 말하였다. 긴 얘기를 할 시간이 없어 그의 마음에 희망의 빛이 비추기를 마음 내주었을 뿐이다. 불법의 인연이라도 닿아야할 텐데 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집에 오니 또 다른 청년이 반가운 메일을 보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도 특히 저와 같은 직장인들은 힘내기가 쉽지 않아요. 요즘 마음 편히 지내는 직장인들이 얼마나 될까요" 하며 그 30대의 법우는 <모든 직장인들에게 주고 싶은 선물> 꾸러미를 보냈다. "매일 매일이 힘든 우리 직장인들에게 일주일 동안 매일 에너지가 되는 선물이었으면 합니다."

월요일

월등히 나은 하루를 만드는 날. 자기 능력의 10%밖에 활용하지 못하고 죽는 것이 인간. 직장인은 그 속에서도 3분의 1밖에 자지 않는다. 월요병에 걸리기 쉬운 날인만큼 자기 자신의 일에 목숨을 걸어보자.

화요일

화목한 분위기로 살아가는 날. 꼭 즐겁고 신나는 일이 반드시 생기는 법. 웃는 것도 습관이다.

수요일

수양과 자기 계발로 자신을 갈고 닦는 날. 신제품이 판을 치는데서 낡은 제품은 명함도 내밀지 못한다. "최근 무슨 책 읽으셨다구요?"라고 누가 물으면 "바빠서"라고 대답하지 않았는가?

목요일

목표를 향해 도전하는 날. 도전할 때 승부는 50대 50이지만, 포기할 때는 무조건 100% 패배만 있을 뿐.

금요일

금빛 찬란한 미래를 다시 한 번 점검해 보는 날. 하찮은 존재라고 느꼈던 자기가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부터 자신의 역사는 달라진다.

토요일

토론과 대화로 문제를 풀어 가는 날. 한 주일 동안 한 마디도 나누지 않은 동료가 있는가? 사소한 문제로 껄끄러운 사이가 된 사람과 차 한 잔의 시간을 가져 보자.

일요일

일체의 근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는 날. 마음을 청소하고 무념무상으로 될 때 마음의 길이 운명의 길이 됨을 기억하자.

불평하던 청년과 이 선물을 보낸 청년의 직장이나 조건은 서로 비슷했다. 역시 마음가짐에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실감하게 된다. '일요일'의 선물 내용처럼 "마음의 길이 운명의 길이 된다." 무엇보다 선물을 보낸 청년은 자기 자신뿐 아니라 다른 직장인들의 마음까지 배려하고 있었다. 아마 "나만 혼자 힘든 건 아니다. 힘 내자"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 같다. 불자로서 "갖기보다는 베풀기에 더 풍요로운 사람이 되라"는 신년의 한 법어가 떠오른다. 우리는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매일 어떤 마음의 선물을 주고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보자.

황수경(동국대 선학과 강사)

社說

공경하는 삶을 발원하자

새해가 밝았다.

세계 경제는 아직 얼어붙어 있고 정부와 대기업의 구조조정이 그 수위를 높여 가는 마당에 새해가 밝았다. 누구나 새로운 각오를 하게 되고 새 희망에 가슴이 설레는 것이 새해 새아침의 풍속도다. 아쉽게도 지금은 희망을 얘기하기보다 더 큰 절망이 찾아오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 더 간절하다는 분위기다.

경제가 위축되면서 사람의 마음이 오그라드는 것이야 어찌 말릴 수 있겠는가. 하지만, "불안한 그 마음을 가져 오라"던 달마 스님의 외침을 생각해 보자. "아무리 찾아도 찾을 길이 없다"고 고백하는 순간 마음이 밝아지고 몸이 가벼워졌던 혜가 스님을 생각해 보자. 어디에 불안한 마음이 있고 어디에 오그라드는 마음이 있는가?

지금 우리에게는 9년 면벽의 스승을 찾아가 허리까지 차오르는 눈발을 마다 않고 법을 구하던 혜가 스님의 간절함이 필요하다. 스스로 간절하지 않으면 아무리 큰 황금덩어리가 눈앞에 있어도 그 귀함을 알지 못한다. 한 칼에 팔뚝을 잘라 바치는 그 용맹심이 아니면 우리는 늘 불안하고 늘 오그라드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야 한다. 이는 분명 불자의 생활 태도가 아니다. 불자라면 큰 발원과 물러서지 않는 기도의 자세로 세상을 살아야 한다. 그런 삶에 경제의 위축은 오히려 마음공부 하기에 좋은 재료가 될 수도 있다.

주변의 모든 일이 공부의 재료다. 마음공부는 때와 장소를 가리는 것이 아니다. 매 순간 작용하는 마음을 매 순간 점검하는 것이 마음공부의 기본이다. 누가 욕을 하면 그 욕을 재료로 나를 가다듬고 기쁜 일이 생기면 그 기쁨으로 나를 점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어떤 방편의 수행을 하더라도 마음을 벗어나 따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간절한 구도심이 없이는 어떤 수행도 이룰 수 없다.

새해를 맞아 이루지 못할 꿈 보다는 반드시 이룰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해 '소림굴' 앞을 찾아가는 혜가 스님의 간절함으로 매사에 진력해 보라. 꿈은 이루어 질 것이다.

본지는 새해를 시작하며 '부처인 당신을 공경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살기 캠페인을 벌이고자 한다. 불자는 물론 온 국민, 나아가 전 세계인이 '상불경 보살'이 되기를 서원하여 하염없는 공경의 자세로 살아가자는 취지다. <법화경> '상불경보살품'에 나오는 상불경보살의 간절한 공경심이 이 경제한파를 극복하고 인간 세상의 갈등을 해소할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는 신념에서 이 캠페인을 전개한다.

남을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결코 성불할 수 없다. 보시공덕을 모르고 만생명의 존귀함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일체중생을 구제할 원력을 품을 수 있겠는가? 자기만 아는 사람은 자비와 지혜를 갖출 수 없는 것이다.

'부처인 당신을 공경합니다'라는 말에는 일체중생을 부처로 보는 지혜와 만물만생을 위해 공양 하겠다는 자비가 담겨져 있다. 지혜를 구하고 자비를 베푸는 보살의 길을 가겠다는 다짐이기도 한 것이다. 일체 중생이 한 몸이어서 남을 공경하는 것은 나를 공경하는 것이다.

기축년 새해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인간의 근본, 자성마저 혼미해지는 일이 없길 바란다. 불자라면, 좀 더 당당하고 보다 자신 있게 닥쳐오는 모든 경계를 공부로 받아들이자.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한 결 같이 말하자. "부처인 당신을 공경합니다"라고.

한국근본불교조계종 양 화 사

양화사 건강원 — 귀 자원봉사의 집 귀 — 서금요법수지침술

▷ 전국불우 이웃 및 소년 소녀가장 「무료봉사」 건강찾아주기 "자원봉사의 집" ◁

인간 생명의 존중과 복지사회구현을 실현하여 건강백세의 아름다운 동반자가 되기위한 전국불우이웃 "무료봉사" 건강찾아 드리기 "자원봉사의 집"양화사 입니다.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근본이념으로 부처님의 뜻을 받들어 전국에 계시는 몸이 불편하신 불우이웃(생활수급자 · 생활보호대상자 · 소년소녀가장)분들에 대하여 건강을 찾아서 사회의 일원이 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는 한국근본불교조계종 양화사 "자원봉사의 집"입니다.

※ 전국에 거주 하시고 계시는 몸이 불편하신 불우 이웃분들에 대하여 관할지역 읍 · 면 · 동사무소의 "확인서"를 지참하시고 방문하여 주시면 최선의 노력으로 "무료봉사"하여 건강을 찾아 드리는 일에 성심을 다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 (성인성,부인성 질환)(아토피,피부질환)(신경통,관절질환)(디스크,혈압질환)(불치,난치성질환)(희귀성질환) 등에 대하여 "서금요법" "수지대체요법" "자연치유요법" 등으로 "무료건강상담"하여 드립니다.
(서금요법, 수지대체요법, 자연치유요법, 체질개선)(수지기능식품, 체질개선 자연식품, 건강식품)등으로 "무료봉사"하여 건강을 찾으시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 서금요법 · 수지대체요법 · 수지침 · 무료출장교육하여 드립니다. ●

※ 전국불교종단, 사찰, 불교대학, 불교단체등에 "무료출장교육"하여 드립니다.
※ 서금요법,수지침은 건강관리와 "수지침자원봉사" 고령화시대에 가장효과적인 대체의학이며 "자격증"을 취득하시게 되면 "자원봉사"에 참여 하실수 있습니다.
※ 서금요법,수지대체요법,수지침,전국각종단체 등 "무료출장교육"신청상담을 받고있습니다.

서금요법 · 고려수지침술요법학회 남수원지회. 분회 (지회장 : 한상기 / 분회장 : 천광)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67-4번지 201호

※ 문의 및 상담전화 : 031)251-2213,254-2213 / 휴대폰 010-3013-2213 / 팩스 031)258-2213 ※ 불자님들의 정성이 어둡고 그늘지고 소외된 이웃에 밝은 희망의 등불이 됩니다.
※ 후원계좌 : 농 협 207186-51-050820 / 국민은행 877001-01-362102 / 제일은행 604-20-378236 / 우체국 104323-01-001733(예금주 : 한국근본불교조계종양화사)
※ 불자님들의 후원금과 불사금 및 수익금 전액에 대하여서는 전국불우이웃 "무료봉사" 건강찾아주기 "자원봉사의 집"에서 포교 및 복지기금으로 사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의 자비하심의
뜻을 받들어
"건강"의 기쁨과
"삶"의 행복을
함께 나누는 집!

양 화 사
귀 자원봉사의 집 귀

한국 근본불교조계종 양화사 (자원봉사의 집) 주지 천광 합장

2008년 불교문화 엑스포 출품작 우리 숲 청다향
현대불교 제 712 호 2009년 1월 1일 목요일

세상에서 가장 좋은 향기는~ 건강입니다

덕유산 100만 송이 眞 한방울이 심산의 맑은 공기 그대로~

청다향 향로는 수작업으로 만든 최고가치의 명품 투각 청자 다향기입니다.

※ 상단용 청다향 다향기는 스님께서 연락주시면 소승이 직접 방문하여 향 시흠을 시연하여 드립니다.



법당 상단용 청다향 다향기 (실용신안특허 제0164576호)
| 높이 370cm | 구성 : 향로+코끼리향로+주전자향로+향 5mg 2개
| 가격 110만원

쌀이 솥을 만나야 밥이 되듯이... 향기도 제대로 된 향로를 만나야 참 향을 만들어 냅니다. 머리를 맑게 하는 솔잎, 피부가 좋아지는 편백 등 산야초 향원액을 오랜 세월 숙성의 기다림으로 부처님 제일공양으로 태어납니다.

청다향이란?

덕유산 사람 발길 없는 천혜의 자연지대에 자생하는 차(茶)나무, 잎, 열매 속에서 극소량 머금은 향기이며 나무가 천적을 물리치는 황금 빛 에센스 원액 100% 향기 성분을 말합니다. 건강에 좋은 무공해 청자 다향기로 건강의 온도에서 피어나게 되는 공법이 특허의 기술입니다.

제조 및 연구분석 판명

초자연의 녹황색 차, 잎 열매의 향 성분을 증류로 뽑아 5년 숙성으로 건강의 향기가 태어난 청다향이며 과학적 판명을 위하여 서울 동국대 식품공학과 연구분석 실험으로 51개 향기성분으로 판명된 순수원액 향입니다.



법당 중단용 청다향
- 높이 : 260cm
- 구성 : 향로 + 주전자 향로 + 향 3mg 1개
- 가격 : 33만원





개인향로
- 구성 : 두꺼비 연잎다기 +향 3mg 1개
- 가격 : 6만원



차량용 향로
(차량에 부착가능 : 스트레스, 졸음이 싹 - 출발하기 전 한방울)
- 구성 : 두꺼비 다기 + 향 3mg 1개
- 가격 : 5만원

더 좋은 청다향 이용하는 법

◆가습기능 : 향 원액의 양과 온도조절을 통해 향기의 농도를 조절할 수 있으며, 원액에 물을 섞어 가습기능도 함께 합니다.
◆야간 조명기능 : 야간에는 향로에서 은은한 불빛이 새어나와 수행과 명상을 함께 합니다.

1) 연꽃 향합에 생수를 큰술 3스푼 정도 넣고, 청다향 원액 2-3 방울을 떨어뜨린 후 조명을 켜시면 은은한 가습과 향기가 피어납니다.
2) 향기의 강약을 조명조감기로 줄이고 늘여서(약 8-9)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향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3) 3-4시간 후 청다향 액이 완전 증발한 후 보충 사용하시면 숲속의 향기를 계속 만끽할 수 있습니다.
4) 녹황색 조명은 최고 40w로 항시 사용하셔도 전기료 부담이 없습니다.
5) 자연 가습으로 숲속향이 피어나 불자님의 건강을 지켜 드립니다.

청다향의 가치를 높이는 장소

명상을 위한 아늑한 공간, 향기로운 대화의 실내공간, 집중력이 필요한 학생방 등

1) 환기 시설이 원활하지 못한 공간
2) 도심속 포교당 : 태우는 연기 때문에 향로가 없는 법당
3) 평소 건강을 염려하여 향을 태우지 못하는 스님
4) 108배 등 기도정근으로 건강 호흡이 필요한 법당
5) 친견실 및 대화의 공간에 자연의 숲속 향기가 필요한 곳

상단용 청다향 다향기 출시기념 나눔 대축제

5종세트 무료 보시 (선착순 21분)

상단용 청다향을 구입하시는 선착순 21분께는
중단용, 개인용, 코끼리 및 연잔, 부자되는 차량용 두꺼비
5종(56만원 상당)을 무상으로 드립니다.



청다향 황금유 개별 판매 • 용량 5m / 5만원 • 용량 3m / 3만원





품위있고 안전한 포장 청다향 안전 포장 / 품위있는 디자인



"부처님께 공양 올릴 향 만드는 것이 수행" 청다향 만든 달마사 청오 스님



청다향 청오(淸悟)
1970 정각향(독립운동가 송전도옹 으로부터) 전수 - 대구 대명동
1988 서울 동국대 불교대학원(불교학) 졸업
2003 한국최초 보습향 개발
2004 청다향 본포 창립
2007 청다향 황금유 개발원 설립

"산천 초목의 풀잎과 꽃잎에 가득한 향을 따는 순간 느껴지는 상큼함, 그 순간을 잡고 싶었습니다" 덕유산 자락 산천을 누비며 사시사철 꽃잎을 따는 향에 미친 스님이 있다. 얼마나 꽃잎을 따 빻고 찧기를 반복했을까. 한겨울에도 땀으로 온몸이 젖으며 겪은 오랜 시행착오 끝에 청다향 천연 향 제품을 개발한 이는 청오 스님(거창 달마사 주지 · 사진)이다.

열세살 때 대구 정혜사에서 정각향 창시자인 故 송정도옹으로부터 향만들기를 배웠지만 향 만들기를 포기했던 스님은 어느 날 일간지에서 "태우는 향이 담배연기보다 더 나쁜 유해물질을 배출한다"는 기사를 접하고 다시 향을 만들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스님이 만드는 향은 수십가지 야생천연재료로 인체에 전혀 무해할 뿐더러 효과가 좋다. 얼마 전에는 이광근 교수(동국대 식품공학과)의 도움으로 성분분석까지 마쳤다. 이 교수는 "청오 스님이 만든 향은 아로마테라피 형식으로 분석결과 천연재료의 각 성분을 잘 살렸다"고 말했다.

쑥 · 아카시아 · 박하 · 솔잎 등 덕유산 자락의 모든 초목을 향재료로 사용한다는 스님은 "아카시아는 개화 후 2~3일 안에 채취해야 하고, 솔잎은 한겨울 눈 내린 뒤 채취하는 것이 좋다. 풀잎마다 꽃잎마다 채취시기가 정해져 있다"고 말해 재료 채집부터 보통 정성이 필요한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10ml 한병의 엑기스를 증류해 얻기 위해 한가마니의 풀잎이 필요하다는 스님은 손수 재료를 재취하고 향을 만든다고 한다. 또 향을 발산하기 위한 청자로 된 향로까지 모든 것을 직접 제작한다.

부처님께 올리는 향을 만드는 것이 수행이며 공부라는 스님은 "공양 중 향 공양이 으뜸 아니겠냐"며 제대로 된 우리 향을 통해 불자들의 건강과 신심을 북돋고 싶다고 말했다.

<현대불교신문> 2008년 3월 5일 보도기사

덕유산 우리 숲 청다향 055)941-1083 / 010-4595-0017
생산지 :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1156-4 달마사

현대불교 B1

buddhanews.com

2009년 1월 1일 목요일 / 불기 2553년 제 712 호



목탁소리를 내는 '우보살' 3자매가 사는 경남 사천 백천사(주지 성밀)의 기축년 소의 해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최근 태어난 송아지 2마리도 과연 목탁소리를 낼 것인지 관광객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새해 새아침 정우 스님이 '우보살'에게 선업 많이 쌓으라고 법문하고 있다. 박재완 기자

● 신년 축시

己丑年 喜鵲尋牛頌

一雲 藏尋牛頌次韻

鄭鎭圭

화살들이 보인다
날아가는 화살들만이 아니라
되돌아 다시 오는
화살들이 보인다
세상 가득 넘치는 햇살들이다
오늘 해 뜨는 새날 아침
화살들이 해의 살들이
세상 빼곡빼곡 되돌아온다
빛의 은빛 超速을 아시느냐
소떼들의 발굽소리
푸른 들발 가득하다
나 맨 가슴으로

그 화살떼들 맞으며
운다, 혼절한다
황홀의 혼절을 아시느냐
추운 밤 홀로 지새운 사랑아
네 몸에 내 몸, 네 맘에 내 맘
빛 화살들 가득가득 담으마
千手千眼
만져지는 화살들, 開闢의 화살들
무릎 넘치게 돌아와 쌓이는 화살들
도살장 쇠도끼 물 불 담금질
화살로 날아 간 빛의 도둑떼여*,
빛살 도둑질 은빛으로 되돌아오는

큰 도둑님 소떼들이여
이 새 아침 해의 살들이여
빛의 화살들이여
鳴鏑이여,
鳴鏑**이여,
온 누리 가득하다

■ 시인 · <현대시학> 주간

*雪嶽 尋牛頌 次韻
**鳴鏑(명적); 화살이 우는 소리

대한불교조계종 한 마 음 선 원

The Jogye Order 0f korean Buddhism Hanmaum Seon Center

본원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101-62
TEL 종무소 031)470-3100 / FAX 031)470-3116
Hompage : http://www.hanmaum.org

◈ 국내지원 ◈

• 광명선원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 4구 산 5-2
TEL : 043)877-5000 FAX : 043)877-2900
• 제주지원 제주도제주시 영평동 1500
TEL : 064)727-3100 FAX : 064)727-0302
• 부산지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522-1
TEL : 051)403-7077 FAX : 051)403-1077
• 광주지원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201-5
TEL : 062)373-8801 FAX : 062)373-0174
• 울산지원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927-7
TEL : 052)295-2335 FAX : 052)295-2336
• 대구지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532-274
TEL : 053)767-3100 FAX : 053)765-1600
• 중부경남지원 경남 김해시 진영읍 방동리 321-1
TEL : 055)345-9900 FAX : 055)346-2179
• 진주지원 경남 진주시 미천면 오방리 50
TEL : 055)744-1321 FAX : 055)746-7825
• 공주지원 충남 공주시 사곡면 신영3리 152-3
TEL : 041)852-9100, 9102 FAX : 041)852-9105
• 포항지원 경북 포항시 북구 우현동 13-1
TEL : 054)232-3163 FAX : 054)241-3503
• 청주지원 충북 청주시 상당구 영동 53-1
TEL : 043)259-5599 FAX : 043)255-5599
• 강릉지원 강원도강릉시 포남 2동 1304
TEL : 033)651-3003 FAX : 033)652-0281
• 통영지원 경남 통영시 도천동 113-3
TEL : 055)643-0643 FAX : 055)643-0642
• 목포지원 전남 목포시 상동 952-19
TEL : 061)284-1771 FAX : 061)284-1770
• 문경지원 경북 문경시 흥덕동 592
TEL : 054)555-8871 FAX : 054)556-1989

◈ 해외지원 Overseas Branch ◈

-U.S.A (미국 지원)
• New York (뉴욕플러싱 지원)
144-39,32 Ave. Flushing, NY 11354, USA
TEL : (1-718)460-2019 / FAX : (1-718)939-3974
• Washington D.C. (워싱턴 지원)
7807 Trammel Rd. Annandale, VA 22003, USA
TEL : (1-703)560-5166 / FAX : (1-703)560-5566
• Los Angeles (LA 지원)
1905, S. Victoria Ave. L.A. CA 90016, USA
TEL : (1-323)766-1316 / FAX : (1-323)766-1916
• Chicago (시카고 지원)
7852 N. Lincoln Ave. Skokie, IL 60077, USA
TEL : (1-847)674-0811 / FAX : (1-847)674-2280
- CANADA (캐나다 지원)
20 Mobile Drive North York, Ontario M4H 1H9, Canada
TEL : (1-416)750-7943 / FAX : (1-416)701-1359
• Vancouver (벤쿠버 지원)
14069 104 Avenue Surrey B.C.V3T1X4 CANADA TEL : 604-582-8234
- ARGENTINA (아르헨티나)
• Buenos Aires (부에노스 아이레스 지원)
Miro 1575, cp(1406) Cap. Fed. Rep. Argentina
TEL : (54-11)4921-9286 / FAX : (54-11)4921-9286
• Tucuman (뚜꾸만 지원)
Av. Aconquija 5250, El Corte,Yerba Buena,
cp(4107) Tucuman, Rep. Argentina TEL : (54-381)425-1400
- GERMANY (독일 지원)
Broicherdorf Str. 102, 41564 Kaarst, Germany
TEL : (49-(0)2131)969551 / FAX : (49-(0)2131)969552
- THAILAND (태국 지원)
86-1 soi 4 Sukhumvit 63, Bangkok, Thailand TEL : (66-2)391-0091

己丑年 새해 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원 장 대 행
주 지 혜 원
사부대중일동

한마음선원은 모든 중생이 본래부터 지니고 있는 불성을 밝혀 생활 속에서
진리를 실천하며 마음 공부를 하여 성불하도록 인도하고 있는 참선수행 도량입니다.



새해엔 발원 · 기도 생활화로 참불자의 삶을…

2009년 새해가 밝았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신년계획은 세웠냐"는 인사만큼 비장한 각오를 다지는 사람들이 많다. 금융한파와 실물경기 침체에서 비롯된 모진 시련에 모두가 고통스러운 때, 현실 타개를 위해 신년계획에 특단(?)의 조치를 담아 실천에 옮기는 사람들이 눈길을 끄는 요즘이다.

주머니 살림이 쪼들리는 가장들은 씀씀이부터 줄이는 계획을 짠다. 배울 것이 많은 학생은 짬 없이 공부만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술 · 담배가 없으면 하루나기가 힘들었던 이들은 금주 · 금연을 다짐하기도 한다. '모두 마음먹기에 달렸다(一切唯心造)'며 저마다 성공을 자신하지만 정작 변덕스런 내 '마음'을 어찌 다스려야 할지 안살림에 신경 쓰는 사람은 드물다.

더욱이 나라 안팎의 어려움에 개인은 고통 받고 있지만 달리 방법이 없어 애만 태우는 경우도 많다.

어찌할 수 없는 어려움에 괴로운 사람, 해마다 신년 계획을 세웠더니, 매번 작심삼일로 흐지부지 됐던 사람이라면 올해는 발원과 기도로 '마음'부터 다잡아 보는 것은 어떨까?

#불자라면 반드시 '원' 세워야

발원은 스스로 어떤 원을 세우는 것이다. 스스로 결정한 원을 맹세하는 것을 서원(誓願)이라 한다. 서원을 글로 표현한 것이 발원문이다. 발원문에는 자신의 원을 실천하겠다는 맹세가 담겨있다. 원을 정하고 난 뒤에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데 이것을 원력(願力)이라 부른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무상정등정각(無上正等正覺)을 이루겠다는 발원이 있었기에 새벽별을 보고 깨달음을 얻었다. 부처님이 <능엄경>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발원해 여래의 도를 붙들고 중생으로 하여금 그 뜻을 깨달아 알게 하라"고 말했을 정도로 발원을 강조했다.

불자는 원력으로 산다. 사홍서원 같은 공통의 원(總願)은 물론이고, 지옥 중생 모두를 구제하기 전까지 성불하지 않겠다는 지장보살의 원이나 중생의 모든 병을 낳게 하겠다는 약사여래의 12대원, 아미타불의 48대원, 보현보살의 10대원 등 불보살은 누구나 각자의 원(別願)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수행을 한다.

원은 어떻게 세워야 할까? 대승불교에서 보살의 삶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자리적 삶이 아닌 이타적 삶이다. 건강이나 사업번창, 학업 성취 등 개인적인 복을 빌기보다는 장기적 · 대승적인 바람이 원으로 바람직한 이유가 여기 있다. 자신의 원이 △중생을 다 건지겠다 △번뇌를 다 끊겠다 △법문을 다 배우겠다 △불도를 다 이루겠다는 사홍서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나와 남이 모두 행복할 수 있는 발원이 된다. 마음속에 원을 일으킨다고 해서 발원심(發願心), 가장 높은 원을 세운다고 해서 발무상원(發無上願), 가장 큰 원을 일으킨다고 해서 발대원(發大願)이라 부르는 까닭이다.

불교는 구원보다는 자발적 수행에 의한 깨달음을 추구하는 종교다. 때문에 발원은 더 없이 중요하다. 불자라면 부처님께 복을 비는 개인적 차원을 넘어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한 발원이 있어야 한다.

불자인 당신의 원은 무엇입니까?

'의지' 담겨야 좋은 발원문

기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유가 있어 기도를 시작한 경우가 많다. 그러다보니 별도로 발원하지 않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다. 기원이 바라는데 그치는 것에 비해 발원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 기도에 큰 힘을 준다.

관음기도를 매일 3년째 하고 있는 여여심 보살(47)은 "자신의 의지를 글로 적은 발원문을 매일매일 소리 내 읽다보면 나태해지려는 자신을 경책해 기도에 매진할 수 있게 해준다"고 말했다.

많은 불자들이 발원문 작성을 어려워한다. 하지만 발원문에는 아무 형식이 없다. 반드시 적어야 할 것도 없고, 적지 말아야 할 내용도 없다. 특별한 형식 없이 자신이 마음속에서 원하는 것을 허물없이 부처님께 고한다는 생각으로 간절하고 지극하게 적으면 그뿐이다.

다만 발원문은 (부처님에게) 원하는 것을 해달라고 하기보다는 "~해 원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적극적인 의지가 담겨 있어야 한다.

#기도에 필요한 것은 '간절함'과 '믿음'

기도는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기원하는 행위다. 말 그대로 빈다는 뜻이다. 죄업이 두텁고 복덕이 엷은 까닭에 중생이 하는 일은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입적한 일타 스님(前 조계종 원로의원)은 "현재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기꺼이 받아들인다면 그만큼 업을 녹일 수 있지만, 쉽게 받아들일 수 없을 뿐 아니라 꼭 이뤄야겠다면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그때 필요한 것이 기도"라며 "부처님이나 큰 힘을 지닌 보살님이 세운 행원력(行願力), '고통받는 중생을 남김없이 구제하겠다'는 행원력에 의지해 간절히 소원을 비는 기도법이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기도를 하면 불보살의 가피를 입는다. 기도는 수행방법 가운데 직접적으로 불보살 가피력에 의해 업장을 소멸하는 길이다. 수행으로서 기도는 외부의 대상에게 무엇을 이루어 달라고 비는 것이 아닌 "내가 무엇을 이루겠다"는 원을 세우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힘을 얻기 위한 자기다짐이다. 하지만 초심자들은 그저 간절한 마음으로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불보살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다.

기도는 불보살의 가피력으로 업장을 소멸하고 복덕을 증진시켜 고난, 장애 등을 벗어나 하고자 하는 바를 이룬다. 가피는 중생이 겪는 모든 고난에서 그들을 건져낼 것이라는 불보살의 본원력 덕분이다. 다시금 발원이 중요한 까닭이 여기 있다.

<아미타경> <지장경> 등 경전에는 불보살의 서원이 있고, 그 공덕으로 중생은 모든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기도에 있어 고통에서 벗어나겠다는 간절함만큼이나 불보살님 위신력에 대한 믿음이 강조되는 이유다.



지극한 신심으로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발원하는 불자들.

발원 – 반드시 이루겠다는 의지와 실천 있어야

기도 – 참회는 필수 · 의타심 버리고 꾸준히 해야

믿음은 왜 중요할까? 믿는 동시에 마음의 위안을 얻어 안심을 찾게 되고, 희망을 갖는 동시에 삶이 바뀐다. 지장기도에 열심인 대원화 보살(52세)은 "기도에 열중하다보면 일체 번뇌가 사라지고 산만하고 불안하던 마음이 안정을 찾는다"고 설명했다.

부처님 자비는 우주에 충만해 있다. 하지만 중생들은 그 자비를 받아들일 방법을 모른다. 기도는 마치 텔레비전 안테나처럼 우주에 충만한 부처님 자비를 받아들이는 행위다. 간절함과 믿음만 있다면 누구나 바라는 것을 얻는다.

불보살은 어떻게 가피를 줄까? 가피를 입은 사례들을 유형별로 나누면 △현실에서 바로 가피를 입어 소원이 성취되는 현증가피(顯證加被) △꿈을 통해 소원이 이루어질 것을 예시받는 몽중가피(夢中加被) △언제나 은근하게 보호받는 명훈가피(冥勳加被)로 나뉜다.

#어떤 기도할지 '인연'따라

대개 다급한 일을 당한 사람이 기도했을 때는 현증가피 또는 몽중가피를 입는 경우가 많고, 평소 안락과 행복을 원하는 사람은 명훈가피를 입는 경우가 많다.

불보살의 원력만큼 기도의 대상 또한 다양하다.

석가모니불 기도는 불자로서 밝은 지혜를 이루겠다는 성취를 담아 일념으로 석가모니불 원력에 의지한 기도다. '나무 영산불멸 학수쌍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을 염하고 '석가모니불'을 계속 부르며 정근한다.

관음보살 기도는 가장 보편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기도 중의 하나다. 모든 중생의 고통을 보살피는 관세음보살 원력에 의지한 기도로 '나무 보현시현 원력홍심 대자대비 구고구난 관세음보살'을 염하고 '관세음보살'을 염송한다.

지장보살 기도는 모든 중생 구제를 서원한 지장보살 원력에 의지한 기도다. 죽은 조상의 넋을 천도하고 전생의 업장을 소멸하고자 할 때 하는 경우가 많다. '나무 남방화주 대원본존 지장보살' 후 '지장보살'을 부르며 정근한다.

아미타불 기도는 극락세계를 이룬 아미타불 서원에 의지한 기도다. 극락왕생 등을 발원할 때 하며 '나무 서방교주 아미타불' 염불 후 '아미타불' 정근을 한다.

신중 기도는 부처님 정법을 수호하고 사찰을 지킬 것을 서원한 신중에 하는 기도다. 힘과 용기로 환난과 두려움을 막아주는 까닭에 기도를 하는 이들이 많다. '화엄성중'을 염송한다.

이 외에도 아비라 기도처럼 개인기복보다 수행에 치중한 기도법도 있다.

아비라 기도는 중국 당대(唐代)의 총림 수행법을 성철 스님이 소개한 기도법이다. 스님은 "우리가 받는 모든 고통과 악업은 과거 생으로부터 우리 스스로가 지어온 업장의 과보"라며 업장을 참회하고 자기 자신을 바로 보도록 '예불대참회(108배)'와 새로 음역한 '능엄주'를 권했다.

아비라 기도 순서는 먼저 <예불참회문>에 맞춰 108배를 하고, 두 손을 합장한 자세에서 무릎을 바닥에 붙여 세우고 허리를 바르고 꼿꼿하게 세우는 장궤합장을 하고 '옴 아비라 훔 캄 스바하'라는 비로자나 법신진언을 30분간 독송한다. 그리고 '대불정능엄신주'와 '능엄주' 회향게를 독송하는 방법이다. 지금도 해인사 백련암에서는 아비라 기도가 이어지고 있으며, 성철 스님은 "아비라 기도를 1년에 네 번 정도 하라"고 말했다.

'참회' 있어야 옳은 기도

기도는 귀의와 공양 예경 참회 염송 회향 순으로 진행한다.

불보살에게 지성으로 귀의하는 것이 첫 순서다. 공양을 올릴 때는 꽃, 과일, 쌀 등을 올리기도 하지만 대개 향과 차, 혹은 향만을 올리기도 한다.

예경은 불보살에게 지극정성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3배 108배 1080배 3000배 등을 정해 예배를 올리고 <반야심경> <천수경> 등 경전을 읽는다.

참회는 지금의 고통이 남이 아닌 자신에서 비롯됐음을 바로 아는 것이다. 참회가 있어야 업장을 소멸하고 복덕을 성취할 수 있다.

염송은 불보살 명호를 부르며 정근하는 것으로 108번이나 1000번, 3000번 염송한다.

끝으로 발원문을 읽고 사홍서원과 3배를 올려 기도를 마친다.

#기도의 극치 '깨달음'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 어려움이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도를 시작한다. 기도를 하다보면 어려움이 해소되는 것은 물론이고 저절로 상구보리(上求菩提)하게 된다.

기도에 열중하면 정신이 맑아지고, 계속된 삼매는 깨달음으로 이어지기 때문. 결국 기도의 끝은 소원성취를 초월한 깨달음이다. 이를 두고 일타 스님은 "기도해 힘 드는 것도 시간가는 줄도 모르게 고비를 넘기고 나면 묘력을 얻는다"며 "꿈 속에서도 기도가 이뤄지고 일념삼매에 젖어들면 깨달음의 문이 저절로 열린다"고 말했다.

불자라면 기도를 통한 소원성취와 깨달음이 가족과 이웃을 도우며 하화중생(下化衆生)하라는 불보살의 가르침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혜공스님의 영산의식 시리즈 비디오, DVD출시

한국불교전통의식대학 학장이신 혜공 스님께서 불교의식을 비디오와 컴퓨터 등에서 볼 수 있는 DVD를 따라하기 쉽게 학습용으로 촬영, 아래와 같이 제작출시 하였기에 필요한 제품이 있으면 주문바랍니다.

▷ 아 래 ◁

1	대령/관욕	17	지장불공	33	아침저녁종성
2	상주권공 지장불교의식	18	삼대화상중명불공	34	향수해례예불
3	상용영반	19	종사관욕	35	혼자서 하는 민관욕(간단한 관욕)
4	회심곡(화청)1	20	종사영반	36	생일불공
5	회심곡(화청)2	21	가사불사의식	37	상주권공48제의식 1
6	구병시식	22	신중작법39위	38	상주권공48제의식 2
7	관음시식	23	간단한 신중작업	39	상주권공48제의식 3
8	점안의식	24	전통조석예불	40	상주권공48제의식 4
9	방생의식	25	천수경/장엄염불	41	제사불공
10	사물 다루는 법	26	상주권공/각배/영산염불	42	삼신이운
11	안택	27	사시상단불공	43	혼자서 하는 간단한 49제의식 1
12	시다림	28	작법무(복청게천수)	44	혼자서 하는 간단한 49제의식 2
13	산신불공	29	작법무(시방찬소리도량게)	45	화엄시식
14	미타불공	30	작법무(욕건만다라선송다게작법)	46	약사여래불공
15	신중불공	31	작법무(향수나열사다라니)	47	교재2권 100,000원
16	관음불공	32	삼보통청		

제11기 의식대학 교육생을 모집하며, 범패교육을 2009년 1월 5일 부터 9일까지 4박 5일간 실시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 비디오 각 25,000원 / DVD 각 30,000원 ◆ 계좌 : 농협 641010-56-000296 (노연숙) ◆ **제품 구입처 : 종무소 ☎ 062)362-8604 / 혜공스님 011-624-8604**

한국불교전통의식대학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학장 혜공 스님**

진정한 큰스님처럼 기소와 범패신동의식 교육을 잘 엮어 주는 교육 장소

한국불교전통의식대학 2009년 제11기 신입생 및 통신생 모집

◆지원자격 : 스님, 포교사 ,교임법사, 각 종단을 초월하여 절을 이어갈 후계자 (유발자도 가능)
◆과 목 : 범패 상주권공의식, 각배의식, 교양과목
– 안채비 : 각종불공의식, 49재의식, 천도재, 신중작법의식,각종소, 낭독하는법
– 겉채비 : 바라춤,도량게작법, 다게작법(나비춤), 사물다루는법, 화청(회심곡)
◆과 정 : 2년(4학기) / 1,2학년 수업 매주 금요일 오후2시부터 6시까지, 주 1회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학교에 비치), 반명함판 사진3장, 주민등록등본 2통
◆입 학 식 : 2009년 3월 12일 목요일 오후 2시 30분 (음, 2월 16일)
◆통신생 출석교육 : 매월 둘째 금요일 오후 3시부터 ~ 다음 토요일 12시까지
◆각배영산교육 : 매주 화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2동 759-14(우 502-242)
◆학 장 : 혜공스님(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계좌번호 : 농 협 641010-56-000296 (예금주:노연숙)

한국불교의식대학 범패교육 (2009년 1월 5일 ~ 1월 9일 4박 5일)

• 교육시간 : **오전 9시부터 ~ 오후 6시까지(오전시간 : 강의, 오후시간 : 실기교육위주)**
– 1월 5일 오후 2시 : 입회식 후 시련절차 실기, 대령관욕 보소청진언, 화청(회심곡), 원아계교육
사물 다루는 법 – 북, 태령, 목탁, 요령
– 1월 6일 오전 9시 : 점안의식, 가사이운식(짓소리녹음), 화청(회심곡), 낙성식하는 법, 법종불사 의식하는 법
– 1월 7일 오전 9시 : 상주권공, 지장불공, 관음시식, 상용영반, 상축하는법, 창홍의식하는 법, 부도 제막식하는 법, 삼재기도하는 법, 예수제불사 특별교육
– 1월 8일 오전 9시 : 용왕불공 및 방생의식법, 소창불, 39위 신중작법, 종사영반 종사관욕, 큰불사시 관음 예문 하는 법
– 1월 9일 오전 9시 : 총정리 및 예수제 불사교육
• 준 비 물 : **가사장삼, 필기도구 / 일반불자 – 평상시 복장, 필기도구**
※ 바라춤, 나비춤, 회심곡 회원 수시모집

새해 원력 세우고 자신만의 발원문 쓰세요

2009년 기축년 새아침 원력을 세우고 그 간절함을 담아 발원문을 써보자. 그리고 소를 통해 불성을 찾아가는 심우도에 색칠을 하고 <반야심경> 사경을 하며 새해를 시작하자.




1.심우(尋牛)


2.견적(見跡)


3.견우(見牛)


4.득우(得牛)


5.목우(牧牛)


6.기우귀가(騎牛歸家))


7.망우재인(忘牛在人)


8.인우구망(人牛俱忘)


9.반본환원(返本還源)


10.입전수수(入廛垂手)

摩訶般若波羅密多心經

觀自在菩薩 行深般若波羅密多時 照見五蘊皆空度一切苦厄 舍利子 色不異空 空不異色 色卽是空 空卽是色 受想行識 亦復如是 舍利子 是諸法公相 不生不滅 不垢不淨 不增不減 是故 空中無色 無受想行識 無眼耳鼻舌身意 無色聲香味觸法 無眼界乃至 無意識界 無無明 亦無無明盡 乃至 無老死亦無老死盡 無苦集滅道 無智 亦無得 以無所得故 菩提薩埵 依般若波羅密多 故心無罣碍 無罣碍故 無有恐怖 遠離顚倒夢想 究竟涅槃 三世諸佛 依般若波羅密多 故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 故知般若波羅密多 是大神呪 是大明呪 是無上呪 是無等等呪 能際一切苦 眞實不虛故 說般若波羅密多呪 卽說呪曰

아제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하
아제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하
아제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하



▶ 이런 분들께 권해드립니다 • 절 수행 시 • 성지 순례 산행 시 • 장시간 공부·운전·운동 피곤 시 •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장인

대자연 GREAT NATURE UNITED
www.amata.co.kr

아마따茶로 성불 수행의 기운을 돋우십시오!

다수의 비타민과 미네랄이 함유 된 아열대지방의 허브 마테(Yerba Mate)는
정신과 육체의 기운을 돋우고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어 세계 여러 분야에서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아마따茶'로 마테(Yerba Mate)가 주는건강을 누리세요.

아마따 란? 팔리어로 '감로' (달고 깨끗한 이슬)를 뜻합니다.



無설탕
無색소
無방부제

1566-6289
1BOX 24개입 48,000원 판매원 : 유기마켓(주) 농협 601139-51-006748 국민 580301-04-091374


마테(Yerba Mate)
파라과이와 아르헨티나의 원시부족인 '과라니족'에 의해 발견된 허브. 과라니족은 피로회복과 숙면을 취하는데 마테를 사용했습니다. 세계 여러나라에서 마테는 현대인의 건강과 명상을 공유하는 용도로 쓰이기도 합니다.



佛記2553年 己丑年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수행과 참여

부산광역시불교신도회

200만 부산 불자님들의 신행과 수행을 책임질
부산광역시 불교신도회가
여래의 전법사로 앞장서고자 합니다.

회 장 공병수
직전회장 류진수
명예회장 정금강행, 하도명화
재무총장 송귀종 사무총장 김대실
이사 · 임원 · 회원 일동

<수시모집>
연화합창단(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연화자원봉사단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5동 1330-9번지
부산불교신도회 7층
TEL 051) 853-2021
FAX 051) 853-2036

釜山佛教實業人會
妙 光 禪 院

회 장 김윤환
고 문 강병중, 최 찰, 서춘석
박수복, 이상태, 하문원
상임부회장 이달수
부 회 장 조재원, 지호경, 이근철
임정웅, 한기승, 배상진
신현구, 황인관
감 사 안인성, 조용진
총무이사 신병호
재정이사 이학성
사업이사 이환길
관리이사 이규인
재정자문 김정웅

회원 및 마야부인회 회원일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1동 401-9
부산불교실업인회관 4층
TEL 051)818-9914 FAX 051)818-9916

(사)부산불교 지도자포럼

고 문 김재운, 김재진, 박종익
조효식, 최칠관
회 장 설동근
수석부회장 박수관
부 회 장 권청길, 김수현, 이상수
이시영, 이윤희, 장남인
허인구
감 사 정원종, 최익두
사무총장 박영근
재무총장 김성규
사무부총장 안병호

부산광역시 진구 양정1동 393-12
(불교회관 4층)
TEL 051)334-0108
FAX 051)867-4397

동국대학교 불교문화대학원 동림동문회

고 문 도 업, 이 만
자 문 정성호, 김영수
명예회장 송 월
회 장 달 오
수석부회장 심 산
부 회 장 무 상, 효 신, 대 광, 법 기
이 사 고 담, 청 암, 제 민, 성 구,
혜 성, 보 문, 도 경, 지 운,
관 성, 무 애, 학 산, 광 진
감 사 무 념, 법 초
사무총장 효 선
재무부장 선 웅
기획부장 일 원
총무부장 보 덕

사무국 :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1동 370-5
부산은행 5층
TEL 051)900-3606
E-mail: donglimdongm@naver.com

부산불교사회복지 · 청소년기관협의회

후원 및 자원봉사는 부처님 자비사상을 실천하는
본 불교협의회 복지기관을 통해 해주십시오.

회 장 정 여스님

기획조정실장 정순화
사무총장 이춘성
사무국장 조수경

개금종합사회복지관 / 공창종합사회복지관 /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 금정청소년수련관 / 금정노인요양원 / 두송종합사회복지관 /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 / 무량수 요양원 / 부산금정시니어클럽 / 부산 보현의 집 / 부산광역시 노인복지시설 인력지원센터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지원센터 / 부산광역시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 부산광역시 수영구자원봉사센터 / 부산광역시 양정청소년수련관 / 부산서구시니어클럽/ 부산연제시니어클럽 / 부산광역시 청소년쉼터 / 사단법인 선양복지원 / 상락정 배산실버빌 / 상락정 영주홈 / 선양요양보호사 교육원 / 선재어린이집 / 양정재가노인복지센터 / 영도구노인복지관 / 용당어린이집 / 영주암어린이집 / 용호종합사회복지관 / 컴넷하우스 / 혜원가정봉사원파견센터 / 하단어린이집 /함지골청소년수련관 / 화명종합사회복지관 / 환희소규모요양시설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사동 545-22
TEL 051)532-0115~7
FAX 051)531-0114
http://www.bswia.org

대한불교조계종

해 운 정 사

조 실 진 제
분원장 지 성
명예회장 서석인
신도회장 정대원행

사부대중일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1동 410번지
TEL 051)746-2256, 4812
www.seon.or.kr

부산불교회관은 도심포교를 위해 계획 설계된
미래 불교 도량입니다

부산불교회관(부산시청 옆)
여여선원 · 여여정사

(부설) 신행학교 · 여여불교대학

선원장 정 여
명예회장 김경환
신도회장 이향순

신도회, 총동문회, 복지회, 다도회,
합창단, 선림회, 지장회, 관음회,
천일기도회, 교무위원, 여여산악회,
어린이회, 여여불교대학, 기초교리반,
금강경반, 육조단경반, 법화경반, 참선반

여여선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2동 157-1
부산불교회관
TEL 051)853-5486~7 FAX 051)863-6422
여여정사 :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행곡리 1058
TEL 055)355-9290~1

대한불교조계종

내 원 정 사

주 지 단옹정련

- 석암장학회 051)243-0692
- 내원정사 유치원 051)244-0691
- 사회복지법인 내원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 051)264-9033
  내원어린이집 051)264-9031
  부산서구시니어클럽 051)244-6700
  부산사하지역자활센터 051)263-6697
  하단어린이집 051)206-3722
  중증장애인요양시설반야원 055)632-1854
  마하병원 055)633-3000
- 재단법인 내원청소년단
  함지골 청소년 수련관 051)405-5223
  구 덕 청소년 수련관 051)240-4681
  중구청소년 문화의집 051)247-8425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3가 산3-2번지
TEL 051)242-0691
FAX 051)248-0691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 통도사

마산포교당 정 법 사

<부설>대자유치원 · 토월도솔유치원
진해 자은 도솔 어린이집 · 영축불교대학

주 지 호 암 지 태
신도회 일동

■ 정법사:경남 마산시 추산동 65-2
☎ 055)246-8393, 245-6544
■ 대자유치원
☎ 055)245-0108, 242-0108
■ 토월도솔유치원:
경남 창원시 창남동 45-1번지 APT단지내
☎ 055)261-0832
■ 진해자은 도솔 어린이집:
경남 진해시 자은동 911번지
☎ 055)551-2112

경남 마산시 추산동 65-2
TEL 055)246-8393, 245-6544

보건복지부지정

새생명나눔실천본부 부산지역본부

나눔은 습관이며 베풂은 수행입니다!!

본 부 장 원범
부본부장 자인, 목종
감 사 이경순
총무이사 해암, 문수용
기획이사 마나, 이욱태
재무이사 법안, 박성미
홍보이사 혜산, 김성수

이 사 일 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1동 393-12
불교회관 500호
TEL 051)853-0429 FAX 051)853-0439
http://www.bslisa.or.kr



아름다운 제주
머무르고 싶은
약천사 템플스테이

대한불교조계종 약 천 사

善緣護持
아름다운 인연 잘 이어가자

회주 혜 인(慧印)
주지 성 원(性圓)

사부대중일동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포동 1165
TEL 064)738-5000 FAX 064)738-5022
www.yakchunsa.org
E-mail:yakchunsa@hanmail.net

대한불교조계종

비룡산 동명불원

주 지 정 산
신도회장 서정혁

사부대중일동

부산광역시 남구 용당동 507번지
TEL 051)626-4337
FAX 051)626-4330

대한불교조계종

용두산 미타선원

주 지 하 림

사부대중일동

미타선원 참선수행학교
수행강좌 및 문화강좌 교육생 모집

- 제2기 〈참선수행교육 프로그램〉
- 홍승 스님의 '사찰음식 강좌'
- 희상 스님의 '선화그리기 강좌'
- 성각 스님의 '다도-선차(禪茶) 강좌'
- 천수월(sp..박수진)의 '찬불합창 강좌'
- 박혜숙 선생님의 '요가 강좌'

부산광역시 중구 광복동 2가 1-11번지
TEL 051) 253-8687~8
참선수행학교 051)253-8686
www.mitazen.net

대한불교조계종

금 강 정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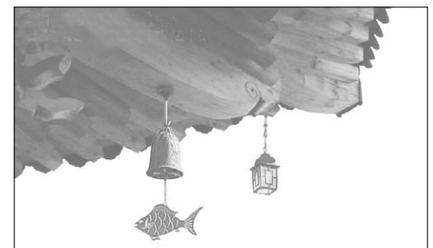
주 지 석상범

차상위 계층을 위한 후원회
금강(金剛)
후원회장 석상범

운영위원 일동

· 사회의 사각지대에서 무관심과 방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상위 계층에게 희망
의 등불이 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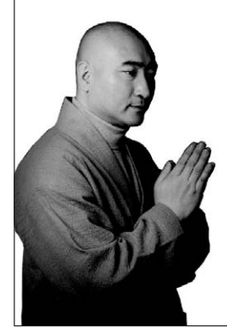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2동 350-72
TEL 051)204-0023



찬불가포교도량

贊 佛 寺

주 지
常楸 삼사라 합장



산사음악회
사찰음악행사
오케스트라
현악4중주
성악가 · 합창단
기악연주
한국무용 · 민요
대금 및 국악기 연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2동 143-10번지
(2호선 동의대 혜광출구 직진 가야롤플러스 맞은편)
H.P : 010-6717-5108
TEL : 051-896-5108

“항상 향 싼 종이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설악산 봉정암 가서 세상 살며 지은 죄 참회하고 싶어요”
새해도 연극 · 드라마 스케줄 빡빡… 건강비결 ‘토종음식’

탤런트 강부자

“제가 요즘 첩부지 할머니로 통합니다.”

MBC 일일드라마 ‘사랑해 울지마’ 촬영장에서 만난 탤런트 강부자(68)씨의 첫 인사다.

“아침에 일어나면 <천수경> 예불을 모십니다. 집을 나가기 전에 항상 부처님 전에 삼배하고 항시 부처님 말씀 속에서 당부합니다. 자식들에게는 항상 바르게 살라고 하죠. 딸은 시집가서 가톨릭 집안의 종교를 따르지만 우리 사위는 제가 선물한 단주도 잘 하고 다녀요. 아들은 응접실에도 부처님을 모시고 있지요.”

외국에 거주하고 있어 자주 만날 수 없지만 슬하에 두 아들 딸에게 항상 신심과 신행의 원력을 당부한다. 실제 자식에게는 연기에서 보여지는 무조건적 사랑이 아닌 엄격한 모습으로 무서운 엄마지만 자식에게 표현 못한 따스한 모정은 한결같다는 것이 그의 속내다.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절에서 화주보살을 했고 불공한 은덕으로 친오빠가 태어났다 하더군요.”

그렇지만 학창 시절에는 친구들과 어울려 교회에서 성가대 활동도 하고 찬송가도 불렀다. 일종의 군중심리와 같았다고 회상한다.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나 일종의 동경과 같은 의미였으리라. 그러나 언제나 종착역은 부처님이었다. 부처님 말씀이 좋았고 물음에 대한 옳은 해답을 구할 수 있었다.

대중의 이목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연예인이지만 한복 패션쇼 등 여러 자선 문화 행사에 등장한 그의 모습은 불자들의 귀감이 된다. 배우를 넘어 문화의 영역을 넘나드는 그는 항상 열린 마음을 유지한다. 그러한 그가 불자 연예인으로서 일상의 신념이 있다면 무엇일까?

“불자님이 운영하는 택시를 탔을 때 저는 기사님께 승차거부 같은 실례로 부처님 얼굴에 침 뱉는 일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불자의 도리를 잘 이행해 달라는 당부죠. 모범적인 행동을 솔선해 뭔가 저 사람이 달랐을 때 알고 보니 불법을 섬기는 이여서 그랬다는 평을 들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봐요. 불자로서의 책임감과 같은 거죠.”



어느 드라마를 하건 그것이 만약 기독교인 역할이어서 한 손에 성경을 들었다 할지라도 다른 손에는 염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 그의 신념이다.

“염주를 통해 제 자신을 추스릅니다. 나는 불자로서 타의 모범이 되고 베풀며 포용하겠다는 맹세의 다짐을 염주는 시시때때로 일깨워 줍니다. 항상 깨어있게 해주죠.”

그의 법명은 ‘보광화(普光花)’다. 35년 전 드라마 ‘연화’ 촬영 당시 의정부 회암사에서 수계했다. 항상 부처님께 찾아가 기도하는 역을 연기하면서 주지스님께 받은 법명이다. 그 이후 ‘다보행(多普行)’이라는 법명도 받게 되어 두 개의 법명을 지니고 있다.

연기 인생 46년에 접어든 그를 두고 주변에서는 연습 좀 쉬엄쉬엄 해도 될 때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의 생각은 다르다. 홀로 연기하는 모놀로그가 아닌 공동작업일수록 연습은 철저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후배가 생기는 만큼 책임감이 막중해 연기는 하면 할수록 어렵다고까지 덧붙였다.

연기하는 후배들에게 “항상 배우 이전에 인간이 되라”고 강조하는 그는 “인간으로 태어나 인간다운 행동을 하고 항시 겸손과 배려를 지녀야 한다”고 타이른다. 일류 배우가 되더라도 신인 시절 초심을 놓지 말라는 것이다.

“부처님은 향 싼 종이에서는 향내가 나고 비린 것 싼 지푸라기에서는 비린내가 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향 싼 종이와 같은 사람이 되려합니다.”

서로 번갈아 동시에 인(因)이 되는 훈습(薰習)의 힘을 그는 잘 안다. 14대 국회에서 의원으로 활동할 당시 의사당 선서 발표문 가운데 일부이자 지금도 변함없는 신조다.

“저에게 발원이 있다면 설악산 봉정암에 한 번 오르는 거예요. 이생에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봉정암에서 진심으로 참회하면 용서받는다잖아요. 그런데 아직 인연이 닿질 않네요.”

늘 부처님 전에 건강하고 건전하게 살겠노라 다짐하는 그는 부처님의 가피 안에서 늘 평안하길 발원한다. 부처님 계신 곳이라면 남편과 함께 전국 어디든 순례에 나선다는 그는 현재 정릉 대성사에 적을 두고 있다. 불자 연예인을 대표한 두터운 신앙심과 신행활동을 인정받아 2007년에 불자대상을 수상했다.

그의 스케줄은 내년에도 빽빽하다. 1월 17일~3월 1일 서울 동국대 이해랑예술극장에서 연극 ‘친정엄마와 2박3일’을 비롯해 촬영개시를 앞두고 있는 미니시리즈 ‘그대를 사랑합니다’에 이르기까지 신 바람난 그의 연기 활동은 실제 나이를 가늠키 어려울 정도다.

연극 ‘친정엄마와 2박3일’은 암 선고를 받은 딸이 일상에서 벗어나 엄마와 함께 지내면서 일어난 이야기로 세상에 둘도 없는 분신을 주제로 다룬다. 좋아서 싸우고 싫어도 싸우는 이들의 밉지 않은 싸움이 조각보 이어지듯 펼쳐진다. 진부한 소재 같지만 제목만 들어도 손수건을 미리 준비해야 할 것만 같다.

“건강 유지 비결이요? 별것 없습니다. 우리 쌀밥에 구수한 토종 음식이 최고예요.”

큰 병 한 번 앓은 적이 없다는 그는 7년 전 환갑기념으로 종합검진 받은 것이 전부다. 더불어 노래를 좋아한다는 그는 어린 시절부터 대청마루에 앉아 달을 바라보며 가곡 부르기를 즐긴 것이 고단한 삶의 활력소가 됐다. 좋은 모임의 분위기를 가려 철학이 담긴 노래를 부르는 것도 센스란다.

“내뿜는 담배연기 속에 내 빈 마음에 가득 채울 것 없이 또 하루 멀어져 가네. 내가 떠나온 것도 아니요 떠나 보낸 것도 아닌데 내 청춘은 어디로 갔는가….”

‘서른 즈음에’ 노랫말을 시를 읊듯 낭송하다보면 무상한 세월 매일 이별하고 있는 우리가 참으로 소중해진단다. 올곧은 불심을 지닌 그는 젊은 불자들을 만나면 제일 반갑고 기특해 한다.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그는 “지난해는 사회적으로 종교편향이 분분했지만 우리 종교가 귀한만큼 이웃 종교도 귀하게 여기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늘 넉넉한 마음과 편안한 얼굴로 시청자들의 관세음보살이 되어주는 그는 새해 아침 불자들에게 “올 한해도 주변의 모든 이들이 건강하게 정진하기를 바란다”고 인사했다.

글=가연숙 기자 omflower@buddhapia.com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성불화 카필라 신발

신발공학이 만든 가장 편안한 신발 성불화 인기!


▲성불화 남여공용

불자님 평상복에도 세련!
스님 승복 색상에 맞춰 품격!

국내 기능성신발 메이커인 삼양통상에서 스님과 불자님들을 위한 신발 성불화Ⅱ “카필라”를 생산판매하고 있어 성불화Ⅰ에 이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성불화 ”카필라” 브랜드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왕세자를 한 인도의 고대국가 이름이며 과학적인 설계로 신발의 무게를 획기적으로 가볍게 하고, 인체공학적인 설계로 장시간 보행에도 피로감을 감소하게 제작된 기능성 신발이다.

신발내부에는 신소재를 사용해 겨울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찬공기를 차단해 매우 따뜻하고 여름에는 발냄새까지 흡수해 외부로 방출하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으며 신고, 벗기 편하게 원터치 신발끈으로 되어 있다.

최고급 천연방수 “뉴벅” 사용

디자인면에서는 불자님들의 평상복에도 잘 어울리며, 스님께는 승복색상에 맞추어 품격있게 제작하고, 최고급 천연방수가죽 뉴벅을 사용해 세련되어 종교를 떠나 타종교인들도 신청하고 있다. 또한”카필라”를 신고 만행할때 악귀와 잡귀를 미리쫓고 좋은 인연과 귀인을 만나게 만트라를 넣은것이 독특하다. 성불화 ”카필라”는 남여 공용으로 225mm부터 280mm까지 싸이즈별로 제작되어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받아 신을 수 있다.
가격 88,000원

레저, 등산엔 **아이젠 트래킹화!**



문의: 080-775-7575
농협 935-12-355423 박정미

목·기관지가 불편할때

도라지 진액 상쾌 출시!

날씨가 건조해지거나 환절기에는 목, 기관지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이유는 모두 다르겠지만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나 본인 모두 여간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다. 만약 목, 기관지로 고생하는 사람이라면 토종도라지를 눈여겨 보자.

도라지에는 탄수화물을 비롯한 칼슘, 철분이 풍부할 뿐아니라 라시코틴이란 성분이 목보호에 도움을 주어 예로부터 널리 이용되었다. 고려한방제약에서는 과학적인 연구토대로 이 사실을 알게되어 목, 기관지가 불편한 사람들을 위하여 토종도라지에 더욱 좋은 더덕을 추가하여 새로운 신제품 상쾌를 출시하였다. 고농축된 토종도라지 상쾌진액은 티스푼 반스푼 정도를 그대로 먹거나 물에 타서 1일 2~3회 간편하게 음용하면 된다. 가격은 종전 판매가130,000원에서 100셋트 한정 99,000원에 특별할인하여 공급하고 있다.





내용량 : 110g×3병

(주)고려한방제약
문의 1566-1940
농협 483-02-192611 전정호

오늘도 기분 좋은 안심참옻! 「천하무적」

옻가네 토종참옻



- 몸이 무겁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구요?
- 한국 식품연구원 개발
- 서울대학교 안전성 검사

옻이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거나 먹을 수는 없겠지요?

옻은 한번만 먹어도 몸이 따뜻해지고 속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옻이 좋은줄은 알지만 옻탈 걱정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을 위해 누구나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과학적인 연구와 현대기술로 새롭게 개발된 참옻제품이 출시되면서 술을 자주 드시는 분이나 몸이 무거워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분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몸이 따뜻해지고 속이 편안 …

전통식품 현대화를 위한 농림부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식품연구원(정부 출연기관임) 성기승 박사 외 8명이 3년간 연구 개발한 기술로서 서울대학교 수의학과에서 안전성 검사실험을 완료하였다.

몸이 무거워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거나 술, 담배를 자주하시는 분, 운동 또는 공부로 힘든 아이들, 조금만 움직여도 만사 귀찮아 하는 분은 일주일만 먹어도 자신이 직접 느낄 수 있다고 한다. 남녀 누구나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본 제품은 일반형과 더욱 진하게 만든 고급형이 있다.

[일반형] [고급형]



• 내용량 : 1박스(80㎖ ×60포) 2개월분　　• 1병(1.5ℓ)

언론보도자료

“인정받은 만큼 더욱 더 노력 하겠습니다.”

- MBC 고향은 지금 – 옻 안타는 참옻 최초 개발
- KBS 고향의 아침 – 참옻은 몸을 따뜻하게 한다
- SBS 한선교 정은아의 좋은아침 – 옻 탈 걱정 없는 참옻 개발
- 2003.11 한국경제 – 참옻 식품을 아십니까?
- 2003.11 동아일보 – 옻 안타는 참옻
- 2003.10 스포츠투데이 – 참옻 부작용 걱정마. 난 먹어!
- 2003.11 스포츠조선 – 부작용 없는 옻, 안전성 완료
- ▶2006.6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잘쓰면 약이 되는 옻 건강법 협찬
- ▶2006.8 20 KBS 싱싱일요일 – 계절의 보석 옻 협찬
- ▶2006.10.31 KBS 무한지대큐 – 협찬

구입땐 꼭 확인을 …

농림부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식품연구원에서 3년간 연구 개발한 본 제품의 원료는 일반시중 제품보다 신뢰성이 뛰어나 많은 고객분들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상담문의 : 옻가네 참옻농원
무료전화 : 080-838-3366



佛記2553年 己丑年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새롭게 태어난

성의신협 불교지점에서

새해에도 福을

나눠 드립니다

비과세예금 4,000만원 확대

이사장 **최송홍**

성의신협 불교지점

부산시 진구 범천1동 847-18번지
TEL 051) 633-9120

홍 제 사

황 령 선 원

선원장 혜 국
사부대중일동

• 매월(음) 초하루법회, 화엄경강의, 초사흘 신중기도
• 매주 월요일 다라니기도 : 오후7시~9시

■ 부산광역시 진구 전포3동 산 51-2
TEL 051)802-0130

대한불교조계종

영 주 암

[부설] 양정청소년수련관,
영주암유치원, 영주암어린이집

회 주 불국 정관
주 지 범산
신도일동

■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1동 950
종무소 051)754-2210 유치원 051)754-6120
어린이집 051)755-2888 수련관 051)868-0750

대한불교조계종

문 수 사

문수불교문화원

회 주 법 흥
주 지 지 원
신도회장 최묘각심
신도일동

■ 부산광역시 남구 용당동 산 51-8
TEL 051)624-3754, 623-3648

대한불교조계종

범어사 금강암

주지 정 만
대중일동

■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동 546
TEL 051) 508-4509 FAX 508-4870

자비실천수행도량

미 룡 사

부산불교대학

주 지 정 각
지도법사 범 진
총 무 청 명
노 전 정혜이구

신도회장 김광운(동열)
사부대중 일동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1동 323-194
TEL 051)404-4300,403-4848 FAX 051)403-4860

삼천불 봉안 도량
대한불교조계종

정 토 사

주지 산하 덕진
사부대중일동

조계종 신도 전문 교육기관
정토불교대학
무료급식소:밝은세상
울 산 시 민 선 원

■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803-5

맑고 향기로움이 머무는
백옥 부처님 천불기도도량

봉화산 길 상 사

주지 자 인
신도일동

■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신촌마을 8번지
TEL 051)973-5224, 3076

대한불교 조계종 **弘法寺**

國際佛光會 韓國釜山協會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사)한나래문화재단

주지 深 山

■ 부산광역시 금정구 두구동 1220-1
TEL 051)508-0345 FAX 051)508-6561
www.busanbuddhism.com
E-mail: 5080345@hanmail.net

대한불교조계종

운 수 사

사부대중일동

■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3동 산 5번지
TEL 051)317-5671

지장불교 근본도량 **공덕원**

http://www.gongdukwon.net

주지 효 선
신도회장 양반야등

신도회, 지장회, 대원회, 연화합창단 , 솔바람산악회,
열린마음봉사회, 대원청년회, 백상어린이회
사부대중일동

■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1동 370-5 부산은행 5층
TEL 051)625-2253 FAX 051)625-3886

참 나를 찾는 도량

법화도량
해운대동백섬 **대각정사**

부설 법화불교대학

주지 대풍 범각

참선 특강 –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 부산시 해운대구 우1동 1434번지
선프라자 825호
TEL 051)731-2300, 731-3104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 통도사 말사

불 광 사

회주 인산 지준
주지 보 광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동 산125번지
TEL 051)809-1420(초연중학교 뒤)

대한불교조계종 통도사포교원

성 전 선 원

주지 정 도

■ 부산시 남구 문현동 405-3
새문현빌딩 4층
TEL 051)637-4466

사)부산파라미타 청소년협회

총 재 정 여
부 총 재 심 산 원 허
사무총장 일 광
협 회 장 백명숙
고등부지회장 박병택
중등부지회장 손태석
사무국장 이욱태

■ 부산시 연제구 연산5동 1330-9 부산불교신도회관 7층
TEL 051)513-4306 FAX 513-4307

사회복지법인

보 현 도 량

이사장 정 여
이사 심금조, 여현, 정현, 정만, 경보
서영수, 해도, 정허, 박태규, 상현
감사 도경, 박창식 사무국장 정득보

· 부설 서동 무료 경로식당 : 051)531-9887
· 부산시니어클럽 운영 : 051)851-2190
· 부산시고령인력관리센터 : 051)864-6300

■ 부산시 금정구 서1동 302-1885
TEL 051)531-9887, FAX 531-9888

재단법인

一念獎學會

이사장 李大願行 외
임원일동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1동 401-9
부산불교실업인회관내
TEL 051) 818-9914 FAX 818-9916

부산불교교육원

회 주 서림 대성
원 장 박동범
후원회장 김법영

불영소리(기타반) / 여래다회(차공부모임)

■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1동 345-5번지 대성빌딩 3층
TEL 051)466-4080 FAX 051)462-1483
cafe.daum.net/Busanbulgyacademy

대한불교조계종 신도전문교육기관

여래사불교대학

운영위원장 대 성 학장 원 범

입문자반, 불교학과(포교사과정)
여래선방(참선반), 경전반

<2009년 신입생모집(3월30일까지)>

■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1동 345-5번지 대성빌딩 3층
TEL 051)466-4080 FAX 051)462-1483
www.bulgyo.or.kr

대한불교조계종

영축총림 통 도 사

방 장 원명 지종
산중원로 야부 초우
주 지 아산 정우

유 나	상 경	총무국장	항 조
율 주	혜 남	기획국장	정 안
강 주	우 진	교무국장	선 혜
율원장	덕 문	재무국장	정 수
박물관장	범 하	사회국장	선 혜
도서관장	현 담	포교국장	정 묵
사적편찬실장	남 현	호법국장	선 호
도 감	세 봉	원 주	각 림
농 감	보 근		

총림 대중일동

경남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583번지 전화 : 055)382-7182 전송 : 055)382-7196
www.tongdosa.or.kr

"부산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도량"

대한불교조계종 제14교구 본사

선찰대본산 금정산 범 어 사

寺魚梵山井金

조 실 지 유 대종사
주 지 정 여

박물관장	경 선	총무국장	도 관	기획국장	범 수
교무국장	승 연	재무국장	정 현	사회국장	의 정
포교국장	일 광	호법국장	법 귀	연수국장	도 명
사서국장	도 일	원주국장	정 오	도 감	도 우
신도회장	이윤희				

부산시 금정구 청룡동 546 ☎(051)508-3122~6
[www.beomeosa.co.kr]

광우병 파동으로 시끄럽던 2008년이 가고 2009 기축년(己丑年) 소의 해를 맞았다. 12년 전 1997년 정축년(丁丑年), IMF 외환위기 사태로 대한민국이 침통한 세월을 보내더니, 내년 '기축년'도 나라 안팎의 경기 악화로 삶이 고단할 전망이다. '소의 해'를 힘들게 보냈던 우리 삶과 달리 소는 친근하면서도 긍정적인 이미지로 다가온다. '풍요, 부, 길조, 의로움, 자애, 여유' 등의 의미들을 지녔을 뿐만 아니라 '소 같이 일한다'라는 말처럼 소는 순박과 우직함, 근면의 대명사다. 비록 느리지만 인내력과 성실성이 돋보이는 동물이다. 특히 불교에서 소는 '인간 심성의 본래 자리'를 의미한다. 경기가 어렵고 삶에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소처럼 우직하게 내 안의 불성(佛性)을 찾는 한해를 보내자. 이나은 기자

풍요와 부·불성의 상징 '소'

우리 삶속의 소

소는 십이지의 두 번째 자리다. 소띠 해는 12년마다 축년(丑年)으로, 음력 12월은 축월(丑月)로, 일(日)은 축일(丑日)로, 시간은 오전 1시에서 3시까지인 축시(丑時)로 표기된다. 여기서 축년과 축일은 육십갑자 중 을축(乙丑), 정축(丁丑), 기축(己丑), 신축(辛丑), 계축(癸丑) 등의 순서로 표기된다. 방위는 북북동 방향(丑方)을 가리킨다.

농경사회에서 소는 매우 중요한 동물이었다. 우리 민족에게 소는 농사일을 돕는 짐승으로 부와 재산, 힘을 상징했다. 농경의 바탕이라는 인식과 함께 부유와 번창이라는 소에 대한 재산 관념이 이를 증명한다. 고려 · 조선시대에는 매년 농신(農神)에게 풍년을 기원하며 제물로 소를 바쳤다. 해마다 정월 대보름이면 풍년을 기원하는 소놀음굿이 펼쳐졌다. 뿐만아니라 소뼈나 고삐를 걸어 악귀의 침입을 막는 축귀의 역할도 했다.

이러한 기능 외에도 소의 부속물인 뿔, 가죽, 기름, 고기 등은 실생활의 주요 재료로 폭넓게 이용됐다. 소뿔을 쪼개 가공한 화각공예품, 쇠가죽으로 만든 북 · 장구 · 소고 등의 악기, 음식 관련 서적에 보이는 소고기 요리 등 다양한 쓰임은 '소는 하품 밖에 버릴게 없다'는 말에 함축돼 있다.

특히 소는 종교심의 투영에서도 그 상징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불교에서는 사람의 진면목을 소에 비유한다. '십우도(十牛圖)' '심우도(尋牛圖)'는 선을 닦아 마음을 수련하는 순서를 표현하고 있다. 유교에서 소는 의로움(義)을 상징하며, 도교에서는 유유자적함(悠悠自適)을 의미한다.

심우도(尋牛圖)의 의미

'잃어버린 소를 찾는다'라는 뜻을 가진 '심우도송(尋牛圖頌)'의 본래 명칭은 '소를 길들인다'라는 의미의 '목우도송(牧牛圖頌)'이다. 열 단계로 나누어 그려졌기에 '십우도송(十牛圖頌)'이라고도 불린다. 참선 수행자의 수행단계를 잃어버린 소를 찾아 길들여 돌아오는 과정에 비유해 그림(圖)과 시(頌)로 도해한 것으로 선종(禪宗)의 유행과 더불어 다양한 버전이 전한다.

① 심우(尋牛): 동자승이 소를 찾고 있는 장면이다. 자신의 본성을 잊고 찾아 헤매는 것은 불도 수행의 입문을 상징한다.
② 견적(見跡): 동자승이 소의 발자국을 발견하고 그것을 따라간다. 수행자는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본성의 발자취를 느끼기 시작한다는 뜻이다.
③ 견우(見牛): 동자승이 소의 뒷모습이나 소의 꼬리를 발견한다. 수행자가 사물의 근원을 보기 시작하여 견성(見性)에 가까웠음을 의미한다.
④ 득우(得牛): 동자승이 드디어 소의 꼬리를 잡아 막 고삐를 건 모습이다. 수행자가 자신의 마음에 있는 불성(佛性)을 꿰뚫어보는 견성의 단계에 이르렀음을 말한다.
⑤ 목우(牧友): 동자승이 소에 코뚜레를 뚫어 길들이며 끌고 가는 모습이다. 얻은 본성을 고행과 수행으로 길들여서 삼독의 때를 지우는 단계로 소도 점점 흰색으로 변화된다.
⑥ 기우귀가(騎牛歸家): 흰소에 올라탄 동자승이 피리를 불며 집으로 돌아오고 있다. 더 이상 아무런 장애가 없는 자유로운 무애의 단계로 더할 나위 없이 즐거운 때이다.
⑦ 망우재인(忘牛在人): 소는 없고 동자승만 앉아 있다. 소는 단지 방편일 뿐 고향에 돌아온 후에는 모두 잊어야 한다.
⑧ 인우구망(人牛俱忘): 소도 사람도 실체가 없는 모두 공(空)임을 깨닫는다는 뜻으로 텅 빈 원상만 그려져 있다.
⑨ 반본환원(返本還源): 강은 잔잔히 흐르고 꽃은 붉게 피어 있는 산수풍경만이 그려져 있다.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깨닫는다는 것으로 이는 우주를 아무런 번뇌 없이 참된 경지에서 바라보는 것을 뜻한다.
⑩ 입전수수(入廛垂手): 지팡이에 도포를 두른 행각승의 모습이나 목동이 포대화상(布袋和尙)과 마주한 모습으로 그려진다. 육도중생의 골목에 들어가 손을 드리운다는 뜻으로 중생제도를 위해 속세로 나아감을 뜻한다.

#기축년(己丑年) 불교사

△ 689년(통일신라 신문왕 9년): 전길(詮吉) 스님 등 50여 명이 일본으로 감.
△ 809년(통일신라 헌덕왕 1년): 해안사(海眼寺) 창건, 뒤에 은해사(銀海寺)라 개칭함.
△ 929년(고려 태조 12년): 인도의 삼장(三藏) 법사가 구산사(龜山寺)에 옴(930년 입적).
△ 989년(고려 성종 8년): 조종후(祖宗后)의 제기(齊忌)에 도살육선을 금함. 여가(如可) 스님이 송나라에서 <대장경>을 가져옴.
△1109년(고려 예종 4년): 문덕전에 약사도량을, 정영전에 우란분도량을 설치함.
△1229년(고려 고종 16년): 고려 강종의 왕사인 화장사(華藏寺)의 대선사 지겸(志謙) 스님 입적.
△ 1289년(고려 충렬왕 15년): <삼국유사(三國遺事)> 편찬한 일연(一然) 스님 입적.
△ 1649년(조선 인조 27년): 서산대사(西山大師) 4대 제자 중 한 사람인 소요태능(逍遙 太能) 스님 입적.
△ 1769년(조선 영조 45년): 해인사 대적광전 건립.
△ 1899년(조선 고종 36년): 해인사 <대장경>을 인각(印刻)해 각 사찰에 분배함. 동대문 밖에 원흥사를 세움.



통도사 십이지번(十二支幡) 중 '소(丑)' (1896년 作).

불교 속 소 이야기

소는 불교와 친밀한 동물이다. 석가모니 부처님부터 소와 인연이 있다. 부처님의 태자 때 이름은 '고타마 싯다르타'였다. '고타마'의 뜻은 '가장 좋은 소', '거룩한 소'란 뜻이다.

선불교에서 소는 불성, 본래면목, 자성을 상징한다. 중국 당나라 때 남악회양(南岳懷讓, 677~744) 선사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 좌선만 하고 있는 마조도일(馬祖道一, 709~788) 선사에게 "소가 수레를 끄는데 만약 수레가 가지 않는다면 수레를 때려야 하는가, 소를 때려야 하는가?"라고 물었다. 여기서 소는 마음을, 수레는 육신을 뜻한다.

마조 스님의 제자 남전보원(南泉普願, 748~834) 선사도 '남전의 소(南泉水牯)'를 설법했다.

"나는 소 한 마리를 기르고 있다. 그런데 동쪽으로 끌고 가려 해도 남의 논밭을 지나가야 하고, 서쪽으로 끌고 가려고 해도 남의 논밭을 지나가야 한다. 그러니 어디로 가더라도 논밭을 망친 변상을 해주는 도리 밖에 달리 방법이 전혀 없다."

남전 선사가 제시한 소는 보살의 화신이다. 보살행을 성취해 나아가는 남전 선사 자신이고 모든 사람의 본래면목을 뜻한다. 소를 길들이는 것은 분별 · 집착심을 버리는 수행을 의미한다. 소에 대한 이야기는 현실에 바탕해 선(禪)의 일상성을 드러낸 일화다.

고려말 수선결사를 이끌었던 보조지눌(普照知訥, 1158~1210) 스님의 호(號)는 번뇌, 망상을 다스린다는 뜻에서 '소를 기른다'는 목우자(牧牛子)였다.

조선 선불교의 중흥조인 서산 대사(西山大師, 1520~1604)는 <임종게(臨終揭)>에서 진흙소를 얘기한다.

천 생각 만 생각이
붉은 화로의 한 점 눈이다.
진흙소가 물 위로 다니나니
대지와 허공이 다 찢어진다.

여기서 진흙소는 물론 가상의 소이며 헛것이다. 헛것이므로 물위를 걸어 다닌다. 그러나 그것은 그냥 헛것이 아닌, 가상의 것을 통해 가상 이상의 진실을 꿰뚫는, 일체 유위법을 다 무너뜨리고 무위의 법에 도달하는 본래마음을 상징한다. 서산 대사의 진흙소는 근대 한국불교의 선지식이었던 경허성우(鏡虛惺牛, 1846~1912) 스님으로 법맥이 이어져 현묘한 도(道)의 작용을 표현한 '진흙소의 울음(泥牛吼)'으로 되살아났다.

누구나 인생을 살지만 제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자신의 행위를 자각하면서 살아가는 일은 어렵다. 그러할수록 내 본래면목(소)을 길들이는 방법이 중요하다. 이미 길들여져 있다는 도리를 터득하기에 앞서 스스로가 불성이 자신에게 이미 갖춰져 있음을 수행을 통해 자각해야 함을 선사들은 '소'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와 같은 도리에 대해 청거호승(淸居皓昇) 선사는 목우도(牧牛圖) 12장을, 태백산의 보명(普明) 선사는 목우도 10장을, 불국유백(佛國惟白) 선사는 목우도 8장을 각각 제시했다.

구 단 구 궁 법

◆ 저자법화스님 직강

1. 손으로 짚어 5분안에 길 .흉. 성패 직업, 성격, 명운을 꿰뚫는다.
1. 철학을 배웠으나 신통찮으신 분이나 초보자환영
1. 2주 완성 (책임지도)

당신도 2주후면 『최강자』가 될 수 있다.

▌서울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46-22(1층)
7호선 학동역 1번 출구 임페리얼 펠리스 호텔 뒤
☎ (02)3443-2723 / 010-9399-7442

▌부산
부산시 동래구 온천 2동 926
미남로타리 금강예식장 뒤 금어산방
☎ (051)554-6040 / 010-9399-7442

남자 39세, 음력 4월 9일 밤 10시 30분

나 이	년비결문구	변화기종점	명운합수
31세	④⑧⑧	13 12	
32세	⑤⑨⑨	22 21	
33세	⑥①①	31 30	13(양화)
34세	⑦②②	40 39	안보이는 수
35세	⑧③③	49 48	4(음화)
36세	⑨④④	58 57	
37세	①⑤⑤	67 66	계절오행
38세	②⑥⑥	76 75	4월(음화)
39세	③⑦⑦		

※ 성격 : 특별 임무자인양 행세하고 남다른 명예심이 있고 개혁적 성향과 새로운 변신을 위하여 자주이사, 변동사치를 좋아한다.
※ 직업 : 연예인, 사회운동가, 이론종교가, 드라마작가
※ 운 : 파란만장한 일생이 펼쳐진다.

손으로 짚으면 39세 ③⑦⑦문구수가 나온다.
지난날을 보니 31세되는 해는 ④⑧⑧의 문구수로써 돈있는 여자를 만나 32세 ⑤⑨⑨의 수로 이어져 자기 소유의 라이브카페을 마련하게 되었다. 그러나 33세때 ⑥①①의 문구수로 연결되어 일년내내 라이브카페 영업이 잘되지 않아 34세 초반⑦번 문구가 오는 시기에 영업장을 다 정리하고 여자와 헤어졌다. 34세 후반 목적운 ②②문구와 35세 전반은 ⑧문구로 ②②⑧이 되어 한국으로 돌아와 연상의 여인을 만나 재혼했다.
36세⑨④④ 37세①⑤⑤⑤ 38세②⑥⑥의 문구수가 되어 처의 도움으로 거금을 들여 서울에서 라이브카페를 운영하여 경영상의 수지도 좋았고 인기도 상승했다. 그러나 39세 ③⑦⑦의 흉수의 문구로써 가을지나 겨울에 접어들면서 하는일들이 전부 실패로 돌아가 망해 버렸다.
54, 55, 56세때 3년 아홉자리 문구수일때 변화기와 명운합수, 안보이는 수 계절오행의 妙星의 충돌로(화극금)불꽃이 일어나 한때나마 인기가수가 되고 대성공을 거두겠다.

◆ 개 강 일 : 2009년 1월 12일까지 접수 / 1월 13일 오후 2시 ◆ 수 강 료 : 100만원 (일주 1회, 6주 완성) ◆ 계좌번호 : 부산은행 233-12-045334-2 (예금주: 박옥균)



佛記2553年 己丑年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대한불교 조계종 제10교구 본사

銀 海 寺

주 지 **돈 관**

부 주 지	**선 광**	관 장	**돈 명**
기획국장	**성 산**	박물관부관장	**혜 봉**
교무국장	**원 조**	도 감	**혜 휴**
재무국장	**혜 안**		
포교국장	**선 주**		
호법국장	**보 림**		
사회국장	**혜 담**		

은해사승가대학원 원 장 **요산 지안** 교무처장 **정인**

노인장기요양지정기관 **은해사 포근한집** 054)335-3314
자연과 함께하는 장례문화 **은해사 수림장** 054)335-3318

■ 경북 영천시 청통면 치일리 479번지 전화 054)335-3318~9, FAX 054)335-0293

佛紀 2552年

대한불교조계종
제11교구본사

불 국 사

주 지 **성 타**



관 장	종상	교 무	정수
학 장	덕민	재 무	종천
선원장	종우	사 회	각천
부주지	장주	포 교	성요
총 무	종천	호 법	종민
기 획	정문	신도회장	변영우

부설기관

- 분당 포교당 석가사
- 불국사 문화회관
- 불국 성림원(불국사 부설 노인실비요양시설)
- 불국 유치원
- 성림 어린이집
- 경주 장애인 종합복지관

대 중 일 동

■ 경상북도 경주시 진현동 15 TEL 054)746-9912~4 / FAX 054)746-1476

대한민국 제1의 기도 성지 - 팔공산 선본사 갓바위

禪本寺

하시는 모든 일에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빛과 은은한 향기를
내뿜는 꽃이 있듯이 실천이 따르는 사람의 말은
그 메아리가 조용히 그리고 멀리 울려퍼진다.



대한불교 조계종 직영사찰 선본사(갓바위) |
경북 경산시 와촌면 대한리 587 | TEL 053)851-1868~9

대한불교천태종
동해 관음성지

울릉 해 도 사

주 지 **정비룡**

신도회장 **박 봉 식**



남양 성 인 사
신도회장 **도영국 外**

태하 삼 도 사
신도회장 **김도근 外**

신 도 일 동

■ 경북 울릉읍 도동 584-6 TEL 054)791-2471

대한불교조계종

용 연 사

「비슬산 천년고찰
부처님 사리모신 적멸보궁」

회 주 **지 성**
주 지 **상 원**

신 도 일 동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반송리 882
TEL 053)616-8846

한국불교대학 신입생모집

**대구큰절, 경산도량,
칠곡도량, 구미도량 동시모집**

▸ **가장 거창하고 가장 실속있는 불교대학!
조계종 인가 신도전문교육기관!**

- 화요일 오전반, 목요일 오전반, 금요일 오전반 / 주1회 공부
- 학력, 연령 제한없음
- 會主 우학스님(불교TV 및 불교라디오 법문) 직강
- 입학하시는 분들께 "기도의 힘" 책과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대구큰절 053)474-8228	**경산도량** 053)816-8228
칠곡도량 053)313-8228	**구미도량** 054)443-8228

※ 행자(예비스님) 모집
문의 : 010-2488-8228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대구 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대한불교조계종

송 림 사

주 지 **혜 성**

대 중 일 동

경북 칠곡군 동명면 구덕리 61-6
TEL 054)976-8116
FAX 054)976-6802

대한불교조계종

천년고찰 임 휴 사

주 지 **현 장**

신 도 일 동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1321
TEL 053)632-4844, 641-4844
FAX 053)639-5033

대한불교조계종

각원사 울산포교원

**연화사
호계불교대학**

주 지 **덕 륜**

호계불교대학
재학생 일동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268-6
TEL 052)293-5550
FAX 052)293-5540

"'노고추'의 짱짱한 살림살이 통해 구도 힘 얻으세요"

10년 전 '내 얘기를 소설로 써 보라' 직접 권유 받아
유적 2년간 답사… 공부하다 죽으라던 가풍 본받아야

소설가 정찬주

나의 몸은 본래 없는 것이요
마음 또한 머물 바 없도다.
무쇠소는 달을 물고 달아나고
돌사자는 소리 높여 부르짖도다.

2001년의 마지막 날 오전 10시 23분, 조계종 제10대 종정 혜암당 성관 대종사가 상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임종게를 남기고 원적에 들었다. "공부하다 죽어라." 승가와 재가를 구별하지 않고 오로지 공부하다 죽으라고 서릿발 같이 독려하던 혜암 대종사의 생애는 끝없는 정진으로 일관됐다.

해인사로 출가한 27세 때부터 누워서 잠자지 않고 하루 한끼만 먹는, 이른바 장좌불와와 일종식을 철저히 지켰던 혜암 대종사. 오래 닳아서 뾰족한 송곳은 주머니에 감추어도 밖으로 그 끝을 드러내듯 혜암 대종사도 선기와 가르침이 날카로왔다. '노고추(老古錐)'였던 혜암 대종사는 종단의 크고 작은 분열이 있을 때에도 산문을 박차고 나와 종도의 화합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았던 현대 한국불교의 사표다.

아직도 많은 불자들에게 생생하게 기억되는 혜암 대종사의 짱짱한 생애가 소설로 되살아난다. 이미 성철 스님과 일타 스님의 생애를 소설로 조망했던 정찬주 작가가 현대불교의 지면을 통해 혜암 대종사의 옹골찬 가풍을 불자들에게 전하게 된다.

푸른 대나무가 겨울바람에 휘청휘청 하늘을 간질이는 12월 중순에 그의 토굴 이불재(耳佛齋)에서 구도소설 혜암 스님 이야기 '가야산 정진불'을 설계하고 있는 정찬주 작가를 만났다.

정찬주 작가는 10년 전인 1998년 혜암 대종사로부터 "내 얘기를 소설로 쓸 수 없나?"라는 질문을 받은 바 있다고 한다. 정찬주 작가는 "불교TV '뜰 앞의 잣나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였습니다. 4시간 동안의 인터뷰가 끝난 뒤에 툭 던지시듯 하신 말씀인데 그게 씨앗이 돼 이렇게 소설을 쓰게 됐습니다"라고 회고한다. 정찬주 작가는 혜암 대종사가 자신의 가슴에 심어준 그 '씨앗'이 발아되기까지 10년 동안 한 번도 대종사를 잊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혜암 대종사에 대한 기억이 더 있으신지요?

"혜암 큰스님을 떠올릴 때마다 제 마음이 밝아집니다. 저는 큰스님을 뵙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두타제일 가섭존자를 생각했습니다. 큰스님의 일생은 철저한 두타행의 연속이었잖아요. 요즘 우리 사회는 수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만, 큰스님처럼 철저하게 수행을 지도하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저에게 있어 큰스님은 언제나 살아계시는 스승입니다. 중국의 선종 유적지들을 순례할 때나 인도의 성지를 순례할 때 늘 큰스님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수행에 모든 것을 바친 구도자들의 흔적을 바라보면서 큰스님을 떠 올린 것은 역사속의 수행자들과 제가 만났던 큰스님의 모습이 같은 것으로 느껴졌기 때문일 겁니다."

– '가야산 정진불'은 실존했던 인물과 현재 살아 계시는 분들이 등장하는 실명소설인데 그만큼 혜암 대종사의 삶을 구체적으로 취재해야 가능하지 않을까요?

"실명소설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소설로서 허구성은 어느 정도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큰스님의 생애를 얼마나 잘 묘사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고, 큰스님의 유훈을 간절하고 명료하게 전달하기 위해 얼마나 설득력 있게 이야기판을 짜느냐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 소설을 쓰기 위해 큰스님 상좌스님들을 비롯해 주변의 많은 인물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자료도 모아 두었고요. 진주 호국사의 성법 스님, 원당암 감원 원각 스님, 강진 백련사 주지 여연 스님, 고양 흥국사 주지 대오 스님, 보성 봉갑사 각안 스님을 비롯한 문도 스님들이 이 소설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십니다. 또 큰스님을 모시고 공부했던 재가불자들도 증언과 자료를 챙겨줘 큰 도움이 됐습니다."

–혜암 대종사의 흔적을 찾아 답사하신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네, 2년 여 동안 부지런히 다녔습니다. 지리산 상무주암과 도솔암, 문수암은 큰스님께서 수행하시면서 중창하신 도량들입니다. 큰스님께서는 빈 절터에 수행하기 좋을 만큼 불사를 하시고는 바로 다른 곳으로 떠나시길 반복했습니다. '내가 했다'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려는 철저한 무주상의 정신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태백산의 동암과 남해 용문사와 염불암 설악산 오세암 등을 답사했고 가는 곳마다 큰스님의 뜻을 읽으려 노력했습니다."

– '가야산 정진불'이라는 제목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글자 그대로입니다. 큰스님께서는 가야산으로 출가하셨고 제방에서 정진하시다가 다시 가야산에서 법을 일으켰습니다. 가야산의 중심도량인 해인사에서 유나를 거쳐 부방장, 방장 그리고 조계종 종정까지 지내셨으니까요. 무엇보다 원당암 달마선원을 근거로 재가자들의 선수행을 극진하게 독려하신 점이 다른 큰스님들과 다른 점입니다. 아무튼 큰스님께서는 70이 넘은 노령에도 대중생활을 하시는 등 가야산에서 철두철미한 공부의 길을 닦으셨으니 '가야산 정진불'이란 제목은 그대로 큰스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소설의 전개 방식은 어떻게 설계하셨는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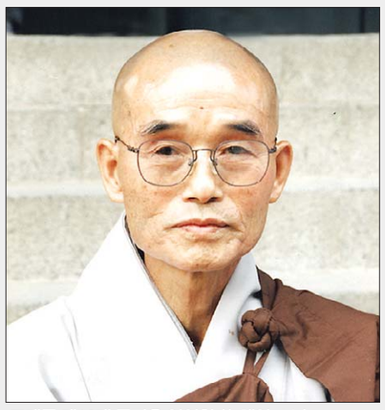
"이 소설은 한사람이라도 더 제도하려 무진 애를 쓰시던 큰스님의 간절지심이 얼마나 독자들에게 전달되느냐에 성패가 달려 있다고 봅니다. 이 소설을 계기로 공부하다 죽을 각오를 하는 사람이 늘어난다면 저는 큰스님께서 심어주신 '씨앗'을 잘 가꾼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주간신문에 연재를 하는 만큼 소설의 전개방식은 중요합니다. 이 소설은 한 사람의 나레이터를 통해 전개될 겁니다. 자신의 존재에 대해 근원적인 의심을 일으킨 현대인을 상징하는 나레이터가 이야기를 이끌어 가는 병렬식 소설인 셈이지요. 그러니까 이 소설을 읽는 독자들은 결국 나레이터와 일체감을 이루게 될 때 큰스님의 진면목을 알게 되겠지요. 그렇게 되면 큰스님이 간절하게 가르치신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것은 다시 정진하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독자들께서 소설을 읽으시면서 수시로 저를 경책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대불교'에 혜암 스님의 일대기를 소설로 연재할 정찬주 작가는 "두타행자로서의 혜암 스님을 조명하고 싶다"고 밝혔다.

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혜암 스님 연보



조계종 제10대 종정을 역임한 故 혜암 스님.

–1920년 3월 22일 전남 장성군 장성읍 덕진리 출생.
–1945년 일본 유학.
–1946년 합천 해인사에서 인곡 스님을 은사로, 효봉 스님을 계사로 수계득도.
–1947년 문경 봉암사에서 결사.
–1948년 해인사에서 상월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 수지.
–1949년 범어사에서 동산 스님을 계사로 보살계 수지.
–1951년 인곡 은사로부터 '혜암당'이라는 법호 받음.
–1957년 오대산 사고암 토굴에서 용맹정진 중에 심경을 게송으로 읊다.
–1967년 해인총림 유나.
–1970년 해인사 주지.
–1979년 해인총림 선원에서 안거(12년 연속).
–1985년 해인총림 부방장.
–1987년 조계종 원로의원.
–1991년 조계종 원로회의 부의장.
–1993년 해인총림 제6대 방장(1996년까지).
–1994년 원로회의 의장(1999년까지).
–1999년 5월 조계종 제10대 종정 취임.
–2001년 12월 31일 원당암 미소굴에서 원적.



해인사 비림에 조성된 혜암 스님 부도와 부도탑비.

"혜암 큰스님 생애 시각적으로 표현"

화가 최문정

"혜암 큰스님의 일생을 통해 인간의 근원과 우주의 진리를 탐구하는 대장정에 동참하게 돼 기쁩니다. 소설이 혜암 큰스님의 생애를 다룬다면, 저는 그림을 통해 큰스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절정이고 핵심적인 부분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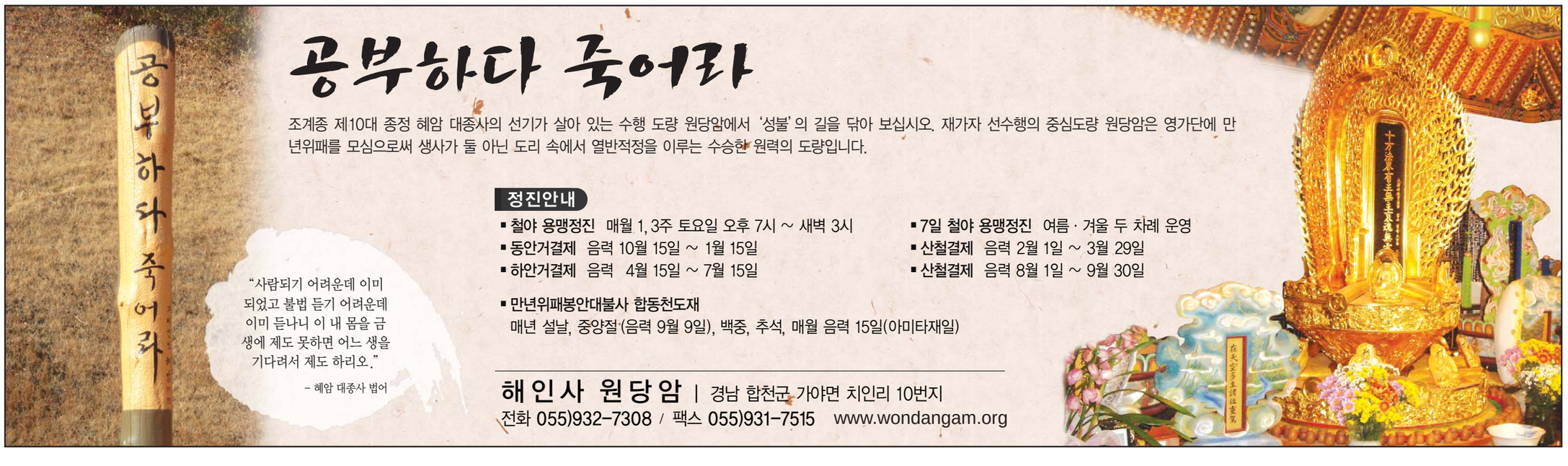
'가야산 정진불' 연재의 삽화를 맡은 최문정 화백(사진)은 중요문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전수교육조교다. 단청장이 소설의 삽화를 그린다는 것이 얼른 이해가지 않는 일이지만 최 화백은 전통불화에 대한 탄탄한 기반을 토대로 비구상에 발랄한 솜씨를 보여준다. 그의 실험정신과 새로운 분야에 대한 도전의식은 전통미술과 현대회화를 망라한 화단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저 소설을 이해시키는 삽화로 작업할 생각은 없습니다. 소설의 한 부분으로 존재하는 삽화가 아니라 소설의 핵심을 모티브로 새로운 이야기를 끌어 나가는 역할로서의 삽화를 추구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소설과 그림이 다른 형식으로 같은 얘기를 하는 효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만, 소설과 그림이 최대한 조화를 이뤄 독자들에게 최대한의 감동을 안겨줘야 할 것이므로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나도 두타행을 한다고 생각해야죠."

이화여대,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을거쳐 고려대 정책대학원 CRO 과정을 이수한 최 화백은 만봉 스님에게 불화를 배웠다.



임연태 기자



‘낮은 물이 마중물(실마리)이다.’

초하루, 보름 법회날만 사찰을 찾는 이들은 절대 알 수 없는 도량의 마중물 공덕이 있다. 절일을 삶의 일부로 보살피며 보사(保寺)로 사는 보살들. 서울 봉원사 · 봉은사 · 부산 홍법원 · 김제 금산사에서 법향을 전하는 그들의 보살행을 통해 신바람 나는 기축년, 감로의 희망 머금은 한 해를 살아보자. 활력 넘치는 대통물의 해답을 도량의 마중물에서 찾는다.

“여력있을 때까지 최선”

봉원사 공양주 김복순 보살

“눈 뜨고 감을 적마다 ‘관세음보살’ ‘아미타불’ 나오는 데로 찾아~.”

새벽 4시 여명이 감도는 시각, 도량석 목탁 소리가 도심 사찰을 다독인다. 서울 봉원사(주지 일운) 삼천불전 아래 자리한 공양간에는 동지 팥죽에 들어갈 옹심이가 채반에 가득하다. 그곳에서 만난 김복순 보살(78 · 보문행)의 분주한 손길도 쉴 틈이 없다. 무자년 삼동산림결제(三冬山林結制) 기간에 동지와 관음예문(중산림)까지 겹친 탓에 정신 없을 법한데도 노보살의 정갈한 분주함은 절도 있게 느껴진다.

“공양주로 인연 맺은 지 20년도 넘었지. 봉원사 관음회서 삼천불전 기와불사 접수받는 일을 할 때였어. 공양주 보살이 다리를 다쳐 당분간 봐준다는 것이 이렇게 세월이 흘렀네.”

오가피, 울릉도산 부지깽이, 더덕무침 등 10가지 반찬이 영단에 올릴 것과 200여 대중 공양물로 구분돼 그릇에 척척 담겼다. 매일 새벽 일어나는 일이 고단하지 않느냐는 물음에 “눈이 저절로 떠져. 부처님 가피 뿐이 없다고 봐. 하루도 변함없이 새벽 3시면 일어나 솥에 물을 끓이니까”라는 답이 돌아온다.

달리 비결이랄 것 없는 참기름 간에 퉁그러진 손맛으로 설설 버무려진 나물을 보고 있자니 한 방울의 물에도 천지의 은혜가 스민다는 부처님 말씀이 떠올라 절로 고개가 끄덕여진다.

“신도들이 맛있게 먹고 건강한 모습으로 도량을 다시 찾을 때 가장 뿌듯하지. 움직일 여력이 있을 때까지 하루 세 번 밥 짓는 일만은 최선을 다할 거야.”

김해 진영에서 태어나 마산에서 결혼해 맹장 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로 올라왔다는 그가 봉원사 대중이 된지도 30년이 됐다고 헤아린다. 시계가 오전 5시로 향하자 밥 짓을 때라며 찜통에 불린 쌀을 넣고 밥물을 맞춘다. 문을 닫기 전 두 손을 모아 경건한 합장 반배를 올린다. 밥은 그에게 수승한 스승이자 스스로를 일깨우는 죽비와 같았다. 부처님 전에 마지공양을 올리겠다는 김보살의 서원이 올 한해도 지속되길 바란다.

가연숙 기자





“부처님께 감사해 청소”

부산 홍법사 이복개 보살

“남들 안하는 궂은 일만 하는 보살이에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더라고요.” “근데 그 보살님은 보수 안 받아요?” “아이고, 10년째 오직 신심만으로 청소하는 분입니다.”

부산 홍법사(주지 심산) 이복개 보살(61 · 불성화)은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가장 지저분하고 눈에 띄지 않는 도량 청소를 10년째 하고 있다. 자판기 안 눌어붙은 커피 찌꺼기, 화장실 변기, 공양간 개수대 수채 구멍, 채소밭 거름주기, 스님처소 장작 패기 등 홍법사의 모든 허드렛일은 이 보살의 손을 거쳐 간다.

그는 “맨 처음 수계받을 때 스님께 염주를 받으면서 마음속으로 ‘참다운 불자가 되겠습니다’라는 다짐을 했고, 부처님께 너무 감사해서 도량 청소라도 잘 해드려야겠다고 마음먹게 됐다”고 청소를 시작하게 된 연유를 설명했다.

그중 가장 신경 써서 닦는 곳은 개수대 거름망이라고. “그물망에 누렇게 낀 때를 보면 꼭 내 삶의 ‘업(業)’처럼 여겨져서 늘 삶는다”고 말했다. 세심하고 부지런한 성품답게 이 보살의 하루는 남들보다 일찍 시작된다. 새벽 5시 30분부터 출근하는 아들과 등교하는 손자, 새벽일을 끝내고 돌아온 남편의 아침상을 준비하고, 약수터에 가 물을 떠오면 바쁜 오전 일과가 끝난다.

점심식사를 챙겨먹을 겨를도 없이 절에 도착해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오후 6시까지 청소를 한다. 매일 6시간 꼬박 절에서 보내지만 정작 법회에 들어가거나 기도하는 시간 없이, 법당 밖 청소를 하며 조용히 관세음보살을 정근한다. 이 보살은 “우리 절은 행자스님이나 비구니스님이 안계시니 허드렛일을 할 사람이 없고, 큰 보시를 할 형편이 안 되니까 내 공부를 조금 덜하더라도 더러운 곳을 닦는 것 뿐”이라며 수줍게 웃었다.

더 많은 이들의 성불을 위해 언제나 법당 밖에서 허드렛일을 도맡아 해내고, 함께 일하는 도반들을 위해 등에 옷을 넣고 ‘곱새(곱추)춤’을 추며 각설이타령을 신명나게 부를 줄 아는 이 보살이야말로 홍법사 도량의 꽃이다.

박지원 기자

“가슴으로 불교 느끼도록”

봉은사 탬플스테이부 안영단 보살

서울 봉은사(주지 명진) 외벽에 그려진 심우도 · 팔상도를 보던 한 외국인이 “나는 기독교 신자지만 불교를 더 사랑한다”고 말한다.

봉은사 템플스테이부 안영단 부장(55 · 고불심)이 몇달 전 “서양에서는 인간이 가장 높은 동물이지만 불교에서는 인간, 동 · 식물 모든 일체가 평등하게 공존한다”고 설명할 때 일어난 일이다.

2008년 한 해에만 1만2000여 외국인이 방문할 정도로 봉은사가 외국인들에게 인기가 많은 이유는 비단 근처에 인터콘티넨탈 호텔이 위치한 것 때문만은 아니다. 외국인들이 사찰을 방문했을 때 그들의 언어로 전각 이곳저곳을 설명하고, 발우공양 등 불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원봉사 도우미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 중심에 안영단 부장이 있다.

“어렸을 때는 아무것도 모른 채 기복신앙으로 불교를 믿었다. 하지만 1996년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봉은사 불교대학에서 강의를 듣다보니 그것이 참 불교가 아님을 알았다.”

안 부장은 1997년부터 봉은사 교무부, 기획부 등에서 봉사를 해오다 2006년 초부터 템플스테이부에서 외국인들을 위한 봉사를 하고 있다. 영문학 전공, 영어 교사 등의 경험을 최대한 살린 봉사 무대를 찾은 것. 그는 매주 월 · 목요일 담당 봉사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부장으로서 요일별 봉사자가 사정이 있으면 다른 요일에도 봉사한다. 외국인들이 템플스테이할 때에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모든 준비과정과 일정을 함께 하기도 한다.

안 부장은 바쁜 일정 중에도 봉은사에서 진행하는 <법화경> <금강경> 등의 법문 수업에 빠지지 않고, 참선 등 수행도 게을리 하지 않는다. 본인부터 많은 공부가 돼있어야 외국인들이 불교를 가슴으로 느낄 수 있을 것이라는 신념 때문이다.

“많은 외국인들이 연달아 사찰을 방문해 정신없이 바쁠 때 더욱 기쁘다”는 안 부장. ‘봉사의 프로’로서 외국인들에게 불법을 전하기 위해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불법 홍포에 힘쓰고 있는 안영단 부장의 노력이 새해에도 계속 빛날 수 있길 기대한다.

김진성 기자





“깨어있는 휴식 이끌고파”

금산사 템플스테이 류영미 보살

“언제나 금산사 템플스테이의 보이지 않는 그림자이고 싶습니다. 참가자들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작은 깨침을 얻어가는 것이 곧 나 자신의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템플스테이 업무가 힘들고 어렵기는 하지만 저에게는 수행의 방편이자 포교라고 여겨집니다.”

전국에서 연간 약 5000여 명의 참가자들이 체험하는 금산사(주지 원행) 템플스테이 현장에 가면 한 결 같은 환한 미소와 온화한 말씨로 참가자들을 맞이하는 이가 있다. 바로 금산사 템플스테이를 담당하고 있는 류영미(38 · 일체향) 보살이다.

낯선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과 타 종교인들이 참가하는 산사체험 현장에서 어색함을 푸근함으로 바꾸는 사람. 그러한 류 보살의 후덕함에 긴장감은 눈 녹듯 사라진다.

“사찰 종무소라는 곳이 불자들을 직접 대면하는 첫인상인 만큼 친절과 봉사 정신 없이는 일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템플스테이 참가자는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분위기가 썰렁하기 십상인데도 금산사 산사체험은 항상 밝은 웃음소리로 넘쳐요.”

산사체험 참가자들이 금산사에 머무는 동안 불편한 곳은 없는지 항시 웃는 낯으로 많은 사람을 대하는 것이 분명 쉬운 일은 아니다. 금산사 템플스테이 팀장 일감 스님을 보좌하며 피곤함도 잊은 채 기획, 홍보에서부터 잡다한 뒷정리까지 곳곳에서 그의 손길은 빛을 발한다.

금산사 산사체험의 주제는 ‘깨어있는 휴식’이다. 복잡한 현대 생활에 지쳐 정신적 갈증을 호소하는 이들에게 심적 편안함으로 스트레스를 해갈해주고자 힘쓴다. 그러한 그가 있기에 참가자들은 여유롭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

일감 스님은 “피곤을 뒤로한 채 묵묵히 참가자들을 돌보며 참가자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곧 자신의 기쁨으로 알고 생활하는 일체향 보살의 모습이 진정 보살이 아니겠는가”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마음을 열고 모두가 하나되는 시간을 마련하는데 동력이 되는 일체향 보살의 마음씀이 향기롭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제8기 불교의식 (범음,범패) 학인모집

◆ 초급반 (3개월) :
사물 (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불공시식 등

◆ 중급반(3개월) :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기초범음, 범패)

◆ 고급반(3개월) :
49재, 천도재, 수륙재, 예수재, 기타모든의식

◆ 특수반 :
천수바라 작법(나비춤) 요잡바라
사다라니바라 살풀이 연화무

■ 불교무용에 관심있으신분 환영함
(특수반수업은 매일 가능함)

■ 매주 강의요일 : 수 · 목 오후 3시 ~ 5시

본원은 초종파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함.

사무실 : 부산시 금정구 장전2동 598-12 보리원
전화 051)555-0969 / 핸드폰 011)849-0961
불교모든행사와 의식을 근기에맞는 스님들을모시고 여법하게봉행하여 드림.

전통범음범패전수원 원광사



佛記2553年 己丑年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생활불교 실천불교"

대한불교진각종
대구교구청

교구청장 진산

대한불교 진각종
jin-gak buddhist order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 3동 584-1
TEL 053)255-1450,1411
FAX 053)252-9703
홈페이지 www.jingak.or.kr

사단법인 정법

대승불교조계종

종 정 운파 해동
총무원장 동천 고림
기획실장 동하 해공
선학원장 동암 해광
국제포교원장 성원 보광

◇국제포교원 미국 뉴욕지원 (관음사)
◇L.A 지부 (봉원사)
◇일본 오사카 지부 (홍련사)
◇고베 지부 (자광사)
◇전국 대승승가회, 전법사회, 여법사회

총무원 : 경북 상주시 낙동면
상촌 1리 산 112-2
상원사 : 054)534-3268

(재)대한불교 일붕선교종

대구교구종무원

종무원장 석담
부원장 해도
총무국장 무상
홍보국장 고봉
감사 도정
사회국장 무경

회원종도 일동

경북 경산시 하양읍 대학리 249-11
TEL 053)854-1417

대한불교 원효종

대구교구종무원

종무원장 불은정사 서응
종무국장 동인사 운봉
교무국장 미륵암 보현
재무국장 정현사 진율
사회국장 귀원사 보덕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 1342-7
TEL 053)586-4700
FAX 053)586-0078
H.P 011-525-1717

"생활불교 실천불교"

대한불교진각종
포항교구청

교구청장 정효

대한불교 진각종
jin-gak buddhist order

경북 포항시 북구 대흥동 664번지
TEL 054)246-2231
FAX 054)248-5612

대한불교천태종

대성사

주지 김도산
총무 이도각
신도회장 김우영

• 부설
동해유치원 053)652-5760
대구금강불교대학 053)624-0133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동 520-3
TEL 053)624-0542
FAX 053)623-0265
홈페이지 www.daesungsa.or.kr

高靈 기와
(주) 高靈청기와

(고령기와는 명품기와만을 만듭니다)
KS 表示許可
중소기업우수제품 인증工場

代表理事 金段東

■ 공장 : 경북 고령군 개진면 구곡리 350
TEL 054)954-8000(代)
FAX 054)954-5335
www.rooftile.co.kr
e-mail:gr@rooftile.co.kr

지산치과의원

원장 송준기

「가족같은 병원, 환자 중심의 병원」

• 지산치과의원 원장
• 치의학 박사
(임플란트, 보철학 전공)
• 단국치대 임상교수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 2동 1188-2
TEL 053)782-0022
FAX 053)782-2875

합동석물(주)

석재가공 석공사
전문건설업체

대표 탁희열

경북 고령군 다산면 나정리 714-10
TEL 054)955-8200~1

(주)화동섬유

웰빙시대에 맞는 건강양말 출시
'발냄새의 희소식, 쾌적한 생활의 시작'

발명특허 NO.0306046
실용신안특허 NO.0165070
NO.20-0420217

발냄새, 굳은살, 습진에 탁월한 효과
LIHIS 건강양말 RAON 건강양말

※효과가 없을 시는 항상 리콜 해드립니다.

TEL 053)657-1244

대한불교조계종

고방사

주지 성현

■ 경북 김천시 농소면 봉곡리 485
TEL 054)431-6822, 6823

대한불교조계종

팔공산 도림사

주지 원오

■ 대구광역시 동구 진인동 930-5
TEL 053)981-7276 / FAX 053)981-7286

대한불교조계종

대구경북포교사단

주지 김상수
단원일동

■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1가 113-4(3층)
TEL 053)745-4108 / FAX 053)745-4109

대한불교조계종

아헹가 요가센터

서울교대지원 TEL 02)599-8150
아헹가요가센터 · 청량선원
대구 팔공산 본원 TEL 053)981-3553
사부대중일동

대한불교조계종

감천사

■ 대구광역시 동구 진안동 151-1
TEL 053)982-0562 / FAX 053)983-6668
사회복지법인 감천복지재단
후원계좌 : 대구은행 179-04-153377-001
(예금주: 감천복지재단)
TEL 053)986-5522~3 / FAX 053)986-5524
www.gamchun.com

대한불교조계종

문수사

'자연 미륵부처님 기도성취도량'

주지 혜천

■ 경북 구미시 산동면 인덕리 산5-1
TEL 054)471-3771 / H · P 016-371-4115

대한불교조계종

대해사

"도(道)에 이르는 길은 어렵지 않나니
오직 간택함을 싫어 할 뿐이로다.
다만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통연히 명백하리라" - 신심명 중에서 -

사부대중일동

■ 경북 경산시 대동 160-6번지
TEL 053)818-4055
홈페이지 http://www.daehaesa.org

대한불교조계종

장암사

주지 도명
대중일동

■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 산 83
TEL 053)762-3800

대한불교조계종

성주 취운향당

주지 능혜

■ 경북 성주군 선남면 도성리 845
TEL 054)933-6371~2 / FAX 054)933-6373

대한불교조계종

팔공산 구룡사

주지 효재

■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기성 2리 328
TEL 054)975-9045 / H · P 011-9045또9045

“내 부처 속이지 말고

수산 스님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전남 영광군 불갑면 모악리에 위치한 불갑사(佛甲寺)는 역사서에 기록된 현존 최고(最古)의 사찰이다. 백제에 불교를 처음 전한 인도의 마라난타(摩羅難陀) 스님이 중국 동진(東晋)을 거쳐 백제 침류왕 1년(385)에 영광땅 법성포로 들어와 모악산에 처음 창건한 절이다. 모든 불교 사찰의 시원(始源)이요 으뜸(甲)이 된다고 하여 불갑사라고 이름지었다고 한다.

구랍 22일, 서해안고속도로 상에서 간간히 흩뿌리던 눈발은 고속도로를 벗어나 모악산 골짜기로 들어서자 폭설로 바뀌었다. 1623년 전 ‘마라난타 스님이 서쪽에서 온 뜻(摩羅難陀西來意)’을 화두 삼아 기축년 첫 선지식을 찾아가는 길은 미끄러운 눈길 탓에 정신차리며 나아갈 수 밖에 없었다.

조심조심 달려간 불갑사는 모악산이 연출한 눈부신 설경 속에서 웅장한 자태를 드러내고 있었다. 마라난타불교대학 사무소 겸 종무소에 들린 후, 염화실로 가는 길목에 부지런히 눈을 쓸고 있는 불갑사 주지 만당 스님께 합장인사를 하니 얼굴 가득 웃음꽃이 피어난다.

조실방에 들어가 고불총림 방장 수산지종(壽山知宗) 큰스님께 삼배를 올리자, 자상한 할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온다.

“눈 오는데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았네. 우선 차 한 잔 들게나.”

큰스님이 직접 제다해 내어놓은 전다(錢茶; 잎을 찧어 만든 차)는 노란빛에 맑은 향기와 부드러운 맛이 일품인 명차였다. 스님은 1975년부터 불갑사에 주석하면서 백제불교 초전가람지를 복원하는 일에 매진하며 선다일미(禪茶一味)의 생활선을 선양해 왔다. 기축년을 맞아 미수(米壽·88)가 되신 큰스님은 8년 연상의 사형 서옹 스님(조계종 종정 역임, 1912~2003) 처럼 장수하면서, 언제든 천진한 미소로 선재동자들에게 차별없는 안심(安心)법문을 일러준신다.



수산지종 스님은 1922년 전남 장성에서 태어나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3년상을 마친 19세(1940년)에 백양사로 출가했다. 이듬해 법안 스님의 위패상좌가 돼 부전 소임을 보며 강원을 이수하고, 1943년 비구계를 수지했다. 이후 고불총림을 설립한 만암 스님을 오랫동안 시봉하고 전법게를 받았다. 1957년부터 완도 신흥사, 부안 개암사, 백양사 주지, 학교법인 정광학원 8대 이사장을 역임했다. 1975년부터 불갑사에 주석하고 있는 스님은 1986년 조계종 원로의원, 2004년 백양사 고불총림 방장에 추대돼 후학을 지도하고 있다.

-스님, 요즘 건강은 어떠신지요? 정정해 보이시는데, 따로 건강 비결은 없으신지요?

“이젠 늙어서 안 아픈 곳이 없어. 그저 요가 힘으로 살아. 병원 가자고 하면 겁이 나. 돈이 많이 들잖아. 나는 저녁 10시면 잠을 자고 2시 40분에 기상하지. 6시 아침공양 전까지 예불하고 요가, 참선 정진을 하면 시간이 빠듯하지. 20년 넘게 꾸준히 운동을 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 큰 병은 안 생겨.”

-2008년 한 해는 국제적인 금융위기로 국민들이 고통을 받았고, 불교계는 이명박 정부의 종교편향으로 불편한 한 해였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불교에서는 정상말(正像末) 삼시(三時)라고 해서 정법, 상법, 말법으로 시대를 나눠. 정법(正法)은 교(敎)와 행(行)과 증(證)이 고루 갖춰진 5백년이요, 상법(像法)은 교와 행은 있으나 증이 없는 1천년이요, 말법(末法)은 교만 있고 행과 증이 없는 1만년을 가리키지. 우리는 말법 시대인 말세에 살고있는데, 스님들은 인과가 있다고 말만 할뿐 스스로는 인과를 지키지 않는 게 가장 큰 병폐야. 부처가 못될지언정 사기꾼이 돼선 안돼. 자기는 인과를 믿지도 않고 정진도 하지 않으면서 남에게 잘 살라고 하면 안돼. 자기를 회광반조(回光返照) 해가면서 남도 그렇게 해나가도록 일러줘야 해. 우리가 받은 게 모두 공업소생(共業所生)이야. 정신 못 차리면 또 다시 윤회하며 업을 짓고 말지.”

-종교편향 사건을 계기로 인재양성을 소홀히 하고 청정 수행가풍을 확립하지 못한 자성의 목소리도 높은 것 같습니다.

“불법을 모르는 이는 훼불을 못해. 고려말 사찰 재정이 국가 보다도 많았던 귀족불교의 폐해를 보고 정도전이 폐불론(佛氏雜辨)을 썼듯이, 불교를 잘 아는 사람들이 훼불을 하지. 지금도 사정이 비슷해. 스님들이 청정하게 살지 못해서 인재를 키우지 못하니까 불교를 핍박해도 큰 소리를 못쳐. 자화자책(自禍自責)이니 그들을 나쁘다고 욕할 것도 없어. 우리 스스로 정화를 해나가야 해.”

-나라가 평안해져서 국민 모두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방도는 없을까요.

“요즘 한나라당은 미국의 정책을 반대하면 무조건 빨갱이로 몰아. 미국인이 시키지 않는데도 영어 몰입교육을 해야 한다며 난리야. 일제시대 때 창씨 개명을 하고 조선말을 못 쓰게 한 왜놈 앞잡이만도 못해.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꾼 것도 이승만 장로 대통령을 선양해 기독교 사상을 널리 펴자는 의도 아니겠어. 기독교사상은 믿지 않으면 마구니로 몰아 공격하고 불법을 전하지 못하게 하니, 종교 갈등이 일어나지. 권력은 사람 잡아먹는 게 아니고 살리는 거잖아. 부처님 법이 살아나야 국민이 편안히 살게 될텐데….

부처님이 정반왕 아들로 사바세계에 태어난 것은 중생교화를 위한 거야. 그런데 부처님도 사람 몸을 받은지라 무수한 전생부터 익혀온 습기가 있었거든. 4성 계급의 모순과 인생의 무상을 느끼고 출가해서 깨닫고 나서 하신 말씀이 ‘마음을 잘 써라’ 하는 거야. 자성(自性)자리를 깨달아 본래마음 그대로 옳은 일을 실천궁행(實踐躬行) 하라는 거야. 그러면 개인도 사회와 나라도 평안해지지.”

-결국 안심을 얻기 위해서는 마음공부를 잘 해야 할텐데, 한 말씀 경책을 주십시오.

“자성자리는 형체가 없지만 또한 없는 것도 아니야. 이 자리를 깨달으면 생사도 없고 성주괴공(成住壞空)도 없어. 하지만 한 생각 잘못해서 나쁜 행을 하고 과보를 받으며 육도윤회(六道輪廻)를 하니까, 이걸 바로잡아 개미 쳇바퀴 돌듯한 윤회에서 벗어나자는 게 바로 이 공부야.

옛날 공부할 때는 화장실에 자주 안 가려고 먹는 것도 줄일 정도였지. 그만큼 일이 많고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참선시간이 소중했던 거야. 포만감이 있으면 혼침에 빠지니까 건강만 유지할 정도로 소식하며 화두일념에 들곤 했지. 그런데 요즘엔 너무 편하게 대접받으면서 공부하려고 들어. 말해도 듣지 않고 싫어하니까, 경책을 안 하니만 못해.”

-만암 스님을 모시고 공부할 때의 경험담을 들려주셨으면 합니다.

“한국 최초의 총림인 고불총림을 설립(1947년)한 만암 스님(1876~1956)은 조계종의 종조를 태고보우국사에서 보조지눌 국사로 바꾼 것을 환부역조(換父逆祖)라며 크게 나무라셨어. 보조 선사를 육조(六祖)가 아닌 신수(神秀) 스님 계열로 본 것이지. 내가 행자 때는 경전도 못 보게 하고, 법당에 예불도 못 하게 했어. 일만 시키는 거야. 그때만해도 염불을 배워 환속한 뒤 가짜 중노릇 하는 이가 많았거든. 한번은 예불이 너무 하고 싶어서 법당에 들어갔다가, ‘심부름 안하고 뭐하냐?’며 혼을 내시기도 하셨어. 계를 받고 비로소 <초발심자경문>을 배우면서 출가생활의 소중함을 느꼈지.”

-기억에 남는 가르침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19살에 출가해서 20살에 계를 받았는데, ‘사람이면 다 삶이냐, 사람이 사람 다와야 사람이지’ 하시는 만암 스님 말씀을 그 때는 자세히 해득을 못했어. 나중에야 그것이 바로 ‘참사람(無位眞人, 불성을 상징함)’을 말한 것이로구나 하고 느끼게 됐지. 참으로 인간다운 인간, 참사람이 되는 게 부처님 법이지. 총무원장이나 주지 하려고 중 된 거 아니잖아. 마음 밝혀 생사를 초탈하고 육도윤회에서 벗어나려는 것이 공부야.”

-어떤 화두를 받아서 참구하셨습니까?

“만암 스님으로부터 ‘이뭣고?’ 화두를 받은 후 지금껏 챙기고 있지. 스님은 ‘이뭣고’ 화두를 강조해서 ‘이먹고 노장’이라고 불리셨어. ‘이 무슨 물건인고?’하는 ‘이뭣고?화두는 내게 무슨 물건이 있어서 춥고 더운 줄 알고, 짜증 내고 기뻐할 줄 아는지 참구하는 거야. 형체도 없는 놈이 온갖 일을 하는데, 그 놈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고 의문을 품는 거지. 우리 마음은 마치 전기와 같아서 형체는 없지만 스위치를 켜면 형광등처럼 빛을 발하거나 기계를 돌리는 등 온갖 일을 하지.”

-화두 공부하다 보면 쭈욱 이어지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때는 어떡해야 합니까.

“‘이뭣고?’를 자꾸 찾아야지. 어디로 가나 찾아야지. 연속으로 화두를 챙겨야 줄줄 물길이 이어지듯 내려가거든. 공부가 잘 되면 물길도, 나도 끊어지는 절대 경지에서 견성(見性)이 이뤄지는 법이야.”

佛記2553年 己丑年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얼굴보고 질병진단 및 예방법” 특강

형 상 의 학 강 좌

‘생긴대로 질병이 온다’는 것을 아십니까?
얼굴 눈 코 입 귀의 생김새와 빛깔 등으로 현재 미래의 질병은 결정됩니다. 오장육부의 건강상태는 인체의 외부에서 진단이 가능합니다. 사람의 얼굴모양이 다 틀리니 내 몸에 맞는 질병 진단과 개선법이 다릅니다.

‘동양철학과 의학의 최고권위를 자랑하는 덕운 큰스님’께서 과거 한의사만이 학습했던 형상의학을 더 쉽게 풀어서 불자님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사오니 많이 동참하셔서 소원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내

- 일 시 : 2009. 1. 8 (3개월) 매주 목요일 (오전 2시 – 오후 5시)
- 장 소 : 활인정사 법당 (서울 서초구 방배 2동 467-3호 2층)
- 접수기간 : 2008년 12월 26일 – 2009년 1월 6일 까지
- 접수인원 : 선착순 30명 (수강인원 초과시 조기 마감)
- 동 참 금 : 월 10만원
- 문 의 : 02)3487-2311, 010-2376-2389 www.dytv.co.kr

동 양 의 학 방 송 국

제 1기 불교 상례 전문지도사 과정 모집

불교 상례 전문지도사 란
불교 상제례와 관련하여 이론과 실무서비스를 교육받아 장례 관련 업체, 납골당, 자연장, 수목장, 상가봉사조직 등 운영 및 관리자로 진출할 수 있는 전문직종입니다.

1. 교육기간 : 2009년 1월 13일 ~ 7월 11일 (6개월 과정 총 160시간)
2. 주 간 반 :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3. 수강인원 : 40명 (등록 선착순으로)
4. 수 강 료 : 80만원 (교재포함)
5. 장 소 : 조계종 중앙신도회 교육관 (조계사 옆)
6. 신청서류 : 수강신청서, 주민등록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7. 강 사 진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생사의례학과 출신 석·박사

등록후 바로 현재 진행되는 정규반, 통합반 강의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같은 강의를 3번 하므로 편리한 시간에 맞춰 수강하시면 됩니다.

◆ 수료 후 불교 상례 전문지도사 자격증이 주어집니다 ◆

현재 정규반 : 매주 (화) 오후 7시 ~ 9시 30분, 매월 1, 3주 (토) 오후 4시 ~ 8시
통합반 : 매월 1, 3주 (일) 오전 10시 ~ 오후 7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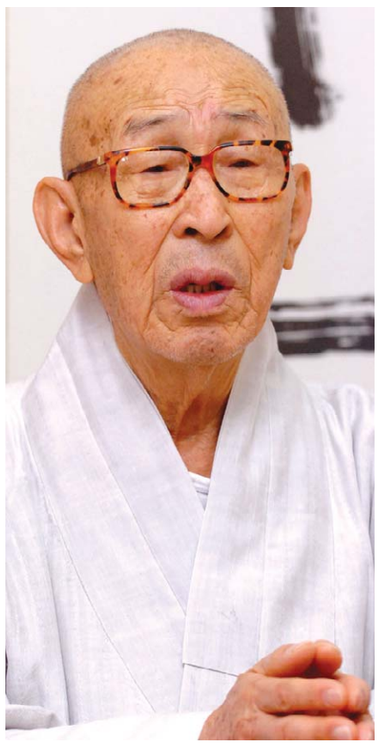
※ 특전 : 1. 2인이상 등록시 각각 10% 할인 2. 상위 5%이내 성적우수자 취업 보장
3. 수료 후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F.B.A.과정 등록 시 등록금 30% 할인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설 (준)불교생활의례문화원 02) 723-0444

선지식을 찾아서 수산

언행일치 하며 살자”





사람이면 다 삶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욕심 버리고 서로 존중하면 편안한 상태 돼

-일상생활에 바쁜 재가불자들이 지속적으로 화두를 챙기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떤 방편을 택하는 게 좋을까요?

“화두가 쉽지는 않지. 그런 사람들은 염불을 부지런히 하면 돼. 염불이 익어지면 ‘염불하는 놈이 누구냐?’ ‘어떤 놈이 관세음보살을 부르는고?’ 하며 참구하면 돼.”

-참선하면서 경전이나 선어록을 보셨는지요.

“예전에는 경전이나 조사어록을 가끔 보았지만, 요즘엔 안 보고 살아. 나이도 들었고….”

-기축년도 경제가 어려워 불자들의 마음이 편치 않을 텐데요, 고단한 삶속에서도 평안한 마음으로 살 수 있는 요체를 일러주십시오.

“물질문명이 극도로 발전하다 보니 이제는 좀도둑들도 사람까지 죽이고 물건을 뺏는 극악한 세상이 되어버렸어. 인간이 편히 살려면 다툼이 없어져야 해. 그러려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서로 존중해야지. 마음 편히 살려면 무엇보다 일체 구하는 것을 쉬어(休歇)버려야 해. 일체 욕심을 버리면 돼. 그런데 버리라면 못 버려. 못 버리니까 시끄럽지. 자기를 비울 줄 알면 복이 없어도 힘들지 않은 법이거든.

-비우고 버리기 위해서는 소욕지족(少慾知足)하는 마음자세가 기본이란 말씀이시군요. 큰스님, 마지막으로 새해 덕담 한 마디 해주십시오.

“자기 일생이 족한 줄 알면 큰 복이야. 족한 줄 모르고 불평불만하면 가진 게 많아도 괴로워. 그러니 불량한 마음 쓰지 말고 늘 회광반조하며 자신을 살필 줄 알아야 해. 떡 한 쪽도 같이 나눠 먹는 복 짓는 마음으로 살면 편해.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 남을 도울 수 있는 것도 다 부모님 은공이야. 내 것만 만들고 살면 사람 도리가 아냐. 무엇인가 도울 수 있으면 도와야 불자 아니겠어. 그러니 무엇보다 욕심이 없어야 해. 그런 다음 바르게 믿고 법대로 행하면 돼. ‘니가 부처다. 그러니 니 부처를 잘 다스려라’ 이 말이야. 우린 다 부처인데, 부처가 부처를 속이고 있으니 문제지. 내 마음 속이지 않는 게 내 부처를 속이지 않는 것임을 잊지 말고 참된 삶을 사시길 당부하네.”

인터뷰 내내 자기를 속이지 않는 언행일치(言行一致)를 강조한 큰스님은 안분지족(安分知足)하며 늘 남에게 감사하고 이웃을 공경하며 살면 힘든 인생살이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거룩하고 고상한 것만을 진리로 알고 ‘이치를 깨치는(理入)’ 데만 관심을 두는 수행자들이 많은 한국불교의 현실에서, 이해하고 ‘깨달은 만큼 여실한 실천행(行入)’의 중요성을 강조한 법문은 새해 아침, 다시 초발심으로 구도행에 나설 불자들에게 나침반이 되리라 생각된다.

새해에는 저마다 하나의 방편을 정해 날마다, 달마다 깊어지는 자기개혁의 시절이 도래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모악산 서설(瑞雪)을 바라보니, 기축년 한 해의 전망이 어둡지만은 않은 것 같다.

그나저나, 마라난타 스님이 인도에서 온 뜻은 과연 무엇일까?

글=김성우 기자 buddhapia5@hanmail.net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禪

〈24〉 황성기 박사

東大 100년사 가운데 최초로 한 가족이 불교과 출신
58년부터 후배 양성과 문서포교·생활불교운동 전개

황성기 박사님은 강원도 고성 사람이다. 1919년 5남 1녀중 막내로 태어나 오길(五吉)이라 불렸다. 고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15세에 용주사 강대련 스님 손상좌로 들어가 용주사 강원을 졸업하고, 43년 혜화전문을 나왔다.

용주사 포교사로 수원 포교당에 있다가 고향 사람들의 부름을 받고 고성남초등학교, 송강초등학교, 고성중학교, 거진여중, 송탄중학교에서 교원, 교장, 교감, 교사 등을 역임하다가 다시 용주사 자혜원 교사로 임용되었다. 권상로, 김동화 박사님의 권유에 의해 동국대학교 교비장학생으로 3학년에 편입, 대학 · 대학원을 졸업하고 석 · 박사학위를 받은 수재이다.

58년부터 동국대학교 조교, 강사, 교수로 후배들을 양성하면서도 월간 〈불교사상〉 〈불교생활〉을 출판하며 문서포교를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그리고 사단법인 불교사상연구회를 조직해 전국적인 생활불교운동을 전개했으며 수원 남창동 대승원에서 법랍 46세, 세수 61세로 열반하셨다.

대학 동기 김정애 여사와 결혼해 아들 3형제가 있었다. 큰아들 황군은 군법사로 호국의 간성이 되었고, 둘째 욱은 동국대학교에 들어가 아버지의 학문을 계승했으며, 셋째 영은 행정에 밝아 불교사상연구회 일을 돕고 있다. 동국대학교 100년사 가운데서 한 가족 여덟명이 모두 불교과 출신인 집안은 오직 황 박사님 집안뿐이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엔 을지로 5가 통일예식장에 모여 권상로 · 김동화 · 김두헌 · 김용배씨 등 유명한 불교학자들의 강연을 들었는데, 박사님께서는 동국대학교 출판부를 맡고 있어 인쇄소에 가기만 하면 점심시간에 국수를 대접했다. 숫자에 관계없이 인쇄소에 오는 사람은 누구나 국수공양을 했기 때문에 사모님 손맛 보지 않은 사람은 없으리라.

불교사상연구회는 대승불교의 보살사상을 현대화, 생활화, 대중화를 표방해 중생구제, 환경정화, 자아완성에 중점을 두고 교육활동을 펼쳤다. 사홍서원이 실천될 때까지 3취정계와 4섭법으로 봉사하기로 다짐했다. 그동안 우리 불교는 사찰 승려중심 불교와 형식중심의 활동을 하다 보니 교리 · 신앙 · 구제주의 의식을 망실하여 인류구제의 정맥을 서양종교에 빼앗기고 있으니 일념만년으로 이 일을 성취하여 위로는 부처님의 은혜를 갚고, 아래로는 부모 · 국가 · 중생의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국대학교에서 불교학개론을 배울 때는 불 · 법 · 승 3보를 통해 어떻게 한국불교를 재건할 건인가 고민하였고, 구사 · 유식 · 인명논리학을 배울 때는 교수님의 학문이 어느 누구보다도 깊고 넓다고 생각하였는데, 막상 법당에 들어가서 범패의식을 행하는 것을 보면 옥천범음회 인간문화재들과 별로 다른 점이 없음을 깨닫게 된다. 그러나 실제 일선 포교당에 나가 법문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장차 우리 불교가 어떻게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저절로 머리 속에 그려진다.

한번은 수원 대승원에서 불러 갔더니, “강원도 도청에 가서 박경원 지사를 만나 포교의 전진기지를 마련하고 오라” 명령 하였다. 대학을 갓 나와 아무런 경험도 없는데 무조건 가라고 하여 갔더니, 여관 하나를 정해주면서 “1주일 동안 포교해 보라” 하여 열심히 정진하였다. 새벽 3시에 일어나면 앉은 자리에서 가만히 도량석 · 종성을 하고 예불을 드린 뒤 108배에 관세음보살 1000념을 하였더니, 3일 다음부터는 밥값을 받지 않겠다 하고, 5일 후에는 박경원 지사를 만나 직접 의논해보라 하였다.

“5일 동안 거리 포교로서는 가닥이 잡히지 않으니 도문화원을 이용하여 종교강연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니, 도지사 또한 “사회 인심을 법과 율만 가지고는 순화할 수 없으니 여러 종교인과 의논하여 정기교육을 실천해 보겠다”고 약속했다. 이것이 강원도 문화원에서 1년 동안 실시한 종교강연으로서 기독교 · 불교 · 유교가 중심이 되고, 이따금씩 천주교와 원불교가 동참했다. 그 뒤 서산 · 고성지부 결성에 동참하였고, 중앙법회 청년회 법사가 되어 매주 토요일마다 강의를 하게 되었다.

박사님은 대학교수 일만으로도 바쁜데 인쇄소, 잡지, 사상연구회 일로 쉴 틈 없이 뛰다보니 혈압이 높아 종종 코피를 흘렸다. 마침내 중풍이 들어 몸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했는데, 대승원에 가니 대중 앞에서 법상에 오르게 하고 3배를 하여 모든 신도들의 눈시울을 적시게 하였다.

이 인연으로 12년 동안 불교사상연구회 이사를 하면서 욱이가 자라나기를 바랐다. 과연 욱이는 성실하게 자라 동국대학교 교수가 되고 대승원 원장이 되며, 불교사상연구회 이사장이 되어 박사님께서 하시던 일들을 성실하게 이끌어 감으로써 나는 법사 및 이사 소임을 한꺼번에 넘겨줄 수 있었다.

"승가건강비법 신비의 나무"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속설에 의하면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 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서 지금도 오대산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 수도하시는 스님들은 혈액을 맑게하여 원기와 기력을 돋우고 관절을 보호하며 몸의 냉기를 제거시켜 혈액순환이 잘되어 추위를 이겨내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마가목** 차를 드시며 수행하고 산승이 금강산 유점사에서 득도하신 고승으로부터 고유전래의 비법을 전수 받아 청정한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시주 불자님께서 요청하시면 보시합니다.

대진 승 두손 모음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 출연 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방영

상담 문의
경기도 양평군 용문산 도솔암
전화번호 031)775-1285

수제화 고무신코 만 행 화
상표등록 614981호, 디자인등록 0407120호, 발명특허 0554383호



■ 문의 및 주문전화 : 02)733–5715, 011–9000–5715
■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구자민) 합장
NAVER 통합검색 만행화 검색
인터넷쇼핑몰 만행화를 검색해 보세요
◆ 본사, 전시장 : 서울 종로구 공평동 143번지 402호 (종각역 2번 출구 100m거리)

기름값의 1/8 이하로 절약되는
돌고래 슈퍼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1호!
기름값 대비 80%이상 절감
심야전기 대비 1/2 이상 절감 효과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사찰, 포교당, 수련원, 교육시설, 복지시설, 호텔, 모텔, 펜션, 가든 등에 설치 최적합

사찰 · 포교당 · 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 · 시공
뛰어난 내구성, 30년 이상 반 영구적.

♣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혜봉 –

돌고래 슈퍼 에너텍
공급원 : 서울시 강동구 길동 334-5
상담전화 : 1688-334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m



佛記2553年 己丑年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대한불교조계종
법 륜 사
주지 법 성
■ 경북 영덕군 영덕읍 덕곡1리 171
TEL 054)734-1258

대한불교조계종
보 광 사
주지 자 성
■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남리 361-4
TEL 054)782-3004 / FAX 054)782-5183

대한불교조계종
법 계 사
대중일동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 212
TEL 053)768-2251

대한불교조계종
청 수 사
주지 종 열
[부설] 청수어린이집
■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 4동 117-36
TEL 053)741-2562
[청수어린이집] 053)753-2561

대한불교조계종
최정산 남지장사
주지 성 공
사부대중 일동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우륵 2리 865
TEL 053)768-9920

대한불교조계종
대 덕 암
주지 혜 송
신도일동
■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동 250
TEL 053)763-7164

대한불교조계종
원각사해동선원
선원장 태 응
사부대중일동
■ 경남 산천군 금서면 평촌리 540-5
TEL 055)973-9554 banyob@naver.com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신도회 대구광역시신도회
선원장 장영관
임원일동
■ 대구광역시 중구 동산동 714
TEL 053)253-2886, 053)252-9485

대한불교조계종
금 용 사
(금용복지회관)
주지 혜 선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 1동 172
TEL 053)628-5404

대한불교조계종
석 가 사
주지 경 암
■ 대구광역시 수성구 이천동 97-3
TEL 053)791-8137
FAX 053)792-0784

대한불교조계종
원 만 사
원만사 부설 유치원
주지 법 홍
사부대중일동
■ 대구광역시 중구 동산동 708
TEL 053)257-1914

대한불교조계종
화악산 적 천 사
주 지 정 광
신도회장 변숙현
반야회장 정광심
구도회장 양해성
신도일동
■ 경북 청도군 청도읍 원리 981
TEL 054)373-0307

대한불교조계종
연화산 옥 천 사
사부대중일동
■ 경남 고성군 개천면 북평리 408번지
TEL 055)672-0100
FAX 055)672-0481
홈페이지 www.okchensa.or.kr

대한불교조계종
관 음 사
주지 임 대
■ 경북 포항시 북구 덕수동 939-1
TEL 054)247-2729(팩스 겸용)

대한불교조계종
대 승 사
주지 석 지형
신도일동
■ 울산광역시 북구 어물동 458-1
TEL 052)298-5865 · 6623

대한불교조계종
동화사 직할 포교당
보 현 사
주지 지 열
사부대중일동
■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2동 932-35
TEL 053)431-5400

대한불교조계종
최정산 광 덕 사
주지 운 성
신도일동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 190-2
TEL 053)763-0068

대한불교조계종
옥 천 사
주지 혜 주
부설 울릉도 성불사 / 연화유치원
■ 경북 포항시 북구 득량동 98번지
TEL 054)272-4633 / FAX 054)274-1633

대한불교조계종
지 장 사
주지 지 형
■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 2동 136-10
TEL 053)755-9817

대한불교조계종
대가야 불교 성지
고 령 반 룡 사
주지 황 룡 법 륜
■ 경북 고령군 쌍림면 용리 187
TEL 054)954-1498

대한불교조계종
월 인 사
주지 포전 혜 관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옥분리 605
TEL 053)767-3971

대한불교조계종
구룡산 통 천 사
주지 선 지
사부대중일동
■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1동 3-1(아양교옆)
TEL 053)941-3503, 053)953-4481

대한불교조계종
보 리 사 보리불교대학
학장 증 악
대중일동
(문화강좌안내)
선체조/다도/어린이천자문교실
■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958-10
TEL 053)522-7611 FAX 053)522-7612

대한불교조계종
관 운 사
주지 지 산
■ 경북 성주군 성주읍 경산리 526
TEL 054)931-7777,933-0808

대한불교조계종
매봉산 고 성 사
주지 고 성
■ 경북 칠곡군 동명면 봉암리 755
TEL 054)977-0962

대한불교조계종
대장산 보 림 사
주지 선 주
신도일동
■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본리 산 67
TEL 053)614-4526, 7169

대한불교조계종
송 향 사
「스님 호스피스 교육」
주지 정 환
■ 경북 칠곡군 지천면 낙산리 103-1
TEL TEL 053)312-5689
khn5689@yahoo.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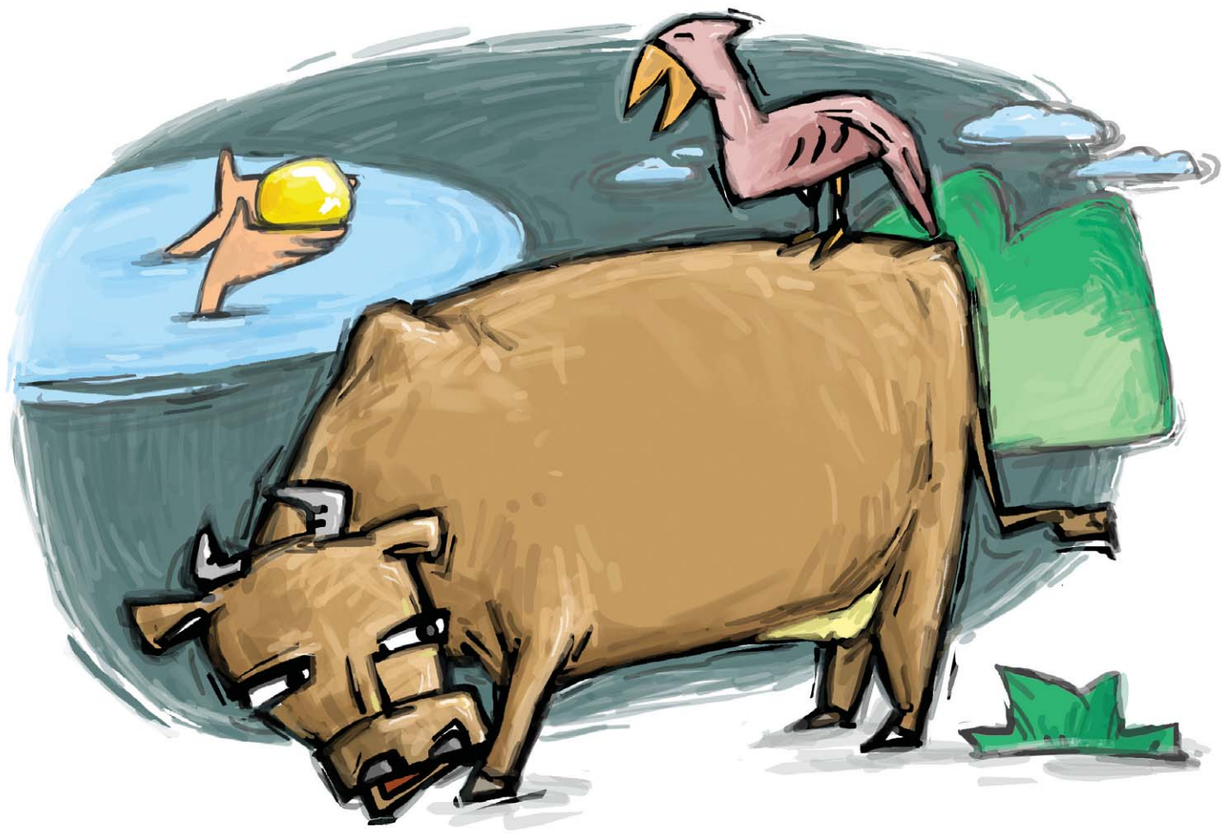
마음청정 · 국토청정
대한불교 조계종
보 현 암
주지 선 진
사부대중일동
(보현다도회, 하루헌 카페, 영남불교문화연구원)
■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동 257
TEL 053)767-0274/FAX 053)762-8950
H.P 011-534-8950

홍익법인 한국불교미타종
(종립)한국승가대학
종 정 대종사 의륜
총무원장 대종사 왕인
총무부장 성원
포교부장 법인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3동 2561-17
TEL 053)621-3610, 625-3372

재단법인 선학원
기 원 정 사
주지 우 록
■ 대구광역시 동구 불로동 1152-5
TEL 053)982-9329 / FAX 053)983-1698

소의 해는 소처럼

글 · 신현득(불교아동문학회 회장)
그림 · 최주현



소의 해에는 소처럼 일하자는 말 붙여야 인사 돼
환희수와 대의동차처럼 부지런히 공덕 짓기를…

소의 해는 특별한 해입니다. 새해 인사에 '소처럼 일합시다'라는 말을 곁들이거든요.

다른 해에 이런 말을 했다가는 큰일납니다. 토끼해에 '토끼처럼…' 하든지, 호랑이 해에 '호랑이처럼…'하든지, 쥐의 해에 '쥐처럼…' 하지는 않습니다. 소 해에는 소처럼 일하자는 말을 덧붙여야 인사가 됩니다.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십시오. 소처럼 일합시다."

이것이 소 해의 바른 인사입니다.

우리 절 종소리로 지구촌의 새해가 시작됩니다. 법당은, 새해 새벽예불에 참가할 대중들로 붐빕니다. 도량석이 끝나고, 범종을 울려, 지구별에 새해 새날이 밝아 옴을 우주에 알립니다. 종소리가 삼십삼천을 향해 수미산을 오르는 사이에 예불이 시작됩니다.

부처님께 새해 인사를 올리고, 스님과 신도들이 합장으로 새해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스님의 인사도 별다른 게 아닙니다.

"우바새 우바니 여러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는 불기 2553년, 단기 4342년, 기축년, 소의 해입니다. 소처럼 부지런히 공덕을 지읍시다."

그리고 스님은 소를 칭찬하는 법문을 시작합니다.

"소라는 중생은 참는 힘이 있습니다. 소라는 중생은 부지런합니다. 참음은 인욕이요, 부지런함은 정진입니다. 우리는 인욕바라밀, 정진바라밀을 소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지난해에는 세계의 살림이 기우는 공황을 겪었습니다. 소의 해, 금년은 참고 부지런히 일해서 나라와 지구촌의 살림을 일구어야 합니다. 소처럼 참고 소처럼 부지런히 일합시다."

부처님은 참음과 부지런함을 가르치기 위해 중생에게 들려줄 몇 가지 이야기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스님이 대신 이야기하기로 하였습니다.

– 히말라야산에 산불이 났습니다. 새와 짐승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환희수라는 앵무새가 불을 끄겠다며 나섰습니다.

"산짐승, 산새들이 산불에 목숨을 잃게 되었다. 이들을 구해줘야 한다. 불을 끄자. 짹짹짹!"

작은 앵무새가 골짜기 개울로 날아갔습니다. 날개를 물에 적셔 와 불무더기 위에 물을 뿌렸습니다.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수십만 번…같은 일을 되풀이하고 있었습니다.

천신의 왕 제석환인이 하늘에서 앵무새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환희수야 가소롭구나. 네가 날개를 적신 물로 수백 리에 뻗은 불줄기를 끌 참이냐?"

"신의 왕이시여, 부지런히 힘쓰면 내 작은 날개로도 불을 끌 수 있을 겁니다."

앵무새 환희수는 대답을 하면서도, 같은 일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신의 왕 제석이 크게 감동을 했습니다.

"도와 줘야겠는 걸."

제석환인은 히말라야를 소나기구름으로 덮었습니다. 천둥에 번개를 터뜨리며 비를 내렸습니다. 산불은 금방 꺼졌습니다.

– 바다의 신이 대의동자가 가진 보배구슬을 빼앗아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나 동자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바다의 물을 퍼내어 구슬을 찾고 말 거다."

동자는 작은 그릇으로 바닷물을 퍼내기 시작하였습니다.

"바다의 넓이는 엄청나다. 깊이만 336만 유순이야. 네가 어떻게 이 많은 물을 퍼내겠니?"

하고 바다의 신이 말했습니다.

"이 생에서 다 못하면 다음 생에서, 그래도 안 되면 그다음 생에서 계속할 것이오. 그래도 안 되면 다시 그다음 생에서까지 바다의 물을 퍼내어 내 구슬을 찾을 것이오."

대의동자의 결심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바닷물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바닷물이 절반 줄자, 겁을 먹은 바다의 신이 빼앗은 보배구슬을 돌려주었습니다.

"부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가 재미있네요."

"소처럼 일하자는 게 기축년 첫 법문이며, 새해의 화두입니다. 정말 소처럼 부지런해야 돼요. 앵무새 환희수가 날개를 적신 물로 산불을 끄듯, 대의동자가 바닷물을 퍼내어 보배구슬을 찾듯 해야 합니다."

스님은 말씀을 이었습니다.

"무엇이 부지런함이며, 무엇이 참음일까요? 게으름을 없게 하세요. 앉거나, 걷거나, 서거나 생각을 바꾸지 마세요, 바른 길로만 나아가세요!"

모두가 소의 해를 맞으며 새해의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를 펼쳐놓고 볼까요?

여기는 중동의 두바이입니다. 사막의 나라에도 새해가 왔습니다. 소의 해 기축년입니다. 한국의 젊은 일꾼들이 세계의 기적을 이루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높은 마천루를 세우고 있지요.

일하는 젊은이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소의 해다. 소처럼 부지런히!"

이 사막 나라에 태극기가 한 번 펄럭인 것이,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세계 제일의 마천루! 층으로는 160층, 높이로는 620미터, 이름은 '버즈 두바이'입니다. 쳐다보면 가물가물한 높이입니다. 그 꼭대기에 새해의 깃발 태극기를 올렸습니다.

여기 일꾼들이 고국동포에 보내는 인사를 들어볼까요?

<나는 여기 사막의 나라에서 기적을 만들어가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고국의 동포 여러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세요. 소의 해에 황소처럼 일합시다…>

사막에서 이룬 한국인의 기적은 이뿐 아닙니다. 아프리카의 사하라사막에서도 커다란 자취가 남아 있습니다. 태극기 한번 펄럭인 것이 기적의 시작이었다 합니다. 한국인의 손으로 사막을 가로질러 물길을 연 것입니다.

물길이 트이면 풀밭이 생기고, 풀밭이 생기면 농토가 생기고, 농토가 어우러져 들판이 됩니다.

들판에는 온갖 곡식이 익고, 숲이 생기고, 곤충과 새와 짐승이 모여들고, 벌레 소리, 새 소리, 짐승의 울음이 어우러지게 됩니다. 한국인의 손으로 기적의 땅을 이룬 것입니다.

태극기의 기적은 바깥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의 서해바다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총연장 21.27킬로미터,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긴 인천대교가 바다에 놓인 것입니다. 소 해의 첫 소식입니다.

인천대교를 이룩한 아저씨들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동포 여러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는 소의 해입니다. 소처럼 일을 합시다. 기적을 이룹시다.>

어디를 가도 소처럼, 소처럼, 합니다. 골목의 붕어빵 아줌마도 소처럼 일할 생각입니다. 붕어빵을 사러 오는 꼬마들에게 말합니다.

"새해에 복 많이…소처럼 부지런히 공부해라."

운전기사 아저씨도 새벽부터 승객을 맞으며 인사합니다.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세요. 소처럼 일합시다."

이때, 외양간 소들이 일제히 소리쳤습니다.

"움무우 움무우, 올해는 소의 해다. 우리의 해다!"

닭장의 꼬꼬 무리들이 축하의 목소리를 맞추었습니다.

"꼭꼭 꼬오, 올해는 소의 해다!"

돼지우리 꿀꿀이도 축하의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소의 해를 축하한다. 꿀꿀꿀."

염소도 매애해해, 소리를 쳤습니다.

새해 첫날 순이는 대문 앞에 새해의 깃발을 달았습니다. 새해의 바람에 깃발이 휘날립니다. 기분 좋은 새해 아침입니다.

"올해는 소의 해다. 소들에게 좋은 일이 있어야 해. 오늘은 좋은 먹이를 듬뿍 넣어서 쇠죽을 끓였지."

아버지가 김이 푹푹 나는 쇠죽을 외양간 구유에 수북 담았습니다. 소들이 생각합니다.

'옛적에는 우리가 수레를 끌었지. 밭갈이, 논갈이를 우리가 맡아 했었지. 보리와, 벼를 거둬들였지. 연자방아를 돌렸지. 산에서 땔나무를 날라다 나뭇가리를 만들었지. 지금은 이런 일을 기계가 거들게 되었지만, 그래도 아직은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많거든.'

어미소, 작은소, 송아지…, 소의 가족은 쇠죽을 움벅움벅 먹었습니다.

2009년도 입학생 모집 요강

유마사 승가대학에서는 신입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유마사승가대학 개원 입학시험 안내]

자 격	2008년도 가을 수계자까지(타 승가대학인 경우 1년이상 된 학인)
모집인원	사미니과 00명
편 입 생	사교반, 사집반 00명
시험과목	면접
제출서류	1.입학원서(본대학 소정양식) 2.은사스님과 본인의 승려증사본 3.은사스님 추천서 4.주민등록증 사본 5.최종학력증명서 1통 6.자필이력서 7.본인 법명 도장 및 의제착용한 반명함판 사진 3매
준 비 물	만의, 장삼, 사미니증, 비구니 승려증
원서접수	2009년 1월 14일까지(2008년 음력 12월 19일까지)
도착일시	2009년 1월 14일(음력 12월 19일) 오후 5시까지
시험일시	2009년 1월 15일(음력 12월 19일) 오전 7시부터
교 통 편	광주 광천터미널에서 유마사행 시내버스 217번(하루 4번 운행) (217번버스 : 종점(화순사평)에서 – 택시(20분) – 유마사)
문 의 처	061)374-0050 / 핸드폰 011-9981-3810 (강원을 오래전에 중퇴 하신분도 환영합니다) ※ 전화하시면 입학원서를 보내드립니다.

유 마 사 승 가 대 학 학 장

하늘의 기운, 신의 숨결, 조상의 지혜
천년 역사의 전통
槐괴 黃황 紙지



삼보에 귀의하옵고
본제품 괴황지는 홰나무(일명 귀신나무)의 꽃과 열매(콩같은것)을 당년 7월7석(전삼일, 후삼일에) 소승이 직접 채취(강원도 영월)하여 그늘에 잘 말린후, 동지날(전삼일, 후삼일)에 즙을 내어 그물로 9번 순수 한지에 물을들여 건조시키는 까다로운 물건입니다.
작업시에 발생하는 역한 냄새와 건조시키는 과정때문에 일반인들의 가정에서는 제작하기 어렵고 그 때문에 대용품으로 시중에 판매하는 치자물들인 창호지로 그 용도를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승은 옛 선사님의 비법 그대로 순수 닥나무로 수작업한 전주한지를 엄선, 정확히 9번 물들여 건조하였음을 부처님의 제자로서 합장하며, 많은 물량이 한꺼번에 제작되지 못하는 점을 양지하시어 미리 주문 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주문처: 전북 장수군 계북면 농소리 589번지 몽련암
관봉 합장 (063)353-1232 / 010-6229-0108
농협: 507079-51-012924(예금주:이창주)
E-mail: m3531232@hanmail.net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신간! 바로보인 선문염송 12권 출간
각권 15,000원
전 30권중 제 12권 출간!
전등록보다 더 많은 공안도리를 결집한 선문염송.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명안종사의 안목으로 1,454칙의 본공안을 한 칙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 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달다 전강 대선사 법어집 값 15,000원
이제는 전설이 된 한국 근대선의 거목 지혜제일 전강 대선사님의 최상승법과 예리한 지혜, 선기로 넘쳤던 삶.
전강 선사님의 법문과 일화를 대원 선사님이 다시 보였다.

법회안내
매월 첫째 일요일 서울 정맥선원 선가귀감 법문 02-3494-0122
매월 둘째 일요일 국제 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31-531-8805
매월 셋째 일요일 광주 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62-944-4088
매월 넷째 일요일 부산 정맥선원 반야심경 법문 051-503-6460
02-3494-0122 www.zenparadise.com



佛記2553年 己丑年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금 화 사
주지 진성
신도일동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금포리 1919
TEL 053)616-9396

古佛 전법도량
비슬산 보성선원
주지 한북
■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1동 1952-1
TEL 053)653-7558/FAX 053)653-7560

대승불교관음종
석 송 사
주지 법장
■ 경북 영주시 문수면 월호3리 838
TEL 054)636-2201

구미 선산 비봉산
서 황 사
(구,죽장사)
주지 명 효
총무 견 진
대중일동
■ 경북 구미시 선산읍 죽장리 479-2
TEL 054)481-2736

팔공산 갓바위 앞산
용 주 암
주지 韓成鶴
사부대중일동
■ 경북 경산시 와촌면 대한동 산 44

대한불교일붕선교종
팔공산 선 원 사
주지 성봉
■ 경북 칠곡군 동명면 득명리 185-5
TEL 054)975-6976

운 주 사
주지 약천
■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1동 74-9
TEL 053)951-0002~3(주지실)

매봉산 금 수 사
주지 화광
신도일동
■ 경북 칠곡군 동명면 송산3리 1442
TEL 054)976-3799 (옷밭마을)

불교자원봉사단 불교호스피스
단장 정법
(자원봉사단 모집중)
■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1동 885-4
TEL 053)767-8866

청도불교사암연합회
회 장 정광
부회장 법춘
회원일동
■ 경북 청도군 금천면 박곡리 794
TEL 054)372-3876
FAX 054)373-8505

대한불교원효종
관음기도도량 대 각 사
주지 대각
신도일동
■ 울산광역시 중구 반구 1동 325-3
TEL 052)296-0908

대한불교천태종
황 해 사
주 지 용 암
신도회장 최병렬
신도대중 일동
■ 경북 포항시 북구 학잠동 산20
TEL 054)277-3611 / FAX 054)277-3644

월항산 삼 광 사
납골당 추모공원
주 지 월우
■ 경북 성주군 월항면 지방리 산 1-2
TTEL 054)971-5666

대구화엄불교대학
회주 진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3동 861
TEL053)754-4962

대한불교 부처님세계
수 참 사
주 지 영 암
관음회장 최영희
신도회장 이계향
회원일동
■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 6동 640-5
TEL 053)561-3129

대한불교서각종 총무원
용 궁 사
주지 원각
신도일동
■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5동 1158-1
TEL 053)358-1029

염 불 선 원
사부대중일동
■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 1동 578
TEL 053)782-0120

한국불교태고종
대구교구 종무원
종무원장 경묵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9동 629-21
TEL 053)622-3702

대한불교법화종
천 불 사
주지 법원
(성주사암 연합회장)
■ 경북 성주군 선남면 관화리 32-1
TEL 054)933-7881

대한불교원효종
약 천 사
주지 덕운(운혜)
관음회 회원
■ 울산시 북구 어물동 1236-3
TEL 052)287-6952

대한불교 원효종
용 주 사
주지 금봉
■ 울산시 북구 매곡동 47
TEL 052)285-1132

대한불교총화종
포항운주산 도 선 사
주지 운산
신도일동
■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봉계2리 1488
TEL 054)246-4467 / FAX 054)241-4718

한국근본불교조계종
법 성 사
주지 법성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문양리 627
TEL 053)583-0567

세계불교지장선원종 종정주석사찰
부처골 지장선원
주지 혜봉 대종사
<다음카페 : 부처골 풍경소리>
■ 경북 군위군 고로면 화북2리 458-1
TEL 054)383-8553

사)대선불교 조계종 총본산
금 봉 사
종정 법왕동산 대종사
■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2동 590-433
TEL 053)424-0876

대한불교
팔공산 봉 경 사
주지 아산
대중일동
■ 경북 경산시 와촌면 음양리 산 183
TEL 053)857-5686

한국불교태고종
불 종 사
주지 현진
「미륵천불전 건립도량」
■ 경북 경산시 신천동 355
TEL 053)802-4043

대한불교선각종
영천보현산 등 명 사
조 실 석정암
주 지 석혜명
신도회장 이선혜
신도일동
■ 경북 영천시 화북면 오동리 603-2
TEL 054)337-4572(등명사)054)281-7712, 7719(포항자명선원)
H.P 010-5506-9448

관음기도도량
까치산 길 조 암
주지 보현
■ 경북 성주군 용암면 본리3리 471
TEL 054)931-5204

天明寺 혜 정 원
주지 혜정
■ 대구광역시 동구 진인동 508
TEL 053)986-8090, 0111



佛記2553年 己丑年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대한불교조계종
옥 련 암
주지 일 감
신도 일동
■ 전북 완주군 화산면 운산리 5번지
TEL 063)263-7098

대한불교조계종
월명산 동국사
사부대중일동
■ 전북 군산시 금광동 135-1번지
TEL 063)462-5366
홈페이지http://www.dongguksa.or.kr/

대한불교조계종
월명산 관음사
주지 재 곤
신도및 가족법회 회원 일동
■ 전북 군산시 나운동 755-1번지
TEL 063)471-0198

대한불교조계종
관 음 사
주지 덕 림
사부대중 일동
이리불교대학
■ 전북 익산시 갈산동 31-9번지
TEL 063)854-1578 842-6652

한국불교태고종
원 경 사
주지 자 비
신도일동
■ 전북 익산시 왕궁면 동용리 용남마을
TEL 063)838-3505

대한불교보문종
흥 천 사
부설 **반야유치원**
회주 지 환
주지 법 희
사부대중 일동
■ 전북 군산시 금동 2번지
TEL 063)445-3769

익산불교신도연합회
익산 마한 거사림
회장 박중근 외
회원일동

한국불교태고종
정 안 사
주지 정 안
신도일동
■ 전북 군산시 회현면 고사리 310번지
TEL 063)466-6055

한국불교태고종
계룡사 갑사
주지 태 진
사부대중 일동
■ 충남 공주시 계룡면 중장리 5
TEL 041-857-8981 FAX 041-857-9753

불교교양대학
대 각 정 사
주지 해 각
사부대중일동
■ 서울 강서구 화곡 2동 835-3
TEL 02)2699-6384

전법도량 청소년수련원
대한불교 조계종
신 흥 사
주지 오성일
대중일동 신도일동
■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상안리 산 42
TEL 031)357-2695, 357-3916

한국불교화엄종
구이 정 각 사
주지 벽 송
사부대중일동
■ 전북 완주군 구이면 덕천리 산 176번지
TEL 063)222-2555~6

불교 지성인의 전당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산불교대학
학 장 무진장 이사장 안동일
신도회장 이종현
사부대중일동
■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TEL 02)732-1206~8/FAX 02)732-1207
www.dongsanbud.net

재단법인선학원
인 과 선 원
주지 정 덕
신도일동
■ 서울시 노원구 월계4동 657-2
TEL 02)907-3706

대한불교조계종 · 무등산
證心寺
주 지 지 장
신도회 일동
■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56
TEL 062)226-0108
홈페이지 : www.jeungsimsa.org

대한불교 조 계 종
어린이법회도량
심 향 사
회주 보륜성오
주지 원광
심향사 신도회, 거사회, 상조회, 문수보현회
합창단, 불교교양대학 동문회
부설 반야노인복지센터 / 부설 반야사회복지연구소
■ 전남 나주시 대호동 825번지
TEL 061)334-2880, FAX 061)334-2887
www.simhyangsa.or.kr

한국미륵불교 중앙 선원장
미 륵 암
주지 법천 청강
신도일동
■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446
TEL 055)867-2259

대한불교 조계종
사불산대승사.대승선원
주지 철 산
신도일동
한국도예. 천년의 혼을 굽는 **대승요. 금우요**
템플스데이사찰 대승선원에서 는 전통옹기가마.찻사발가마. 죽염가마.차덖음가마.직접운영 대승사에오시면 다도.차덖기. 도자기.장담그기등 전통문화 를 체험 할 수있음.
■ 경북 문경시 산북면 전두리 8
TEL 054)552-7105, 553-9391

재단법인 선학원
관 음 사
주지 도 기
신도일동
관음유치원운영. 군포교. 재소자포교활동
■ 경북 영주시 이산면 원리 739
TEL 054)633-1138

(재)대한불교조계종
안 국 선 원
"좋은 인연입니다"
불기 2553(2009)년 희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두루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부산 : 부산광역시 금정구 남산동 35-14번지(지하철 1호선 두실역 8번 출구)
TEL 051)583-0993 · 0994 / FAX 051)583-0999
■ 서울 : 서울시 종로구 가회동 10-3(지하철 3호선 안국역 2번 출구)
TEL 02)732-0772. (744)0772 / FAX 02)744-0779 www.ahnkookzen.org

중생의 삶, 그곳에 늘 삼광사가 있습니다.
• 대한불교 천태종 •
부산 삼 광 사
주 지 김 영 제
총 무 엄행주 교 무 김도진
재 무 김효성 노 전 박거홍
고문 김성규, 김길두, 김기성, 전무수, 김부환, 박경순, 홍영표, 이종화, 장석근, 김형대
신도회장 김 석 조 신도부회장 홍경표, 조임순 / 총무위원 김상준 / 교무위원 정재위
재무위원 이종희, 부학자, 김영숙 / 사업위원 김석홍 / 기획위원 송세현 / 조직위원 김광호
홍보위원 우신길 / 섭외위원 이봉영 / 부녀위원 정옥순 / 사부대중 일동 합장
■ 삼광사 정기법회
-일시 : 매월(양력)1, 2일 오전 10시
-장소 : 삼광사 지관전
■ 삼광사 '산하교육기관 2009학년도 신입생 모집'
부산금강불교대학 / 삼광한글학교 / 삼광한문학교 /
삼광다도대학 / 삼광서예교실 ※자세한 내용은 삼광사로 문의 바랍니다.
■ 가족 정기법회 : 매월 3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 어린이 · 학생회 법회 : 2, 3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 철야 관음정진 : 매월 1주일 동안 봉행
TEL. 051)808-7111~5
FAX. 051)803-1332
www.samkwangsa.or.kr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동 산 131번지

화합하는 사람들은 지치지 않는다

지구촌 곳곳에서 종교간 갈등과 전쟁이 끊임없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고위공직자들의 '종교편향'으로 2008년 불교계 안팎은 한 해 동안 갈등 구조였다. 하지만 종교 본연의 자비와 행복, 사랑을 실천하는 종교인들 또한 적지 않다.

구랍 17일 조계종(총무원장 지관)은 9회째 조계사 일주문에 '아기 예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라는 성탄축하메시지를 걸고 종교화합의 뜻을 전하며 한 해를 마무리했다. 그밖에도 수유동 삼총사, 무등산풍경소리, 부산열린종교모임, 허운 스님과 정홍규 신부를 비롯해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종교언론인협의회 등 곳곳에서 종교화합을 위한 움직임은 활발했다. 또 도법 스님 등 종교를 망라한 생명평화탁발순례와 수경 스님, 문규현·전종훈신부가 함께한 오체투지 순례 등 사회 각 분야에서 화합의 하모니는 울려 퍼졌다. 종교인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사랑을 실천하며 쉼 없이 달려온 이들이 있기에 2009년 종교계 기상도는 '맑음'이다.

이상언 기자

종교연합바자회 수유동 삼총사

난치병 어린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서울 수유동 삼총사와 주민들은 종교간 벽을 허물고, 종교화합과 지역공동체의 모델이 되고있다. 수유동삼총사로 유명한 수경 스님(화계사 주지), 박승화 목사(송암교회), 정무웅 신부(수유1동성당)는 2000년부터 매년 1회씩 종교연합바자회를 열어 난치병과 싸우는 어린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선물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총 4억 2300여 만원을 모금해 모두 159명의 어린이에게 사랑을 전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8일에도 서울 화계사 제일선원에서 난치병 어린이 20명에게 성금 6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는 각 단체 신도들이 함께 준비한 음식과 옷가지, 생활용품 등을 직접 팔아서 마련한 성금 전달식이라 더욱 뜻 깊다.

수경 스님(사진)은 "어린이의 아픔은 우리 사회가 책임져야 할 부분임에도 고통을 외면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3개 종교가 하나가 돼 고통과 희망을 함께 나누고, 종교화합의 모델이 되기를 희망했다. 종교화합의 실천운동 바자회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공동선실천부산종교지도자협의회 '생명·평화'의 하모니

종교를 뛰어넘은 하모니

부산에서는 가톨릭 합창단의 찬불가 소리가, 불교합창단의 찬송가 소리가 울려퍼지는 화합의 현장이 있다. 불교 가톨릭 개신교 원불교 천도교 유교 종교인들이 상호간의 친목과 신뢰를 바탕으로 종교화합에 힘쓰는 공동선실천부산종교지도자협의회(회장 정여)음악회가 바로 그 곳.

2001년 성당에서 성탄을 축하하며 시작된 음악회가 2008년 11월 26일 여여선원에서 각 종교 성직자 등 200여 신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9회째를 맞이했다.

'생명존중과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종교인들의 음악회'는 1~6회까지 성탄절 축하 음악회를 열어오다 2007년부터는 부산 가톨릭센터에서 각 종교인들이 함께 부처님오신날 기념 음악회를 열면서 소통의 물꼬를 확실하게 텄다.

원불교 대표 양명환 총장은 "서로의 종교를 인정하는 가운데 진행되는 음악회는 참석한 모든 종교인에게 진정한 참회와 종교적 희열감을 안겨준다"며 "종교의 목표가 산의 정상이라고 본다면 종교는 서로 다른 등산로를 선택한 것과 같을 뿐 결국은 같은 지점에 도달한다"고 말했다.



무등산풍경소리

환경보호를 위한 나눔의 문화

광주에는 종교간의 경계를 허물고 생명의 소중함과 환경보호를 위한 나눔의 문화를 퍼뜨리고 있는 무등산풍경소리가 있다.

무등산풍경소리(이사장 지장)는 광주시 궁동 원불교교당에서 구랍 20일 '크리스마스 음악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7년을 맞이하며 68회째 생명과 환경의 메시지를 변함없이 전하고 있는 무등산풍경소리 관계자는 "성탄축하를 위해 교회나 성당에서 음악회를 열고 스님, 교무님이 축하 메시지를 전달하는 아름다운 모습은 무등산풍경소리가 아니면 쉽게 보지 못하는 광경"이라고 말했다. 무등산풍경소리는 부처님오신날이면 목사님, 신부님이 대웅전 앞마당에서 축하인사를 건네는 등 종교를 초월한 생명존중과 화합의 정신을 보여왔다.

무등산풍경소리 공동대표인 진화 스님(증심사 주지)과 최명진 목사(미래에서온교회)는 산사음악회라는 기존의 틀을 넘어서 환경과 생명, 영성과 나눔 등을 다양한 문화코드를 매개로 해서 시민사회로 이끌어냈다. 7년 전 처음 종교의 벽을 허물고 무대가 올려졌을 때에는 얼마나 오래 가겠느냐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하지만 무등산풍경소리 음악회는 이제 종교 간의 이해와 화합의 장을 대표하는 상징이 됐다.

부산열린종교모임

축구로 화합한 성직자 축구대회

음악으로 화합을 전하는 종교인이 있는 반면 축구로 종교의 경계를 넘나드는 이들이 있다.

2008년 9월 17일 부산가톨릭대 신학대학 성직자운동장에서는 윤희동 신부(부산 송도성당), 안하원 목사(새날교회), 김강석 교무(남천교당) 등 종교계 대표자 및 범어사 승가대학 학인스님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5대 종교 성직자 축구대회'가 열렸다. 불교계 대표인 심산 스님(홍법사 주지)은 "종교편향문제로 사회가 혼란스럽지만 성직자들이 화합된 참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부산열린종교모임은 1998년 부산지역 천주교, 개신교, 원불교, 천도교 성직자들이 모여 '종교간 대화와 화합'을 목적으로 창립했다. 2000년 5월 18일에는 통도사부산포교원에서 '열린종교 시민대학'을 개설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종교를 소개하며 종교간 화합과 대화를 이끌어 왔다.

불교팀 감독 하림 스님(미타선원 주지)은 "평소에는 종교인들의 교류가 어렵지만 정기적인 축구대회를 하면서 부딪히고, 넘어지고, 부축하면서 종교인이기 전에 인간과 인간으로서의 교감을 한다"며 "인구 절반이상의 종교인들 간의 화합을 기원하면서 뛰면 더 골이 잘 들어간다"고 말했다.



아름다운동행 허운 스님·정홍규 신부

종교의 벽 허물고 인생의 동행자

신부 같은 스님, 스님 같은 신부로 통한다는 허운 스님(동화사 주지)과 정홍규 신부(경산성당)는 7년 전 인연을 맺었다. 현재 두 성직자의 교류는 신자간의 교류로 확대되면서 종교의 진정한 화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평소 108배에 관심이 많았던 정홍규 신부는 허운 스님에게 절을 배웠다. 정홍규 신부는 절을 통해 젊은이들에게 최소한의 공간에서 할 수 있는 심신운동 109배를 전파하고 있다. 2005년 제35회 '지구의 날'에는 대구 동성로에서 스님과 신부님들이 '지구공경 108배'를 하면서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기도 했다. 또 정홍규 신부는 부처님오신날에는 성당 주변에 연등을 걸고, 허운 스님은 성탄절에 성당에서 함께 미사를 보는 아름다운 종교 화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30여 년 성직자의 길을 걷고 있는 두 사람은 이미 종교를 떠나 있었다. 인간적 고뇌에 대한 고민을 서로 상담하는 동행자로 함께 하고 있는 것이다.

허운 스님은 "정홍규 신부가 언젠가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서로 갈라지는 시냇물이 됐으나 우리는 다시 큰 곳에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며 "결국 각자의 길에서 성숙한 종교인으로 상대에 대한 형식적 관용이나 단순한 수용에서 벗어나 서로에 대한 배려와 관용을 통해 알아가는 진정한 화합이 종교의 역할"이라는 스님과 정홍규 신부에게서 진정한 도반의 향기가 느껴진다.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

천/년/초를 아십니까?



천년초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노지에서 자연상태 그대로 자라는 다년초 식물로 혹한의 영하 20℃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토종 선인장입니다.
특히, 어떠한 병충해에도 죽지 않고 농약, 제초제,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는 무공해 자연식품이며 "자연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식물"이라 불릴만큼 어떤 식물과도 비교할수 없는 높은 성분을 함유한 소중한 우리의 자원입니다.

직접 몸으로 느껴 보십시오.

한겨울 영하 20℃의 혹한 속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의 천년초!
천년초의 놀라운 생명에너지를 직접 체험해 보십시오.

*천년사랑에 사용하는 천년초는 유기농 천년초 100%를 사용해 만듭니다.

천년사랑 무료샘플신청 02)780-3989
(천년초 책자와 농축액 2일분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불자생활정보 | 전면광고 | B19

▷ 문의 : TEL 02)2004-8219,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 parkwonbum@yahoo.co.kr
▷ 가격 : 1Box (4.4×4.4) 4만원, 1Box (9×4.4) 8만원
▷ 계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주)현대불교신문사
▷ 원고마감 : 매주 월~수요일(입금을 하셔야 광고 게재가 가능합니다)

CBC108.TV 연합불교방송
•법문, 법회 촬영 •방송
•홈페이지 제작/네트워크구성
•DVD 제작 •이미지 사진 촬영
사찰행사 문의
영산재 · 천도재 · 점안법요식
사찰노래자랑 · 음악회 기획
www.CBC108.co.kr
02)837-2003/011-356-3427

전통사찰 등록
문 화 재 등록
법 인 등록
"비법인 설립"
(서 류 대 행)
성 산 개 발
011-9476-9001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전통불교 문화예술대학
문화재9호 영산작법무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태평소
사찰행사 문의
영산재 천도재 49재 점안식
011-9317-6686 (부산)
금정사 대명 합장

역 학 개 인 지 도
한문과 용신격국 몰라도 물상으로 철학 배우면 바로 상담할 수 있음
짧은 시일내에 실제감정위주로 신수와 영가탈 배워
천도재 지낼 수 있도록 강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051)333-3258
011-591-5277

각종 불공 범음 · 범패전문
점안식, 49재, 천도재, 구병시식 영산재, 수륙재, 각시식, 불교의식, 사물, 바라나비춤, 명리활법
실전 위주 교육. 학인행자모집
031)953-3328
011-9923-3329
대광명사 (동양불교대학)

본각사 일두 스님의 수맥파 상담
수맥파를 알면
건강을 찾을겁니다
02)391-8540
010-6395-1644
한국 생활불교조계종 수맥협회 자문위원
본각사 일두 합장

30년 전통 역학 특별지도
① 특별개인지도 3명 선착순
② 재택수업 30명 장애불자무료
③ 백여권저서와 창교주.종정지도
④ 후계자. 종단임원.
불사인연 기다림
010-2693-7712 합장

북한, 조선족여성보호센터
㊊ 어려움에 처한
북한, 조선족 여성
보살펴 드립니다
070-7769-8484
011-354-8484

역학 빙의 퇴마법전수
1.역학 실제감정위주로 1주일 비법전수
2.내용:명리학,주역,매화역수, 풍수지리,성명학
3.빙의 퇴마법 속성 비법전수
4.귀신들린병 퇴마 잘해드림
관음정사 도통스님
010-7443-3060

역학·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일반과정,속성과정(출장지도가)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귀 금 명 사
사업 · 급 매매
학업진로 · 귀신빙의
하루전 예약상담
농협 071-02-217956(이민혜)
010-4185-8853
010-2037-8857

큰 법력으로 사물 · 바라 · 살풀이 무,극락무,지전무 등 시연과 함께 우리말 한문 등을 마음대로 구사하여 재자와 영가를 동시에 해탈케 하는 정말 신심나는 천도재,49재 및 불상,불화 점안 각종불공의식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리오니 믿고 청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11-854-8107
50대 초반 비구승 무불 합장

대한불교도서관
설립준비 중입니다
뜻있는 분들의 책
불사 받습니다
헌책도 대 환영합니다
대한불교 도서관 추진위원회
010-7625-4455

사찰 불사하는 곳
운전기사 겸 인부로
일할곳 찾습니다
1톤화물차소유
(1종면허있음)
010-3282-1323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부부도 가능)
▷경기도 부천
011-9707-3490

부전소임을
원합니다
스님이 필요한 사찰은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10-9204-0040

조그마한 암자에서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과
처사님 모십니다
(1종 면허소지)
055)863-4143
011-392-6885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유경험자 우대)
▷김해
010-4580-2323

비구니 노스님 모십니다
계룡산 묘광사에서 노후의 삶을 함께하실 비구니스님을 모십니다
산세좋고 물좋은 깨끗한 도량
일부 시주금을 받고 종신제
전화 041)857-5828
010-2303-7176
정현스님

조계종 고찰 조용한 내원암에 노승이 수행정진하는데 공양주가 없어 급여 후하니 속히 구함. 그리고 노승의 사원관리 운영할 제자될 비구니와 출가할 보살님 희망함
소백산 지장보궁 내원암
054)653-1180
010-6353-1180

총무원에서
비구니스님
모집 교육(45세 이하)
063)353-1232
010-9991-2671

행자 모집
스님되기를 원하는 분
수행하면서 공부하실분
(30~40대 남자)
063)836-8047

참선기도하기
좋은 도량입니다
단 몇분만 모시겠습니다
▷경남 합천군 대병면 청강사
016-9506-5706

육갑납음풀이
자연속에서 인연을 찾을 수 있다

오행육갑 납음속에서 가장 단순한 이치로 우리 실생활과 접목을 시키고 그 원리를 찾아서 인연의 관계를 풀어가며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이 되었다고 봅니다.

이제까지의 음양과 오행은 전문가를 위한 학문으로 알고 있었으나 이 글을 읽고는 누구나 알고 이용 할 수 있으며 이번 기회로 육갑납음이 정립 될 수 있는 희망이 보였으면 합니다.

알고 있는 인연의 관계가 궁금하면 좋은 인연을 만난다면 나에게 힘을 실어줄 인연을 찾으려면 부모는 선택할 수 없어도 배우자는 맞는 인연을 찾아야 한다. 좋은 자식을 얻으려면 출생전부터 선택을 하여야 한다.



혼자는 살아 갈수 없는 것이 자연의 이치다.
900가지의 예문이 길을 안내 해 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 총판 : 법우당
02)994-4437~8

드신 분은 다시 찾는 소리 **새벽소리** 茶
기력이 떨어져 몸도 마음도 의욕도 .....
- 판매금액은 불사금으로 사용합니다 -
한방원료에서 뽑아낸 40여종의 인체 에너지 활성에 유용한 성분이 함유되어있어 모방할 수 없는 기술과 품질검사, 유해성분 검사 받은 믿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새벽소리」 드시고 건강하세요!!
풀잎뿌리식품 (신고번호 : 중구 제2008-0269호)
◆구입문의 041)673-8860 (입금 : 농협 477127-51-041507 정명자)
◆새벽소리(50일분) ~~360,000원~~ ➡ 280,000원

역 학 공 부
● 사주초급 : 1/7(수) 18:30 ● 개강 : 정도형 선생
● 전문가반 : 매주 금요일 18:30 이선종 교수
● 인터넷 동영상 강의 : www.kbs.cc
풍수 관상 육효 자미두수 수상. 수료증 자격증
사주 전과정 45만원.한국역학협회
월간역학교육원 (02)2264-0258

한국불교불광종 입종안내 행자 모집
종단 민속철학협회소속없는 스님법사 보살 철학사 입종환영
법당 철학 신당에 빌어도 천문이 열리지 않아 신을 띨까 법당 폐문할까 고민하는분
상단불공 · 신장불공 · 지장불공 · 산신불공 · 불명짓는법
용왕불공 · 조상천도 · 칠성불공 · 관음시식 · 구명시식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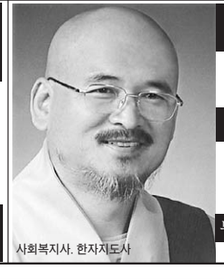
책마다 순서대로 불공을 쉽게 할수있는 각각단권으로 맞춤형제작
(농협계좌) : 150022-51-167171 (예금주 : 한국불교불광종)
국제역술협회입회환영 주소 : 대구시 서구 내당 2,3동 923-142
전화 : 053-561-4440, 011-9422-1885 F.524-3644

생활역학강의 : 전문교육처 초급 중급 연구(격국)
● 초급 3개월 중급 3개월 연구 3개월 : 고자강 이석영 고단원 이병렬 선생의 정통학문
● 주간반 · 야간반(월요일 7시부터 10시 까지) 정규반
● 특강 사주통변실전반 : 수시접수
역학은 배웠으나 통변이 어려우신 분들의 특강반 / 핵심적인 용신법을 바로 알아낼 수 있는 비법전수 / 한 눈에 오행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전수
● 작명학 연구반 : 1월초 개강
본명사주의 격국법 조후법 통관법 병약법 억부법 / 오행균형법 부족된 원형이정의 수리법 자원보충법 / 음령법 호성법의 체계적인 이론과 사상체질법 등 정통작명 비법을 전수합니다.
http://kr.blog.yahoo.com/han103051
단원역리학회 지현역리학연구원 동대문구 전화 02)2243-9598, 018-470-6314

힘을 세게하는 초능력요법 탄생
● 세계 최고의 염력과 천기를 운용. 생명에너지 발생(31년간 연구)
● 정신병, 관절염, 당뇨, 위장병, 오십견, 신경통, 두통, 탈모증, 신병 (아주간단히치유 무료체험)
● 모든 운동선수(골프, 야구, 역도, 축구.....) 기록을 갱신하고 싶은분 상담
● 병원치료로 효과가 없는분 무료상담
광명사 氣 연구소
054)974-4788 / 010-9554-5149

유 명 표 구 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 종 부 합장
문의 ☎ 02)374-9886
▷전국 택배가능◁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 6호선 새절역 1번출구)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대방등 대집경 특별강좌
● 강좌내용 : 28숙 ● 대상 : 승려에 한합니다
● 어떠한 문제점도 28숙 기도로 다 해결됩니다
● 위치 : 부천 북부역 소명 4거리 3층
☎ 032)664-0048 / 011-741-0867


사회복지사. 한자지도사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아기 이름을 예쁘게 작명
문의 051) 867-8438
진각 심리상담 아카데미
"鬱"막힐 울, 답답할 울, 성낼 울, 걱정할 울, 원망할 울.
우울이란 마음이며, 마음을 다스리는 행복한 마음을, 상담이나 최면을 통해서 찾아봅니다.
부산시청 뒤 거제리청과시장에서 양정쪽 150m 삼화탕 앞 송광정사

사주운세 10초 내 맞추면
통장입금하시고 상담하세요
011-498-5067 / 02)826-5067
031)774-5067 (주말)
[통화관계로 방문 사절] 농협 064-02-379867 김진동

삼보성현과 사부대중들에게 발로참회 드립니다

부처님,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사고파는 행위"로 오해를 하게끔 광고를 한 제자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한 저는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멀고 불편한 곳에 계시는 스님들에게 편리를 봐준다는 짧은 생각으로 "택배 우송"을 생각한 점도 용서하여 주소서. 다시는 이러한 광고로 부처님께 누가 되지 않고, 사부대중들에게 심려를 끼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소승의 미천하고 얕은 생각이 사부대중과 불교신도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려 대단히 송구합니다. 특히 저의 광고를 기재하여 주신 관계지에 용서를 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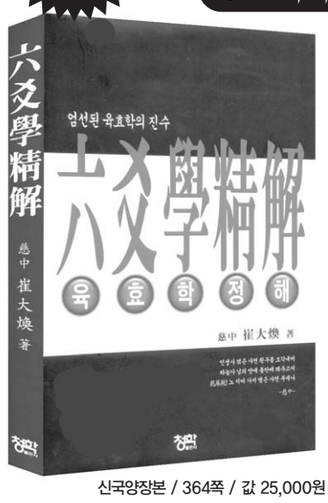
위의 광고는 저의 어려운 형편에 기인합니다. 2007년 9월 14일에 법당으로 사용하고 있던 천막에 원인모를 불이 남으로서 모시고 있던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불사의 명목으로 보시를 생각하고 나눠드린다는 생각이 저의 큰 잘 못이었습니다.

삼업이 청청하지 못하고 수행이 부족한 비구 청운의 불찰로 인하여 엄청난 오해를 일으키게 한 점, 다시 한 번 사죄드립니다. 이 문제를 제기한 모든 분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뒤 늦게라도 저의 잘못을 깨닫게 하여 주어 감사합니다. 비구 청운은 참회의 뜻으로 이번 동안거 백일기도 기간에 "범망경"과 "비구계문"을 수시로 독송하여 그 뜻을 청정하게 하겠습니다.

2008년 12월 26일

광고기재 사문 비구 청 운 두 손 모음

六爻學精解
육효학정해
신출귀몰 화제의 책! 서점에서 절찬리 판매 중!!
엄선된 육효학의 진수!
초보에서 완성까지!



이 책의 특징
이 책은 목차부터 배우기 쉽도록 배열이 잘 되어 있으며 육효학에 도움이 되는 많은 자료를 수집 정리하였다. 그러므로 본 학문을 연구하거나 익히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신국양장본 / 364쪽 / 값 25,000원
동방대학원대학교 육효학 전문가 과정 교수 최대환 저
◉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13시까지 〈육효학정해〉 저자 직강!
〈한국전통과학 아카데미〉 (02-929-464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입금계좌 : 기업은행 041-055985-02-010 예금주 : 문해성
전화 : 02)354-8646 팩스 : 02)384-8644 청학출판사

패철 보는법
하루 저녁이면 깨우치는
종수지리 이기론 적용
나경사용법
전 용 원 지 음
연습용 19층 갈라 나경 도해 삽입
이 책 구입한 분 www.kbs.cc에서 나경사용법 강의 무료시청
나경을 쉽게 배운다
양택론 음택론
명당 잡는법
수맥 측정과 수맥파 차단법
진산
나경은 나침반이다. 복잡하거나 어려울 이유가 없다 꽤히 어렵게 가르치기 때문이다. 누구나 이 책 한권이면 하루밤에 나경 사용법 뿐만 아니라 음택, 양택, 수맥, 명당 잡는법까지 확실히 배울 수 있다.
문학박사 전용원저. 표지본문 올칼라 46배판 영구보존 정장본. 정가 25.000원 할인가 22.000원. 무료배송 + 월간역학 1개월(8천8백원) 함께 증정. 한번에 2권 이상 구입시 권당 2천원 추가 할인. 농협 185-12-229450 예금주 김영주. 주문전화: 1688-1137 한국역학협회 명당탐지기 관룡자, 심룡척도 있습니다

웃음보살 불등거사 <28>

구성 : 김흥인



비단과 낡은 베옷 [백유경(百喩經)]

한 도적이 부잣집에서 비단을 훔쳐 그것으로 낡은 베옷과 갖가지 재물을 샀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의 웃음거리가 됐다.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도 그와 같다. 믿는 마음이 있어 부처님의 법안에 들어가 선한 법과 온갖 공덕을 닦다가 이익을 탐하면 청정한 계율과 온갖 공덕을 부수고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는 것이다.

옛 판화의 세계

구마라집이 많은 경론을 번역하다 나집역경(羅什譯經)



고판화박물관 수장 석씨원류(釋氏源流) 중 나집역경(羅什譯經) 목판(木版) 1679년간행, 비곡(紙本) 27.2×18.0cm

<석씨원류>에 등장하는 이 삽화는 구마라집이 제자들과 함께 불경을 번역하는 장면으로 불교가 구마라집의 정확한 한역을 통해 중국에 뿌리내리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 구마라집(鳩摩羅什: 344~413)은 쿠마라지바의 음역이며, 인도 출신의 학승이다. 7세에 출가해 대소승을 두루 섭렵한 뒤, 구자국에 머물며 주로 대승을 홍포하는 데 힘썼다.

401년 중국으로 들어가 장안(長安)에 머물며 입적할 때까지 <마하반야바라밀경> <묘법연화경> 등 총 35부 300여 권의 경전을 번역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삼론(三論) 중관(中觀)을 확립했으므로 오늘날 중국, 한국, 일본에서는 그를 삼론종의 조사(祖師)로 부르고 있다.

413년 장안의 대사(大寺)에서 69세로 입적했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구마라집은 중국의 발음을 훤하게 깨달았는데 그가 예전의 경을 열람하니 내용이 틀리고 편벽한 곳이 많아 범어의 원본과 맞지 않았다. 이에 승예, 승조 등 800여 명의 스님을 시켜 새로 30여 권의 경론을 번역했다. 모두가 유창하게 신비한 근원을 밝히고 그윽한 취지를 발휘했다. 구마라집은 세상을 마치기 며칠 전에 대중스님들과 이별을 고하면서 말했다.

"법으로 인연하여 서로 만나게 되었으나 조금도 마음을 다하지 못하였는데 바야흐로 다시 세상을 뒤로 하게 되었으니 측은하고 슬픈 심정을 어찌 말로 다할 수 있겠는가? 원컨대 번역한 모든 경론들을 후세에 전해 유포하고 모두 함께 유통시키기 바란다. 지금 대중 앞에서 성실한 서원을 발원하겠다. 만약 내가 전한 경전에 오류가 없었다면 마땅히 몸이 불태워진 뒤에도 혀만은 불에 타거나 썩어 허물어지지 않게 하소서."

마침내 그가 세상을 떠나자 외국의 법에 의해서 화장했는데 장작이 다하고 몸이 다 타버렸는데도 오직 혀만은 재가 되지 않았다' 고 돼있다. 구마라집의 시신이 재가 되었는데도 혀만 재가 되지 않고 남았다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에 오역이 없도록 혼신을 다한 구마라집의 역경불사 원력을 보여준다. 부처님의 말씀을 쉽게 왜곡하고 오용하는 우리들의 현실에 경종을 울린다.

선학 스님(명주사고판회박물관장)

詩가 있는 도량 ▪ 허물

천은사 팔상전을 등에 얹고 있는 축대
돌 틈 사이에 뱀이 허물을 남겼다

자신의 허물을 벗고 달아난 뱀

뱀은 돌 틈을 지나기가 고통스러웠는지
허물이 되어서도 입을 쩍 벌리고 있다

뱀에 물려 단청으로 독이 오른 팔상전
가을 산이 피를 뚝뚝 흘린다

나는 고통이 두렵고 독이 없어
평생 허물을 입고 산다.

–공광규 시집 <말똥 한 덩이>에서.

숙대(평생교육원)침구교정요법과정

제 7기 2009년 신입생 모집요강

◈ 입학식 :
2009년 3월 7일(토) 14:00

교육과목	침구학, 카이로프락틱, 해부생리학, 경혈학, 동의학개론, 생활건강약초.
교육기간	2년과정 매주 토요일 14:00 ~ 20:00 (6시간)
자 격	본과정에 관심있는자 및 의료인, 대체의학관련자 (남 · 여)
특 전	숙명여자대학교 총장명. [수료증, 자격증서 부여] 해외 해부학연수
수 강 료	1학기 650,000원 (신한은행 140-003-764304) 예금주 : 숙명여대
문 의	011-643-3691, 010-8332-2378
주 소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101-41 숙대(평)남영동캠퍼스
교 통 편	지하철 1호선 남영역, 4호선 숙대입구 (7번 출구)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1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자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27,5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50,0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기본 배송비 2,500원 (5만원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주문전화 : 053)985-1135 / 054)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영남불교예술대학 신입생모집

한국 범음범패 전통을 자랑하는 사) 부산어산회의 맥을 이어 종합불교예술로 승화된 부산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보존회에서 대중화에 기여하고자 영남불교예술대학을 설립하여 수강생을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사부대중들의 많은 동참바랍니다.

◆모집학과 및 정원

모 집 학 과	강 의 내 용	요일	시 간	모집인원
의식 기초반	이론 및 실기	화	2시~5시	30명(6개월)
의식 중급반	이론및실기, 사물다루는법 (대령,관욕,시식등)	수	2시~5시	30명(6개월)
의식 전문반	짓소리,전통예능등 통합반	목	2시~5시	20명(1년)
작법무반	바라,나비,사찰학춤	금	2시~4시	30명(6개월)
국악기반	태평소,단소,대금 (영산회상,청성곡등)	금	4시~6시	30명(6개월)

◆개 강 일 : 불기 2553년 기축년 양력 2월 3일 오후 2시
◆교육장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1동 159-1 백화도량 관음사내 영남불교예술대학
◆접수 연락처(교학처) : 051)327-5095 / 010-2314-1279
◇ 기숙승방 운영(선착순 우선):단기 수련 후 심사 거쳐 이수증 발급
◇ 성적우수한자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우선추천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보존회 부설
嶺南佛敎藝術大學
Young Nam Buddhism College of arts

※ 각종 사찰행사 전문으로 하는 문화재 이수자스님 전국에 배정되어 여법하게 집전해 드립니다. 마음의 힘이 모이면 어두운 길에 환한 등불이 됩니다.
(보시금중 일부는 생명 나눔 실천 기금 및 장학기금에 쓰입니다)
010-2314-1279 , 051)327-5095

2009년의 신수 비결이 출간 되었습니다.
"효타비결 = 신수비결"

- 2009년 개인의 사주를 감정하여
- 직업, 재물, 사업, 이성 운과 인연
- 성적 및 진학 운, 일진 및 외출하는 날
- 생년월일만 알면 누구나 운세를 바로 볼수 있고
- 정확하여 적중 율이 높습니다.

정가 25,000원.

"이름 대사전"

- 대법원 선정 한자만 사용하여 이름 풀이까지 되어 있고,
- 320여개의 성씨별로 삼원, 수리, 음령 오행을 맞추고,
- 성씨별로 2000-3000여개의 이름들로 구성
- 개명, 작명, 법명, 상호, 등에 바로 사용할 수 있음.

정가 : 50,000원

"효타 비결전서(상 · 하)"

- 일년이면 최고의 프로가 될 수 있는 비서.
- 한글 전용으로 누구나 쉽게 독학 할 수 있음.
- 책에 대한 질문은 전화 주시면 상담해 드립니다.

정가 : 각 권 50,000원

효타암 주지 원공 합장
◆ 농협 121076-56-092613(손선미)
부산 금정구 금사동 34-4 문의 : 051)524-9406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기본 규격 50.000원
규격 5× 7cm 70.000원
규격 5×10cm 100.000원
● 계좌번호 : 국민은행 222-25-0005-381
농협 053-01-269088 (주)현대불교신문사
● TEL 02) 2004-8219 / 02)732-1522 (直)
FAX 02) 737-0696
● 원고접수기간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 e-mail : parkwonbum@yahoo.co.kr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 ● 위치 : 서울 ● 위치 : 서울
● 법당 : 24평 ● 법당 : 28평 ● 법당 요사 : 160평
● 요사 : 24평 ● 요사 : 28평 ● 부지 : 62평 ● 가액 : 15억
● 부지 : 560평 ● 부지 : 167평 ● 위치 : 인천지역
● 가액 : 6억 ● 가액 : 10억 ● 법당 요사 : 125평
● 월:1억에 300만원
● 양도가 : 3억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및 토굴안내
부산 바다전망 좋은 절
● 총대지 : 약 2700평
● 법당 약 50평, 산신각
● 요사채20평+10평+10평
● 바다전망 최고, 사찰 뒤편 산
● 텃밭 300평,뉴타운 개발지역
● 가액 :9억
천왕봉 밑 마당 넓은 절
● 대지총평수 : 2100평
● 법당 약 30평, 요사채 방8
● 주지실 30평 전통기와양식
● 따뜻한 지리산 자락(정남향)
● 산세수려, 계곡물 철철
● 양도가 : 6억 5천만원
부산 사찰전문 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 051)863-6622
※부산 시내 및 암자토굴 소액 7천~100억까지 다량확보

사 찰 안 내
● 위치 : 김해시 삼방동 신어산 기슭
● 부지 : 약 2000평
● 법당 : 50.4㎡ ● 요사채 : 87.7㎡
● 납골당 : 99.0㎡ ● 지장전 : 53.0㎡
● 종교단체 납골당 허가 있음
● 가액 : 16억원
055)337-0111

사 찰 안 내
사찰(터)안내
● 위치 : 경기도 용인시 소재
● 부지 : 400평
● 법당,요사 : 컨테이너 2동 설치
● 가액 : 2억 2천만원
● 특징 : 토목공사 정기 상수도 공사 완공 1억 2천만원 소요됨 산밑에 위치한 명당터로 주지스님 신변관계로 급히 양도코자 합니다
● 위치 : 경남 창녕읍 소재
● 부지 : 800평(종교용지)
● 법당 30평(목조 단청)
● 요사 2동 80평
● 기타 : 종각, 석탑, 석등
● 가액 : 3억5천만원(2억까지 융자가능)
● 특징 : 도심의 포교도량임
좋은인연 됩시다 ※ 전국 소재 사찰양도 양수 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동진불사 대구 010-9636-0455/서울 010-5828-0455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대구시 서구 평리동
● 3층건물중 2층
● 총 45평(방2,주방,화장실,욕실)
● 삼존불(시설A급)
● 보증금 1천만원 월 60만원
답사 후 결정
● 몸만오시면 즉시법회 가능
010-2208-4899
053)522-6487

포교당 안내
● 위치: 울산시 동구 방어동
● 평수 : 47평, 촌집
● 법당 : 삼존불(아미타불, 관세음보살,지장보살)
● 보증금 : 50만원 월 25만원
시설비 : 1500만원
010-6485-8204

포교당 안내
● 위치 : 2호선 낙성대입구 (도보 3분)
● 3층 약 40평, 법당, 방 2개, 주방, 다용도실
● 보증금 1천만원, 월85만원
시설비 3천만원(절충가능)
몸만 오시면 즉시법회가능
02)887-2138
010-7104-4849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 임법당 1칸, 주방 1칸
방 3칸, 시설비 약간
답사 후 절충
● 전세 2,000만원
02)934-3352

암 자 안 내
● 위치 : 밀양시 얼음골 근교
● 평수 : 약 1만평
● 명산 계곡절경, 경관수려
● 가액 : 8억
010-4876-5535

포교당 안내
● 위치 : 온양 역세권 (도심 포교원)
● 가액 : 임대보증금+ 시설비포함 = 2,100만원
월 35만원
● 시설 A급, 포교원으로 입주 즉시 법회 가능
010-2220-4144

도심(빌딩속)사찰안내
● 위치 : 서울근교
● 평수 : 110평
● 법당 : 약60평, 삼존불(동불), 불단, 삼성단(원목)등
● 요사 : 약50평,방3개,상담실, 주방, 거실, 주차장시설 완비
● 가액 : 3억 3천만원(융자별도)
050-2345-1569

사 찰 터 안 내
● 위치 : 강원도 영월 선바우산 소원바위 절터
● 평수 : 1928평 중 600평 허가필. 토목공사 완료
● 가액 : 2억
● 대한민국 최대 와불의 산이 있고 산세 수려함
문의전화 011-822-0347
010-9258-3459

포교원 안내
● 위치 : 인천광역시
● 평수 : 85평
● 구조 : 법당, 공양간, 삼존불 방,욕실,큰방 등. 심야 보일러
● 모든시설 갖춰져 있음
● 주변환경 : 주차장, 공기청정
● 보증금 4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답사후 결정
011-319-7791

포교당 안내
● 위치 : 안양 중심지 (명학시장 2층)
안양역 명학역에서 도보10~15분거리
● 실평 약30여평 10년운영
● 전세3000만원 월세1000만원에 월40만원 시설비 절충
010-5495-467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함안군 군북면
● 총대지 약 407평
● 법당1, 요사채2, 주방 거실,화장실
● 가액 : 9천 8백만원
● 집기,비품필요하신분 별도 양동함
시설비 2천2백만원
011-439-9059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기도 의왕시
● 평수 : 24평
(법당, 방 2, 거실 : 공양간)
● 보증금 : 1500만원 월65만원
시설비 : 상담후 절충
● 즉시법회가능, 모든 시설 완비
010-2082-8497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
● 텃밭300평,금계포란형
● 서출동류수,글씨쓰고 그림그리기좋은곳 산좋고 물좋음
● 보증금 600만원 월35만원 시설비 절충
010-4103-228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하동
● 총평수 : 790평
● 법당20평 요사채 상 · 하채 명당자리 방4,큰창고 감상용 양어장 주차시설 완비
● 가액: 2억 3천만원
055)883-8846
010-3138-4897

토 굴 안 내
● 위치 : 경기도 동두천시 소요산 전철역 인접
4차선 대로 도보 3분. 산밑 앞이 트임
● 대지 350평, 방2, 주방, 거실, 욕실
● 주차 여러대 완비. 텃밭 용이
● 전세 : 2,000만원
● 위치 : 서울 은평구
● 전세 3천만원
● 즉시 입주
● 비구니 스님, 보살님 한함
011-9128-2069

토굴(터)안내
● 위치 : 경북 봉화군 소천면 분천
● 이전관계로 양도함. 등기 337평
● 한옥토굴 27평 방 2개
산신각 1동(단청)
요사채 현대주방1칸+방2칸
부엌1칸 창고10평
실내화장실2칸+1칸
● 조경수 및 심야 대형온수기
주차장+창고,마을상수도 사용함
● 가액 : 7,500만원
010-8868-9407
054)673-6496

포교당(급)안내
대중 소임 사는 관계로
포교당 운영하실분을 찾습니다
● 경남 김해시 어방동 인제대 부근
● 주변 : 대형아파트 다수. 경남일대 포교 최적지 주변 유동인구 최다
● 평수 56평, 법당, 방 3, 주방
종무소, 내부화장실,
전체난방 에어컨설치
● 몸만 오셔도 법회 가능
모든 시설 일체(완비)
● 개인 종교법인 등록
● 보증금 2천만원 / 월 50만원
시설비 2000만원(절충가능)
010-6739-6426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동래구 온천 3동
● 평수 : 약50평
● 보증금 : 천만원 월 45만원
시설비 : 삼천만원
● 즉시법회 모든시설 완비
010-5364-0038

사 찰 안 내
● 위치 : 마산시 진전면
● 마산, 진주, 고성, 통영, 함안 30분거리
● 대지 600평, 법당 25평
● 삼존불, 요사채 30, 20평. 마당, 연못
● 가액 : 2억 8천만원
융자 1억5천만원가능
(절충가능)
● 꼭 필요하신분만 전화 요망
010-3996-2035

포교당(급)안내
● 위치 : 양산의 중심지
● 4층건물중 3층
● 평수 : 54평
● 법당 1개, 방 4개
시설 특A급
● 전세3000만원 월40만원
시설,비품비 확인후 절충
● 몸만오시면 즉시법회가능
개인사정상
055)365-3562

사 찰 안 내
● 위치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산 122-6
● 임야 2315㎡
대지 : 등기건물평수(45평)
● 법당,요사채,접견실,승방,
● 화장실, 신도 숙소
(등기건물 외 건물 약 30평)
심야전기보일러 설치
● 가액 : 2억 9천만원
※순천 영천사 스님을 모십니다
019-379-9999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천 중동역 3분거리
● 평수 : 약70평
● 법당, 방3개, 공양간,
시설완비, 즉시법회가능
● 보증금 2천만원, 월120만원
시설비 답사후절충
010-6332-911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칠곡 양목역앞
● 평수 : 약45평(시설깨끗함)
법당, 방2, 주방, 화장실
● 2층건물중 2층(옥상사용)
● 아주 조용하고 생활하기 편리한곳
보증금 1,500만원 월10만원
시설비 2,100만원(절충가능)
054)974-0307
017-217-1919

대형포교원 안내
● 위치 : 고속터미널부근. 포교당
● 90만 신도시 아파트 상가 밀집지역
● 평수 : 200평
● 시설 내용 : 황금 대법당, 소법당, 일주문
● 삼존불 및 천수천안 목불 , 원목 운각 단청
● 주지실 및 작은방 등 접견실 -고급차실
● 종무소및 판매소 부엌및 목욕탕
● 법당 및 전체 방사를 고급 나무문양 인테리어 됨
● 계약내용
1차방법 = 보증금 1억5천 /월세150만
2차방법 = 보증금 2억 / 월세90만
3차방법 = 전세가능 3억
● 시설비절충가능
전화 011-707-5552

부산 대사찰
● 한옥법당1동, 한옥요사3동 명부전1동,산신각1동,종각1 화장실2동,창고 2동,석불, 약사여래불 15층
● 지하도 상수도 사용 절내 주차시설 15대기능 심야보일러 사용
● 대지 780평, 가액16억
051)862-0108
011-563-1545

도심사찰안내
● 위치 : 울산
● 대지 : 318㎡
● 법당 176㎡(58평)
● 요사채 386㎡(128평)
● 가액 : 15억원
010-4752-8822

서울 도심 포교원
● 위치 : 서울역 도보10분거리
● 4층 건물에 3층법당, 상담실 4층 요사방, 부억
● 보증금 시설비 2300만원 월세 50만원. 법당시설완비
011-9105-0024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 사상구 모라동
● 스님이 외국불사관계로 운영하실 원력스님을 찾습니다
● 4층 건물 중 4층
● 석가모니불,관음,지장 삼존불과 후불 및 신중탱화 봉안
● 관음소불 130불,법당외 방2개 주방1, 화장실 45평
● 가액 : 보증금 3천만원에 월 10만원, 시설비 없음
● 인연있는 스님을 기다립니다
010-2304-2221

포교당 안내
● 위치 : 김해시 부원동
● 평수 : 54평
● 거실,방2칸,공양간,사무실大, 법당
● 아미타불, 소불(小佛) : 50분 후불탱화, 신중탱화
● 보증금 1500만원,월세30만원 시설비 2000만원(절충가능)
● 건강문제로 급 양도
011-238-399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
● 부지 : 370평
● 법당 : 10평
● 요사 : 50평
● 가액 : 2억
● 위치 : 서울
● 대지 : 90평
● 법당 : 18평
● 요사 : 20평
● 가액 : 5억 급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소개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합천군 삼가면 진주에서 30분 거리
● 대지 250평, 법당 25평
산신각, 용왕당 각 1평, 요사 3채 75평
● 가액 : 1억 8천만원(절충가능)
011-9571-1710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기장대변입구 주공 아파트앞 2층 건물중 2층 옥상사용
● 평수 : 35평 시설 A급,몸만 오시면 법회가능
● 가액 : 보증금 2000만원 월35만원 시설비 1800만원
010-7223-5677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권 시내
● 평수 : 대지 400평 ● 내용 : 법당, 요사채, 창고
● 특이사항 : 주위가 대형아파트 건설 예정지로 둘러쌓여 포교적지임
● 가액 : 4억 5천(절충가능)
011-269-909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 대지 120평
● 건물 임법당 20평, 후원채따로 있음 방4개 아미타삼존불. 집기일체양도
● 가액:1억1천만원
010-6308-7320

사 찰 안 내
● 위치 : 밀양 IC에서 10분거리 도로포장, 주차 10대 가능
● 특징 : 법당10평 요사채14평 총235평 산신각 및 용왕당 약사불등 경치좋고 양지바른곳
● 가액 : 1억 8천만원
010-6782-2916 (주인직거래 원함)

易理作名法

[당신도 作名大家가 될 수 있다]

이름은 한번 잘 못 지으면 평생 후회하게 되고 다시 개명(改名)해야 하는 불편이 따른다. 시중(市中)에 나와 있는 대개의 작명서(作名書)들이 한결같이 수리(數理)와 오행(五行)에만 맞추어 이름을 짓고 있는데 만약 두 사람의 이름이 똑 같은 수리(數理)와 오행(五行)이라면 두 사람은 똑 같은 이름의 영향력을 받는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필자는 이러한 불합리한 모순을 제거하고 본인의 사주(四柱)와 띠(年支)에 맞추어 짓게 한 것이다. 좋은 이름은 수리(數理)와 오행(五行)은 물론이고, 주역팔괘(周易八卦)에 맞추어 지어야 비로소 좋은 이름을 얻게 된다. 주역(周易)을 모르는 사람도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해설을 하였다. 이 책을 만나는 순간 눈이 활짝 열릴 것이다. 또한 그 사람의 이름이 길명(吉名)인지, 흉명(凶名)인지를 그 자리에서 바로 판단 할 수 있다. 필자는 현재 大邱에서 많은 후학(後學)들에게 작명법(作名法)을 강의하고 있으며, 본서(本書)가 참다운 작명(作名)의 길잡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바이다.

◆ 아래 계좌로 입금하시면 속달우편으로 보내 드립니다.
◆ 역리작명법 (易理作名法) 382쪽 (정가 : 30,000원)
◆ 著者 : 孫中山 (75세) 韓國陰陽學會 會長
◆ 계좌번호 : 농협 100080-56-022361 (손선영)
◆ 주문전화 : 053)324-2468 / 326-4585

‘평상심시도’ ‘즉심즉불’에서 ‘안심입명’을 찾다

<25> 선사(禪師)문하의 거사들(6)



회양 선사 거사들 귀의·활동으로 ‘대혜 선사’ 시호 받아

장정보·권덕여·영고권·귀등·이겸 거사 등 불교에 귀의

하택신회(荷澤神會) 선사의 적극적인 활동에 힘입어 남종선(南宗禪)은 점차 중국 천하에 명성을 떨치게 됐다. 특히 안사(安史)의 난(755~763) 이후에 신회 선사의 업적을 인정 받아 숙종의 귀의를 받으면서 제도(帝都)는 하택종(荷澤宗) 천하가 됐다.

그러나 반란의 영향은 상당히 심각했다. 8년간 지속된 반란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문명을 자랑했던 대당제국을 한순간에 쇠퇴의 길로 접어들게 했다. 기록에 따르면, 반란 전에는 890만 호(戶)에 달했던 인구가 반란 진압 후에는 293만 호로 자그마치 70%의 인구가 감소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은 전체적인 국가경제를 근본적으로 붕괴하게 했고, 그에 따라 주로 사대부 거사들의 재시(財施)에 의존하던 전체적인 불교 역시 커다란 영향을 받았다. 더욱이 반란 이후에도 계속된 민생의 피폐와 정치적 혼란은 뜻있는 불교인들로 하여금 새로운 사상을 희구하게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혜능(慧能) 선사의 또 다른 제자들이 남방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조사선(祖師禪)을 활발하게 펼쳤으며, 이는 당시 문인 사대부 계층의 호응을 받아 서서히 중국 천하에 퍼지게 됐다.

신회 선사 이외에 혜능 선사의 유명한 제자들은 바로 남악회양(南嶽懷讓)과 청원행사(靑原行思) 두 선사들이었다. 회양 선사는 마조도일(馬祖道一)에게 법을 전하고, 도일 선사 문하에서는 백장회해(百丈懷海), 남전보원(南泉普願), 서당지장(西堂智藏), 아호대의(鵝湖大義) 등 기라성 같은 선사들을 배출했다. 행사 선사는 석두희천(石頭希遷)에게 법을 전하고, 희천 선사 문하에서 단하천연(丹霞天然), 약산유엄(藥山惟儼), 천황도오(天皇道悟) 등 풍격이 선명한 선사들을 대거 출현시켰다. 이른바 남종선 남악계(南岳系)와 청원계(靑原系)의 양대 선맥으로, 이 두 계통의 선법이 남방으로부터 크게 맹위를 떨치게 됐다. 따라서 <송고승전(宋高僧傳)> 희천 선사의 전기에는 류가(劉軻) 거사의 비(碑)를 인용해 “강서(江西)의 법주(法主)는 대적(大寂; 마조도일)이요, 호남(湖南)의 법주는 석두 선사로서 서로 왕래함이 끊어지지 않으니, 두 선사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고 적었다. 이러한 마조와 석두 두 선사의 선풍(禪風)은 당시 암울한 정치적 상황으로부터 지식인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제공함으로써 문인 사대부거사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게 됐다. 이는 점차 전국적으로 퍼져 나가게 됐다.

혜능-회양 선사의 법사(法嗣)에 대해 근대 이후로 여러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됐다. 혜능 선사의 입적 시에 거명된 십대제자 가운데 회양 선사의 이름이 빠져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학자들은 ‘원사(遠師)’를 주장하는가 하면, 혜능 선사의 입적 시에는 이미 그 문하를 떠났기 때문에 십대제자의 명칭에서 누락됐다는 추론 등을 주장한다. 이와 관련해 회양 선사 문하에 귀의한 장정보(張正甫; 752~834)와 권덕여(權德輿) 거사들이 찬술한 비명(碑銘)과 탑명(塔銘)에서는 회양 선사의 법계를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다.

장정보 거사는 자가 천방(踐方)으로 남양(南陽) 출신이다. 정원(貞元) 2년 진사에 급제해 동주자사(同州刺史), 소주(蘇州)자사, 호남관찰사 등을 역임했다. <구당서(舊唐書)> 권162에 실린 그의 전기에는 마조 선사의 제자 유관(惟寬)과 회휘(懷暉)의 청으로 회양 선사의 비명과 탑명을 찬술했다고 전한다. 비명은 달마(達摩)의 전심(傳心) 이후 육조(六祖)에 이른 후 남북 양종으로 나뉜 상황을 언급하고, 회양과 혜능 선사의 법을 전하는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비명은 원화(元和) 10년(815) 찬술됐다. 이때는 장정보 거사가 호남관찰사를 역임하던 시기이다.

이에 앞서 권덕여 거사는 홍주선(洪州禪)을 드러내고 마조도일 선사를 찬탄하는 탑명(<전당문(全唐文)> 권501 게재)을 찬술했다. 그 가운데 분명하게 “형악(衡岳)에 회양 선사가 있다. 조계 육조 대사의 가르침을 받았고, 진심(眞心) 설법에 뛰어나 그를 돈문(頓門)이라 했다”며 혜능-회양의 사법관계를 밝히고 있다. 이러한 두 거사들의 비명과 탑명을 근거로 규봉종밀(圭峯宗密) 선사는 <원각경대소초(圓覺經大疏抄)> 권3하에서 드디어 “남악(南岳) 관음대(觀音臺) 화상(회양 선사)은 육조의 제자이다. 본래 법을 펴지 않고 산에 머물면서 수도(修道)했다”라고 하여 혜능-회양의 사법관계를 인정했다. 그런데 이 종밀 선사의 문구를 분석하면, 이미 당시에 회양 선사의 사법관계가 문제됐음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종밀 선사는 회양 선사가 본래 홀로 수행하기를 좋아해서 이름이 알려지지 않아 혜능의 십대제자에 들지 못했음을 변론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회양 선사의 사법문제는 선종사의 연구에 맡기기로 하겠지만, <송고승전>의 회양 선사 전기에는 선사에게 귀의한 사대부 거사로서 형양(衡陽)태수 영고권(令孤權)과 상시(常侍) 귀등(歸登) 등의 이름이 보인다. 영고권 거사는 형양태수의 재임기간에 수시로 선사를 찾아 법을 물었고 재물을 보시해 기재(忌齋)를 개최했다. 이로부터 매년 8월에는 관음기재(觀音忌齋)를 개최했다. 귀등 거사는 회양 선사의 비문을 찬술했지만, 아쉽게도 현존하지 않는다. 이로부터 회양 선사에게도 대다수 사대부 거사들의 귀의가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고, 후에 이러한 거사들의 활동으로 ‘대혜(大慧) 선사’ 시호를 받았다.

실제로 회양 선사가 유명해진 까닭은 불세출의 제자인 마조도일 선사의 행화(行化) 때문이다. 마조 선사는 본래 당 화상(唐和尙; 處寂)에게 출가해 신라의 김 화상(金和尙; 無相)을 사사했다가 개원(開元) 22년(732) 호남의 형산에 머물면서 회양 선사로부터 유명한 ‘벽돌을 갈아 거울이 되겠는가[磨塼成鏡]’는 질책으로 깨달음을 얻었다. 그 후 천보(天寶) 원년(742)에 형산을 떠나 복건성 건양(建陽) 등지에 머물다가 대력(大歷) 4년(769), 강서(江西) 진현(進賢) 개원사(開元寺)에 주석하면서, 약 30여 년 동안 수많은 도속(道俗)을 교화해 이른바 ‘홍주종(洪州宗)’의 선법을 널리 펼쳤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대부 관료 거사들의 귀의를 받았다. 또한 선사에게 귀의한 사대부 거사들의 여러 작용은 홍주종을 더욱 널리 알려지게 했다. 하나의 거대한 세력을 형성하면서 중국불교가 세대교체를 이룰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마조 선사에게 귀의한 거사 가운데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이는 앞에서 언급한 권덕여(759~818) 거사이다. 거사는 자가 재지(載之)이고, 천수(天水) 략양(略陽; 현 甘肅省 泰安) 출신이다. <구당서> 권148에 게재된 거사의 전기에는 벼슬 운이 좋아 예부시랑(禮部侍郞), 예부상서(禮部尙書) 등의 고위관직을 30여 년 역임했다. 특히 문장이 뛰어나 명기(銘紀)의 찬술에는 ‘종장(宗匠)’의 칭호를 들었다고 전한다. 거사가 찬술한 비명에는 스스로 “일찍이 대적(마조) 선사에게서 도(道)를 들었다” “일찍이 대사의 울타리에서 놀았다” “찾아가서 머리를 조아리니, 거칠게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었다” “이미 청량하게 해줬다”라고 적어 마조 선사에게 깨우침을 받았다고 표현했다.

권덕여 거사가 마조 선사를 만난 인연은 바로 마조 선사가 머물던 강서의 관찰사를 역임했던 이겸(李兼) 거사 소개로 비롯된 것이다. 이겸 거사 역시 마조 선사에게 “깊이 마음을 이끌려 가르침을 따른[傾向順敎]”(<송고승전> 권10 도일 선사전) 재가제자였다. 거사는 특히 강서관찰사와 어사대부(御史大夫)를 겸직했기 때문에 마조 선사와의 인연은 더욱 깊었다. <도일선사탑명>에 따르면, 거사는 마조 선사를 모시는데 극도로 예의를 다 했다. 불법을 보호하는데 정성을 바쳤고, 마조 선사의 최후의 말씀을 계승했다고 한다. 이로부터 마조 선사에 대한 거사의 태도가 충분히 짐작된다.

<탑명>과 <송고승전>의 도일 선사 전기, <구당서> 등의 자료로부터 마조 선사에게 귀의한 거사들은 수십 명에 달한다. 그들은 대부분 중앙의 고위관료를 역임한 사대부 거사들이며, 상당수가 문인으로 유명하다. 이러한 거사들이 무엇 때문에 제도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방의 선사에게 매료됐는가? 원인은 바로 앞에서 언급한 당시의 시대상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안사의 난 이후 극심한 정치적 혼란과 경제 파탄, 그리고 점차 기울어 가는 당조(唐朝)의 운명 앞에서 지식인들은 마조 선사가 제공하는 ‘평상심시도(平常心是道)’ ‘즉심즉불(卽心卽佛)’의 선리(禪理)에서 ‘안심입명(安心立命)’의 도리를 찾으려고 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사대부의 심리는 또 다시 중국 거사의 성격을 일변시킨다. 단순히 선사에게 귀의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함께’ 도를 논하고 즐기는 형태로 거사의 성격과 역할이 달라진 것이다. 이러한 거사의 전형이 바로 방 거사(龐居士)다.

■ **김진무**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교수)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판매및 문의
양다원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허
불 전 함
움직이거나 덮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원목 법상
서원불교 문의 043-647-2378, 011-467-1472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STT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악시킨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가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통증 및 마비 종합 치료편 탄생!!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 대상
두통, 경항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두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이외에 600여종으로 병원에 치료가 불가능하였던 종목 수록.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 수정기공크리닉 (일금 75,000원)
• 온라인 번호 : 농협 207176-51-204175 (예금주 :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 1개월 과정 (매월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함, 선착순 8명)
• 참 고 :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크리닉.COM
• 장 소 :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삶에 기적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과 운명을 바 꿔 주 는 “기도의 비밀”
한 번의 인연으로 미래가 보입니다
꼭 이루고자 하는 소망을 위하여 어떤 기도로 어떻게 성취 하는가 ? 대충해도 되는 사람이 있고 해도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다!”기도의 비밀”은 불쌍함에서 벗어나 행복으로 가는 길, 삶의 절망에서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사람을 성공으로 끌어 올릴 수 있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것을 내쫓고 막대한 부를 쌓고 장애물을 극복하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며, 세상살이 장벽에 부딪혀 오갈 때 없는 자신을 스스로 보듬어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여, 잘되는 사람은 더 잘되는 길 안 되는 사람은 되는 길로 현제와 미래의 운명을 바꾸는 마음과학이며,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소원성취 기도 법이다.
화재의 신간
전국 유명 서점에 있습니다.
정담 지음
신국판 | 292쪽 | 15,000원
“기도의 비밀”?
국민은행 562101-01-033348 | 관음정사 02-943-8573
• 찾아오시는길 : 4호선 길음역 3번출구 - 정릉 청수장가는 버스 - 풰미리마트 3거리 - 중앙하이츠아파트 - 관음정사
기도 상담
기도의 비밀이 자신의 인생과 가족평생의 길흉화복을 좌우합니다. 관음정사에 오시면 한번의 인연으로 미래가 보입니다.



佛記2553年 己丑年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대한불교 조 동 종

종 정 **지명 덕찬** 총무원장 대 은 덕 우

승정원장 **달제 지운** 부 원 장 **통원 행원**
승정부원장 **법공 덕룡** 승정부원장 **심월 덕담**
승정위원 **일봉 덕준** **혜공 행진** **청담 덕신**

감찰원장 **덕성 행성** 종회의장 **해륜 행봉**
종회부의장 **운성 행민** 종회부의장 **지원 행조**
교육원장 **광혜 행문** 호법원장 **혜천 행일**
총무부장 **법화 행인** 문화부장 **월봉 행허**
감찰부장 **혜산 행은** 재무부장 **법연 행록**
교무부장 **해권 일우** 포교부장 **소원 행오**
규정부장 **대법 행수** 강원교구 **혜각 행서**
영동교구 **혜공 행진** 경남서부교구 **법광 행철**
영남교구 **청담 덕신** 남해교구 **청운 행오**
경북교구 **운학 덕해** 부산교구 **도일**

대한불교 조동종
삼각산 청련사

종 정
주 지 **지명 덕찬**
신도일동

서울 종로구 평창동 562-1
TEL 02)379-3935

대한불교 조동종
수락산 도선사

총무원장
주 지 **대은 덕우**
신도일동

서울 노원구 상계4동 산154번지
TEL 02)2091-0408

수행정진으로 세상을 향기롭게...
대한불교 조계종
축 서 사

문수선원 보현선원
주지 겸 선원장 **무 여**
신도일동

불교 교양대학. 교양대학원 운영

경북 봉화군 물야면 개단리
TEL 054)672-7579

대한불교조계종 제8교구말사
내 원 암

주 지 **오성민 합장**
신도회장 **김갑순**
신도일동

산좋고 물맑은 내원암에서
공양주보살님모십니다 (보수는 상담후 결정)

경북 예천군 예천읍 상리면 명봉리 500번지
TEL 054)653-1180
(국내지장3보궁중 소백산 제2지장보궁임)

대한불교 조동종
예봉산 금 강 사

승정원장
주 지 **달제 지운**
신도일동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600-15 TEL 031)512-4477

대한불교 조동종
천마산 석 본 사

부원장
주 지 **통원 행원**
신도일동

경기 남양주시 진전읍 팔야리 240-1 TEL 031)573-4848

대한불교 조동종
봉제산 우 암 사

감찰원장
주 지 **행성 덕성**
신도일동

서울 강서구 화곡본동 24-197 TEL 02)2698-6100

대한불교 조동종
약수산 명 덕 사

종회원장
주 지 **해륜 행봉**
신도일동

강원도 홍천군 남면 명동리 471 TEL 033)432-7345

대한불교 조계종
소백산중턱 비 로 사

주 지 **성공**
신도일동

경북 영주시 풍기읍 삼가리 TEL 054)638-5033

대한불교 조계종
흑응산 연 방 사

주 지 **일봉**
신도일동

경북 예천군 예천읍 백전리 208 TEL 054)654-2464

대한불교 조동종
지리산 북 암 사

문화부장
주 지 **월봉 행허**
신도일동

경남 하동군 북천면 옥정리 남포부락 TEL 055)882-5536

대한불교 조동종
금 산 금 옥 사

남해교구원장
주 지 **청운 행오**
신도일동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63

대한불교 조계종
신라고찰 봉 서 사

신도일동

경북 안동시 북후면 옹천리 764 TEL 054)859-5996

대한불교 조계종
한 천 사

신도일동

경북 예천군 감천면 증거리 TEL 054)652-6911

대한불교 조계종
대원사.대원불교대학

주 지 **용담**
신도일동

조계종사회복지재단.선재어린이집

경북 안동시 목성동 57-1 TEL 054-858-2630(대원사)
855-6033(선재어린이집) / 859-7230(불교대학)

지장기도도량
수양산 벽 종 사

회주 **운성**
주지 **홍전**
신도일동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 영암3리449 TEL 054)281-1517/1527



佛記2553年 己丑年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대한불교대승종 종정 주석사찰
약 왕 사
주지 법청 천광
신도일동
■ 경북 영천시 화남면 죽곡리 1092
전화 054)338-4848 / 010-2544-4848

대한불교대승종 총무원장 주석사찰
상 원 사
주지 법진 도일
신도일동
■ 서울 노원구 중계본동 산 140
전화 02)952-1074

대한불교대승종 서울 종무원장
안 정 사
회 주 법암 혜심
주 지 묘 심
부회장 이강숙
총 무 이기순
신도일동
■ 서울 송파구 오금동 85-7

대한불교대승종
도 원 사
주지 영 일
신도일동
■ 서울 강서구 화곡 8동 409-35
전화 02)2695-9895 / 010-3888-4684

대한불교대승종
흥 도 사
주지 법 운
회 장 서운자
총 무 이지희
신도일동
■ 서울 중구 신당동 333-250
전화 02)2234-2198 / 011-9721-2198

대한불교대승종
무 행 선 원
주지 법 산
신도일동
■ 경기도 남양주군 조안면 삼봉리 685-1
전화 011-9117-0668

대한불교대승종 경기 종무원장
대 성 사
주지 법 신
신도일동
■ 경기 가평군 청평면 운무내 하천2리 123
전화 031)584-1541 / 017-260-9796

대한불교대승종
보 림 사
주지 법 해
신도일동
■ 경기 연천군 왕징면 북삼리 산 58-3
전화 031)833-6863 / 017-288-6863

대한불교대승종 총무부장
안 화 정 사
주지 혜 암
신도일동
■ 강원 횡성군 둔내면 두원리 951-1
전화 033)342-3721 / 016-345-0108

대한불교대승종
해 원 정 사
주지 영 현
신도회장 박희복. 장석희
신도일동
■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4동 711-10
전화 031)449-2727 / 016-352-8728

대한불교대승종
약 사 암
주지 법 경
신도회장 김창호
신도일동
■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231 동교빌동 3층
전화 02)927-1121 / 010-9132-2309

대한불교대승종
영 인 사
주지 정 법
신도일동
■ 경기도 안양시 안양1동 622-75
전화 031)442-4979 / 011-9903-4979

대한불교대승종
홍 은 정 사
주지 법 일
신도회장
■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문봉동 29-1
전화 031)977-6319 / 011-779-9211

대한불교대승종
천 왕 사
주지 혜 주
신도일동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3동 515
전화 031)239-9039 / 010-4746-4962

대한불교대승종
천 연 암
주지 법 인
신도일동
■ 경남 마산시 양덕 1동 30-4
전화 055)255-4448 / 011-873-2027

대한불교대승종 충청 종무원장
일 천 지 원
주지 혜 능
신도일동
■ 대전 동구 판암동 239 주공A 406-1201
전화 042)271-3754 / 011-9704-3247

대한불교대승종
약 왕 사
주지 일 산
신도일동
■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371
전화 043)833-4964 / 011-9844-4964

대한불교대승종
정 일 사
주지 정 일
신도일동
■ 충북 옥천군 군북면 환평리 355
전화 043)732-8653 / 011-9404-1219

대한불교대승종 군산 종무원장
덕 춘 사
주지 덕 일
신도일동
■ 전북 군산시 송창동 3-68
전화 063)463-5907 / 011-684-1408

대한불교대승종
순 애 암
주지 지 명
신도일동
■ 전북 군산시 서수면 마룡리 913-1
전화 063)453-2627 / 011-676-7832

대한불교대승종
정 광 사
주지 정 광
신도일동
■ 전북 군산시 옥산면 쌍봉리 1113-31
전화 063)464-4434 / 010-6355-4434

대한불교대승종
지 장 선 원
주 지 원 공
신도회장 권정은
신도일동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177-4
전화 063)246-0807 / 011-671-0807

대한불교대승종
화 심 사
주지 진 덕
신도일동
■ 전남 담양군 봉산면 제월리 450
전화 061)381-1577 / 011-646-1339

대한불교대승종 경남서부 종무원장
천 지 암
주지 일 봉
신도일동
■ 경남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843-8
전화 055)862-6470 / 011-860-6470

대한불교대승종
용 두 암
주지 법 봉
신도일동
■ 경남 의령군 유곡면 오목리 171
전화 055)573-5639 / 011-9501-8834

대한불교대승종 부산 종무원장
대 승 사
주지 청 운
신도일동
■ 부산 기장군 정관면 모전리 산 311
전화 051)728-5370 / 011-9502-7513

대한불교대승종
약 사 암
주지 일 월
신도일동
■ 부산 기장군 철마면 구칠리 358 (철마로 27)
전화 051)722-1922 / 010-5356-0575

대한불교대승종
마 하 정 사
주지 백 암
신도일동
■ 서울 강북구 우이동 140-1
전화 02)995-0056 / 010-6374-8789

대한불교대승종
영 신 사
주지 영 수
신도일동
■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 2동 831-28

대한불교대승종 경북 종무원장
용 문 사
주지 원 도
신도일동
■ 경북 상주시 화북면 용유리 524
전화 054)534-3308 / 011-600-3308